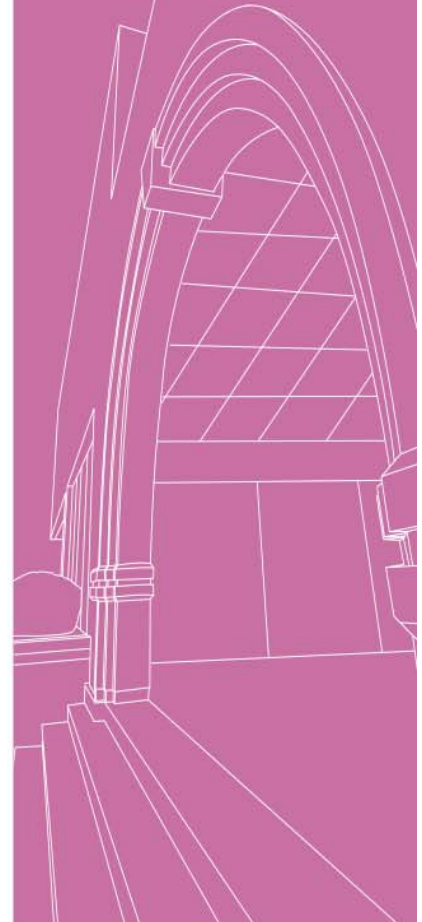


#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재선 · 문유경 · 김영택 · 임연규  
손창균 · 조은주 · 강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2014

연구보고서 - 15

---

##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 the 2014 Annual Report

연구책임자 : 주 재 선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문 유 경 (본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택 (본원 연구위원)  
              임 연 규 (본원 연구원)  
              손 창 균 (동국대학교 교수)  
              조 은 주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강 은 수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주재선·문유경·김영택·임연규·손창균·조은주·강은수(2014).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 발 간 사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의 삶에 다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여성들의 삶과 그 변화의 동향을 종단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여성과 가족에 대한 패널조사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2007년과 2008년에 1차와 2차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2년으로 조사주기를 변경하면서 2010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3~5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패널조사가 일부조사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널자료들은 대부분 기관의 고유 정책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조사들은 여성의 생활세계, 가족의 구조와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성 표본이 크게 부족합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기존의 패널조사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조사로,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 가족의 구조와 변화를 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규모의 여성패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성가족패널 5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여성과 가족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풍부한 종단면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자료를 일반연구자와 공유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학술대회는 1~4차 종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의 학술대회보다 더 풍부한 논문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여성정책 합의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연구보고서는 1~4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 가족관계와 경제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4차 조사 결과에 나타난 패널의 특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여성가족패널의 변화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보고서는 여성가족패널의 이탈

특성과 4차 조사의 가중치 작성 특성과 방법, 쟁점 등을 정리하여 여성가족  
패널자료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의식이나 행위  
양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동태적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중요 이슈가 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더불어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의 객관적 사항과 문제에 의거한 가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에 금년 연구가 가족,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경제활동 촉진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 세밀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길 바라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합니다.

끝으로 2014년 학술대회에서 좋은 논문과 토론을 해주신 학자들과 이 연구의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연구자들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제를 진행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을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과정과 사건(event)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종단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연구조사임.
- 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종단면 자료는 기존 패널조사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이들 조사는 대부분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성 사례수가 부족하여 여성의 하위집단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이들 조사는 여성의 삶을 조사하기 위한 최적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움.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러한 기존 종단조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 2. 연구내용 및 방법

#### □ 2014년 주요 연구내용

- 2014년도의 주요 연구는 1~4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활용한 패널의 심층 분석과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5차 웨이브 본조사 실시를 위한 작업 등이 주요 연구내용임.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 1, 2, 3, 4차 웨이브 조사 자료에 대해 일반인 공개를 실시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학술대회는 SSK 사업단과 한국보건사회학회와 공동주최하고 한국가족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총 28편의 논문이 발표됨.
- 5차 웨이브 조사에 대한 패널 유지관리와 본조사를 실시함. 5차 웨이브 조사는 2014년 현재 관리 중인 패널 9,483가구에 여성 적격가구원 11,234명

과 2014년 분가가구와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됨. 5차 웨이브 조사의 표본유지율은 원표본가구(9,068가구) 대비 72%를 목표로 함.

- 1, 2, 3, 4차 웨이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의 변화 분석과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심층 분석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등 3편에 대해 실시함.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데이터 품질분석과 4차 웨이브 조사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해 소개함. 데이터 품질분석은 1, 2, 3, 4차 웨이브 조사를 걸쳐 나타나는 패널이탈 유형을 분석하여 패널의 이탈 특성을 분석하였고 패널의 특성별 이탈률과 재진입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가중치 부여 방법은 그동안 1~3차 웨이브 조사에 부여했던 방법을 소개하고 4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부여방법과 향후 가중치 부여 시 주의할 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여성가족패널의 국내외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를 발간함. 홈페이지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는 연 2회 발간함.

#### □ 연구방법

- 전문가 집단의 설문지 수정 및 의견 수렴
- CAPI 방식을 이용한 5차 본조사 실시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 여성가족패널 1, 2, 3, 4차 웨이브 조사의 변화 분석과 심층 분석
- 여성가족패널 1, 2, 3, 4차 웨이브 조사 자료 수정과 직업력과 출산력 구축
- 패널자료 통계청 연계 및 업데이트

### 3. 2014년도 연구추진 현황

#### □ 주요 추진 내용

- 2014 여성가족패널조사 착수세미나 개최
- 여성가족패널 4차 웨이브 조사 중단데이터 클리닝 실시
- 5차 웨이브 본조사 설문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5차 웨이브 본조사 실시
- 1, 2, 3, 4차 여성가족패널 본조사 데이터 일반인 대상 릴리즈
-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 2014년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 여성가족패널 분석보고서 발간
-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서비스

####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여성가족패널의 폭넓은 활용과 더불어 연구실적 공유 및 정책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2014년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가 개최됨. 이번 학술대회는 총 9개의 섹션, 28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일, 결혼, 출산, 양육, 정신건강, 보건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 4. 5차 웨이브 여성가족패널조사 개요

### □ 설문지 구성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표는 여성의 삶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크게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되어 조사됨. 조사표는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큰 변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과 추가를 통해 재구성함.
- 가구용 조사표  
가구용 설문지는 가족구성, 일반특성과 함께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음. 가구용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 이래 조사 내용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음. 4차 웨이브 조사와 5차 웨이브 조사는 용어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조사함.
- 개인용 설문지  
개인용 조사표는 응답자의 성장과정과 일반 사항, 결혼과 부부생활,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 자녀교육과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련 가치관, 여성건강 등 개인적 경험과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총 26개의 영역으로 구성함. 5차 웨이브 조사 설문지는 질문의 명확화와 일부 답항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 일자리용 설문지

일자리용 조사표는 신규용과 기존용으로 구분해 조사됨. 일자리용의 기본 구조는 현재 일자리를 확인한 후 일자리가 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일자리에 대한 특징과 구직경험, 일의 만족도, 주된 일을 제외한 일, 차별사항, 모정보호제도사회보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을 파악하며, 일자리가 없는 경우 구직경험을 파악하고 있음. 모든 패널은 첫 조사에서 이전 일자리 경험에 응답하도록 구성했고 교육 및 훈련, 사회보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돼 있음. 5차 웨이브 조사 일자리용 설문지는 용어 등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한 것 이외 특별한 변경내용은 없음.

〈설문지 구성〉

영역	조사내용		
가구용 (공통)	① 가구원 및 가족 ④ 가구 소비	② 주거상태 ⑤ 자산과 부채	③ 가구 소득
여성 개인용 (신규, 기존)	① 학교생활 ④ 결혼과 부부생활 ⑦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 ⑨ 이혼 ⑪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 ⑬ 자녀교육[초, 중, 고 연령대] ⑮ 기혼성인 자녀와의 관계 ⑰ 남편의 부모님과의 관계 ⑲ 남편의 형제자매	② 결혼경험확인 ⑤ 가사노동 ⑧ 별거 ⑩ 사별 ⑫ 자녀교육[미취학 자녀] ⑭ 미혼성인 자녀와의 관계 ⑯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⑳ 본인의 형제자매 ㉑ 가족관련 가치관	③ 미혼여성 ⑥ 남편 일자리 ㉒ 건강
일자리용 (신규, 기존)	①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확인 ②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③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중 지금도 그만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④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확인 ⑤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역	조사내용
	⑥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중 지금은 그만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⑦ 현재의 경제활동 ⑧ 구직경험 ⑨ 일 만족도 ⑩ 교육 및 훈련 ⑪ 사회보험 ⑫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⑬ 차별사항 ⑭ 모성보호제도

□ 조사대상, 표본추출과 추적원칙

○ 조사대상

5차 웨이브 조사의 대상은 4차 웨이브 조사의 대상인 9,483가구의 여성 적격 가구원 11,234명과 5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이 됨.

○ 추적원칙

- 여성가족패널은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 개인을 추적하는 조사로 1차 웨이브 조사 당시 추출된 가구의 적격대상자를 모두 추적해 조사함.
-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이 있을 경우 이들을 모두 조사함.
- 원표본가구에서 원적격가구원이 모두 분가해 해당 가구에 원적격가구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 해당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적격 가구원이 분가해 구성한 가구가 원표본가구를 승계함.
- 신규 응답 대상은 원적격가구원과 동일한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일시적 비동거 포함) 기간에 한해서만 조사하고 해당 가구를 떠나면 추적조사 하지 않음.

□ 조사방법 및 통계품질 관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를 활용하고, 데이터 입력, 리뷰, 전화검증, 데이터 클리닝, 추가조사 총 다섯 단계의 자료 검증을 통한 통계품질 관리를 하고 있음.

□ 패널관리 방법

- 패널관리는 조사 진행 전, 진행 중, 진행 후, 그리고 상시 관리체계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패널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패널관리 방법〉

조사 진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웨이브 조사 시작 전 전화 조사로 조사 안내 및 주소, 연락처, 이사 예정 주소 등 패널 정보 확인</li> <li>- 패널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 내용이 수록된 Info-sheet 출력</li> <li>- 조사 홍보 팸플릿 작성 및 배포</li> </ul>
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협조 공문 발송 및 홍보 자료 지참하여 조사 진행</li> <li>- 조사 협조 편지 발송</li> <li>-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추첨 진행</li> </ul>
조사 진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품 추첨 진행</li> <li>- 감사 편지, 여성가족패널조사 소식지 및 기념품 발송</li> <li>- 주소, 연락처, 이사 예정 주소 등 패널 정보 확인</li> <li>- 4차 웨이브 조사를 통해 확인된 패널 연락처 및 패널 정보 업데이트</li> </ul>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시 집들이 선물 발송 및 생일 축하 카드 발송</li> <li>- 패널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상시적인 패널관리 활동</li> <li>- 중간필드워크 실시(조사가 없는 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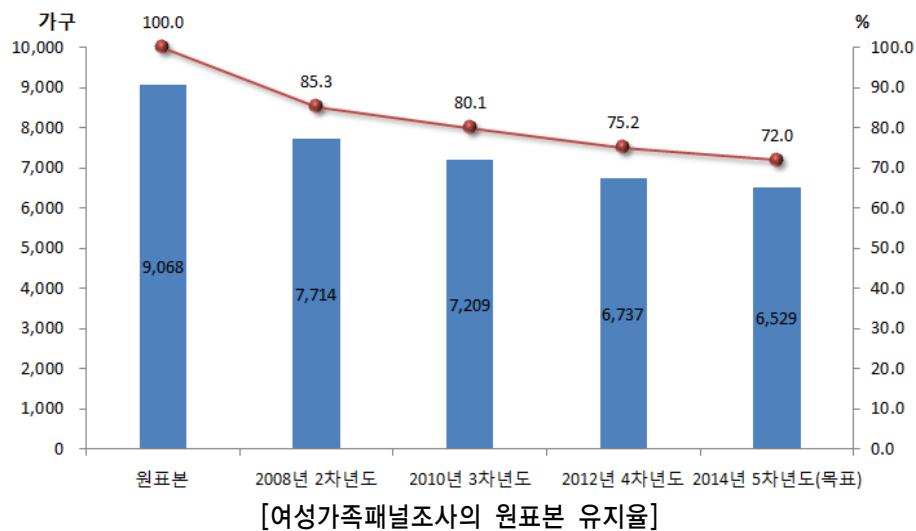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본조사와 중간필드워크의 결과를 통해 패널을 대상별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패널관리 유형은 최근 조사 참여여부를 중심으로 패널유지 안정군, 패널유지 안정 진입군, 패널탈락 위험 진입군, 패널탈락 위험군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패널관리 유형별 구분〉

유형군	내용
패널유지 안정군	• 1·2·3·4차 웨이브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조사 참여에 우호적인 패널군
패널유지 안정 진입군	•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했으며, 1~4회 조사 중 적어도 2회 이상 성공한 패널군
패널탈락 위험 진입군	• 4차 웨이브 조사에서 비성공하였으며, 1~4차 웨이브 조사 중 적어도 2회 이상 비성공하여 향후 패널탈락 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널군
패널탈락 위험군	• 1차 조사에 참여하여 패널로 진입하였으나 2·3·4차 웨이브 조사에서 강력히 거절하여 향후 패널탈락이 유력한 패널군

□ 원표본 유지율

- 4차 웨이브 조사는 9,483가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적격가구원 1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최종 응답자는 6,737가구로 원표본가구 (9,068가구) 대비 75.2%의 유지율을 보임. 5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패널유지율은 현재 72.0%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 5. 1~4차 웨이브 조사 여성가족패널의 가구와 개인 변화 분석

□ 가구 및 가구원의 변화

-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성가구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가구주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17.6%로,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2.7%p가 증가한 수치며, 이는 패널원의 고령화에 따라 남성가구주가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여성에게 가구주가 승계되거나, 여성가구원이 분가하여 1인가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서 0.2%p 증가함. 단독주택은 2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서 1.2%p 상승했음을 보여줌.

- 집을 점유하는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자가 6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세가 18.4%, 보증부 월세가 8.7%를 차지함. 조사차수에 따라 자가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편이고, 전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전세의 감소는 월세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경제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전세공급자들이 전세값을 대폭 상승시키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 경우가 전체가구의 92.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소득인 경우가 10.6%, 부동산소득인 경우가 7.0%로 나타남.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 경우가 감소추세에 있고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이 증가함.
- 4차 웨이브 조사에 조사된 월평균 생활비는 1차 웨이브 조사 대비 17.6%의 증가율을 보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47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함. 기타소비지출이 2순위였으며, 다음으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교육비로 39만원, 교통·통신비로 37만원을 매달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비중별로 살펴보면 자녀사교육비(3.5%p 감소), 식비(0.9%p 감소), 자녀공교육비(0.6%p 감소), 보건의료비(0.3%p 감소), 외식비(0.2%p 감소) 순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기타소비지출(2.6%p 증가), 교통·통신비(1.7%p 증가), 교양 오락비(1.1%p 증가), 가구집기 가사용품비(0.2%p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기타 부채를 합산하여 가구의 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월 원리금을 갚는 가구는 전체의 39.8%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의 중간값은 30만원으로 3차 대비 약 5만원이 증가함. 한편 현재 잔액의 중간값은 1차부터 3차까지 3000만원으로 일정하였다가 4차 들어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이 증가함.
-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은 1차부터 3차까지 꾸준히 교육비가 1순위이고, 교통·통신비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4차 들어서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뀌어 1순위가 교통·통신비, 2순위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남.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순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2순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 결혼 및 부부관계

- 1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의 77.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는 이보다 5.5%p 낮은 71.8%, 3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는 전 웨이브 조사 응답자에 비해 6.6%p 낮은 65.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4차 웨이브 조사 결과,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변화는 지난 조사 이후 6.3%p 증가한 71.5%로 나타남.
-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를 살펴보면, 10점 척도 기준으로 6.5점~7.0점으로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이를 조사 시간별로 살펴보면, 1차 웨이브 조사 시 평균 7.00점에서 2차 웨이브 조사 6.99점, 3차 웨이브 조사 6.55로 다소 하락하였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73점으로 다소 증가함.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단위: 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7.00	6.99	6.55	6.73	-0.01	-0.44	+0.18	-0.27

주: ‘매우 불행하다’가 1점, ‘매우 행복하다’가 10점 기준임.

-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87.6%→91.4%→90.2%→91.1%)’,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79.8%→81.4%→78.4%→80.2%)’,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76.1%→77.9%→75.4%→76.0%)’,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69.5%→71.1%→69.6%→69.4%)’의 순으로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은 ‘자녀 교육’, ‘투자 및 재산 관리’와 ‘가족 내 여가활동’이며, 그 외 ‘본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 ‘남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의 경우 부부의 의견을 참고로 해당 개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비 관리’의 경우 대부분 여성 응답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자녀교육’, ‘투자 및 재산 관리’, ‘가족 내 여가 활동’에 관한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녀 교육’은 1차 47.2%, 2차 43.3%, 3차 45.2%, 4차 40.8%, ‘투자 및 재산 관리’는 1차 55.2%, 2차 59.1%, 3차 58.8%, 4차 54.3%, ‘가족 내 여가 활동’은 2차 웨이브 조사 69.5%, 3차 웨이브 조사 68.9%, 4차 웨이브 조사 66.5%의 추이로 변화함.
- 부부 동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한 달에 1번도 안하거나 1번 정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산책·조깅·등산·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가 갈등을 겪은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지난 한달 동안 그런 적이 없음(88.1%→70.6%→69.2%→76.1%)’이지만, 실질적인 갈등 원인으로 꼽은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16.6%→16.3%→16.4%→12.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16.6%→14.8%→16.9%→11.2%)’로 나타남.
- 가사노동
  - 혼인 경험이 있는 여성 개인의 가사노동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은 가운데, 남편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차 웨이브 조사 결과를 보면, ‘세탁(54.2%)’, ‘식사준비(51.0%)’, ‘설거지(44.1%)’, ‘시장보기(35.3%)’, ‘집안청소(34.5%)’ 순으로 조사됨.
  - 가사 노동 대부분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여성이 혼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1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91.7%,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92.5%, 3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93.6%,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94.2%가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없이 혼자 한다고 응답함.

○ 이혼

- 이혼한 경우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는 1차 웨이브 조사에서 ‘이보다 드물게(3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30.4%)’,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일 년에 한두 번(47.7%)’,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45.0%)’, ‘이보다 드물게(34.4%)’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왕래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등 조사하는 차수 별로 만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73.1%→76.4%→82.6%→78.7%)’가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없음(2.6%→7.3%→3.4%→6.7%)’의 비율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및 출산

- 자녀출산계획의 시기 변화를 살펴보면 1년 이내의 경우, 1차 42.9%, 2차 15.4%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3차 44.9%, 4차 51.6%로 최근 증가 추세임.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 1차 34.2%, 2차 16.7%로 감소되었으나 3차 32.3%로 일시상승 후, 4차 30.6%로 감소되었다. 2년 이후인 경우, 1차 22.8%, 2차 15.3%, 3차 22.8%, 4차 17.8%로 등락을 거듭했음.
- 초·중·고 자녀와 평소에 대화하는 주제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가 1~4차에 걸쳐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에 71.4%, 2차에 65.1%, 3차에 69.2%, 4차에 73.5%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학업 성적과 진학에 대해’가 1~4차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1차에 55.8%, 2차에 52.6%, 3차에 43.2%, 4차에 46.7%로 나타남. 그러나 ‘자녀의 미래희망에 관하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1차에 15.8%에서 2차에 5.2%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3~4차에는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남편과 초·중·고 자녀의 대화 정도를 살펴보면 ‘자주 대화 한다’인 경우, 1차 43.7%, 2차 44.7%, 3차 42.2%, 4차 49.3%로 나타났으며 ‘조금 대화 한다’인 경우, 1차 41.6%, 2차 45.6%, 3차 48.0%, 4차 43.2%로 나타남. 이러한 ‘대화 한다’인 경우의 비율이 ‘대화하지 않는’ 비율 보다 1~4차에 걸쳐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를 살펴보면, 1~4차에 걸쳐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인 경우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1차 38.6%, 2차 41.3%, 3차 38.3%, 4차 34.1%로 나타남. 1~4차에 걸쳐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



계획'이 높게 나타났으며 1차 31.7%, 2차 33.0%, 3차 32.7%, 4차 30.5%로 나타남. 특히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인 경우 1차에 23.9%에서 2차에 8.2%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3차에 7.6%, 4차에 7.3%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준다'인 경우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보다 1~4차에 낮게 나타남.
-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 비율이 '도움을 준다'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움을 준다'인 경우 1차 6.9%, 2차 10.7%, 3차에 10.4%, 4차에 10.8%로 1차에 비해 높아졌음.

○ 부모와의 관계

- 본인 부모님과 어떤 점에서 갈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정도는 4차 조사 시 '전혀 없다'가 77.8%, '별로 없다'가 18.0%로 거의 갈등이 없음을 보여 줌.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갈등이 전혀 없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갈등정도가 약화되고 있음(74.0%→71.2%→76.0%→77.8%).
- 본인 남편과의 문제로 인한 갈등정도를 보면 갈등이 '많이 있다'가 0.1%, 가끔 있다가 1.5%로 갈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도 1차의 60.6%에 비해 4차는 68.2%로 증가하여 갈등이 약화되고 있음(61.9%→63.3%→68.0%→68.2%).
- 시부모님과의 동거 이유로는 4차 조사에 의하면 '시부모님이 연로하여서'가 58.9%로 가장 높고, '남편이 형제 중 맏이여서'가 15.3%로 그 다음으로 높음. 1차와 비교하면 '시부모님이 연로하여서'는 49.7%에서 58.9%로 증가하였으며(49.7%→54.1%→49.2%→58.9%), '남편이 형제 중 맏이여서' 동거하는 비율은 23.3%에서 15.3%로 감소함(23.3%→22.1%→21.1%→15.3%).
-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항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갈등이 전혀 없다'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고, 1차 때와 비교해도 갈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

본 절에서는 1차 웨이브 조사에서 4차 웨이브 조사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제시된 통계표는 종단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것이나, 개인의 일자리 변화추이 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음.

○ 현재의 경제활동

- 1차 웨이브 조사의 취업상태가 계속 유지된 비율이 7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는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97명, 6.5%) 형태였고,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11명, 3.7%),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49명, 4.9%) 등이 1차 웨이브 조사 취업상태에서 변화된 주요 형태로 나타남.

〈취업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자	취업자	2,320	(77.0)	17	(0.6)	197	(6.5)
	실업자	6	(0.2)	1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62	(2.1)	3	(0.1)	149	(4.9)
	소계	2,388	(79.3)	21	(0.7)	349	(11.6)
실업자	취업자	16	(0.5)	0	(0.0)	1	(0.0)
	실업자	4	(0.1)	0	(0.0)	0	(0.0)
	비경제활동인구	5	(0.2)	0	(0.0)	5	(0.2)
	소계	25	(0.8)	0	(0.0)	6	(0.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64	(2.1)	1	(0.0)	8	(0.3)
	실업자	3	(0.1)	0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28	(0.9)	5	(0.2)	111	(3.7)
	소계	95	(3.2)	6	(0.2)	122	(4.1)

주: 1차 웨이브 조사 취업자(3,012명)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함.

- 1차 웨이브 조사에서 실업자인 패널 중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연속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이들 중 2차 웨이브 조사에 취업자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후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한 경우가 23.2%로 가장 높았고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되어 이를 유지하고 있는 패널이 2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1차 웨이브 조사 실업상태(194명)에서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취업상태로 변화된 패널은 118명으로 60.8%로 나타났고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비경제활동상태로 변환된 패널은 36.1%를 차지하였으며 4차 웨이브 조사에 실업상태를 보이는 패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차 웨이브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패널의 일자리 형태 변화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59.3%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임금근로자로 일 자리를 유지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들어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9.5%)로 나타났고 2차 웨이브 조사까지는 임금근로자였지만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7.2%)과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6.5%)의 비중이 다른 형태의 변화보다 높게 나타남.
- 정규직의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1차 웨이브 조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58.9%로 나타남.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정규직 상태로 변경된 패널 비율은 10.9%이었고 비취업 상태로 변경된 비율이 21.4%로 나타남.
- 1차 웨이브 조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964명)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 걸쳐 상용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는 542명(56.2%)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단지, 연속적으로 상용직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다시 상용직으로 일하는 패널의 비율이 9.3%로 나타나서 1차 웨이브 조사 상용직 근로자의 65.6%가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1차 웨이브 조사 상용직 근로자 중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과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이 각각 6.3%와 5.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 만족도
  - 취업자의 일 만족도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비롯한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발전가능성, 복리후생 등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단, 4차 웨이브 조사 소득수준의 만족도는 20.3%로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만족도는 1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직장내 인간관계’로 나타났으나, 3차 웨이브 조사 부터는 ‘직무내용’으로 나타남.

#### 〈일자리 만족도 변화〉

(단위: %)

일자리 특성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소득수준	22.2	19.4	23.3	20.3
고용안정성	36.6	36.7	39.3	38.9
직무내용	39.5	38.6	43.6	46.4
근로환경	35.7	35.3	39.9	44.2
근로시간	35.3	35.4	40.1	42.3
개인발전가능성	28.5	29.0	30.3	30.4
직장 내 인간관계	42.3	39.5	42.1	42.3
복리후생	19.8	20.3	21.5	22.6
전반적 만족도	28.6	28.9	30.9	32.1

주: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에 응답한 비율의 합.

- 구직자의 희망 근로형태는 2/3가량은 전일제를 1/3가량은 시간제를 선호함.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59.5%에서 2차 웨이브 조사 62.4%, 3차 웨이브 조사 66.6%에서 점차 상승하여 4차 웨이브 조사에도 67.4%로, 시간제를 원하는 패널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의 양립 및 직장 내 성차별
  - 여성의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생각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에 대한 비율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92% 이상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응답함. 또한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는 질문에도 80% 이상이 긍정적 응답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긍정 비율 또한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임. 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같이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1/3가량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가정생활이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질문에 대해 2/3가량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질문에 대해 1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는 61.0%가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는 이 보다 약간 상승한 63.2%와 64.7%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상승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58.8%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4차 웨이브 조사에 약간 하락하긴 하였지만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임.

☐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은 고용형태, 임금, 복리후생, 장시간 노동 등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유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연령을 20세로 낮출 필요가 있음.

## 6. 여성가족패널의 심층 분석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 이 연구는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등의 독립변수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율이 높음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냄.

☐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 이 연구는 여성들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임신·출산·양육 요인과 일자리 요인 및 배우자 요인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함. 여성들이 일 자리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임신·출산·양육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영역과 노동시장 영역을 접합시키는 제도적 환경의 효과에 주목하여 분석함.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 여성 내 건강 불평등 측면에서 사회위치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건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폐경, 자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하여 여성의 특이적인 환경과 보건형태와의 상관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함.

## 7. 여성가족패널의 데이터 품질분석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분석
  - 패널이탈 분석은 1~4차 웨이브 조사까지의 원표본 패널을 이용하여 이들 패널의 이탈경험과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함. 1~4차까지의 패널이탈 특성을 분석하고 패널이탈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조사 웨이브를 고려하여 이탈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보여주며, 재진입패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음.
- 여성가족패널의 4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조정
  - 여성가족패널(KLoWF)의 4차 웨이브 가중치는 1차 웨이브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종단면 가중치(longitudinal weight)와 4차 웨이브의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횡단면 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 부여 방법과 향후 가중치 부여 시 고려할 점을 기술함.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2006년~2013년 주요 연구내용 .....	5
나. 2014년 주요 연구내용 .....	6
다. 10차 웨이브 조사(2015년) 과제 수행 계획 .....	8
II. 2014년도 연구추진 및 조사 개요 .....	9
1. 2014년도 연구추진 현황 .....	11
가.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요 연구일지 .....	11
나.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14
2. 5차 웨이브 여성가족패널조사 개요 .....	21
가. 설문지 구성 .....	21
나. 조사대상, 표본추출과 추적원칙 .....	25
다. 조사방법 및 통계품질 관리 .....	27
라. 패널관리 방법 .....	29
마. 원표본 유지율 .....	32
III. 1~4차 웨이브 조사 여성가족패널의 가구와 개인 변화 분석 .....	33
1. 가구 및 가구원의 변화 .....	35
가.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변화 .....	35
나. 가구의 주거 환경 변화 .....	38
다. 가구의 경제 상태 변화 .....	40



2.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	46
가. 결혼 경험 및 부부생활 .....	46
나. 가사노동과 돌봄 .....	53
다. 일시적 비동거, 별거, 이혼 .....	60
라. 출산 및 자녀 .....	68
마. 본인부모님 및 시부모님과의 관계 .....	82
바. 본인 형제·자매 및 남편 형제·자매와의 관계 .....	94
사. 가치관 .....	98
아. 여성 건강 .....	103
3.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 .....	106
가. 현재의 경제활동 .....	106
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	110
다. 일 만족도 .....	139
라. 구직활동 및 교육 훈련 .....	142
마. 사회 보험 제도 .....	146
바. 일·가정의 양립 및 직장 내 성차별 .....	147
4.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60
 <b>IV.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심층 분석</b> .....	 163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	165
가. 서론 .....	165
나. 기존 연구의 검토 .....	165
다. 자료 분석 결과 .....	168
라. 결론 .....	181
2.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	182
가. 서론 .....	182
나.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경제활동 .....	183
다. 연구방법 .....	188

라. 분석 결과 .....	191
마. 결론 .....	198
3.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	199
가. 서론 .....	199
나. 연구방법 .....	201
다. 연구 결과 .....	205
라. 결론 .....	213
<b>V.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 품질분석 .....</b>	<b>217</b>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분석 .....	219
가. 서론 .....	219
나.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특성 .....	220
다. 이탈경험모형의 분석 결과 .....	233
라. 재진입 패널의 특성 분석 .....	238
마. 결론 .....	243
2. 여성가족패널의 4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조정 .....	249
가. 4차 웨이브 가중치 작성과정 .....	249
나. 4차 웨이브 가중치 조정과정 .....	251
다. 5차 웨이브 가중치 조정과정의 고려사항 .....	259
<b>■ 참고문헌 .....</b>	<b>261</b>
<b>■ 부    록 .....</b>	<b>267</b>
<부록 1> 직업력 데이터 구축 과정 .....	269
<부록 2> 출산력 데이터 구축 과정 .....	283
<부록 3>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학술연구(2013~2014년 현황) ..	290
<b>■ Abstract .....</b>	<b>293</b>

## 표 목 차

<표 II-1>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프로그램 .....	14
<표 II-2> 가구용 설문지 변경 내용 .....	22
<표 II-3> 5차 웨이브 조사 개인용 설문지의 주요 변경내용 .....	23
<표 II-4> 설문지 구성 .....	24
<표 II-5> 패널관리 방법 .....	30
<표 II-6> 패널관리 유형별 구분 .....	30
<표 III-1> 가구의 전체가구원수 분포 .....	35
<표 III-2> 가구주 성별 .....	36
<표 III-3> 가구주 성별 가구 내 장기요양환자 분포 .....	36
<표 III-4> 장기요양환자 돌보는 사람 분포 .....	37
<표 III-5> 가구주 성별 현재 일자리 유무 .....	37
<표 III-6>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 .....	38
<표 III-7> 주택유형 변화 .....	38
<표 III-8> 점유형태 .....	39
<표 III-9> 가구소득 원천 보유현황 .....	40
<표 III-10> 가구 월평균 총소득(세전) .....	41
<표 III-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가구 현황 .....	41
<표 III-12> 사회보험 수령 현황 .....	41
<표 III-13> 항목별 생활비 지출 금액 .....	43
<표 III-14> 저축 현황 .....	44
<표 III-15> 부채 현황 .....	44
<표 III-16> 현재 경제상태 .....	45
<표 III-17>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 .....	45
<표 III-18> 가계 경제 총괄 현황 .....	46
<표 III-19> 결혼 경험 변화 .....	47

<표 III-20> 결혼 의향 변화 .....	47
<표 III-21> 미혼의 가사시간(집안일 하는 시간) .....	48
<표 III-22>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	48
<표 III-23> 남편에 대한 인식 변화 .....	49
<표 III-24> 가족 내 의사결정 .....	50
<표 III-25> 부부 동반 활동 .....	52
<표 III-26> 부부 갈등 원인 변화 .....	53
<표 III-27> 본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정도 변화 .....	54
<표 III-28> 부부간의 가사노동 시간 변화 .....	56
<표 III-29>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변화 .....	56
<표 III-30>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 존재 여부 변화 .....	57
<표 III-31>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 .....	57
<표 III-32> 가사도우미 보수지급 여부 변화 .....	58
<표 III-33> 월 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과 실 지급 보수액 변화 .....	59
<표 III-34> 본인이 하는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액 및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월평균 소득액 변화 .....	60
<표 III-35> 일시적 비동거 여부 및 이유 .....	60
<표 III-36> 일시적 비동거에서 가장 힘든 점 .....	61
<표 III-37> 주된 별거 사유 .....	62
<표 III-38> 별거중이거나 별거했던 남편과의 사이의 미성년자녀 유무 ...	62
<표 III-39> 별거중이거나 별거했던 남편과의 미성년자녀 수 .....	63
<표 III-40> 미성년자녀 양육비 주부담자 .....	63
<표 III-41> 별거 시 가장 힘든 점 .....	63
<표 III-42> 주된 이혼 사유 .....	64
<표 III-43>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64
<표 III-44>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서의 미성년자녀 비율 .....	65
<표 III-45> 이혼 후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 변화 .....	66
<표 III-46> 본인과 전남편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비교 ...	66
<표 III-47> 이혼 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 변화 .....	67

<표 III-48>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의 미성년자녀 유무 .....	67
<표 III-49> 사별 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 변화 .....	68
<표 III-50> 지난 조사년도 이후 출산 경험 변화 여부 변화 .....	68
<표 III-51> 자녀출산계획 시기 변화 .....	69
<표 III-52> 향후 자녀입양 계획 유무 변화 .....	69
<표 III-53> 현재 같이 살고 있는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 .....	70
<표 III-54>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초·중·고 자녀 수 .....	70
<표 III-55> 초·중·고 자녀와 평소에 대화하는 주제 .....	70
<표 III-56> 초·중·고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는 문제 .....	72
<표 III-57> 남편과 초·중·고 자녀의 대화 정도 .....	73
<표 III-58> 미혼 성인 자녀 수 .....	73
<표 III-59> 미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 .....	74
<표 III-60> 미혼 성인 자녀의 문제들에 대한 견해 .....	75
<표 III-61> 미혼 성인 자녀와의 의견 충돌 .....	76
<표 III-62>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 .....	77
<표 III-63>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월평균 금액 .....	77
<표 III-64>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 .....	78
<표 III-65>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월평균 금액 .....	78
<표 III-66> 기혼 성인 자녀 수 .....	78
<표 III-67> 기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 .....	79
<표 III-68>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 .....	80
<표 III-69>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월평균 금액 .....	80
<표 III-70>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 .....	81
<표 III-71>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월평균 금액 .....	81
<표 III-72> 돌봐야 할 미취학 손자녀 유무 변화 .....	81
<표 III-73> 평일에 손자녀를 돌보는 하루 평균 시간 .....	82
<표 III-74> 손자녀 돌봄의 대가로 돈을 받는지 여부 .....	82
<표 III-75> 손자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월평균 금액 .....	82
<표 III-76> 본인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	83

<표 III-77>	본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 .....	83
<표 III-78>	부모님과 동거에 따른 본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 여부 ....	84
<표 III-79>	본인 부모님과의 대화주제 .....	85
<표 III-80>	본인 부모님과의 갈등 .....	86
<표 III-81>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 .....	88
<표 III-82>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월평균비용 .....	88
<표 III-83>	시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	89
<표 III-84>	시부모님과의 동거 이유 .....	89
<표 III-85>	시부모님과 동거에 따른 본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 여부 ...	90
<표 III-86>	시부모님과의 대화주제 .....	91
<표 III-87>	시부모님과의 갈등 .....	91
<표 III-88>	시부모님을 돌보는 사람 .....	93
<표 III-89>	시부모님을 돌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	94
<표 III-90>	본인의 형제·자매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지 여부 .....	94
<표 III-91>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지 여부 .....	95
<표 III-92>	본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이나 집안일 상의 여부 .....	95
<표 III-93>	본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공유 여부 .....	96
<표 III-94>	남편의 형제·자매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지 여부 .....	96
<표 III-95>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지 여부 .....	97
<표 III-96>	남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이나 집안일 상의 여부 .....	97
<표 III-97>	남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공유 여부 .....	98
<표 III-98>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	99
<표 III-99>	가족 및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	100
<표 III-100>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102
<표 III-101>	연령·학력별 현재 건강 상태 .....	103
<표 III-102>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 .....	104
<표 III-103>	연령·학력별 의료 서비스 이용 .....	104

<표 III-104> 음주에 대한 인식 .....	105
<표 III-105> 연령별 여성응답자의 체형 .....	105
<표 III-106> 연령별 최근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여부 .....	106
<표 III-107> 경제활동상태별 변화 .....	107
<표 III-108> 취업자의 상태변화 .....	108
<표 III-109> 실업자의 상태변화 .....	109
<표 III-110>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변화 .....	110
<표 III-111> 일자리형태별(임금/비임금/특수고용직) 비중 .....	111
<표 III-112> 임금근로자의 상태변화 .....	112
<표 III-113> 비임금근로자의 상태변화 .....	113
<표 III-114>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상태변화 .....	114
<표 III-115>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비중 비교 .....	115
<표 III-116>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	116
<표 III-1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	117
<표 III-118> 일자리 구분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중 .....	118
<표 III-119> 상용직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	119
<표 III-120>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	120
<표 III-121> 전일제/시간제 비중 비교 .....	121
<표 III-122> 전일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	122
<표 III-123> 시간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	123
<표 III-124> 간접고용 비중의 변화 .....	125
<표 III-125> 직접고용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	125
<표 III-126> 간접고용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	127
<표 III-127> 주 평균근로시간 .....	128
<표 III-128> 주 평균근로시간 분포 .....	129
<표 III-129> 월평균 급여액 분포의 변화 .....	129
<표 III-130> 주요 복리후생 본인 혜택 비율 변화 .....	132
<표 III-131> 향후 이직의향 변화(임금근로자) .....	132
<표 III-132> 비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의 변화 ...	133

<표 III-133> 주 평균근로일수 분포의 변화 .....	134
<표 III-134> 일 평균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	135
<표 III-135> 자영업자의 월평균 본인소득 변화 .....	135
<표 III-136>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할 의향(자영업자) .....	136
<표 III-137> 무급가족종사자의 이직의향과 창업의향 변화 .....	137
<표 III-138>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	138
<표 III-139> 회사에서 받은 월평균 수입 분포의 변화 .....	138
<표 III-140> 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의 변화 .....	139
<표 III-141> 일자리 만족도 변화 .....	140
<표 III-142> 현재 일자리와 교육 수준과의 적합 정도 .....	141
<표 III-143> 현재 일자리와 업무 능력 수준과의 적합 정도 .....	141
<표 III-144> 조사 당시 최근 1개월 동안 구직활동 경험 여부 변화 ...	142
<표 III-145> 희망하는 근로 형태 .....	142
<표 III-146>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	143
<표 III-147> 희망하는 월평균 수입 .....	144
<표 III-148> 구직활동 시 겪은 어려움 .....	145
<표 III-149> 조사 당시 최근 1년 동안 교육 훈련 경험 여부 변화 ....	145
<표 III-150>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146
<표 III-151> 사회 보험 제도 가입 현황 .....	147
<표 III-152>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화 .....	148
<표 III-153>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	149
<표 III-154>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인식 .....	150
<표 III-155> 산전 후 휴가 인지 여부 .....	150
<표 III-156> 지난 조사 이후 산전 후 휴가 신청 경험 유무 .....	151
<표 III-157> 지난 조사 이후 산전 후 휴가 후 고용 상 변동 유무 ....	151
<표 III-158> 육아휴직 인지 여부 .....	152
<표 III-159> 지난 조사 이후 육아휴직 신청 경험 유무 .....	152
<표 III-160>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이유 .....	153
<표 III-161> 지난 조사 이후 육아휴직 후 고용상 변동 유무 .....	154



<표 III-162> 직장 내 성차별 정도 .....	155
<표 III-163>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시 차별 경험 여부 .....	155
<표 III-164>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시 차별 형태 .....	156
<표 III-165> 임금(월급, 보수) 지급 시 차별 경험 여부 .....	157
<표 III-166> 임금(월급, 보수) 지급 시 차별 형태 .....	157
<표 III-167>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시 차별 경험 여부 .....	158
<표 III-168>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시 차별 형태 .....	158
<표 III-169>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 경험 여부 .....	159
<표 III-170>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 형태 .....	159
<표 III-171> 기타 차별 경험 .....	160
<표 IV-1> 조사시점별 경력유지 유형 .....	170
<표 IV-2> 혼인상태별 경력단절을 .....	173
<표 IV-3> 혼인상태와 고용형태에 따른 경력단절을 .....	174
<표 IV-4> 출산여부별 경력단절을 .....	175
<표 IV-5> 출산이벤트 유무와 고용형태에 따른 경력유지율 .....	175
<표 IV-6> 경력유지 집단과 경력단절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77
<표 IV-7> 변수정의와 값 .....	178
<표 IV-8> 경력단절 독립·종속 변수들의 상관관계 .....	179
<표 IV-9> 경력단절 요인의 다변량 회귀분석 .....	180
<표 IV-10> 변수의 정의와 측정 .....	190
<표 IV-11> 복리후생 항목 .....	191
<표 IV-12>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	192
<표 IV-13> 응답자의 일자리 지속 여부 .....	193
<표 IV-14>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일자리, 배우자의 특성 .....	193
<표 IV-15>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I) .....	195
<표 IV-16>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II) .....	196

<표 IV-17>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III) .....	197
<표 IV-18> 건강행위별 현황 분포, 4차 웨이브 조사(2012년) .....	204
<표 IV-19> 연령별 3개 이상의 건강행위 문제 여부 .....	206
<표 IV-20> 학력수준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	207
<표 IV-21> 소득수준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	208
<표 IV-22> 직종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	209
<표 IV-23> 주관적 건강상태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	210
<표 IV-24>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와 자살생각경험 여부, 4차(2012년) ·	210
<표 IV-25>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와 폐경 경험 여부, 4차(2012년) ·	211
<표 IV-26>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특이적 건강상태가 성인 여성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4차(2012년) .....	212
<표 V-1> 패널이탈 분석을 위한 유형구분 .....	223
<표 V-2> 패널응답 유형 및 사유별 이탈여부 .....	224
<표 V-3> 시도별 이탈여부 .....	226
<표 V-4> 주택유형별 이탈여부 .....	227
<표 V-5> 점유형태별 이탈여부 .....	228
<표 V-6> 월평균 가구소득별 이탈여부 .....	228
<표 V-7> 동거가구원수별 이탈여부 .....	229
<표 V-8> 응답자 연령대별 이탈여부 .....	230
<표 V-9> 응답자 혼인상태별 이탈여부 .....	230
<표 V-10> 응답자 교육정도별 이탈여부 .....	231
<표 V-11> 응답자 취업상태(종사상지위)별 이탈여부 .....	232
<표 V-12> 응답자 건강상태별 이탈여부 .....	232
<표 V-13> 패널이탈 유형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활용 차수 .....	235
<표 V-14> 패널이탈 성향 분석 결과 .....	237
<표 V-15> 재진입 유형 분류 .....	239
<표 V-16> 재진입 패널의 진입 전 이탈사유 .....	240

<표 V-17> 재진입 직전 이탈사유별 재진입 비율 .....	240
<표 V-18> 중간필드워크효과 분석 .....	242
<표 V-19> 3차 웨이브 조사 패널의 이탈사유별 중간필드워크 성공여부에 따른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 비율 .....	243
<표 V-20> 이탈성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246
<표 V-21> 4차 웨이브 패널의 웨이브 무응답 패턴 .....	252
<표 V-22> 3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 중 4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 응답확률 추정결과 .....	254
<표 V-23>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P04WGL) 분포 ..	255
<표 V-24>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종단, 횡단면 가중치 .....	257
<표 V-25>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횡단면 가중치 분포 .....	257
<표 V-26> 4차 웨이브 횡단면 가구 가중치 분포 .....	258

## 그 림 목 차

[그림 II-1] 실사조사 통계 품질 관리 과정 .....	28
[그림 II-2] 패널관리 유형별 분포 .....	31
[그림 II-3] 본 조사 표본 유지율 .....	32
[그림 III-1] 결혼만족도 변화 추이 .....	49
[그림 III-2] 부부 간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	56
[그림 III-3] 본인이 하는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액 및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월평균 소득액 변화 추이 .....	59
[그림 III-4] 이혼한 전남편 사이 자녀 유무 .....	65
[그림 III-5] 주요 복리후생 제공여부 변화 .....	130
[그림 IV-1] 조사시점별 경력유지 규모 .....	170
[그림 IV-2] 결혼을 전후한 경력단절 발생건수 .....	171
[그림 IV-3]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발생건수 .....	172
[그림 IV-4]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1963~2013) .....	184
[그림 IV-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1983~2013) .....	185
[그림 IV-6] 모의 연령별 출산율(1997~2011) .....	185
[그림 IV-7] 합계출산율과 여성 노동참가율(1970, 1990) .....	186
[그림 IV-8] 합계출산율과 여성 노동참가율의 상관관계(1960-1997) ....	187
[그림 V-1] 본 조사 표본 유지율 .....	220
[그림 V-2] 패널이탈 및 재진입 경로 및 분포 .....	221
[그림 V-3] 차수별 이탈자의 이탈 사유 .....	222
[그림 V-4] Decision-Tree의 EXHAUSTIVE CHAID를 이용한 설명변수의 설명력 분류 .....	247
[그림 V-5] 가중치 종류 .....	249
[그림 V-6]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중단면 가중치 지역별 분포 .....	256

## 부 표 목 차

<부표 1-1> 직업력 데이터의 구성변수 .....	270
<부표 1-2> 일자리 설문 구조 설명 .....	271
<부표 1-3> jobcens(일자리 지속여부)와 jobtype(일자리 구분) 생성 .....	273
<부표 1-4> jobnum(일자리 번호) 생성 .....	273
<부표 1-5> 정보 변수 생성 .....	274
<부표 1-6> 직업력 데이터 예시 .....	280
<부표 2-1> 출산력 변수 설명 .....	284
<부표 2-2> 출산력 데이터 예시 .....	288

# I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sup>1)</sup>

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있어 주요 이슈가 되는 여성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은 항상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화들은 단순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요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구조,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사회 및 문화적인 의식 등 노동시장 외부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조사는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정책효과와 사회적 변화에 대해 그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횡단면 조사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연립성 문제 등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할 수 없어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에 큰 한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자료 구축은 단순히 횡단면 조사(Cross-Section Survey)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형태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및 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규모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의 변화와 일자리 경험과, 가족 관계 및 가치관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가족형성 과정과 이벤트(event)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 조사이다(주재선 외, 2013).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1차 웨이브 조사를 시작했으며,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전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단면 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여성가족패널은 여성·가족정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단자료이다. 기존 패널조사에도 여성의 삶을 추적하고 그 변화를 분

1) 패널조사는 초기 구축 시 확정된 원가구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패널조사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자료 구축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장에서 서술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은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2012)』 연구보고서(p.3~7)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석할 수 있으나, 이들 조사는 여성의 전반적 삶과 그 하위 수준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연구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표본으로 조사되어 전 생애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종단자료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둘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과 가족의 역동적 측면을 포착하는 조사이다. 기존의 조사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노동시장 수급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일, 가족, 여가의 조사내용도 성인지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에 여성정책의 수립과 연구를 위해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이들 영역의 특성과 연관성을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요구됐다. 따라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일과 가족, 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과 여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의 기존 범주 구분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역동적 삶의 궤적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에 대해 역사성과 주기성을 갖고 종단면 자료형태를 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실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별 구분에 의한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이며 주기적인 추적조사는 여성 개인을 둘러싼 가족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의 행위양식이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수집 및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여성의 삶과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다(주재선 외, 2012).

##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보고서는 2006년부터 해마다 발간되어 온 관계로 먼저 지난 연도 보고서들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2014년 연구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2006년~2013년 주요 연구내용

연도	주요 연구내용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존에 실시되었던 여성관련 패널의 구성내용 및 연구방법, 조사방식 등 패널조사의 안착요건 분석</li> <li>○ 외국의 여성관련 패널의 구성내용 및 연구방법, 관련 연구주제 분석</li> <li>○ 표본 틀, 패널 구축기간, 조사대상, 추적 원칙, 조사방식 및 관리 방법 등 패널 조사의 기본 구조 논의 및 잠정 확정</li> <li>○ 대표성 제고를 위한 표본 추출 및 조사 설계 연구</li> <li>○ 조사 항목 선정 및 질문지 개발</li> <li>○ CAPI 조사방법과 패널조사 자료 DB 구축 방안에 대한 사전 점검</li> <li>○ 500가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웨이브의 예비조사 결과 분석</li> <li>○ 본조사 설문지 내용 수정·보완</li> <li>○ CAPI 설문 프로그램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li> <li>○ 패널 포럼 개최</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발간(반년간지)</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li> <li>○ 2차 웨이브 본조사 실시</li> <li>○ 1차 웨이브 조사 기초분석</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발간(반년간지)</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웨이브 본조사 자료에 대한 외부 공개</li> <li>○ 2차 웨이브 본조사 완료 및 데이터 클리닝 등</li> <li>○ 여성가족패널조사 국문 홈페이지 구축</li> <li>○ 제1회 여성가족패널 학술 심포지엄 개최</li> <li>○ 2차 웨이브 조사 본조사의 기초분석</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발간(반년간지)</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웨이브 본조사 자료에 대한 외부 공개 :현재 일자리 파일, 직업력 파일, 출산력 파일 구축</li> <li>○ 3차 웨이브 본조사 설문지 수정 :일자리 부분 직업력 파일 생성을 위해 구조변경</li> <li>○ 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li> <li>○ 해외 패널조사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비교연구 토대 마련 :호주의 WHA 등 유사 해외 패널조사기관 방문을 통해 국제비교연구의 토대 마련</li> </ul>

연도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웨이브 조사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li> <li>○ 패널 포럼</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반년간지)</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웨이브 본조사 완료</li> <li>○ 1, 2, 3차 웨이브 조사 자료의 전문가 대상 공개</li> <li>○ 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 심포지엄 개최</li> <li>○ 중간 필드워크(interim fieldwork) 실시</li> <li>○ 기초분석보고서 발간</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반년간지)</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차 웨이브 본조사 자료에 대한 일반인 공개</li> <li>○ 4차 웨이브 조사 본조사 설문지 수정: 보건문항 추가</li> <li>○ 4차 웨이브 조사 설문지에 대한 영문화 실시</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반년간지)</li> <li>○ 패널포럼 개최</li> <li>○ 제3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li> <li>○ 1, 2, 3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이용한 심층 분석</li> <li>○ 여성가족패널 영문 홈페이지 구축</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 4차 웨이브 본조사 자료의 국내외 전문가 대상 공개</li> <li>○ 제3회 여성가족패널 학술 심포지엄 개최 : 국제 학술 심포지엄(여성건강 관련 해외 전문가 초청)</li> <li>○ 중간 필드워크(interim fieldwork) 실시</li> <li>○ 4차 웨이브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li> <li>○ 모든 차수의 설문지 및 지침 등 관련 자료의 영문화 실시</li> <li>○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반년간지)</li> <li>○ 패널포럼 개최</li> </ul>

## 나. 2014년 주요 연구내용

2014년도의 주요 연구는 1~4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활용한 패널의 심층 분석과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5차 웨이브 조사 본조사 실시를 위한 작업 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 2, 3, 4차 웨이브 조사 자료에 대해 일반인 공개를 실시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SSK 사업단과 한국보건사회학회와 공동주최하고 한국가족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총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가족양립,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여성건강 등 최근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대부분의 주제들이 발

표되었고 국내외 다양한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있었다.

둘째, 5차 웨이브 조사 본조사에 대한 패널 유지관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 웨이브 조사는 2014년 현재 관리 중인 패널 9,483가구에 여성 적격가구원 11,234명과 2014년 분가가구와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5차 웨이브 조사의 표본유지율은 원표본가구(9,068가구) 대비 72%를 목표로 한다.

셋째로는 1, 2, 3, 4차 웨이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의 변화 분석과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변화 분석은 1~4차 웨이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부문을 가구, 개인의 삶, 일자리 변화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적 변화와 패널의 종단면적 변화를 함께 분석하였다. 심층 분석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번째 주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로서,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등의 독립변수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율이 높음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두 번째로는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생애경험과 일자리요인 및 배우자요인이 여성들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여성 내 건강불평등 측면과 폐경, 자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하여 여성의 특이적인 환경과 보건형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데이터 품질분석과 4차 웨이브 조사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데이터 품질분석은 1, 2, 3, 4차 웨이브 조사를 걸쳐 나타나는 패널이탈 유형을 분석하여 패널의 이탈 특성을 분석하였고 패널의 특성별 이탈률과 재진입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중치 부여 방법은 그동안 1~3차 웨이브 조사에 부여했던 방법을 소개하고 4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부여방법과 향후 가중치 부여 시 주의할 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로는 여성가족패널의 국내외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를 발간했다. 홈페이지

지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는 연 2회 발간하고 있는 정보지이다.

이외에도 2014년도에는 5차 웨이브 조사 설문지, 데이터, 지침에 대한 영문화 수정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의 패널분석 역량강화와 2015년도 패널조사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패널포럼을 개최했다.

#### **다. 10차 웨이브 조사(2015년) 과제 수행 계획**

5차 본조사 완료.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 가중치 부여

1, 2, 3, 4, 5차 본조사 자료의 전문가 대상 릴리즈

관련 연구자 대상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 심포지엄 개최

기초분석보고서 발간(2014년 5차 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정책 활용 제안서 발간

5차 본조사 자료의 외부 릴리즈 준비

6차 본조사를 위한 패널관리 및 중간필드워크 실시

6차 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표본 추가 방법론 연구

6차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 수정(향후 10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변경)

## Ⅱ

# 2014년도 연구추진 및 조사 개요

- |                       |    |
|-----------------------|----|
| 1. 2014년도 연구추진 현황     | 11 |
| 2. 5차 웨이브 여성가족패널조사 개요 | 21 |



## 1. 2014년도 연구추진 현황

### 가.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요 연구일지

#### 1) 2014 여성가족패널조사 착수세미나 개최

일시 및 장소 : 3. 14(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발표자 :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참석자 : 김현원(여성가족부 사무관)

유수덕(통계청 사무관)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논의 내용

- 타 자료 대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차별성 부각 방안에 대한 논의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정책적 활용방안 및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
- 여성가족패널조사 2차 패널(10차 웨이브 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
- 패널 유지를 위한 차별화 방안 및 패널 탈락 위험도가 높은 패널 관리 방안 논의

#### 2) 4차 웨이브 조사 종단데이터 클리닝 실시

여성가족패널 4차 웨이브 조사 데이터 종단면 클리닝 실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가공변수(직업력, 출산력 등) 추가 생성

변수통일 과정을 통해 변경된 데이터의 코드북 작성 및 설문지 검토

#### 3) 5차 웨이브 본조사 설문제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5. 27(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당동 지하 1층 동아리방

발표자 :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참석자 : 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논의 내용

- 5차 웨이브 조사 설문 연구진 리뷰 결과에 따른 자문 및 검토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정책적 활용방안 및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
- 보수적인 수정(어법상 어색한 문장 수정 및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 4) 5차 웨이브 본조사 실시

CAPI 프로그램 ‘블레이즈(Blaise)’ 라이선스 갱신

5차 웨이브 설문지 리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본조사 면접원 교육

#### 5) 1, 2, 3, 4차 여성가족패널 본조사 데이터 일반인 대상 릴리즈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9월 26일) 발표자 및 기타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일반인 릴리즈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Merge 파일 제공 및 1~4차까지의 코드를 4차 설문지에 태그하여 제공

기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맞춤 제공 서비스 실시

#### 6)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6. 25(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하 대회의실

참석자 : 노영희(여성가족부 사무관)

송현주(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천영민(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논의 내용

- 데이터 릴리즈(6월 9일)에 대한 준비과정 보고
- 5차 웨이브 조사 실시 과정(설문지 리뷰, 면접원 교육, 조사 일정)에 대한 논의 및 보고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계획 보고 및 주제 및 연구자 모집 방법에 관한 논의

## 7)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15호(6월 발간) 및 16호(12월 발간) 발간 및 배포
- 여성가족패널 5차 웨이브 실사 과정 홍보 및 추진 과정 안내
- 4차 웨이브 조사 종단 분석 결과 및 심층 분석 결과 제공
- 여성가족패널 가중치 적용 및 데이터 품질 관리에 관한 연구 결과 제공

## 8) 2014년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9. 26(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SSK 사업단 및 한국보건사회학회 공동주최 및 한국가족학회의 후원  
을 통해 풍성한 학술 발표의 장 마련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총 28개의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1-나 참조)

## 9) 여성가족패널 분석보고서 발간

- 1~4차 웨이브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분석 결과 보고서
- 여성가족패널 가구의 특성 및 경제상태 등을 분석
- 여성개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생활, 가족관계, 건강상태, 일자리 현황 등에 대한 분석
- 1~4차 웨이브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분석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분석

## 10)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서비스

여성가족패널 국문 및 영문 웹사이트 관리

-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 업데이트 및 관련 기사 게시
- 국문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 관리 현황 파악
- 여성가족패널의 행사 및 일정 안내

여성가족패널 영문 웹사이트 관리

- 여성가족패널 영문 자료 업데이트 및 관련 기사 영문화 후 게시
- 웹사이트 오류사항 점검 및 보완
- 여성가족패널의 행사 및 일정 영문 안내

여성가족패널 웹사이트 및 브리프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술 연구 현황 목록 및 원문 보기 링크 제공(<부록 3> 참고)

## 나.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본원에서 주최하는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는 여성가족패널의 폭넓은 활용과 더불어 연구실적 공유 및 정책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2008년부터 진행되었고, 2014년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일, 결혼, 출산, 양육, 정신건강, 보건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으며,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 공모된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II-1〉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9시 30분~5시 장 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공동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SSK사업단 “하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형 연계 팀”, 한국보건사회학회 후 원 : 한국가족학회		
9:30 ~10:00	등 록	
10:00 ~10:45	목련관	개회식 시상식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대학원 논문 경진 부문 시상 발 표 : 여성가족패널(KLOWF)의 개관 및 표본이탈 분석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 1	
10:50 ~ 12:20	제 1 주제 : SSK사업단 “하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형 연계” 팀 특별 섹션 사 회 : 이명희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여성경력단절결정요인에서 기업의 역할 발표 :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토론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률 차이와 근로안정성과의 관계분석 발표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홍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워킹맘의 고용형태별 일·가정양립 결정요인과 해법 발표 :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윤경희 (주식회사 인터치 대표이사)
	제 2 주제 : 한국가족학회 특별 섹션 사 회 :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영유아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발표 :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기혼여성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 : 이호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표 : 안윤숙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이현진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토론 : 김선업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제 3 주제 : 여성과 일 사 회 : 남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기혼 유자녀 여성의 취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발표 :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련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발표 :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층 여성의 직업이동과 노동시장 일자리 변화 발표 :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소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토론 :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기혼 취업여성의 고용형태 변화결정에 관한 연구 : 정규직·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발표 :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희영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김동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 :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20 ~13:30	점심 식사	
Session 2		
13:30 ~14:50	제 4 주제 : 부부관계 및 기혼여성의 취업 사 회 :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수련관	베이비부머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발표 : 손문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토론 :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의 변화와 변화 유형별 특성 비교 발표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필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발표 : 조은주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토론 : 왕혜숙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제 5 주제 : 결혼과 노후준비 사 회 :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	
	동백관	미혼 여성의 결혼결정요인 분석 발표 :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여성 샌드위치세대의 삶과 노후준비 발표 :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남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토론 :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맞벌이 가정에서 직장 맘의 직장가정의 긍정적 전이: 부양의무, 가사노동, 자녀와 남편 발표 : 김현동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제 6 주제 : 대학원생 논문 발표 1 사 회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련관	비혼 여성의 가족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나수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제이차인구변동(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아래 한국의 초저출산율 그리고 출산시기-위험도 분석 모형을 통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분류 발표 : 김조은 (옥스퍼드대학교 사회학)
		여성의 가족 내 역할 인식과 일·가정 양립 인식 및 일 만족도 간의 잠재성장모형 연구 :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의 유무에 따른 다집단 비교 발표 : 홍민주 (고려대학교 교육학)
14:50 ~15:00	휴식 시간	
Session 3		
15:00 ~16:50	제 7 주제 : 한국보건사회학회 특별 섹션 사 회 :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수련관	중년여성 돌봄 부담과 의료서비스 사용과의 관계 연구이용 발표 : 이건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토론 : 차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여성의 다중역할, 역할가치관과 우울증상과의 관련성 발표 : 강지원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장숙량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토론 : 차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발표 :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토론 : 김정희 (광주여자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제 8 주제 : 여성의 가족관계와 건강 사 회 : 최병목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동백관	맞벌이 여성의 근로시간과 일·가정양립 갈등 및 우울감의 구조적 연관성 연구 발표 :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토론 :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중고령여성의 손자녀 돌봄과 우울 : 손자녀 돌봄이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 :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현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토론 : 전미애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 9 주제 : 대학원생 논문 발표 2 사 회 : 양승주 (한양대 글로벌다문화 연구원 연구위원)	
	목련관	직장·가정 자원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여성노동자의 직업 지위 차이 중심으로 발표 : 박신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장기간 근로가 일·가정 대립에 미치는 영향: 여성근로자의 비율에 따른 차이 발표 : 백은정 (고려대학교 사회학)
		한국의 미혼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관한 연구: 지원의 규정요인분석 발표 : 신도마리 (동경대학교 지역문화연구학)

## 1) 여성의 일자리

여성경력단절결정요인에서 기업의 역할

기업의 근로제도가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경력단절에 있어 기업의 역할과 함께 근무에 대한 만족,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였으며, 일만족도가 낮거나 가정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수록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근로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률 차이와 근로안정성과의 관계분석

여성 스스로의 노후대비를 위한 근로안정성 확보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근로유형별 근로이행률을 마코프 전환확률(Markov Chain) 모형에 따라 분석

하였다.

위킹맘의 고용형태별 일·가정 양립 결정요인과 해법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업문화, 근로자의 심리적 요인 및 가정상황요인변수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용형태별로 도출하였다.

기혼 유자녀 여성의 취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근무조건, 가사노동, 가구 재정상황을 독립변수로 하고, 취업만족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문항을 3점 척도로 변환한 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Panel Conditional Ordered Logit 모형을 추정하였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등의 독립변수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율이 높음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청년층 여성의 직업이동과 노동시장 일자리 변화

여성 청년층의 직업이동을 결혼시기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이들의 직업이동과 경력유지의 관계를 Andersen Gill Model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취업여성의 고용형태 변화결정에 관한 연구 : 정규직·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일만족도와 미취학 자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규직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프로빗과 로짓 모형, 합동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여 일·가정 양립 요인과 기혼 취업여성의 고용형태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생애경험과 일자리 요인 및 배우자 요인이 여성들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2) 가족과 여성 삶의 변화

영유아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양육방식에 있어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과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개별양육의 선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별하여 연구하였다.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가치관(결혼, 양성평등 관련), 지지체계를 독립변인으로, 지난 1년간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베이비부머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남편의 수입은 부부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경로모델,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했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의 변화와 변화 유형별 특성 비교

횡단으로는 문화 활동과 운동 등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여부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종단으로는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의 변화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서 집단별 평균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미혼 여성의 결혼결정 요인 분석

여성의 결혼결정의 조건부 전이확률을 구하고, 패널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결혼 가치관, 건강상태, 주택시장의 현황, 실업률 등이 여성의 결혼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여성 샌드위치 세대의 삶과 노후준비

독립변수를 자신의 개인 배경적 요인, 남편의 개인 배경적 요인, 남편의



가구 배경적 요인, 자녀요인 등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모형을 통해 여성의 부모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고 샌드위치 세대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 및 정의하였다.

맞벌이 가정에서 직장 맘의 직장가정과 가정의 긍정적 전이 : 부양의무, 가사노동, 자녀와 남편

직장 맘의 가정생활이 이들의 직장-가정생활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고, 부양의무, 가사노동, 자녀양육 관심도, 남편에 대한 인식, 직장-가정의 긍정적 전이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여성 건강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신건강 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년여성 돌봄 부담과 의료 서비스 사용과의 관계 연구이용

중년여성이 그들이 행하는 돌봄 유형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충족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년여성의 돌봄 역할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여성의 다중역할, 역할 가치관과 우울증상과의 관련성

아내/어머니/직장인/부모 돌봄 제공자/가사 노동자 등으로 행해지는 여성의 다중역할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여성 내 건강 불평등 측면에서 사회위치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건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폐경, 자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하여 여성의 특이적인 환경과 보건형태와의 상관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맞벌이 여성의 근로시간과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우울감의 구조적 연관성 연구

근로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이 각각 일만족도, 일·가정 양립 갈등,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를 통하여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중고령 여성의 손자녀 돌봄과 우울 : 손자녀 돌봄이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 손자녀 돌봄 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우울감에 대해 측정한 10개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집단간 평균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 2. 5차 웨이브 여성가족패널조사 개요

### 가. 설문지 구성<sup>2)</sup>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표는 여성의 삶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크게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되어 조사되고 있다. 조사표는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큰 변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과 추가를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2) 본 내용은 주재선 외(2013),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p.28~34의 내용을 5차 웨이브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가구용 조사표

가구용 설문지는 가족구성의 일반특성과 함께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 소비, 자산과 부채로 구성돼 있다. 가구용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 이래 조사 내용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단, 2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가구원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방법을 변경했고,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장애인과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항목을 개인용에서 가구용으로 옮겨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와 5차 웨이브 조사는 용어와 시점을 명확히 한 것 이외에 변경된 내용은 없다. 단, 5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각종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의했고 이전소득으로 분류했던 기초노령연금을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표 Ⅱ-2〉 가구용 설문지 변경 내용

조사 웨이브	주요 변경내용	변경사유
2차 웨이브 조사	<1. 가구원 및 가족>내 모든 문항 - 가구원 확인 및 이탈 가구원과 진입 가구원에 대해 모두 질문하도록 함.	- 1차 웨이브 조사 이후의 가구원 변동을 파악하기 위함임.
3차 웨이브 조사	<1. 가구원 및 가족> - 장애인 및 장기요양 환자 유무를 개인 용에서 가구용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 가구원 중 결혼이민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 추가함.	- 개인단위의 변수보다는 가구단위의 변수로 처리하는 것이 유의미 하다고 판단함.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사 필요함.
4차 웨이브 조사	- 용어 변화 이외 변경 없음.	- 용어를 명확히 조정함.
5차 웨이브 조사	- 답항, 용어, 조사시점 등 수정함. - 기초노령연금을 이전소득에서 사회보험으로 변경함.	- 시점과 용어, 답항 등을 조정함. - 기초노령연금의 특성 반영함.

## 2) 개인용 설문지

개인용 조사표는 응답자의 성장과정과 일반 사항, 결혼과 부부생활,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 자녀교육과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련 가치관, 여성건강 등 개인적 경험과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표는 크게 신규 개인용과 기존 개인용으로 나누어

조사된다. 신규 개인 조사표는 처음 진입하는 패널에 대해 활용되는 조사표로, 총 2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개인용은 신규 개인 조사표에서 질문하고 있는 ‘응답자의 성장과정’과 첫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sup>3)</sup> 등 반복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5개 영역을 삭제하고 질문한다.

개인용 설문지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조사항목의 변화는 크지 않다. 개인용 설문지의 가장 큰 변화는 2차 웨이브 조사에서 있었다. 2차 웨이브 조사 설문지는 1차 웨이브 조사 설문지 구성을 재구성하여 신규용과 기존용으로 나누어 영역별 설문을 차별화했다. 기존용은 패널의 응답을 간소화하기 위해 설문구성에서 반복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영역과 질문을 삭제한 것이다. 3차 웨이브 조사는 기존 문항 중 불필요하거나, 거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고 영역명의 수정이 있었다. 4차 웨이브 조사는 개인용 설문지에 여성건강 영역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그리고 5차 웨이브 조사는 질문과 답항을 좀 더 명확히 한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다. 5차 웨이브 조사 개인용 설문지의 주요 변경 내용은 <표 Ⅱ-3>과 같다.

〈표 Ⅱ-3〉 5차 웨이브 조사 개인용 설문지의 주요 변경내용

영역	주요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혼여성	하루 평균 가사 참여도를 집안일과 돌봄 노동시간으로 구분	가사노동에서 집안일과 돌봄 노동시간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
가사노동	‘해당 없음’과 ‘전혀 하지 않음’의 차이 구분	‘해당 없음’은 현재 이혼, 별거, 사별 상태여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이고, ‘전혀 하지 않음’은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로 엄격히 구분함.
미취학 자녀 초·중·고 자녀	자녀 돌봄 주체	아동의 부모를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분리하여 돌봄 주체를 명확히 함.
자녀와의 관계	평소 대화주제	답항에 ‘자녀의 평소 건강에 대한 대화’ 추가
여성건강	직무 만족도 문항 추가	(11) ‘내 업무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나 중량감 있는 것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추가 (12) ‘내 일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주관적 건강상태	지난 1주일 기준으로 구체적인 빈도를 제시

3) ‘첫 직장 경험’, ‘첫 결혼당시의 일자리 경험’, ‘첫째 자녀 출산 당시의 일자리 경험’, ‘둘째 자녀 출산 당시의 일자리 경험’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 3) 일자리용 설문지

일자리용 조사표는 신규용과 기존용으로 구분해 조사된다. 일자리용의 기본 구조는 현재 일자리를 확인한 후 일자리가 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일자리에 대한 특징과 구직 경험, 일의 만족도, 주된 일을 제외한 일, 차별사항, 모성보호제도사회보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을 파악하며, 일자리가 없는 경우 구직경험을 파악하고 있다. 모든 패널은 첫 조사에서 이전 일자리 경험에 응답하도록 구성했고 교육 및 훈련, 사회보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돼 있다.

일자리용 조사표는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보다 자세한 직업력(work history)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보다 정교화 했다. 3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일자리용 조사를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와 이 일자리의 지속여부를 구분하여 질문함으로써, 여성의 직업 변화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외 일자리용 설문지는 용어 등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여 5차 웨이브 조사의 일자리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표 II-4〉 설문지 구성

영역	조사내용		
가구용 (공통)	① 가구원 및 가족 ④ 가구소비	② 주거상태 ⑤ 자산과 부채	③ 가구소득
여성개인용 (신규, 기존)	① 학교생활 ④ 결혼과 부부생활 ⑦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 ⑨ 이혼 ⑪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 ⑬ 자녀교육[초, 중, 고 연령대] ⑮ 기혼성인 자녀와의 관계 ⑰ 남편의 부모님과의 관계 ⑲ 남편의 형제·자매	② 결혼경험 확인 ⑤ 가사노동 ⑧ 별거 ⑩ 사별 ⑫ 자녀교육[미취학 자녀] ⑭ 미혼성인 자녀와의 관계 ⑯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⑰ 본인의 형제·자매 ⑲ 가족관련 가치관	③ 미혼여성 ⑥ 남편 일자리 ⑧ 별거 ⑩ 사별 ⑫ 자녀교육[미취학 자녀] ⑭ 미혼성인 자녀와의 관계 ⑯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⑰ 본인의 형제·자매 ⑲ 건강
일자리용 (신규, 기존)	①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확인 ②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역	조사내용
	③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중 지금도 그만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④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확인 ⑤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중 지금은 그만둔 일자리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⑦ 현재의 경제활동 ⑧ 구직경험 ⑨ 일 만족도 ⑩ 교육 및 훈련 ⑪ 사회보험 ⑫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⑬ 차별사항 ⑭ 모성보호제도

## 나. 조사대상, 표본추출과 추적원칙

### 1) 조사대상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의 원표본가구와 이 가구의 만 19~64세의 원적격가구원,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발생한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은 분가가구 추적원칙에 따라 원적격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어야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5차 웨이브 조사의 대상은 4차 웨이브 조사의 대상인 9,483가구의 여성 적격가구원 11,234명과 5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이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는 1차 웨이브 조사에 구축된 원가구 9,068가구에 2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100가구, 3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161가구, 4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154가구를 합한 가구이며, 여기에 5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적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 개인은 1차 웨이브 조사 원표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 10,442명과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새로 진입한 신규적격가구원 중 1차 웨이브 조사 적격가구원과 함께 동거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 2) 표본추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약 260,000개의 일반조사구(Enumeration District: ED)를 기본 틀로 하며,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차 표본추출단위의 추출방법

1차 표본추출단위(PSU)는 2005년 인구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도시화의 수준,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주거형태별 가구비중,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가구의 연령, 가구의 성별변수로 시도별 조사구를 층화한 후 조사구 내의 가구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해 1,700개의 조사구를 추출했다. 이 때 각 시도별로 추출 조사구 수를 배분할 때 지역별 가구수 비율에 따른 단순비례 배분방식을 취하지 않고, 지역별 가구수의 제곱근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했다(박수미 외, 2007).

### 2차 표본추출단위의 추출방법

2차 표본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는 1,700개의 1차 표본추출단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계통추출을 통해 조사가구로 선정했다(박수미 외, 2007).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해 1개 표본조사구에서 계통추출을 통해 5가구를 선정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구당 4~7가구 정도가 추출되었다.

## 3) 추적원칙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의 표본설계에 의해 추출된 원표본가구의 만 19~64세의 적격가구원을 추적하는 개인 패널조사이다. 이에 5차 웨이브 조사 패널의 기본 추적원칙은 1차 웨이브 조사 원적격가구원에 대해 2, 3, 4차 웨이브 조사의 성공 여부/동거, 일시적 비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하며, 일시적 비동거가구원이 되거나 분가를 하더라도 모두 추적하여 조사한다.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가구에 진입한 신규적격가구원은 1

차 웨이브 조사의 원적격가구원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동거 또는 일시적 비동거 상태로 가구원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단, 이들이 분가 등으로 인해 1차 웨이브 조사 원적격가구원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게 되는 경우 추적하지 않는다.

## 다. 조사방법 및 통계품질 관리

### 1) 조사방법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한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체의 제 3자 대리조사 혹은 유치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실사기간 동안 사망, 출장, 여행, 입원, 실종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조사 대상자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 실사기간 중 일시적 또는 완전히 복귀하는 사람은 이후에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일 현재 교도소,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및 국내장기출장, 해외장기출장 등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은 파악해 조사표에 기록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방법 상, 위에 명시한 항목부터 항목까지의 원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과의 협의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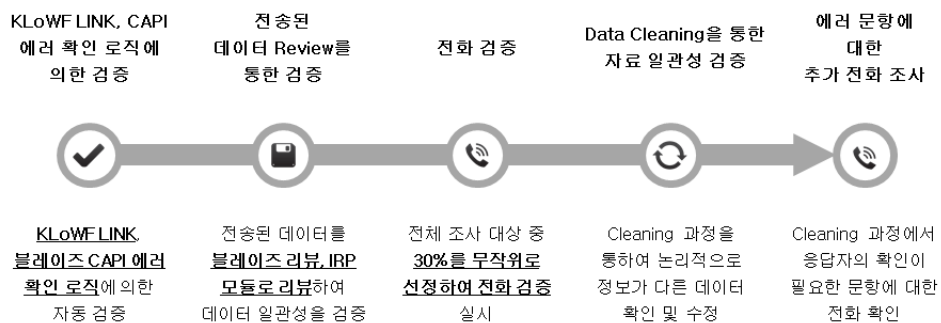
### 2) 통계품질 관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매 실사조사마다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검증을 통한 통계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실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사 전반의 관리를 담당



하는 슈퍼바이저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원을 선발하여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목적, CAPI 조사방법, 조사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CAPI 조사를 진행하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면접원 조사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간 면접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API를 통한 현장 실사조사가 완료된 설문이 중앙 통계 관리 시스템에 전송이 되면 자료 검증을 실시한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 검증은 총 다섯 단계로, 데이터 입력, 데이터리뷰, 전화검증, 데이터 클리닝, 에러문항에 대한 추가 조사이다. 첫째,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CAPI 시스템에 의한 에러가 자동으로 확인이 된다. 둘째, 전송된 데이터를 블레이즈 시스템 리뷰 및 IRP모듈 리뷰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검증하게 된다. 셋째, 전체 조사 대상 중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 검증을 실시하고, 넷째, 데이터 클리닝을 통하여 비논리적 정보 입력을 찾고, 데이터 확인 및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당해 조사뿐만 아니라 누적된 조사 결과와의 일관성을 검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료 검증 과정을 통해 발생한 에러의 경우 추가 전화 조사를 통해 오류를 수정한다.



[그림 II-1] 실사조사 통계 품질 관리 과정

## 라. 패널관리 방법<sup>4)</sup>

### 1) 패널관리 범위

5차 웨이브 조사의 패널관리 대상가구는 총 9,477가구와 5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이다. 현재 패널관리 대상 중 이민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와 강력히 패널탈퇴를 요구하는 가구(118가구)는 패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118가구의 패널은 감사 전화, 우편물 발송 등의 패널관리 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2014년의 패널관리 대상은 총 11,791명의 적격가구원과 5차 웨이브 조사의 신규적격가구원이다. 적격가구원은 사망, 질병 및 사고, 고소·고발수준의 패널탈퇴 요구 등의 조사 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도 최소한의 정보는 패널통합 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 2) 패널관리 방법

패널관리는 조사 진행 전, 진행 중, 진행 후, 그리고 상시 관리체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조사 진행 전후의 패널 관리방법은 타 패널조사에서 실시되는 방법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전에 전화로 조사 안내 및 주소, 연락처, 이사 예정 주소 등 패널 정보를 확인하고 패널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 내용이 수록된 Info-sheet 수정과 조사 홍보 팸플릿을 작성 및 배포해 조사 전 패널의 상태를 점검한다. 진행 과정에서는 조사 협조 공문 발송 및 조사 협조 편지를 발송했으며,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조사 후에는 경품추첨행사, 감사 편지 및 선물 발송, 최신 주소 업데이트 등의 작성을 실시했다.

한편 패널의 상시관리 방법으로 이사 시 집들이 선물 및 생일 축하 카드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가족패널조사가 3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예산 문제로 인해 격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패널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조사가 없는 해에는 중간필드워크(interim fieldwork)

4) 주재선 외(2013), 「201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p.35~47를 요약 및 수정하였다.

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필드워크는 3차 웨이브 조사 이후인 2011년에 처음 실시됐고 2013년 두 번째 조사가 시행됐다. 중간필드워크는 패널과의 친밀감 형성 및 다음 조사에 대한 협조도 제고뿐만 아니라 패널탈락 위험군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중간필드워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최근 조사에 응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표 II-5〉 패널관리 방법

조사 진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웨이브 조사 시작 전 전화 조사로 조사 안내 및 주소, 연락처, 이사 예정 주소 등 패널 정보 확인</li> <li>- 패널 기본 정보 및 주요 응답 내용이 수록된 Info-sheet 출력</li> <li>- 조사 홍보 팸플릿 작성 및 배포</li> </ul>
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협조 공문 발송 및 홍보 자료 지참하여 조사 진행</li> <li>- 조사 협조 편지 발송</li> <li>-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추첨 진행</li> </ul>
조사 진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품 추첨 진행</li> <li>- 감사 편지, 여성가족패널조사 소식지 및 기념품 발송</li> <li>- 주소, 연락처, 이사 예정 주소 등 패널 정보 확인</li> <li>- 4차 웨이브 조사를 통해 확인된 패널 연락처 및 패널 정보 업데이트</li> </ul>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시 집들이 선물 발송 및 생일 축하 카드 발송</li> <li>- 패널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상시적인 패널관리 활동</li> <li>- 중간필드워크 실시(조사가 없는 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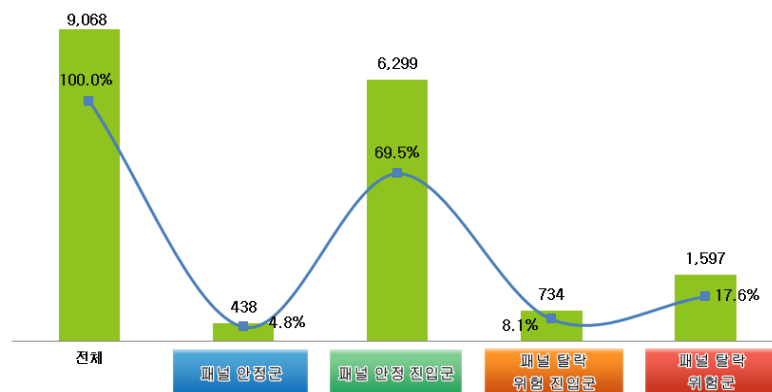
2012년 이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본조사와 중간필드워크의 결과를 통해 패널을 대상별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패널관리 유형은 최근 조사 참여여부를 중심으로 패널유지 안정군, 패널유지 안정 진입군, 패널탈락 위험 진입군, 패널탈락 위험군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4차 웨이브 조사 완료 후 관리되고 있는 패널의 가구수와 원표본가구 대비 유형군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II-6〉 패널관리 유형별 구분

유형군	내용
패널유지 안정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4차 웨이브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조사 참여에 우호적인 패널군</li> </ul>

유형군	내용
패널유지 안정 진입군	•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했으며, 1~4회 조사 중 적어도 2회 이상 성공한 패널군
패널탈락 위험 진입군	• 4차 웨이브 조사에서 비성공하였으며, 1~4차 웨이브 조사 중 적어도 2회 이상 비성공하여 향후 패널탈락 위험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널군
패널탈락 위험군	• 1차 조사에 참여하여 패널로 진입하였으나 2·3·4차 웨이브 조사에서 강력히 거절하여 향후 패널탈락이 유력한 패널군

전체 원표본가구 9,068가구 중 1, 2, 3, 4차 웨이브 조사에서 모두 응답한 패널 안정군은 6,299명으로 원표본가구의 69.5%를 차지하며, 1차 웨이브 조사부터 4차 웨이브 조사까지 2회 이상 성공한 패널 중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한 패널유지 안정 진입군은 438가구로 4.8%로 나타났다. 한편 탈락위험 진입군은 734가구로 8.1%로 나타나며,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강력 거절로 조사할 수 없었던 패널탈락 위험군은 17.6%인 1,597가구로, 원표본가구 중 탈락 위험에 진입하거나 위험군으로 구분된 가구는 총 25.7%인 2,331가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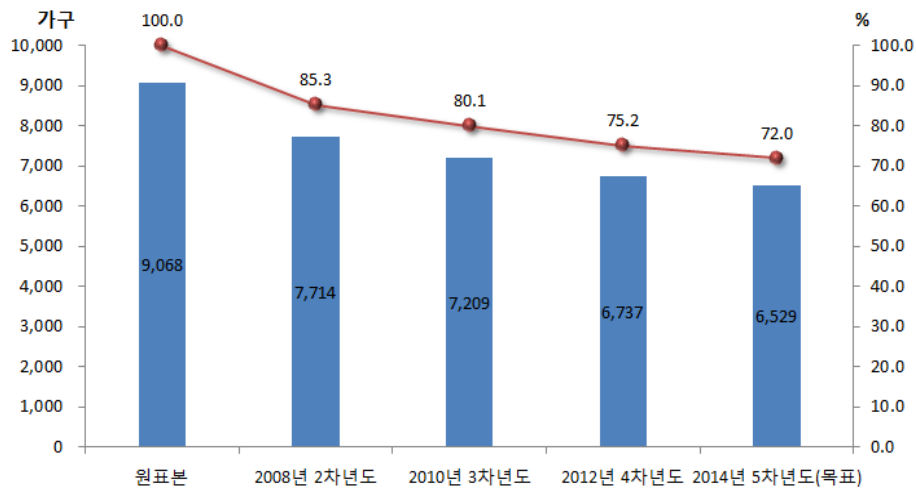


[그림 Ⅱ-2] 패널관리 유형별 분포

### 마. 원표본 유지율

4차 웨이브 조사는 9,483가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적격가구원 1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종 응답자는 6,737가구로 원표본가구(9,068가구) 대비 75.2%의 유지율을 보인다.

여성가족패널조사 4차 웨이브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75.2%로 3차 웨이브 조사 유지율(80.1%)과 비교하여 4.9%p 낮아졌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유지율은 1차 웨이브 조사 원표본가구에서 조사 불가 가구를 제외한 유효가구에서 성공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4차 웨이브 조사 성공 가구는 6,737가구이며, 유지율 산정은 9,068개의 1차 웨이브 조사 원표본가구에서 사망 및 실종, 유학 및 장기 출장, 이민,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76가구)와 패널탈퇴 가구(31가구)를 제외한 8,961가구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2014년 5차 웨이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패널유지율은 현재 7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II-3] 본 조사 표본 유지율

# III

## 1~4차 웨이브 조사 여성가족패널의 가구와 개인 변화 분석

1. 가구 및 가구원의 변화	35
2.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46
3.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	106
4.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160



## 1. 가구 및 가구원의 변화<sup>5)</sup>

### 가.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변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통하여 가구의 전체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1차부터 4차 웨이브 조사까지 4인 가구 > 3인 가구 > 2인 가구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특히 1인 가구는 전차 조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한편 3차까지 증가추세였던 4인 가구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구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 가구의 전체가구원수 분포

(단위: %)

전체가구원수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인	5.1	5.7	4.7	7.8
2인	17.6	17.5	16.3	19.7
3인	24.3	22.3	21.7	22.3
4인	40.2	40.8	42.7	37.9
5인	10.3	10.6	11.3	9.9
6인 이상	2.5	3.0	3.3	2.5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성가구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가구주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17.6%를 나타냈다. 이는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2.7%p가 증가한 수치며, 이는 패널원의 고령화에 따라 남성가구주가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여성에게 가구주가 승계되거나, 여성가구원이 분가하여 1인가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5) 1~4차 여성가족 패널의 변화 분석은 중단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단, 변화분석 중 여성 패널의 일자리 변화를 추적하는 통계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추적 분석했음을 밝힌다.



〈표 Ⅲ-2〉 가구주 성별

(단위: %)

가구주 성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	85.1	84.9	83.0	82.4
여성	14.9	15.1	17.0	17.6

가구 내 장기요양환자 분포를 가구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환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9%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가구주 가구에서는 3.0%가, 여성가구주 가구에서는 2.6%가 해당가구였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장기요양환자가 1.4%p 증가하였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0.5%p가 감소하였으며, 비중이 큰 남성가구주인 가구에서 장기요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3〉 가구주 성별 가구 내 장기요양환자 분포

(단위: %)

장기요양환자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있음	1.6	3.1	1.9	3.0	2.6	2.9
없음	98.4	96.9	98.1	97.0	97.4	97.1

주: 장기요양환자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환자

장기요양환자의 55.7%는 가구원 중 한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었으며,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30.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가구주인 경우,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돌보는 경우가 여성가구주인 경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성가구주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남성가구주인 경우에 비해 2배가량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4〉 장기요양환자 돌보는 사람 분포

(단위: %)

장기요양환자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가구원 중 한 사람	59.6	45.3	55.6	59.3	36.7	55.7
돌보는 사람이 없음	35.2	48.4	38.9	29.8	34.5	30.6
요양보호사	9.7	14.6	11.1	11.4	19.4	12.6
고용된 도우미 혹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제외)	4.1	1.8	3.4	2.4	5.4	2.8
기타	2.3	2.7	2.4	1.2	0.0	1.1
친척이나 친지	0.9	1.0	1.0	0.3	5.2	1.1

주: 중복응답

가구주의 현재 일자리 유무를 분석한 결과, 1차 웨이브 조사시에는 82.5% 였으나 2차 웨이브 조사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미국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감소되었다가 3차 웨이브 조사에 회복 되는 모습을 보였고, 4차 웨이브 조사에 들어 72.7%로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3차 웨이브 조사 대비, 남성가구주인 경우에는 10.0%p, 여성가구주인 경우에는 2.2%p가 감소하여 남성가구주의 감소폭이 다섯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가구주 성별 현재 일자리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일자리 있음	87.7	52.7	82.5	81.4	53.3	77.1	85.7	60.6	81.5	75.7	58.4	72.7
일자리 없음	12.3	47.3	17.5	18.6	46.7	22.9	14.3	39.4	18.5	24.3	41.6	27.3

주: 현재 일자리는 자영업이나 농림어업축산업 포함,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조사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가구가 2.7%로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대폭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미혼인 경우 남성가구주는 0.4%, 여성가구주는 13.3%를 보인다. 미혼인 남성가구주는 1차 웨이브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1%대 미만의 수치를 보였고, 미혼인 여성가구주는 1차 웨이브 조사의 21.5%에서 4차 1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혼이었던 여성가구주가 혼인을 하여 더 이상 여성가구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6〉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계
미혼	0.4	21.5	3.6	0.5	20.5	3.5	0.2	17.6	3.2	0.4	13.3	2.7
기혼	99.6	78.5	96.4	99.5	79.5	96.5	99.7	82.4	96.8	99.6	86.7	97.3

주: 기혼은 결혼 유경험자로 사실혼, 이혼, 별거, 사별을 포함.

## 나. 가구의 주거 환경 변화

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서 0.2%p 증가한 수치다. 한편 단독주택은 2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서 1.2%p 상승했음을 나타냈다.

〈표 Ⅲ-7〉 주택유형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단독주택	25.0	28.4	25.5	26.7
아파트	52.8	51.3	53.3	53.5
연립주택(빌라 포함)	12.7	11.9	12.4	11.3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	6.6	5.2	5.6	5.5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2.4	2.8	2.8	2.6
오피스텔	0.4	0.3	0.5	0.4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0.0	0.0	0.0	0.0
기타	0.0	0.0	-	-

집을 점유하는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자가 6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세가 18.4%, 보증부 월세가 8.7%를 차지하였다. 자가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편이고, 전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의 감소는 월세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경제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전세공급자들이 전세값을 대폭 상승시키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까지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sup>6)</sup>, 전세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줄고, 자가와 보증부 월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점유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가	61.8	66.7	66.2	68.0
전세	24.5	21.2	21.2	18.4
보증부 월세	8.2	7.0	7.8	8.7
월세(사글세포함)	2.0	1.5	1.1	0.9
무상 및 기타	3.3	3.6	3.6	3.9

6)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2014)에 따르면, 2011년 전세가격의 전국평균상승률은 12.3%로 2000년대에 들어서 2001년 1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다. 가구의 경제 상태 변화

### 1) 가구의 소득 변화

가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지를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 경우가 전체가구의 92.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소득인 경우가 10.6%, 부동산소득인 경우가 7.0%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 경우가 감소추세에 있고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은, 조사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원들이 은퇴하여 근로소득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표 Ⅲ-9〉 가구소득 원천 보유현황

(단위: %)

가구소득 원천 보유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있음	93.3	92.9	93.0	92.5
	없음	6.7	7.1	7.0	7.5
금융소득	있음	8.0	8.5	8.5	10.6
	없음	92.0	91.5	91.4	89.4
부동산소득	있음	4.2	5.3	5.7	7.0
	없음	95.8	94.7	94.3	93.0

가구 월평균 총소득은 ‘250만원 이상부터 3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가 24.3%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23.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5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3%로 나타났다. 1차부터 4차까지의 각 비율을 확인해보면, 저소득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소득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과 더불어 패널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의 평균 값을 확인하면,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에 비했을 때, 4차 월평균 소득 평균값의 상승률을 구하면 약 16.6%로, 이는 본조사에서 동기간 생활비 지출금액 증가율인 17.6%보다 낮은 수치다.

〈표 Ⅲ-10〉 가구 월평균 총소득(세전)

(단위: %)

월평균 소득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50만원 미만	16.5	16.6	15.0	16.0
250만원 미만	26.6	23.0	19.7	16.6
350만원 미만	25.5	25.2	28.8	24.3
500만원 미만	16.1	19.1	18.3	19.3
500만원 이상	15.3	16.1	18.2	23.8
소득 평균	307.94	311.90	324.42	358.9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가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4차 웨이브 조사에 서는 전체가구의 1.9%로 1차 웨이브 조사 때부터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표 Ⅲ-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가구 현황

(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대상가구	1.9	1.9	1.9	1.9

사회보험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6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무원연금은 7.2%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1차에 비해 8.1%p만큼 감소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Ⅲ-12〉 사회보험 수령 현황

(단위: %)

사회보험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52.7	62.9	65.6	68.9
	장애연금	3.5	2.2	3.1	2.7
	유족연금	9.1	4.3	6.5	6.9

사회보험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사망일시금	0.7	0.1	0.0	0.0
	반환일시금	1.1	3.6	1.6	1.8
특수직역연금	사학연금	1.5	0.5	1.0	1.4
	공무원연금	15.3	11.9	10.2	7.2
	군인연금	2.3	1.1	1.9	1.1
	반환일시금	0.0	0.0	0.2	0.0
산재보험	휴업급여	0.2	0.2	0.1	0.0
	장해연금	3.4	1.6	1.7	0.7
	유족연금	0.6	0.9	0.2	0.4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보훈연금	3.5	3.7	4.1	2.1
	실업급여	3.0	2.0	0.9	0.6
기타	기타사회보험	8.3	4.0	1.5	1.7
	특례노령연금	1.6	7.8	6.0	4.3

주: 특수직역연금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임.

## 2) 가구의 소비 변화

4차 웨이브 조사에 조사된 월평균 생활비는 1차 웨이브 조사 대비 17.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47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였다. 기타소비지출이 2순위였으며, 다음으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교육비로 39만원, 교통·통신비로 37만원을 매달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비중별로 살펴보면 자녀사교육비(3.5%p 감소), 식비(0.9%p 감소), 자녀공교육비(0.6%p 감소), 보건 의료비(0.3%p 감소), 외식비(0.2%p 감소) 순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기타소비지출(2.6%p 증가), 교통·통신비(1.7%p 증가), 교양오락비(1.1%p 증가), 가구집기 가사용품비(0.2%p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항목별 생활비 지출 금액

(단위: 만원, %)

생활비 항목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41.94 (21.4)	40.82 (20.3)	43.54 (20.0)	47.31 (20.5)
외식비	10.31 (5.3)	9.76 (4.9)	11.62 (5.3)	11.83 (5.1)
자녀 공교육비 (초등학교 이상 자녀 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14.18 (7.2)	13.31 (6.6)	16.56 (7.6)	15.25 (6.6)
자녀 사교육비 (미취학아동 보육비, 초·중·고등학교, 학원, 과외비 등)	27.32 (13.9)	26.63 (13.3)	26.37 (12.1)	23.92 (10.4)
보건의료비 (병원 및 약국 등에 지출한 진찰비 및 의료비 등 포함, 단, 의료보험료 제외)	7.26 (3.7)	6.94 (3.5)	6.53 (3.0)	7.79 (3.4)
주거광열비 (월세, 주택설비 수선비, 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취사연료비 등)	20.10 (10.3)	21.30 (10.6)	21.74 (10.0)	23.68 (10.3)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 주방용품, 가사서비스료 등)	3.68 (1.9)	3.22 (1.6)	4.44 (2.0)	4.83 (2.1)
피복신발비 (의류, 신발 등의 구입, 수선, 세탁, 대여료)	9.22 (4.7)	8.22 (4.1)	9.87 (4.5)	10.76 (4.7)
교양오락비 (서적, TV 등 교양오락용품 기구 구입, 공연경기관람, 운동강습료, 여행비 등)	6.09 (3.1)	6.65 (3.3)	9.45 (4.3)	9.64 (4.2)
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료,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기름값 등), 통신비 (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28.10 (14.3)	30.58 (15.2)	32.95 (15.1)	36.81 (16.0)
기타소비지출 (담배, 위생, 미용, 장신구, 손해보험, 보장성 보험, 경조비, 헌금, 시주, 기부금 등)	27.84 (14.2)	33.35 (16.6)	34.44 (15.8)	38.78 (16.8)
합계	196.02 (100.0)	200.79 (100.0)	217.51 (100.0)	230.62 (100.0)

주: 생활비에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세금, 공적연금(일반기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갚은 금액, 월부외상 갚은 금액 등
-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저축을 하는 가구는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4차 웨이브 조사에 58.8%로 감소하였다. 한편 월평균 저축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월평균 86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저축 현황

(단위: %, 만원)

저축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저축이 있는 가구	54.3	54.8	59.8	58.8
월평균 저축액	71.75	74.29	80.44	86.50

### 3) 가구의 부채 및 현재 경제 상태 변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기타 부채를 합산하여 가구의 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월 원리금을 갚는 가구는 전체의 39.8%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의 중간값은 30만원으로 3차 대비 약 5만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현재 잔액의 중간값은 1차부터 3차까지 3000만원으로 일정하였다가 4차 들어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이 증가하였다.

〈표 Ⅲ-15〉 부채 현황

(단위: %, 만원)

총 부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유 부채 가구 비중	37.3	34.3	39.4	39.8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	25.0	20.0	25.0	30.0
현재 잔액	3000.0	3000.0	3000.0	4000.0

주: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 유무 기준, 원리금 상환액과 현재 잔액은 특이치를 제어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함.

4차 웨이브 조사 가구의 경제 상태를 분석한 결과, ‘보통이다’가 54.8%로 꾸준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6%p 감소하였다. ‘조금 어려운 편이다’가 27.4%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0%p 증가한 수치다.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소폭 감소한 반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4.6%p 상승했으며,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감소한 반면,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증가 후 감소하여 원상태를 회복하였다.

〈표 Ⅲ-16〉 현재 경제상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매우 여유가 있다	0.6	0.3	0.5	0.5
여유가 있는 편이다	11.6	8.2	9.9	10.3
보통이다	50.2	51.3	56.4	54.8
조금 어려운 편이다	27.4	30.5	26.4	27.4
매우 어렵다	9.9	9.7	6.9	7.0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은 1차부터 3차까지 꾸준히 교육비가 1순위이고, 교통·통신비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들어서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뀌어 1순위가 교통·통신비, 2순위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가계지출항목 중 부담이 큰 항목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순위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2순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가계의 경제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소득의 상승률보다 상환액의 상승률이 더 증가함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상승률이 소득의 상승률보다 적음을 확인할 수 있고, 흑자액의 상승률 또한 소득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에 90.3, 2011년에 104.0을 보여 5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

률은 15.6%를 보인다. 따라서 물가의 상승률보다 1.0%p 많은 소득의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8〉 가계 경제 총괄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차대비 상승률
소득 평균	307.94	311.90	324.42	358.97	16.6
소비지출 합계 평균	196.02	200.79	217.51	230.62	17.6
월평균 저축액	71.75	74.29	80.44	86.50	20.6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 중간값	25	20	25	30	20.0
가처분소득 (소득-상환액)	282.9	291.9	299.4	329.0	16.3
흑자액 (가처분소득-소비지출)	86.9	91.1	81.9	98.4	13.2

주: 소득은 세전의 소득을 사용했으므로, 상향평준화되었으며,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특이치를 제어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하여 하향평준화 됨.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2.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 가. 결혼 경험 및 부부생활

본 절에서는 1차 웨이브 조사(2007년)부터 4차 웨이브 조사(2012년) 여성 가족패널조사에서 여성 개인 응답자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개인 응답자 분석은 1차 웨이브 조사(2007년)부터 4차 웨이브 조사(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포함된 문항들 중 가운데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택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통계표는 응답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무응답/모름은 결측처리 하였다.

#### 1) 결혼 경험 및 의향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여성의 결혼 경험은 1차 조사

에서 전체의 80.2%, 2차 조사에서 80.6%, 3차 조사에서 84.1%로 소폭 증가하다가 4차 조사에서는 80.6%로 나타났다.

〈표 Ⅲ-19〉 결혼 경험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80.2	80.6	84.1	80.6
없다	19.8	19.4	15.9	19.4

지난 조사 대비 4차 조사의 결혼 경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결혼 의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의 77.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는 이보다 5.5%p 낮은 71.8%, 3차 웨이브 조사 미혼 응답자는 전 웨이브 조사 응답자에 비해 6.6%p 낮은 65.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차 웨이브 조사 결과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변화는 지난 조사 이후 6.3%p 증가한 71.5%로 나타났다.

〈표 Ⅲ-20〉 결혼 의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77.3	71.8	65.2	71.5
없다	13.3	13.7	19.9	16.0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4	14.4	14.9	12.5

미혼의 가사시간 평균을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차 웨이브 조사에는 평일 평균 40.52분, 주말 평균 101.31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반면, 2차 웨이브 조사는 평일 평균 31.48분, 주말 평균 88.36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3차 웨이브 조사는 평일 평균 52.38분, 주말 평균 81.41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웨이브 조사 결과 평일 평균 45.11분, 주말 평균 76.90분으로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평일 평균 가사노

동 시간은 4.59분 늘어났고, 주말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4.41분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조사와 비교 했을 경우 평일 7.27분 감소, 주말 4.51분이 감소된 결과이다.

〈표 Ⅲ-21〉 미혼의 가사시간(집안일 하는 시간)

(단위: 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일	40.52	31.48	52.38	45.11	-9.04	+20.90	-7.27	+4.59
주말	101.31	88.36	81.41	76.90	-12.95	-6.95	-4.51	-24.41

주: 주말은 토요일 평균 시간과 일요일 평균 시간의 합으로 구함.

## 2) 결혼과 부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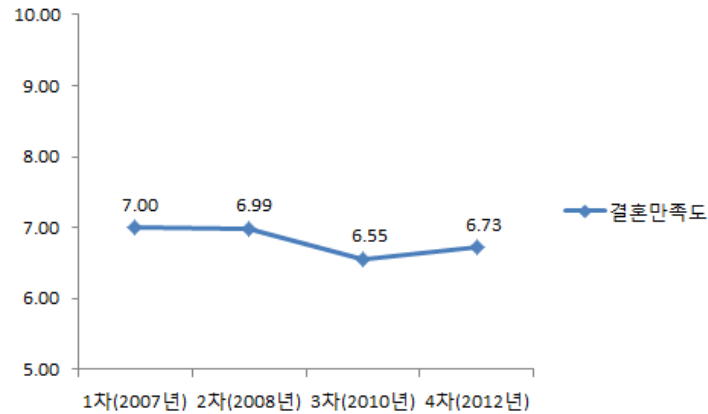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를 살펴보면, 10점 척도 기준으로 6.5점~7.0점으로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조사 시간별로 살펴보면, 1차 웨이브 조사 시 평균 7.00점에서 2차 웨이브 조사 6.99점, 3차 웨이브 조사 6.55로 다소 하락하였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73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1차 조사 대비 0.27점 하락한 결과이다.

〈표 Ⅲ-22〉 결혼생활의 행복감 변화

(단위: 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7.00	6.99	6.55	6.73	-0.01	-0.44	+0.18	-0.27

주: '매우 불행하다'가 1점, '매우 행복하다'가 10점 기준임.



[그림 Ⅲ-1] 결혼만족도 변화 추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87.6% 91.4% 90.2% 91.1%)’,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79.8% 81.4% 78.4% 80.2%)’,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76.1% 77.9% 75.4% 76.0%)’,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69.5% 71.1% 69.6% 69.4%)’의 순으로 남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3〉 남편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76.1	77.9	75.4	76.0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69.5	71.1	69.6	69.4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79.8	81.4	78.4	80.2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87.6	91.4	90.2	91.1

주: 각 구분에 대해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를 응답한 비율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은 ‘자녀 교육’,

‘투자 및 재산 관리’와 ‘가족 내 여가활동’이며, 그 외 ‘본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 ‘남편의 취업이나 직장이동’의 경우 부부의 의견을 참고로 해당 개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관리’의 경우 대부분 여성 응답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자녀교육, 투자 및 재산 관리, 가족 내 여가 활동에 관한 변화 비율을 살펴 보면, 지난 조사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녀 교육’은 1차 47.2%, 2차 43.3%, 3차 45.2%, 4차 40.8%, ‘투자 및 재산 관리’는 1차 55.2%, 2차 59.1%, 3차 58.8%, 4차 54.3%, ‘가족 내 여가활동’은 2차 웨이브 조사 69.5%, 3차 웨이브 조사 68.9%, 4차 웨이브 조사 66.5%의 추이로 변화한다.

〈표 Ⅲ-24〉 가족 내 의사결정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 교육문제	본인이 주로	33.4	34.7	31.5	33.2
	남편이 주로	4.4	2.9	3.2	2.3
	부부가 함께	47.2	43.3	45.2	40.8
	다른 가족과 함께	0.7	1.0	1.0	0.9
	해당 사항 없음	14.3	18.1	19.2	22.8
본인의 취업여부	본인이 주로	38.6	45.9	45.5	49.4
	남편이 주로	4.0	3.1	3.5	2.5
	부부가 함께	33.6	30.4	33.1	28.1
	다른 가족과 함께	0.7	0.4	0.3	0.3
	해당 사항 없음	23.1	20.1	17.6	19.6
남편의 취업여부	본인이 주로	2.8	2.0	2.2	2.8
	남편이 주로	50.9	56.7	55.1	58.8
	부부가 함께	34.0	32.6	35.3	29.6
	다른 가족과 함께	0.2	0.2	0.3	0.1
	해당 사항 없음	12.1	8.5	7.0	8.7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본인의 직장이동	본인이 주로	32.0	39.1	39.0	43.0
	남편이 주로	5.6	3.8	4.4	4.5
	부부가 함께	31.5	29.6	32.3	26.3
	다른 가족과 함께	0.4	0.2	0.2	0.2
	해당 사항 없음	30.6	27.3	24.1	25.9
남편의 직장이동	본인이 주로	2.6	2.0	2.1	2.1
	남편이 주로	46.7	54.2	50.9	55.9
	부부가 함께	37.1	35.0	38.3	32.3
	다른 가족과 함께	0.3	0.3	0.3	0.1
	해당 사항 없음	13.2	8.6	8.4	9.5
투자 및 재산 관리	본인이 주로	24.6	25.4	25.3	29.2
	남편이 주로	19.3	14.5	15.1	15.8
	부부가 함께	55.2	59.1	58.8	54.3
	다른 가족과 함께	0.9	0.9	0.8	0.7
생활비관리	본인이 주로	69.3	73.0	69.7	75.7
	남편이 주로	7.2	5.6	5.3	5.6
	부부가 함께	22.7	20.6	24.3	18.1
	다른 가족과 함께	0.7	0.9	0.7	0.6
가족 내 여가활동	본인이 주로	20.8	21.4	20.8	21.1
	남편이 주로	5.8	4.7	5.9	5.5
	부부가 함께	68.4	69.5	68.9	66.5
	다른 가족과 함께	5.0	4.3	4.3	6.9

부부 동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한 달에 1번도 안하거나 1번 정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산책·조깅·등산·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식구 또는 친정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한 달에 1번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 달에 1번도 안한 부부동반 활동 비율이 ‘외출하여 영화·공연·스포츠 등을 관람하는 것(64.2% 69.0% 68.1% 70.7%)’, ‘친정식구들 만나는 것(48.4%



48.2% 55.4% 56.3%)', '산책·조깅·등산 등 운동을 하는 것(50.3% 51.9% 50.3% 54.2%)', '시댁식구들 만나는 것(42.1% 41.7% 50.0% 5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부부 동반 활동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외출하여 문화생활	일주일에 2번 이상	1.5	0.8	1.0	0.8
	일주일에 1번 정도	4.8	3.4	3.2	2.9
	2주에 1번 정도	6.4	5.5	5.4	5.0
	한 달에 1번 정도	23.1	21.4	22.4	20.6
	한 달에 1번도 안함	64.2	69.0	68.1	70.7
	소계	100.0	100.0	100.0	100.0
산책, 조깅, 등산, 운동	일주일에 2번 이상	5.9	6.0	6.5	6.4
	일주일에 1번 정도	12.9	11.4	10.3	11.8
	2주에 1번 정도	10.4	10.5	11.1	11.6
	한 달에 1번 정도	20.5	20.2	21.7	16.0
	한 달에 1번도 안함	50.3	51.9	50.3	54.2
	소계	100.0	100.0	100.0	100.0
시댁식구들 만나기	일주일에 2번 이상	5.3	5.0	4.1	3.2
	일주일에 1번 정도	7.0	5.3	4.2	4.2
	2주에 1번 정도	9.6	9.2	7.2	6.9
	한 달에 1번 정도	31.1	33.7	28.3	29.3
	한 달에 1번도 안함	42.1	41.7	50.0	51.9
	해당 없음	4.9	5.1	6.3	4.6
	소계	100.0	100.0	100.0	100.0
친정식구들 만나기	일주일에 2번 이상	4.3	3.8	3.2	2.6
	일주일에 1번 정도	5.9	4.5	4.1	4.0
	2주에 1번 정도	8.2	7.7	6.2	6.4
	한 달에 1번 정도	30.0	32.7	26.8	27.7
	한 달에 1번도 안함	48.4	48.2	55.4	56.3
	해당 없음	3.2	3.1	4.3	2.9
	소계	100.0	100.0	100.0	100.0

부부가 갈등을 겪은 원인에 대해 중복응답처리를 통해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은 ‘지난 한달 동안 그런 적이 없음(88.1% 70.6% 69.2% 76.1%)’이지만, 실질적인 갈등 원인으로 꼽은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16.6% 16.3% 16.4% 12.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16.6% 14.8% 16.9% 11.2%)’로 나타났다.

〈표 Ⅲ-26〉 부부 갈등 원인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인 문제	16.6	14.8	16.9	11.2
자녀교육 문제	12.1	10.0	10.2	6.9
육아문제	-	3.7	4.0	2.5
시부모님과의 관계	6.6	4.5	3.8	3.1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0.8	0.3	0.5	0.5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	3.0	2.0	1.4	1.6
본인 또는 남편의 친구관계	1.6	1.3	1.3	1.0
부부간 가사분담	4.0	3.3	2.5	2.3
본인 또는 남편의 생활습관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16.6	16.3	16.4	12.0
지난 한달 동안 그런 적이 없음	88.1	70.6	69.2	76.1
해당 순위 없음	-	19.3	21.4	18.2
기타	-	1.9	1.1	1.1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 나. 가사노동과 돌봄

### 1) 본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비교

혼인 상태의 여성 개인의 가사노동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가사노동에서 여성이 전담하는 경우가 높은 가운데, 남편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차 웨이브 조사 결과를 보면, ‘세탁(54.2%)’, ‘식사준비(51.0%)’, ‘설거지(44.1%)’, ‘시장보기(35.3%)’, ‘집안청소(3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남편이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는 설거지(11.7% 11.9% 13.6% 14.6%)’, ‘시장보기 및 쇼핑(25.6% 27.2% 29.7% 30.3%)’, ‘집안 청소(17.7% 19.5% 22.3% 22.9%)’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통해 가사노동 분담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예상할 수 있다.

〈표 Ⅲ-27〉 본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정도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식 사 요 리 준 비	거의 매번	91.8	3.7	94.0	4.9	93.6	4.5	93.0	4.0
	일주일에 4-5번 정도	4.0	2.8	2.3	2.1	2.5	1.6	3.2	2.4
	일주일에 2-3번 정도	2.2	7.7	2.0	5.3	2.3	6.5	2.3	9.1
	일주일에 1번 정도	1.0	10.5	0.4	9.4	0.5	11.2	0.4	11.2
	그보다 드물게	1.0	75.2	1.4	68.1	1.1	76.2	0.5	22.3
	전혀 하지 않음	-	-	-	-	-	-	0.6	51.0
	해당없음	-	-	-	10.3	-	-	-	-
설 거 지	거의 매번	91.2	3.7	93.9	4.9	93.1	4.8	91.7	4.4
	일주일에 4-5번 정도	4.5	3.3	2.5	2.7	3.2	2.5	4.4	3.2
	일주일에 2-3번 정도	2.5	9.4	1.9	8.4	2.2	10.0	2.2	12.8
	일주일에 1번 정도	0.8	11.7	0.5	11.9	0.4	13.6	0.4	14.6
	그보다 드물게	1.1	71.9	1.2	61.8	1.0	69.11	0.7	21.0
	전혀 하지 않음	-	-	-	-	-	-	0.6	44.1
	해당 없음	-	-	-	10.3	-	-	-	-
세 탁	거의 매번	65.3	2.5	47.6	3.2	51.3	3.5	45.6	2.7
	일주일에 4-5번 정도	11.6	1.6	14.5	0.8	14.5	1.0	14.0	1.3
	일주일에 2-3번 정도	17.4	5.6	30.9	4.9	29.2	5.2	34.4	6.2
	일주일에 1번 정도	4.2	9.4	5.3	9.5	3.3	11.0	4.6	13.0
	그보다 드물게	1.5	80.9	1.7	71.2	1.8	79.4	0.7	22.5
	전혀 하지 않음	-	-	-	-	-	-	0.7	54.2
	해당 없음	-	-	-	10.3	-	-	-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시장 보 기 및 쇼 핑	거의 매번	44.9	3.1	26.6	3.1	31.9	3.1	27.0	2.3
	일주일에 4-5번 정도	7.3	1.9	6.9	0.6	7.4	0.8	6.7	0.8
	일주일에 2-3번 정도	21.1	8.1	33.5	6.7	32.7	5.8	34.8	7.4
	일주일에 1번 정도	20.4	25.6	25.6	27.2	23.0	29.7	25.3	30.3
	그보다 드물게	6.3	61.3	7.4	52.1	4.9	60.6	5.4	23.8
	전혀 하지 않음	-	-	-	-	-	-	0.7	35.3
	해당 없음	-	-	-	10.3	-	-	-	-
집 안 청 소	거의 매번	79.9	4.5	75.8	5.5	73.6	5.1	66.0	4.4
	일주일에 4-5번 정도	8.2	3.5	10.9	2.4	10.6	2.8	14.4	3.4
	일주일에 2-3번 정도	7.2	11.1	8.6	10.4	11.1	12.3	14.5	14.6
	일주일에 1번 정도	2.8	17.7	2.6	19.5	2.8	22.3	3.0	22.9
	그보다 드물게	2.0	63.2	2.1	51.9	1.9	57.6	1.1	20.2
	전혀 하지 않음	-	-	-	-	-	-	0.9	34.5
	해당 없음	-	-	-	10.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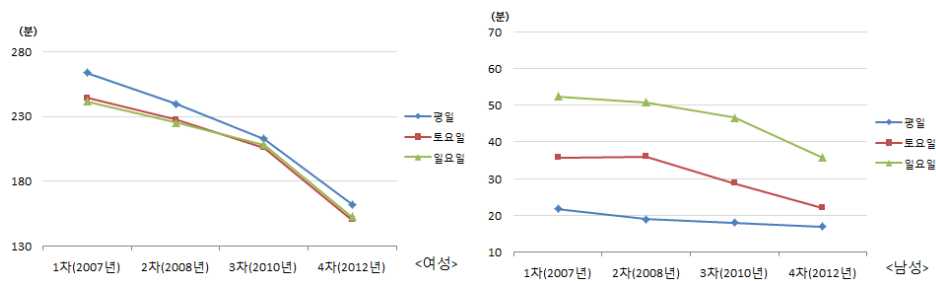
주: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전혀 하지 않음’ 추가 및 본 문항의 응답 대상을 남편이 있는 경우 응답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없음’ 삭제함.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평균 시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여성 개인 응답자와 남편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 개인 응답자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에 비해 약 10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말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이 평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21.77분 18.89분 18.07분 16.95분)에 비해 토요일(35.74분 36.05분 28.74분 21.97분)과 일요일(52.39분 50.83분 46.81분 35.76분)에 가사노동 분담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Ⅲ-28〉 부부간의 가사노동 시간 변화

(단위: 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평일	263.89	21.77	240.01	18.89	212.94	18.07	162.17	16.95
토요일	244.59	35.74	227.65	36.05	206.16	28.74	150.56	21.97
일요일	241.75	52.39	225.40	50.83	208.24	46.81	152.83	35.76



[그림 Ⅲ-2] 부부 간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비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며, 그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33.5%였던 것에 반해 2차 웨이브 조사에는 36.3%로 다소 높아졌다. 이후 3차 웨이브 조사에는 33.8%,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32.7%로 하락하여 나타났다.

〈표 Ⅲ-29〉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매우 만족한다	6.8	6.7	3.0	3.7
대체로 만족한다	33.5	36.3	33.8	32.7
보통이다	32.4	36.7	38.1	39.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8.4	15.3	18.5	16.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8	5.0	6.7	7.9

## 2) 가사 도우미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 개인 응답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의 경우 91.7%, 2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의 경우 92.5%, 3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의 경우 93.6%, 4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의 경우 94.2%로 나타났다.

〈표 Ⅲ-30〉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 존재 여부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8.3	7.5	6.4	5.8
없다	91.7	92.5	93.6	94.2

더불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여성 응답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4차 웨이브 조사를 기준으로 ‘자녀(23.8% 33.1% 26.7% 32.2%)’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부모(29.7% 27.5% 30.5% 24.7%)’, ‘친정부모(23.0% 19.1% 20.3% 17.9%)’,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포함)(8.7% 9.4% 8.0% 1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1〉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시부모	29.7	27.5	30.5	24.7
친정부모	23.0	19.1	20.3	17.9
시댁식구	1.9	2.0	1.4	1.5
친정식구	4.2	2.9	2.2	3.0
자녀	23.8	33.1	26.7	32.2
며느리	7.1	5.3	9.5	8.1
이웃	1.4	0.5	0.6	0.1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포함)	8.7	9.4	8.0	11.9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도우미, 요양보호사	-	0.1	-	0.5
기타	0.2	-	0.8	0.1

가사도우미 보수 지급 여부 변화를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웨이브 조사 74.3%, 2차 웨이브 조사 76.2%, 3차 웨이브 조사 82.1%, 4차 웨이브 조사 79.6%의 비율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2〉 가사도우미 보수지급 여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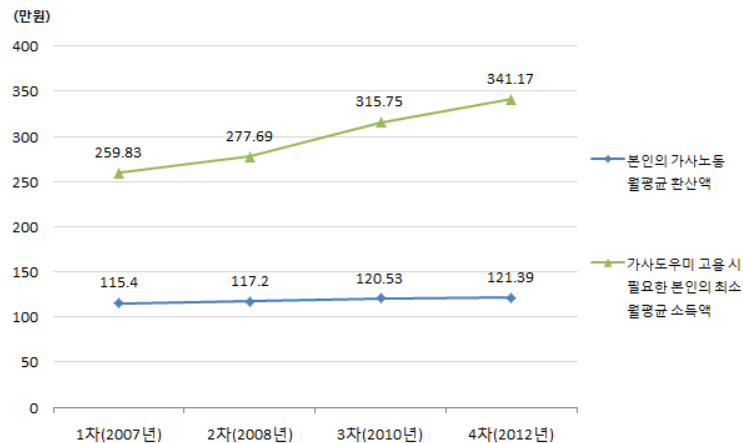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지급한다	25.7	23.8	17.9	20.4
지급하지 않는다	74.3	76.2	82.1	79.6

가사를 도와주는 분의 월 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과 실 지급 보수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월 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은 1차 웨이브 조사 17.82만원, 2차 웨이브 조사 19.13만원, 3차 웨이브 조사 26.81만원, 4차 웨이브 조사 30.16만원으로 1차 조사 시점 보다 12.34만원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제 월 평균 지급 보수액은 1차 웨이브 조사 46.86만원, 2차 웨이브 조사 41.96만원, 3차 웨이브 조사 45.49만원, 4차 웨이브 조사 44.35만원으로 1차 조사 시점보다 2.51만원이 감소하였다.

〈표 Ⅲ-33〉 월 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과 실 지급 보수액 변화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월평균 지불 의향 보수액	17.82	19.13	26.81	30.16	+1.31	+7.68	+3.31	+12.34
월평균 실지급 보수액	46.86	41.96	45.49	44.35	-4.9	+3.53	-1.14	-2.51

여성응답자 본인이 하는 가사노동을 환산한 금액에 대해 1차 웨이브 조사 115.40만원, 2차 웨이브 조사 117.20만원, 3차 웨이브 조사 120.53만원, 4차 웨이브 조사 121.39만원으로 1차 조사 대비 5.99만원 상승하였다. 반면,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월소득 평균은 1차 웨이브 조사 259.83만원, 2차 웨이브 조사 277.69만원, 3차 웨이브 조사 315.75만원, 4차 웨이브 조사 341.17만원으로 전체적으로 81.34만원이 증가하였다.



[그림 Ⅲ-3] 본인이 하는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액 및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월평균 소득액 변화 추이



〈표 Ⅲ-34〉 본인이 하는 가사노동의 월평균 환산액 및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월평균 소득액 변화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본인의 가사노동 월평균 환산액	115.40	117.20	120.53	121.39	+1.80	+3.33	+0.86	+5.99
가사도우 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월평균 소득액	259.83	277.69	315.75	341.17	+17.86	+38.06	+25.42	+81.34

## 다. 일시적 비동거, 별거, 이혼

### 1) 일시적 비동거 및 별거

일시적 비동거에 해당되는 가구의 비중은 큰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일시적 비동거의 원인은 남편의 직장(81.3% 92.0% 86.5% 8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일시적 비동거 여부 및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시적 비동거 여부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2.2	2.4	2.3	3.5
	따로 살고 있지 않다	97.8	97.6	97.7	96.5
일시적 비동거 이유	남편의 직장 때문에	81.3	92.0	86.5	83.9
	내 직장 때문에	3.4	-	2.8	5.6
	자녀 교육 때문에	1.5	0.4	0.3	1.2

Ⅲ. 1~4차 웨이브 조사 여성가족패널의 가구와 개인 변화 분석 ●●● 61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부모님 등의 가족을 일시적으로 보살피기 위하여	3.5	2.0	5.1	0.5
	요양 및 치료 때문에(또는 건강 때문에)	4.2	2.9	3.1	7.6
	남편 또는 본인의 학업 때문에	-	1.5	1.0	-
	남편의 가출	-	1.1	0.8	-
	기타(경제적 어려움 또는 군복무)	6.0	-	0.4	1.2

한편, 일시적 비동거를 하며 힘든 점은 ‘경제적인 문제(12.1% 9.5% 14.8% 17.3%)’, ‘자녀교육문제(18.1% 18.6% 14.6% 14.3%)’, ‘가족 간의 대화부족(15.0% 16.7% 13.6% 1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일시적 비동거에서 가장 힘든 점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 문제	12.1	9.5	14.8	17.3
자녀교육 문제	18.1	18.6	14.6	14.3
자녀가 떨어져 있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7.7	12.6	6.6	7.2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5.8	3.4	6.0	5.1
가족 간 대화부족	15.0	16.7	13.6	13.6
남편의 생활수발(식사, 빨래 등)	4.5	7.4	15.1	13.0
외로움	4.3	1.9	-	-
힘든 점 없음	31.2	29.9	28.7	28.3
기타	1.2	-	0.4	1.2

주된 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28.1% 61.3% 51.9% 65.6%)’, ‘경제적인 이유(37.9% 16.1% 14.9% 25.5%)’, ‘남편의 외도(23.2% 없음 10.8% 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주된 별거 사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성격차이	28.1	61.3	51.9	65.6
남편의 외도	23.2	-	10.8	8.9
경제적인 이유(남편의 무능력)	37.9	16.1	14.9	25.5
기타	10.9	22.7	22.4	-

주: 1차 웨이브 조사 내 본인외도(1.7%) 포함 및 2차 웨이브 조사 기타는 종교문제(9.8%)+ 자녀문제(12.9%) 응답 비율을 합한 것임.

별거 중이거나 별거 경험이 있는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변화는 1차 웨이브 조사 48.1%에서 점차 감소하여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26.0%로 조사되었고,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차 웨이브 조사 51.9%에서 점차 증가하여 74.0%로 나타났다.

〈표 Ⅲ-38〉 별거중이거나 별거했던 남편과의 사이의 미성년자녀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48.1	41.8	38.8	26.0
없다	51.9	58.2	61.2	74.0

이들의 미성년자녀는 대부분 ‘1명(45.9% 64.1% 52.0% 72.2%)’ 또는 ‘2명(45.4% 32.7% 39.8% 27.8%)’이었으며, 첫 번째 자녀의 경우 양육비 주부담자가 ‘본인인 경우(48.3% 77.9% 71.4% 55.6%)’가 많았고, 두 번째 자녀의 경우 ‘본인(40.0% 72.3% 20.8% 55.7%)’, ‘남편(42.1% 27.7% 79.2% 44.3%)’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39〉 별거중이거나 별거했던 남편과의 미성년자녀 수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명	45.9	64.1	52.0	72.2
2명	45.4	32.7	39.8	27.8
3명 이상	8.7	3.2	8.2	-

〈표 Ⅲ-40〉 미성년자녀 양육비 주부담자

(단위: %)

구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첫 번째 자녀	남편	39.2	17.1	28.6	44.4
	본인	48.3	77.9	71.4	55.6
	기타 친인척	12.5	5.0	-	-
두 번째 자녀	남편	42.1	27.7	79.2	44.3
	본인	40.0	72.3	20.8	55.7

주: 1차 웨이브 조사 두 번째 자녀 기타 17.9%임.

한편, 별거를 하며 힘든 점은 ‘경제적 문제(48.7% 64.9% 72.2% 7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별거 시 가장 힘든 점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 문제	48.7	64.9	72.2	78.2
자녀교육 문제	13.9	14.5	12.9	1.1
주위의 시선	15.7	5.1	1.2	1.8
힘든 점 없음	19.5	15.5	11.5	13.0
기타	2.1	-	2.2	5.9

주: 기타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포함.

## 2) 이혼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39.4% 44.5% 40.9% 38.8%)’와 ‘경제적인 이유(24.7% 48.4% 32.0% 20.5%)’, ‘남편의 외도(16.4% 없음 21.7% 20.6%)’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42〉 주된 이혼 사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성격차이	39.4	44.5	40.9	38.8
남편의 외도	16.4	-	21.7	20.6
경제적 이유	24.7	48.4	32.0	20.5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12.7	2.9	3.2	10.0
시댁과의 갈등	3.2	4.2	2.2	-
기타	3.7	-	-	10.1

주: 4차 웨이브 조사 기타는 ‘본인의 외도’ 응답 비율임.

또한,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은 경우(19.1% 25.5% 17.4% 26.8%)는 1차 조사 시점보다 증가하였지만, 받지 않은 경우(80.9% 74.5% 82.6% 73.2%)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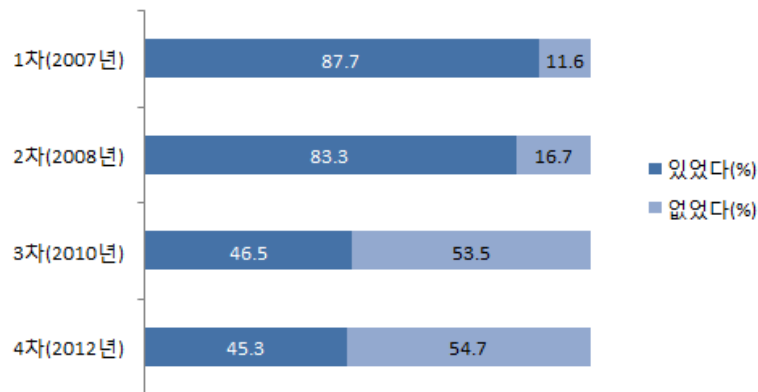
〈표 Ⅲ-43〉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받았다	19.1	25.5	17.4	26.8
받지 않았다	80.9	74.5	82.6	73.2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차 웨이브 조사에는 87.7%로 나타났고, 2차 웨이브 조사에는 83.3%로 나타난 반면, 3차 웨이브 조사에는

46.5%,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미성년자녀 수는 ‘1명(34.1% 53.8% 63.2% 58.4%)’ 또는 ‘2명(21.2% 37.6% 33.2% 3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이혼한 전 남편 사이 자녀 유무

〈표 Ⅲ-44〉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의 미성년자녀 비율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명	34.1	53.8	63.2	58.4
2명	21.2	37.6	33.2	32.4
3명 이상	3.0	8.5	3.6	9.2

주: 1차 웨이브 조사 내 ‘없음(41.6%)’ 미포함.

이혼한 경우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로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이보다 드물게(3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30.4%)’,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일 년에 한두 번(47.7%)’,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45.0%)’, ‘이보다 드물게(34.4%)’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왕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등 조사하는 차수 별로 만나는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45〉 이혼 후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6.5	10.3	9.5	8.3
한 달에 한두 번	3.6	30.4	14.7	45.0
두세 달에 한두 번	15.2	21.4	6.5	5.5
일 년에 한두 번	17.5	10.7	47.7	6.7
이보다 드물게	37.2	27.3	21.5	34.4

주: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응답에 한함.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든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남편보다 본인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자녀의 양육비의 경우 여성 응답자 본인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규모인 반면, 전남편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자녀의 경우 여성응답자는 20만원 내외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반면, 전남편은 10만원 내외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본인과 전남편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비교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본인	전남편	본인	전남편	본인	전남편	본인	전남편
첫 번째 자녀	23.44	9.31	12.74	9.68	17.6	9.90	25.14	6.01
두 번째 자녀	15.83	9.72	9.13	4.52	20.40	12.8	19.82	4.95
세 번째 자녀	13.23	0.00	2.45	3.62	10.1	5.9	6.93	36.95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73.1% 76.4% 82.6% 78.7%)’가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없음(2.6% 7.3% 3.4% 6.7%)’의 비율도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47〉 이혼 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 문제	73.1	76.4	82.6	78.7
자녀교육 문제	5.2	5.0	2.6	5.1
사회적 편견	3.2	3.4	4.5	4.7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	4.7	1.6	0.9	1.1
결혼생활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것	9.5	1.3	0.8	1.2
외로움	1.8	5.0	5.1	2.5
없음	2.6	7.3	3.4	6.7

### 3) 사별

사별을 경험한 응답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1차 웨이브 조사 17.4%에서 감소하여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인 문제(71.4% 66.8% 73.3% 61.6%)’와 ‘외로움(12.8% 16.5% 14.9% 2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의 미성년자녀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17.4	16.2	14.8	13.3
없다	82.6	83.8	85.2	86.4



〈표 Ⅲ-49〉 사별 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 문제	71.4	66.8	73.3	61.6
자녀교육	6.6	3.6	3.2	3.9
자녀 결혼	2.2	3.3	2.4	3.3
사회적 편견	2.1	4.4	1.9	1.6
외로움	12.8	16.5	14.9	22.5
없음	4.1	5.3	4.3	6.1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	-	-	0.7
기타	0.8	-	-	0.2

주: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4차 추가함.

## 라. 출산 및 자녀

### 1) 출산과 자녀 계획

지난 조사년도 이후 출산경험을 보면, 2차 웨이브 조사(2008년)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2007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4.2%로 나타났고 3차 웨이브 조사(2010년)의 경우 2차 웨이브 조사(2008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4.4%로 증가했다. 하지만 3차 웨이브 조사(2010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4.1%로 감소했다.

〈표 Ⅲ-50〉 지난 조사년도 이후 출산 경험 변화 여부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76.2	4.2	4.4	4.1
없다	23.8	95.8	95.6	95.9

자녀출산계획 시기 변화를 살펴보면 1년 이내의 경우, 1차 42.9%, 2차

15.4%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3차 44.9%, 4차 51.6%로 최근 증가 추세이다.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 1차 34.2%, 2차 16.7%로 감소되었으나 3차 32.3%로 일시상승 후, 4차 30.6%로 감소되었다. 2년 이후인 경우, 1차 22.8%, 2차 15.3%, 3차 22.8%, 4차 17.8%로 등락을 거듭했다.

〈표 Ⅲ-51〉 자녀출산계획 시기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년 이내	42.9	15.4	44.9	51.6
1년에서 2년 사이	34.2	16.7	32.3	30.6
2년 이후	22.8	15.3	22.8	17.8
언제가 될지 모르겠음	-	52.6	-	-

향후 자녀입양 계획 유무 변화를 살펴보면 ‘있는 경우’가, 1차 3.0%, 2차 2.5%, 3차 1.5%, 4차 1.1%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표 Ⅲ-52〉 향후 자녀입양 계획 유무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3.0	2.5	1.5	1.1
없다	97.0	97.5	98.5	98.9

## 2)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 자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를 살펴보면, 1차 1.41명, 2차 1.46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3차 1.42명, 4차 1.35명으로 감소추세이다.

〈표 Ⅲ-53〉 현재 같이 살고 있는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수	1.41	1.46	1.42	1.3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초·중·고 자녀 수를 살펴보면, 1차 1.63명, 2차 1.58명, 3차 1.58명, 4차 1.59명으로 2차에서 감소한 후 변동이 거의 없다.

〈표 Ⅲ-54〉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초·중·고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수	1.63	1.58	1.58	1.59

초·중·고 자녀와 평소에 대화하는 주제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가 1~4차에 걸쳐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에 71.4%, 2차에 65.1%, 3차에 69.2%, 4차에 73.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과 진학에 대해’가 1~4차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에 55.8%, 2차에 52.6%, 3차에 43.2%, 4차에 4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희망에 관하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1차에 15.8%에서 2차에 5.2%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3~4차에는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Ⅲ-55〉 초·중·고 자녀와 평소에 대화하는 주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에 관하여	10.9	11.3	11.2	10.0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학에 대해	55.8	52.6	43.2	46.7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71.4	65.1	69.2	73.5
자녀의 생활 습관에 대하여	-	33.0	44.8	37.8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의 동성친구에 대하여	19.7	16.1	12.3	16.2
자녀의 학교과목 이외의 활동	12.5	1.0	0.8	4.0
자녀의 미래희망에 관하여	15.8	5.2	5.5	5.1
나 자신의 고민거리나 문제에 대하여	0.8	0.5	1.4	0.7
부모님이나 친척, 친지에 관하여	0.7	0.3	0.3	0.2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계획에 관하여	1.4	-	-	0.5
최근 시사 및 유행(방송 및 전자기기 등)에 관하여	-	-	-	1.2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1.1	0.7	0.5	0.4
다른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0.8	-	-	-
기타	0.8	8.8	6.8	-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6.2	1.2	0.8	0.9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초·중·고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진학문제’를 ‘걱정하는 편(많이 걱정하는 편+조금 걱정하는 편)’인 경우, 1~4차에 걸쳐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많이 걱정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차에 29.3%, 2차에 27.7%, 3차에 21.0%, 4차에 19.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진학문제’의 ‘조금 걱정하는 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6〉 초·중·고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는 문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학업 성적과 진학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29.3	27.7	21.0	19.0
	조금 걱정하는 편	45.8	49.9	57.2	54.7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21.1	19.5	18.1	21.8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3.8	2.9	3.7	4.5
동성 친구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2.8	9.1	4.2	4.9
	조금 걱정하는 편	28.8	32.9	36.8	31.9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50.8	48.7	47.5	50.2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12.3	9.3	11.5	12.9
이성 친구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5.3	4.9	3.0	3.1
	조금 걱정하는 편	17.9	19.7	24.2	16.9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54.0	57.4	54.2	56.4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22.9	18.0	18.6	23.7
성격 및 정서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11.2	10.0	5.8	5.7
	조금 걱정하는 편	35.6	39.8	45.4	37.2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44.5	43.1	41.1	47.1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8.7	7.0	7.7	10.1
생활 습관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12.1	12.3	7.1	6.1
	조금 걱정하는 편	41.0	49.2	54.5	49.3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41.1	34.1	33.5	38.1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5.8	4.4	5.0	6.5
건강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10.9	12.4	7.6	7.1
	조금 걱정하는 편	35.6	45.6	47.6	36.9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45.2	35.7	37.5	46.1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8.3	6.3	7.3	9.9

남편과 초·중·고 자녀의 대화 정도를 살펴보면 ‘자주 대화 한다’인 경우, 1차 43.7%, 2차 44.7%, 3차 42.2%, 4차 49.3%로 나타났으며 ‘조금 대화 한

다'인 경우, 1차 41.6%, 2차 45.6%, 3차 48.0%, 4차 43.2%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화 한다'인 경우의 비율이 '대화하지 않는' 비율보다 1차와 4차에 걸쳐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7〉 남편과 초·중·고 자녀의 대화 정도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주 대화한다	43.7	44.7	42.2	49.3
조금 대화한다	41.6	45.6	48.0	43.2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9.0	5.7	6.4	5.0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1.7	1.1	1.0	0.8
잘 모른다	1.9	1.2	0.2	0.2
해당 없음(아이의 아버지가 없음)	2.1	1.6	2.3	1.5

### 3) 미혼 성인 자녀

미혼 성인 자녀수를 살펴보면, 1차 1.61명, 2차 1.55명, 3차 0.50명, 4차 0.50명으로 3차까지 낮아지고 있으며 4차에는 3차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8〉 미혼 성인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평균	1.61	1.55	0.50	0.50

미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를 살펴보면, 1~4차에 걸쳐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인 경우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1차 38.6%, 2차 41.3%, 3차 38.3%, 4차 34.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4차에 걸쳐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계획'이 높게 나타났으며 1차 31.7%, 2차 33.0%, 3차 32.7%, 4차 30.5%로 나타났다. 특히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인 경우 1차에 23.9%에서 2차에

8.2%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3차에 7.6%, 4차에 7.3%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9〉 미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

(단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	38.6	41.3	38.3	34.1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학	8.5	12.5	11.5	12.7
자녀의 학교생활	9.0	12.4	13.5	15.2
자녀의 동성친구	3.8	2.8	3.8	5.4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계획	31.7	33.0	32.7	30.5
자녀의 학교과목이외의 활동(취미, 종교)	4.0	2.7	4.3	2.8
부모님이나 친척, 친지	8.4	2.1	2.3	1.9
자녀의 미래희망	30.2	23.4	19.3	17.6
나 자신의 고민거리나 문제	4.7	3.0	4.6	5.2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16.2	13.9	13.7	13.2
자녀의 안부	4.7	-	-	-
자녀의 직장생활	0.7	27.4	28.7	29.4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23.9	8.2	7.6	7.3
최근 시사 및 유행(방송 및 전자기기 등)에 관하여	-	-	-	4.2
해당 순위 없음(1차기타포함)	2.0	8.3	10.9	11.0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최근 시사 및 유행(방송 및 전자기기 등)에 관하여’ 문항 4차 웨이브 조사부터 추가함.

미혼 성인 자녀의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많이 걱정하는 편’인 경우 ‘취업 및 진로 문제’가 1~3차에 걸쳐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에 21.9%, 2차에 23.7%, 3차에 18.6%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차인 경우 ‘이성친구나 결혼 문제’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는 편’인 경우가 16.0%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현실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표 Ⅲ-60〉 미혼 성인 자녀의 문제들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취업 및 진로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21.9	23.7	18.6	15.8
	조금 걱정하는 편	37.1	41.2	41.3	41.3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26.9	25.2	25.1	24.5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14.1	9.8	15.0	18.4
학교나 진학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9.4	8.5	5.8	7.1
	조금 걱정하는 편	22.1	24.0	23.9	21.0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35.2	30.8	30.2	28.9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33.3	36.6	40.1	43.1
이성 친구나 결혼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19.8	19.8	16.3	16.0
	조금 걱정하는 편	42.1	44.6	45.9	42.7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29.1	28.7	29.1	28.8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9.0	6.9	8.7	12.4
건강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10.6	8.1	6.4	5.9
	조금 걱정하는 편	35.9	43.7	38.1	32.0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43.4	40.2	44.7	46.3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10.1	8.0	10.8	15.9
성격 및 정서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5.9	5.1	3.7	4.0
	조금 걱정하는 편	24.7	28.6	27.0	21.9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53.8	55.2	55.2	55.5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15.6	11.2	14.1	19.0
귀가 시간문제	많이 걱정하는 편	6.2	6.2	5.1	6.4
	조금 걱정하는 편	24.5	27.9	31.3	30.0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	50.3	51.2	48.2	46.4
	전혀 걱정하지 않는 편	19.0	14.7	15.4	17.2

미혼 성인 자녀와의 의견 충돌 원인을 살펴보면, ‘의견 충돌이 거의 없었다’가 74.3%(4차)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1차에는



‘취업/진로 문제’가 8.6%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2차 이후에는 ‘귀가 시간 문제’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귀가 시간문제’로 2차에 8.1%, 3차에 12.7%, 4차에 13.2%로 점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61〉 미혼 성인 자녀와의 의견 충돌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웃차림의 문제로	2.9	2.3	3.1	2.2
이성 친구 문제로	3.2	2.3	3.4	2.6
동성친구 문제로	1.0	0.4	0.9	0.6
귀가시간 문제로	4.9	8.1	12.7	13.2
가사를 돕는 문제로	2.0	1.3	1.9	1.5
취업/진로 문제로	8.6	7.9	7.9	5.3
돈 문제로	5.8	4.0	3.9	5.3
학업 문제로	3.9	3.7	4.5	4.3
다른 형제와 불화 문제로	0.6	0.3	0.3	0.2
결혼 문제로	0.5	3.8	4.5	4.3
의견 충돌이 거의 없었다	87.3	78.0	73.0	74.3
기타	1.3	0.1	-	0.2
해당 순위 없음	-	9.4	10.4	11.7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 4) 미혼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도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준다’인 경우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보다 1~4차에 낮게 나타났다. ‘도움을 준다’인 경우 1차에 33.0%, 2차에 39.3%, 3차에 37.5%, 4차에 39.2%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인 경우 1차에 66.0%, 2차에 59.8%, 3차에 62.5%, 4차에 60.8%로 나타났다.

〈표 Ⅲ-62〉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준다	33.0	39.3	37.5	39.2
도움을 주지 않는다	66.0	59.8	62.5	60.8
기타(모름)	10.0	0.9	-	-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1차에 평균 49.49만원, 2차에 59.29만원, 3차에 66.26만원, 4차에 67.56만원으로 나타났다. 1차와 2차 변동액은 9.80만원, 2차와 3차 변동액은 6.97만원, 3차와 4차 변동액은 1.30만원으로 전체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조사 차수 간 변동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와 4차 변동액은 18.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월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49.49	59.29	66.26	67.56	+9.80	+6.97	+1.30	+18.07

한편,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받지 않는다’의 비율이 도움을 준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는다’인 경우 1차 15.2%, 2차 17.4%, 3차 16.2%, 4차 17.4%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4〉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받는다	15.2	17.4	16.2	17.4
도움을 받지 않는다	84.4	82.1	83.8	82.6
기타(모름)	0.4	0.5	-	-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1차에 50.67만원, 2차에 52.33만원, 3차에 61.11만원, 4차에 55.50만원으로 나타났다. 1차와 2차 변동액은 1.66만원, 2차와 3차 변동액은 8.78만원, 3차와 4차 변동액은 -5.61만원으로 나타나 최근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5〉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월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50.67	52.33	61.11	55.50	+1.66	+8.78	-5.61	+4.83

## 5) 기혼 성인 자녀

기혼 성인 자녀 수는 1차에 평균 1.99명, 2차 1.98명, 3차에는 감소하여 0.40명, 4차에는 약간 증가하여 0.50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66〉 기혼 성인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평균	1.99	1.98	0.40	0.50

기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를 살펴보면, 1차의 주요 대화 주제로는 ‘일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가 52.4%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손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34.9%,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가 26.3%, ‘부모님이나 친척, 친지에 관하여’가 2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차에는 ‘대화를 거의하지 않는다’가 급격히 낮아져 2~3% 수준이었다. 4차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문제로’가 47.1%로 제일 높았으며 특히 ‘건강문제’가 ‘일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에 이어 23.0%로 세 번째로 크게 높아졌다.

〈표 Ⅲ-67〉 기혼 성인 자녀와의 대화주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19.3	19.9	21.4	15.0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11.5	12.1	13.1	14.0
자녀의 고민이나 문제에 관하여	15.3	14.4	14.4	9.9
나의 고민이나 문제에 관하여	8.3	8.1	8.6	14.1
부모님이나 친척, 친지에 관하여	20.8	20.8	23.7	17.8
손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	34.9	46.6	44.9	47.1
일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	52.4	58.2	51.4	45.1
건강 문제에 관하여	1.3	-	-	23.0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26.3	3.2	3.9	2.3
기타	2.2	-	0.4	0.3
해당 순위 없음	-	12.6	13.4	9.1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 6) 기혼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도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의 비율이 ‘도움을 준다’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준다’인 경우 1차 6.9%, 2차 10.7%, 3차에 10.4%, 4차에 10.8%로 1차에 비해 높아졌다.

〈표 Ⅲ-68〉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준다	6.9	10.7	10.4	10.8
도움을 주지 않는다	92.5	89.1	89.6	89.2
기타(모름)	0.6	0.1	-	-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1차에는 33.07만원, 2차에는 22.53만원, 3차에는 33.21만원, 4차에는 38.60만원으로 나타났다. 1차와 2차 월평균 금액 변동액은 -10.54만원, 2차와 3차 월평균 금액 변동액은 10.68만원, 3차와 4차 월평균 금액은 5.39만원, 1차와 4차 월평균 금액은 5.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9〉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월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33.07	22.53	33.21	38.60	-10.54	+10.68	+5.39	+5.53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움을 받지 않는다’의 비율이 ‘도움을 받는다’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는다’인 경우 1차 웨이브 조사에 20.7%, 2차 웨이브 조사에 32.0%, 3차 웨이브 조사에 34.4%, 4차 웨이브 조사에 33.7%로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감소하였다.

〈표 Ⅲ-70〉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받는다	20.7	32.0	34.4	33.7
도움을 받지 않는다	78.9	67.8	65.6	66.3
기타(모름)	0.4	0.2	-	-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1차에는 26.47만원, 2차에는 35.81만원, 3차에는 39.38만원, 4차에는 37.31만원으로 나타나 1차 이후 3차까지 점진적 증가 추세였으나 4차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표 Ⅲ-71〉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월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26.47	35.81	39.38	37.31	+9.34	+3.57	-2.07	+10.84

## 7) 손자녀 돌봄

돌봐야 할 미취학 손자녀 유무 변화를 살펴보면, 1차에는 49.9%, 2차에는 54.1%로 증가되었으나 3차에는 21.6%, 4차에는 18.2%로 감소되었다.

〈표 Ⅲ-72〉 돌봐야 할 미취학 손자녀 유무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49.9	54.1	21.6	18.2
없다	50.1	45.9	78.4	81.8

평일에 손자녀를 돌보는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1차에는 7.40시간, 2차에는 7.05시간, 3차에는 6.41시간, 4차에는 5.62시간으로 감소되었다.

〈표 Ⅲ-73〉 평일에 손자녀를 돌보는 하루 평균 시간

(단위: 시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7.40	7.05	6.41	5.62	-0.35	-0.64	-0.79	-1.78

손자녀 돌봄의 대가로 돈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받지 않는다’가 ‘받는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받는다’ 인 경우 1차에는 35.0%, 2차에는 40.7%, 3차에는 37.3%, 4차에는 36.6%로 나타났다.

〈표 Ⅲ-74〉 손자녀 돌봄의 대가로 돈을 받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받는다	35.0	40.7	37.3	36.6
받지 않는다	65.0	59.3	62.7	63.4

손자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1차 49.39만원, 2차에는 56.19만원, 3차에는 59.65만원, 4차에는 63.45만원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5〉 손자녀 돌봄의 대가로 받은 월평균 금액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49.39	56.19	59.65	63.45	+6.80	+3.46	+3.80	+14.06

## 마. 본인부모님 및 시부모님과의 관계

### 1) 본인 부모님과의 관계

본인의 부모님과 동거 여부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 시 본인과 ‘같이 산다’가 24.9%, ‘다른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가 21.3%임에 비해 ‘부모님만

따로 사시는 경우'가 53.8%로 가장 크다. 또한 그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48.2% 49.5% 55.1% 53.8%).

〈표 Ⅲ-76〉 본인 부모님과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같이 산다	23.3	22.5	19.4	24.9
다른 형제·자매와 산다	28.5	28.0	25.5	21.3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요양 등 포함)	48.2	49.5	55.1	53.8

본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에 대해 4차 조사를 우선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가 70.5%로 가장 높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가 16.4%, '부모님이 연로하여서'가 6.2%로 그 다음으로 높다.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의 경향을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는 75.5%에서 70.5%로 감소하였고(75.5% 75.3% 79.9% 70.5%) 반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는 11.9%에서 16.4%로 증가하였다(11.9% 12.6% 8.4% 16.4%).

〈표 Ⅲ-77〉 본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부모님이 연로하여서	6.3	8.0	6.4	6.2
부모님 중의 한 분이 돌아가셔서	2.2	0.7	0.4	2.1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	1.3	1.9	1.6
형제 중 맏이어서	1.3	0.3	0.1	1.9
다른 형제가 없어서	0.8	0.1	0.9	1.0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11.9	12.6	8.4	16.4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2.4	1.5	1.2	1.7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2.0	2.0	1.7	1.1
가사에 도움을 받으려고	1.8	0.9	2.1	2.9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75.5	75.3	79.9	70.5
기타	1.2	-	0.1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부모님과 동거에 대한 본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여부를 보면 4차 조사에서는 부모님만 따로 살 경우 22.7%, 같이 살 경우 20.1%가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와 같이 살 경우 17.6%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같이 살 경우 부담하는 비율이 15.5%에서 20.1%로 크게 증가하였다(15.5% 15.6% 15.7% 20.1%).

〈표 Ⅲ-78〉 부모님과 동거에 따른 본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같이 산다	부담한다	15.5	15.6	15.7	20.1
	부담하지 않는다	84.5	84.4	84.3	79.9
다른 형제·자매와 산다	부담한다	15.3	14.8	14.3	17.6
	부담하지 않는다	84.7	85.2	85.7	82.4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요양 등 포함)	부담한다	23.0	20.1	22.1	22.7
	부담하지 않는다	75.7	79.9	77.9	77.3

부모님과의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보면, 4차 조사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에 관하여’가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가 60.3%로 높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부모님의 건강에 관하여’,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 ‘다른 친척·친지에 관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가 증가하였으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와 ‘남편과의 문제에 대하여’,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하여’가 감소하였다.

〈표 Ⅲ-79〉 본인 부모님과 대화주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14.7	14.7	7.0	10.2
남편과의 문제에 관하여	3.6	4.1	7.1	3.1
다른 친척, 친지에 관하여	12.9	15.1	15.6	16.0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	14.9	18.0	22.5	18.1
나 자신의 고민거리에 관하여	15.2	-	-	-
부모님의 건강에 관하여	67.6	63.2	67.8	70.0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	45.6	63.8	49.1	60.3
나 자신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하여	0.2	-	-	-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17.1	4.4	10.3	4.9
기타	0.9	-	0.1	0.2
해당 순위 없음	-	10.0	9.9	11.6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본인 부모님과 어떤 점에서 갈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정도에서 4차 조사 전혀 없는 경우가 77.8%, ‘별로 없다’가 18.0%로 거의 갈등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갈등이 전혀 없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갈등정도가 약화되고 있다(74.0% 71.2% 76.0% 77.8%).

본인 남편과의 문제로 인한 갈등정도를 보면 ‘갈등이 많이 있다’가 0.1%, ‘가끔 있다’가 1.5%로 갈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도 1차의 61.9%에 비해 4차는 68.2%로 증가하여 갈등이 약화되고 있다(61.9% 63.3% 68.0% 68.2%).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관련한 갈등정도를 보면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가 4차 조사 시 82.6%로 가장 높아 큰 갈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1차부터 4차의 경향을 보면 ‘갈등이 전혀 없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갈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8.3% 73.9% 79.0% 82.6%).

자녀 교육과 육아문제에 대한 갈등정도를 보면 4차 조사 시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가 62.1%로 가장 높다. '갈등이 많이 있다'의 비율은 1차와 4차가 모두 동일한 0.5%이며, '가끔 있다'는 2.5%에서 2.1%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자녀 출산문제는 '해당사항 없음'의 비율이 4차 조사에서 44.0%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도 각각 10.7%에서 6.6%로, 54.0%에서 48.3%로 감소하였다.

직장 또는 취업문제로 인한 갈등정도를 보면 4차 조사에서는 '전혀 없다'가 73.4%로 가장 높고, 1차와 비교하면 67.3%에서 73.4%로 증가하여 갈등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생활습관과 관련한 갈등정도를 보면 '전혀 없다'가 1차 때의 74.2%에서 4차 조사 시 80.2%로 증가하였다(74.2% 72.1% 77.3% 80.2%).

〈표 Ⅲ-80〉 본인 부모님과의 갈등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1.0	0.6	0.4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5.2	4.7	5.5	4.0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9.8	23.5	18.2	18.0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4.0	71.2	76.0	77.8
본인남편과의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2	0.1	0.1	0.1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1.7	1.8	2.9	1.5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4.4	17.9	15.0	12.0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61.9	63.3	68.0	68.2
	해당사항 없음	21.8	16.9	14.0	18.3
결혼 및 이성 친구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5	0.5	0.1	0.4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2.7	3.5	3.5	2.3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4.5	17.1	15.1	11.8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58.7	61.6	59.9	56.1
	해당사항 없음	23.6	17.4	21.5	29.5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가족이나 친척, 친지 관련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4	0.3	0.1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3.7	3.8	4.3	2.9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7.6	22.0	16.5	14.3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8.3	73.9	79.0	82.6
자녀 교육이나 돌보는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5	0.2	0.2	0.5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2.5	2.8	3.2	2.1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2.6	16.4	14.0	10.6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59.6	61.0	63.1	62.1
	해당사항 없음	24.8	19.6	19.5	24.8
자녀 출산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2	0.1	0.1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1.2	1.1	2.0	0.9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0.7	12.9	11.4	6.6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54.0	54.1	54.9	48.3
	해당사항 없음	33.7	31.8	31.6	44.0
직장 또는 취업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1.0	0.7	0.4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3.1	3.6	3.5	2.1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5.9	19.4	15.6	13.0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67.3	68.0	70.0	73.4
	해당사항 없음	12.6	8.4	10.6	11.3
생활습관 관련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1.7	0.9	0.3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6.0	5.2	5.2	5.0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8.1	21.7	17.2	14.5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4.2	72.1	77.3	80.2

본인 부모님을 누가 돌보는지 조사한 결과 4차 조사 시에는 ‘다른 형제·자매’가 28.3%로 가장 높고, ‘돌보는 분이 없다’가 24.0%, ‘병원·요양원에 입원 중’이 17.0%로 그 다음으로 높다. 지난 조사와의 증감을 보면 ‘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본다(22.9% 13.5% 12.0% 15.8%)’, ‘나 자신(11.6% 14.8% 7.4% 8.3%)’, ‘다른 형제·자매(44.1% 51.3% 43.3% 28.3%)’는

감소한 반면 ‘병원·요양원에 입원 중’은 대폭 증가하였다(7.3% 11.4% 25.3% 17.0%).

〈표 Ⅲ-81〉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22.9	13.5	12.0	15.8
나 자신	11.6	14.8	7.4	8.3
나의 자녀	1.1	0.5	0.1	0.5
다른 형제·자매	44.1	51.3	43.3	28.3
다른 형제·자매의 배우자	11.4	5.2	8.5	3.3
다른 사람(가사도우미, 고용된 간병인)	1.5	3.4	2.3	2.8
현재 병원, 요양원에 입원 중	7.3	11.4	25.3	17.0
요양보호사	-	-	0.9	-
돌보시는 분 없음	-	-	-	24.0
기타	0.1	-	0.1	0.0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보면 4차 조사에서는 월평균 6만 7천원으로 나타나 1차의 8만 9천원에 비해 약 2만 3천원이 감소하였다.

〈표 Ⅲ-82〉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월평균비용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8.94	10.36	9.40	6.69	+1.42	-0.96	-2.71	-2.25

## 2) 시부모님과 관계

시부모님과 동거여부를 보면, 4차 조사에서는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가 69.7%로 가장 높고, ‘다른 형제·자매와 산다’ 20.7%, ‘같이 산다’ 9.6%의 순서로 나타났다.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가 1차 조사의

63.6%에 비해 69.7%로 크게 증가하였다(63.6% 63.0% 66.4% 69.7%).

〈표 Ⅲ-83〉 시부모님과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같이 산다	10.7	11.0	10.3	9.6
다른 형제·자매와 산다	25.7	26.0	23.3	20.7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요양 등 포함)	63.6	63.0	66.4	69.7

시부모님과 동거 이유로는 4차 조사에 의하면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가 58.9%로 가장 높고, ‘남편이 형제 중 맏이여서’가 15.3%로 그 다음으로 높다. 1차와 비교하면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는 49.7%에서 58.9%로 증가하였으며(49.7% 54.1% 49.2% 58.9%), 남편이 형제 중 맏이여서 동거하는 비율은 23.3%에서 15.3%로 감소하였다(23.3% 22.1% 21.1% 15.3%).

〈표 Ⅲ-84〉 시부모님과 동거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	49.7	54.1	49.2	58.9
시부모님 중의 한 분이 돌아가셔서	13.8	12.3	9.3	8.5
시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6.7	5.7	3.1	4.4
남편이 형제 중 맏이여서	23.3	22.1	21.1	15.3
남편의 다른 형제가 없어서	2.4	1.6	2.0	2.3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8.1	8.9	10.0	4.7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5.6	3.1	4.2	2.0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3.6	4.8	3.5	4.1
가사에 도움을 받으려고	3.0	3.2	3.6	1.9
기타	6.9	-	0.2	1.9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경제적 비용 부담여부를 보면, 4차 조사에서는 같이 살 경우에는 부담하는 비율이 9.8%인 반면 다른 형제와 살 경우에는 26.4%, 따로 사는 경우에는 33.1%로 같이 살 경우 경제적 부담 비율이 가장 낮다. 1차와 비교하면 다른 형제·자매와 살 경우 부담 비율이 1차의 30.7%에서 26.4%로 감소하였으며,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부담 비율은 1차의 39.9%에서 33.1%로 감소하였다.

〈표 Ⅲ-85〉 시부모님과 동거에 따른 본인의 경제적 비용 부담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같이 산다	부담한다	10.4	10.0	12.5	9.8
	부담하지 않는다	89.6	90.0	87.5	90.2
다른 형제·자매와 산다	부담한다	30.7	23.5	24.7	26.4
	부담하지 않는다	69.3	76.5	75.3	73.6
부모님만 따로 사신다 (요양 등 포함)	부담한다	39.9	37.6	35.3	33.1
	부담하지 않는다	60.1	62.4	64.7	66.9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주제로는 4차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의 건강에 관하여’가 71.3%로 가장 높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가 48.4%,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가 25.2%로 높게 나타났다.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시부모님의 건강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고(60.9% 22.3% 67.8% 71.3%),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24.7% 12.4% 10.3% 9.2%).

〈표 Ⅲ-86〉 시부모님과 대화주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10.8	12.4	7.0	5.3
남편과의 문제에 관하여	9.0	11.6	7.1	6.2
다른 친척, 친지에 관하여	13.3	22.8	15.6	16.8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	19.5	30.6	22.5	25.2
부모님의 건강에 관하여	60.9	22.3	67.8	71.3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하여	40.9	60.9	49.1	48.4
기타	6.5	-	0.1	0.1
해당 순위 없음	-	14.3	9.9	8.3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24.7	12.4	10.3	9.2

주: 중복응답(누적 케이스 백분율)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항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갈등이 전혀 없다’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고, 1차 때와 비교해도 갈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에 대한 응답은 1차 조사 시 77.5%에서 4차 조사 시 79.0%로 증가하였으며, ‘본인 남편과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는 78.0%에서 77.9%로 다소 감소하였다.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관련된 갈등 역시 전혀 없다’가 1차 때의 74.4%에서 4차에는 81.4%로 증가하여 갈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87〉 시부모님과의 갈등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8	0.7	0.5	0.5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3.6	3.6	4.6	2.7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8.1	25.0	20.5	17.8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7.5	70.8	74.4	79.0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본인남편과의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5	0.3	0.3	0.4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3.0	3.6	4.5	2.7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8.5	24.3	20.7	16.2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8.0	71.7	73.6	77.9
	해당사항 없음	4.2	-	0.9	2.8
가족이나 친척, 친지 관련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3	0.3	0.3	0.4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3.4	2.9	3.8	2.9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7.7	24.7	20.5	15.3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4.4	70.7	74.2	81.4
	해당사항 없음	4.2	1.3	1.3	-
자녀 교육이나 돌보는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5	0.2	0.3	0.5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2.6	2.4	3.6	2.6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6.0	23.1	18.7	13.8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1.5	68.1	68.6	73.2
	해당사항 없음	-	-	-	10.0
자녀 출산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2	0.1	0.2	0.3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1.3	1.2	1.6	1.6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3.9	18.2	15.7	9.8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66.5	60.8	61.5	55.9
	해당사항 없음	18.2	19.7	21.0	32.4
직장 또는 취업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1	0.1	0.1	0.1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1.1	1.0	1.4	1.2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4.9	21.5	17.7	12.3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3.4	69.1	69.3	74.1
	해당사항 없음	10.6	8.3	11.4	12.3
생활습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6	0.4	0.5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2.7	3.2	2.9	2.0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6.8	23.3	19.8	15.0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9.9	73.2	76.8	82.9
	해당사항 없음	-	-	-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시부모 부양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0.4	0.3	0.2	0.2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2.0	2.3	2.4	2.0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16.3	22.6	19.2	15.0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76.8	73.0	75.8	82.9
	해당사항 없음	4.5	1.8	-	-

시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4차 조사에서는 ‘병원·요양원에 입원 중’인 비율이 2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돌보시는 분이 없음’이 22.2%로 높고, 그 다음이 ‘남편의 다른 형제·자매’가 19.6%로 높다. 응답자 자신이 돌보는 비율은 1차 때의 24.7%에서 급감하여 4차에서는 10.8%로 감소하였고(24.7% 24.4% 15.2% 10.8%), 남편의 다른 형제·자매도 29.3%에서 19.6%로 감소하였다. 반면 현재 병원·요양원에 입원 중인 비율이 13.8%에서 25.2%(13.8% 11.2% 26.3% 25.2%)로 급증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세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88〉 시부모님을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16.9	11.2	5.5	14.5
나 자신	24.7	24.4	15.2	10.8
나의 남편	2.7	4.3	0.5	1.5
남편의 다른 형제·자매	29.3	37.9	38.4	19.6
남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9.9	6.5	10.2	3.4
다른 사람(가사도우미)	1.8	4.5	2.2	-
현재 병원, 요양원에 입원 중	13.8	11.2	26.3	25.2
고용된 간병인	-	-	-	2.8
돌보시는 분 없음	-	-	-	22.2
기타	0.6	-	1.7	-

시부모님을 돌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1차 조사 시 월평균 11만 8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4차 조사에서는 17만 9천원으로 6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9〉 시부모님을 돌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11.75	14.33	17.77	17.86	+2.58	+3.97	+0.09	+6.11

## 바. 본인 형제·자매 및 남편 형제·자매와의 관계

### 1)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

본인의 형제·자매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을 보면 1차 조사 시 12.4%에서 점차 감소하여 4차 조사 시에는 5.6%로 점차 감소하여(12.4% 7.1% 6.6% 5.6%) 경제적 교류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90〉 본인의 형제·자매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주고받는다	12.4	7.1	6.6	5.6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	87.6	92.9	93.4	94.4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지를 보면 4차 조사에서 ‘가끔 대화한다’가 59.8%로 가장 높고, ‘자주 대화 한다’가 28.5%로 나타나 빈번하게 대화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차와 비교하면 ‘자주 대화한다’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33.4% 24.6% 24.6% 28.5%), ‘가끔 대화한다’는 증가하고 있어(51.3% 61.5% 65.3% 59.8%) 대화의 빈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91〉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주 대화한다	33.4	24.6	24.6	28.5
가끔 대화한다	51.3	61.5	65.3	59.8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12.4	11.4	8.3	9.8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9	2.5	1.8	2.0

본인의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이나 집안일을 상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차 조사만을 보면 ‘가끔 상의한다’가 59.3%로 가장 높고, ‘자주 상의한다’가 23.6%로 그 다음으로 높다. 1차와 비교하면 ‘자주 상의한다’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32.4% 21.4% 20.8% 23.6%), ‘가끔 상의한다’의 비율은 증가하여(50.7% 61.1% 63.8% 59.3%), 상의하는 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92〉 본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이나 집안일 상의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주 상의한다	32.4	21.4	20.8	23.6
가끔 상의한다	50.7	61.1	63.8	59.3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	13.5	14.0	12.4	13.3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3.3	3.5	3.0	3.7

본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같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54.0% 63.9% 62.1% 59.6%).

〈표 Ⅲ-93〉 본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공유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같이 부담한다	12.8	12.5	11.6	12.5
같이 부담하지 않는다	54.0	63.9	62.1	59.6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다	9.8	-	-	-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23.4	23.6	26.3	27.9

## 2) 남편 형제·자매와의 관계

남편의 형제·자매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을 보면 1차 조사 시 11.3%에서 점차 감소하여 4차 조사 시에는 3.9%로 감소하여(11.3% 6.3% 4.4% 3.9%) 경제적 교류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94〉 남편의 형제·자매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도움을 주고 받는다	11.3	6.3	4.4	3.9
도움을 주고 받지 않는다	88.7	93.7	95.6	96.1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지를 보면 4차 조사에서 ‘가끔 대화한다’가 62.3%로 가장 높고,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가 22.2%로 나타나 본인의 형제·자매만큼 빈번하게 대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교적 빈번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와 비교하면 ‘자주 대화한다(12.9% 9.1% 6.5% 8.8%)’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끔 대화한다(53.6% 61.9% 66.4% 62.3%)’는 증가하고 있어 대화의 빈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25.1% 23.2% 22.1% 22.2%)’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8.3% 5.8% 5.0% 6.7%)’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대화가 절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Ⅲ-95〉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주 대화한다	12.9	9.1	6.5	8.8
가끔 대화한다	53.6	61.9	66.4	62.3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5.1	23.2	22.1	22.2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8.3	5.8	5.0	6.7

남편의 형제·자매들과 부모님이나 집안일을 상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차 조사만을 보면 ‘가끔 상의한다’가 61.5%로 가장 높고,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가 21.8%로 그 다음으로 높다. 1차와 비교하면 ‘자주 상의한다(14.5% 9.5% 6.5% 8.2%)’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가끔 상의한다(56.0% 61.1% 65.1% 61.5%)’의 비율은 증가하여, 상의하는 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96〉 남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이나 집안일 상의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주 상의한다	14.5	9.5	6.5	8.2
가끔 상의한다	56.0	61.1	65.1	61.5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	21.6	23.3	22.2	21.8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7.8	6.2	6.1	8.5

남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같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42.0% 51.4% 49.3% 47.2%).

〈표 Ⅲ-97〉 남편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공유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같이 부담한다	17.4	13.2	13.2	12.4
같이 부담하지 않는다	42.0	51.4	49.3	47.2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다	7.7	-	-	-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33.0	35.3	37.5	40.3

## 사. 가치관

이 부문에서는 조사응답자의 결혼, 가족 및 부부관계,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금 그렇다’가 41.5%로 가장 높고, ‘별로 그렇지 않다’가 31.6%로 긍정에 가깝게 나타났다. 네 차례의 조사기간 동안 인식의 변화를 보면 ‘매우 그렇다(18.0% 17.5% 18.8% 20.5%)’와 ‘조금 그렇다(32.7% 37.3% 45.2% 41.5%)’가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조금 그렇다’가 59.3%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20.6%로 그 다음으로 높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매우 그렇다’는 감소하고(25.3% 22.9% 20.1% 20.6%), ‘조금 그렇다’는 증가하여(54.0% 59.8% 63.5% 59.3%) 상대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별로 그렇지 않다’가 50.1%로 가장 높고 ‘조금 그렇다’가 30.2%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변화하고 있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52.9%에서 50.1%로 감소한 반면 ‘매우 그렇다’는 7.9%에서 9.6%로, ‘조금 그렇다’는 26.3%에서 30.2%로 증가하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조금 그렇다’가 48.6%로 가장 높고, ‘별로 그렇지 않다’가 26.1%, ‘매우 그렇다’가 21.9%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1차와 비교하면 ‘조금 그렇다’가

44.6%에서 48.6%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편으로 미세하게 변화하였다.

〈표 Ⅲ-98〉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18.0	17.5	18.8	20.5
	조금 그렇다	32.7	37.3	45.2	41.5
	별로 그렇지 않다	38.2	37.8	30.7	31.6
	전혀 그렇지 않다	11.1	7.4	5.3	6.4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25.3	22.9	20.1	20.6
	조금 그렇다	54.0	59.8	63.5	59.3
	별로 그렇지 않다	17.6	14.5	14.4	17.6
	전혀 그렇지 않다	3.1	2.8	1.9	2.6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매우 그렇다	7.9	7.7	8.3	9.6
	조금 그렇다	26.3	27.2	35.6	30.2
	별로 그렇지 않다	52.9	53.4	46.0	50.1
	전혀 그렇지 않다	12.9	11.7	10.1	10.1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매우 그렇다	21.2	20.0	20.0	21.9
	조금 그렇다	44.6	49.5	51.8	48.6
	별로 그렇지 않다	28.5	26.2	24.5	26.1
	전혀 그렇지 않다	5.7	4.4	3.7	3.4

‘자녀가 있어도 이혼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긍정이 49.0%, 반대가 51.0%로 찬반이 팽팽하다. 1차 조사와의 변화를 보면 극단적인 입장인 ‘매우 그렇다(9.8% 7.5%)’와 ‘전혀 그렇지 않다(17.0% 12.4%)’는 감소하였고, 중간 입장인 ‘조금 그렇다(40.5% 41.5%)’와 ‘별로 그렇지 않다(32.6% 38.6%)’도 증가하였다.

부부생활의 성적 만족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65.0%가 ‘조금 그렇다’, 16.1%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전체의 81.1%가 ‘그렇다’에 답하고 있다. 1차 조사와의 변화를 보면 ‘매우 그렇다’는 25.3%에서 16.1%로 감소한 반면 ‘조금 그렇다’는 58.1%에서 65.0%로 증가하였다.



남편 이외의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별로 그렇지 않다’가 52.1%로 가장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7%로 높아 부정적인 편이 전체 응답자의 82.8%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조사와의 변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35.5% → 30.7%)’는 감소한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46.5% → 52.1%)’는 증가하여 부정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남편이 외도를 할 경우 이혼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4차 조사 시 ‘별로 그렇지 않다’가 41.6%, ‘조금 그렇다’가 34.3%로 반대가 조금 더 우세했다. 1차와의 변화를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37.8% → 43.1% → 41.6% → 41.6%)’와 ‘전혀 그렇지 않다(10.6% → 9.2% → 12.3% → 13.3%)’가 모두 증가하여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표 Ⅲ-99〉 가족 및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자녀가 있어도 이혼 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9.8	8.2	5.3	7.5
	조금 그렇다	40.5	43.2	43.5	41.5
	별로 그렇지 않다	32.6	35.1	37.5	38.6
	전혀 그렇지 않다	17.0	13.5	13.7	12.4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25.3	21.1	13.2	16.1
	조금 그렇다	58.1	65.8	68.7	65.0
	별로 그렇지 않다	15.2	11.8	15.7	17.0
	전혀 그렇지 않다	1.4	1.3	2.3	1.9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2.1	1.9	1.5	1.9
	조금 그렇다	15.9	15.8	19.4	15.3
	별로 그렇지 않다	46.5	55.5	52.2	52.1
	전혀 그렇지 않다	35.5	26.8	26.9	30.7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17.8	10.8	8.5	10.7
	조금 그렇다	33.9	36.8	37.6	34.3
	별로 그렇지 않다	37.8	43.1	41.6	41.6
	전혀 그렇지 않다	10.6	9.2	12.3	13.3

‘남자는 직장,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4차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가 50.9%, ‘그렇지 않다’가 49.1%로 찬반이 비슷하다. 1차와 비교하면 ‘조금 그렇다’가 32.0%에서 37.1%로 증가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1%에서 7.3%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역할분담에 긍정적인 편으로 변화하였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차 조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45.8%, ‘조금 그렇다’가 41.6%로 나타났다. 1차 조사와의 변화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12.4%에서 8.2%로 감소하였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가 39.7%에서 45.8%로 증가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부의 일이 취학 전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4차 조사 시 63.5%로 다른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1차 조사와의 변화를 보면 ‘조금 그렇다’가 47.7%에서 51.9%로 증가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즉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은 6.0%에서 3.6%로 감소하여 여성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가 54.8%, ‘매우 그렇다’가 30.7%로 ‘그렇다’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차와의 비교를 보면 ‘매우 그렇다’는 39.5%에서 30.7%로 감소하였고, ‘조금 그렇다’는 46.6%에서 54.8%로 증가하여 ‘그렇다’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4차 조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52.9%로 가장 높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1차와의 변화를 보면 큰 차이가 없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가 50.7%에서 52.9%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차 조사에서 ‘그렇다’의 비율이 67.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1차와의 변화를 보면 ‘조금 그렇다’가 40.3%에서 44.3%로 증가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는 감소하였다.

〈표 Ⅲ-100〉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매우 그렇다	14.7	12.4	10.4	13.8
	조금 그렇다	32.0	35.7	47.1	37.1
	별로 그렇지 않다	42.3	43.2	35.3	41.8
	전혀 그렇지 않다	11.1	8.7	7.2	7.3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 진다	매우 그렇다	12.4	9.9	7.3	8.2
	조금 그렇다	42.2	41.5	48.9	41.6
	별로 그렇지 않다	39.7	43.7	38.8	45.8
	전혀 그렇지 않다	5.7	4.8	5.0	4.4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매우 그렇다	12.2	9.5	8.4	11.6
	조금 그렇다	47.7	53.4	57.0	51.9
	별로 그렇지 않다	34.1	32.8	31.3	33.0
	전혀 그렇지 않다	6.0	4.2	3.3	3.6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39.5	34.3	26.8	30.7
	조금 그렇다	46.6	52.5	59.1	54.8
	별로 그렇지 않다	12.4	11.9	13.0	13.4
	전혀 그렇지 않다	1.5	1.3	1.2	1.0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6.9	5.7	3.8	5.3
	조금 그렇다	25.5	24.3	33.6	25.5
	별로 그렇지 않다	50.7	54.7	46.8	52.9
	전혀 그렇지 않다	16.9	15.4	15.7	16.3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29.0	25.5	20.4	23.6
	조금 그렇다	40.3	45.9	53.1	44.3
	별로 그렇지 않다	26.3	24.9	23.4	28.7
	전혀 그렇지 않다	4.4	3.7	3.1	3.4

## 아. 여성 건강<sup>7)</sup>

### 1) 현재 건강 상태 및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

연령·학력별 현재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건강이 아주 나쁘다’로 응답한 비율이 0.2%에서 30대가 0.7%, 40대가 0.8%, 50대 이상인 경우 5.8%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건강수준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수준면에서는 ‘건강이 아주 나쁘다’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졸업자 이하 중 7.6%, 고등학교 졸업자 중 1.3%, 전문대 졸업자 이상 중 0.8%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01〉 연령·학력별 현재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아주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한편 이다	보통이다	별로 건강하지 않다	건강이 아주 나쁘다
연령	20대 이하	27.0	58.4	13.2	1.2	0.2
	30대	14.9	55.7	25.4	3.4	0.7
	40대	7.7	51.8	32.6	7.0	0.8
	50대 이상	2.3	29.9	38.7	23.3	5.8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6	23.7	38.5	28.6	7.6
	고등학교 졸업	10.6	46.1	33.3	8.7	1.3
	전문대 졸업이상	16.0	58.0	21.7	3.6	0.8
계		10.1	44.3	30.5	12.3	2.8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 응답 중 가장 심한 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8.6%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지 못한다’가 7.9%,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5.8%,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3.0%로 나타났다.

7) 여성건강에 관한 분석은 여성가족패널 4차 웨이브 조사에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102〉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8	49.2	33.0	12.0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0.6	9.2	45.6	44.7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재미있다	2.1	13.3	49.7	34.9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0.5	8.6	56.7	34.2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1.5	12.7	55.8	30.0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푼다	7.9	46.4	37.3	8.4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6	33.0	45.3	13.1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0	27.3	54.6	15.0

## 2) 의료 서비스 이용

연령·학력별 의료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56.5%, 40대가 37.9%, 30대가 31.3%, 20대 이하가 26.8%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 중 62.6%, 고등학교 졸업자 중 36.1%, 전문대 졸업자 이상 중 34.1%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3〉 연령·학력별 의료 서비스 이용

(단위: %)

구분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연령	20대 이하	26.8	73.2
	30대	31.3	68.7
	40대	37.9	62.1
	50대 이상	56.5	43.5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62.6	37.4
	고등학교 졸업	36.1	63.9
	전문대 졸업이상	34.1	65.9
계		41.1	58.6

### 3) 음주

음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성인 여성 음주자 중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가 3.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가 2.9%,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가 0.6%,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가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04〉 음주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해당없음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2.9	58.5	38.6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0.6	61.1	38.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	3.5	58.9	37.6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0.1	62.0	37.8

### 4) 여성응답자의 신체조건과 건강증진 활동

연령별 여성응답자의 체형을 살펴보면, ‘매우 비만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나이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매우 비만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4%, 50대가 3.3%, 40대가 3.1%, 30대 이하가 2.2%로 나타났다.

〈표 Ⅲ-105〉 연령별 여성응답자의 체형

(단위: %)

연령	매우 마른편이다	약간 마른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30대 이하	0.5	15.5	64.2	17.6	2.2
40대	0.7	10.9	60.2	25.1	3.1
50대	1.1	9.0	58.0	28.6	3.3
60세 이상	1.8	14.2	49.7	29.9	4.4

연령별 최근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았

다'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80.3%로 제일 높으나 다른 연령집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6〉 연령별 최근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여부

(단위: %)

연령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매일)	전혀 하지 않았다
30대 이하	3.6	4.7	5.1	1.7	2.0	1.1	1.8	79.9
40대	4.0	4.7	6.5	2.0	4.2	1.1	2.2	75.2
50대	3.0	4.0	6.0	2.6	3.7	1.3	2.9	76.6
60세 이상	2.7	2.8	6.2	2.3	1.9	1.0	2.7	80.3

### 3. 여성 일자리의 변화와 특징<sup>8)</sup>

본 절에서는 1차 웨이브 조사에서 4차 웨이브 조사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제시된 통계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것이나, 개인의 일자리 변화추이 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다<sup>9)</sup>.

#### 가. 현재의 경제활동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상태 분류는 지난 1주의 일한 경험과 지난 1개월의 구직 경험, 그리고 즉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통해 구분한다. 이와 같은 구분 방법은 통계청은 물론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구분 방법으로, 본 연구 또한 경제활동상태를 이런 기준을 통해 구분한 후 1차 웨이브 조사에서 4차 웨이브 조사까지 패널 사이에서 일어난 경제활동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 8) 본 절의 대부분의 통계표는 패널의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단, 1~4차 여성가족패널의 상태변화를 추적하는 통계표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통계표를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9) 이 경우 패널은 1차 웨이브 조사를 기준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한 후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패널만으로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39.3%로 낮게 나타났으나, 2차 웨이브 조사는 42.1%, 3차 웨이브 조사는 47.6%,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는 51.1%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패널조사 차수가 증가하면서 첫 조사 시 20세 중반 이하의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던 여성들이 점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비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실업자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3.8%에서 2차 웨이브 조사 2.9%, 3차 웨이브 조사 1.8%로 하락했고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약간 비율이 상승하여 2.0%를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차 웨이브 조사 56.9%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4차 웨이브 조사는 46.9%로 1차 웨이브 조사 대비 10.0%p의 하락을 보였다.

〈표 Ⅲ-107〉 경제활동상태별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취업자	39.3	42.1	47.6	51.1
실업자	3.8	2.9	1.8	2.0
비경제활동인구	56.9	55.0	50.6	4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구직기간 1개월(4주) 기준임.

이에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기 위해 1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패널을 기준으로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 응답한 6,678명<sup>10)</sup>을 대상으로 상태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먼저 1차 웨이브 조사에서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 패널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연속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총 3,012명 중 2,320명으로 나타났다. 즉, 1차 웨이브 조사의 취업상태가 계속 유지된 비율이 7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는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97명, 6.5%) 형태였고, 2차 웨이브 조사

10) 결측치 제외함.



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11명, 3.7%),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패널(149명, 4.9%) 등이 1차 웨이브 조사 취업상태에서 변화된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2차 웨이브 조사에서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에 다시 취업상태로 변화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2차 웨이브 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된 패널의 경우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 있는 패널의 수가 많았다.

〈표 Ⅲ-108〉 취업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자	취업자	2,320	(77.0)	17	(0.6)	197	(6.5)
	실업자	6	(0.2)	1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62	(2.1)	3	(0.1)	149	(4.9)
	소계	2,388	(79.3)	21	(0.7)	349	(11.6)
실업자	취업자	16	(0.5)	0	(0.0)	1	(0.0)
	실업자	4	(0.1)	0	(0.0)	0	(0.0)
	비경제활동인구	5	(0.2)	0	(0.0)	5	(0.2)
	소계	25	(0.8)	0	(0.0)	6	(0.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64	(2.1)	1	(0.0)	8	(0.3)
	실업자	3	(0.1)	0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28	(0.9)	5	(0.2)	111	(3.7)
	소계	95	(3.2)	6	(0.2)	122	(4.1)

주: 1차 웨이브 조사 취업자(3,012명)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함.

1차 웨이브 조사에 실업자인 패널 중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연속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 중 2차 웨이브 조사에 취업자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후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한 경우가 23.2%로 가장 높았고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되어 이를 유지하고 있는 패널이 2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차 웨이브 조사 실업

상태(194명)에서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취업상태로 변화된 패널은 118명으로 60.8%로 나타났고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비경제활동상태로 변환된 패널은 36.1%를 차지하였으며 4차 웨이브 조사에 실업상태를 보이는 패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9〉 실업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자	취업자	45	(23.2)	0	(0.0)	6	(3.1)
	실업자	1	(0.5)	1	(0.5)	1	(0.5)
	비경제활동인구	7	(3.6)	2	(1.0)	8	(4.1)
	소계	53	(27.3)	3	(1.5)	15	(7.7)
실업자	취업자	7	(3.6)	0	(0.0)	0	(0.0)
	실업자	3	(1.5)	1	(0.5)	0	(0.0)
	비경제활동인구	1	(0.5)	1	(0.5)	4	(2.1)
	소계	11	(5.7)	2	(1.0)	4	(2.1)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33	(17.0)	0	(0.0)	5	(2.6)
	실업자	4	(2.1)	0	(0.0)	3	(1.5)
	비경제활동인구	17	(8.8)	1	(0.5)	43	(22.2)
	소계	54	(27.8)	1	(0.5)	51	(26.3)

주: 1차 웨이브 조사 실업자(194명)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함.

1차 웨이브 조사에 비경제활동인구(3,472명)이었던 패널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패널은 2,105명으로 60.6%를 보였고,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취업상태인 패널은 30.3%로 나타났다. 4차 웨이브 조사에 취업상태로 변화된 패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웨이브 조사부터 취업상태로 변화된 패널 비율이 6.6%이고, 2차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 취업상태로 진입한 비율이 10.9%,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취업상태로 진입한 비율이 10.1%로 나타났다.

〈표 Ⅲ-110〉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자	취업자	229	(6.6)	5	(0.1)	53	(1.5)
	실업자	4	(0.1)	1	(0.0)	3	(0.1)
	비경제활동인구	20	(0.6)	2	(0.1)	55	(1.6)
	소계	253	(7.3)	8	(0.2)	111	(3.2)
실업자	취업자	25	(0.7)	3	(0.1)	7	(0.2)
	실업자	3	(0.1)	0	(0.0)	6	(0.2)
	비경제활동인구	16	(0.5)	2	(0.1)	31	(0.9)
	소계	44	(1.3)	5	(0.1)	44	(1.3)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350	(10.1)	6	(0.2)	83	(2.4)
	실업자	27	(0.8)	2	(0.1)	28	(0.8)
	비경제활동인구	379	(10.9)	27	(0.8)	2,105	(60.6)
	소계	756	(21.8)	35	(1.0)	2,216	(63.8)

주: 1차 웨이브 조사 비경제활동인구(3,472명)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함.

지금까지 살펴본 1차 웨이브 조사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변화를 종합해 보면,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상태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는 비율이 각각 77.0%와 60.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의 경우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취업자로 변경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되는 비율이 각각 23.2%, 22.2%로 높았으며, 실업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 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패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를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널 조사 당시 주요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다. 먼저 1차 웨이브 조사 일자리는 조사

시점에서 현재 일자리 1개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개인파일 일자리용 설문지에 있는 응답내용과 현재 일자리가 동일하다. 반면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 유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일자리를 발췌하였으며, 3, 4차의 경우에는 지난 조사 당시의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와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발췌하였다. 단, 한명의 패널이 2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를 우선 선택하고 월평균 소득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의 일자리를 선별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형태 변화를 분석해 보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1차 웨이브 조사 58.6%에서 2차 웨이브 조사 60.4%, 3차 웨이브 조사 63.7%,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 65.4%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차 웨이브 조사 38.3%에서 2차 웨이브 조사 36.5%, 3차 웨이브 조사 33.4%, 4차 웨이브 조사 29.9%로 하락하였고, 특수고용직 비중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3.1%에서 3차 웨이브 조사 2.9%로 0.2%p 하락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는 취업자 중 비중이 4.7%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1〉 일자리형태별(임금/비임금/특수고용직) 비중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임금근로자	58.6	60.4	63.7	65.4
비임금근로자	38.3	36.5	33.4	29.9
특수고용직	3.1	3.1	2.9	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차 웨이브 조사에 임금근로자였던 패널의 일자리 형태 변화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5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임금근로자로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 들어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9.5%)로 나타

났고 2차 웨이브 조사까지는 임금근로자였지만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7.2%)과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6.5%)의 비중이 다른 형태의 변화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2〉 임금근로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722	(59.3)	17	(1.4)	13	(1.1)	116	(9.5)
	비임금근로자	1	(0.1)	11	(0.9)	0	(0.0)	1	(0.1)
	특수고용형태근로자	2	(0.2)	1	(0.1)	4	(0.3)	2	(0.2)
	비취업자	31	(2.5)	6	(0.5)	3	(0.2)	88	(7.2)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3	(0.2)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1	(0.1)	7	(0.6)	0	(0.0)	2	(0.2)
	특수고용형태근로자	7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1	(0.1)	0	(0.0)	1	(0.1)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임금근로자	1	(0.1)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특수고용형태근로자	1	(0.1)	0	(0.0)	2	(0.2)	0	(0.0)
	비취업자	1	(0.1)	0	0.0	0	0.0	1	(0.1)
비취업자	임금근로자	54	(4.4)	1	(0.1)	1	(0.1)	7	(0.6)
	비임금근로자	1	(0.1)	5	(0.4)	1	(0.1)	2	(0.2)
	특수고용형태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26	(2.1)	1	(0.1)	1	(0.1)	79	(6.5)

주: 1차 웨이브 조사 임금근로자(1,218명)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추적함.

1차 웨이브 조사에 비임금근로자였던 패널의 74.5%는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임금근로자로 남아 있었다.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임금근로자로 진입한 패널은 25명으로 1.5%에 불과했고 비임금근로자로 있다가 4차 웨이브 조

사에 임금근로자로 진입한 패널과 3차 웨이브 조사부터 임금근로자로 진입한 패널이 각각 4.2%와 3.1%를 보였다. 한편 적은 규모이지만 1차 웨이브 조사 비임금근로자 중 4명은 2차 웨이브 조사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 진입하여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하고 있었고,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노동시장에서 나온 후 지속적으로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패널 또한 2.3%로 나타났다.

〈표 Ⅲ-113〉 비임금근로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25	(1.5)	1	(0.1)	1	(0.1)	1	(0.1)
	비임금근로자	1	(0.1)	7	(0.4)	0	(0.0)	0	(0.0)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3	(0.2)	1	(0.1)	0	(0.0)	5	(0.3)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53	(3.1)	12	(0.7)	2	(0.1)	7	(0.4)
	비임금근로자	72	(4.2)	1,274	(74.5)	6	(0.4)	83	(4.9)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0	(0.0)	1	(0.1)	1	(0.1)	0	(0.0)
	비취업자	10	(0.6)	9	(0.5)	3	(0.2)	53	(3.1)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0	(0.0)	0	(0.0)	4	(0.2)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임금근로자	8	(0.5)	2	(0.1)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1	(0.1)	11	(0.6)	0	(0.0)	0	(0.0)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4	(0.2)	3	(0.2)	5	(0.3)	40	(2.3)

주: 1차 웨이브 조사 비임금근로자(1,709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1차 웨이브 조사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였던 패널의 경우 60.0%는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크게 차지하는 상태 변화는 2차 웨이브 조사까지 특수고용근로자로 있다가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남은 상태(8.2%)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전환된 상태(7.1%)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서 4차 웨이브 조사에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패널은 많지 않았다.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패널은 총 8명으로, 2차 웨이브 조사부터 진입한 경우가 2명, 3차 웨이브 조사부터 진입한 경우가 5명,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에 임금근로자로 진입한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14〉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상태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2	(2.4)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특수고용형태근로자	1	(1.2)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0	(0.0)	3	(3.5)	0	(0.0)	0	(0.0)
	특수고용형태근로자	0	(0.0)	0	(0.0)	1	(1.2)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0	(0.0)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임금근로자	4	(4.7)	0	(0.0)	0	(0.0)	0	(0.0)
	비임금근로자	0	(0.0)	2	(2.4)	1	(1.2)	0	(0.0)
	특수고용형태근로자	0	(0.0)	1	(1.2)	51	(60.0)	2	(2.4)
	비취업자	0	(0.0)	0	(0.0)	0	(0.0)	7	(8.2)
비취업자	임금근로자	1	(1.2)	0	(0.0)	0	(0.0)	1	(1.2)
	비임금근로자	0	(0.0)	0	(0.0)	0	(0.0)	1	(1.2)
	특수고용형태근로자	0	(0.0)	0	(0.0)	1	(1.2)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6	(7.1)

주: 1차 웨이브 조사 특수고용형태 근로자(85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 1)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1차 웨이브 조사는 정규직 비율이 57.7%이고 비정규직이 42.3%였으나, 정규직 비율은 2차와 3차 웨이브 조사에 걸쳐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정규직비율은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에는 57.2%로 소폭 하락했지만 2009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의 3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에는 49.7%로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다행히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에는 54.3%로 다시 상승하지만 이는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면 3.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5〉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정규직	57.7	57.2	49.7	54.3
비정규직	42.3	42.8	50.3	4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의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1차 웨이브 조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비율은 58.9%로 나타났다.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정규직 상태로 변경된 패널 비율은 10.9%이었고 비취업 상태로 변경된 비율이 21.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다가 비취업자로 변경된 비율이 8.6%로 비교적 높았고 3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된 비율이 각각 6.0%와 4.8%를 차지했다.



〈표 Ⅲ-116〉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정규직	355	(58.9)	10	(1.7)	9	(1.5)	52	(8.6)
	비정규직	3	(0.5)	20	(3.3)	0	(0.0)	1	(0.2)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5	(0.8)	1	(0.2)
	비취업자	8	(1.3)	4	(0.7)	4	(0.7)	36	(6.0)
비정규직	정규직	1	(0.2)	0	(0.0)	0	(0.0)	0	(0.0)
	비정규직	2	(0.3)	10	(1.7)	0	(0.0)	2	(0.3)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1	(0.2)	1	(0.2)	2	(0.3)
비임금 +특수 고용	정규직	2	(0.3)	0	(0.0)	0	(0.0)	0	(0.0)
	비정규직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3	(0.5)	1	(0.2)
	비취업자	0	(0.0)	1	(0.2)	1	(0.2)	2	(0.3)
비취업자	정규직	7	(1.2)	2	(0.3)	1	(0.2)	1	(0.2)
	비정규직	0	(0.0)	11	(1.8)	0	(0.0)	2	(0.3)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2)	0	(0.0)	0	(0.0)
	비취업자	6	(1.0)	5	(0.8)	1	(0.2)	29	(4.8)

주: 1차 웨이브 조사 정규직 근로자(603명)의 근로형태 변화를 추적함.

한편 1차 웨이브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 중 4차 웨이브 조사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9.7%에 불과했고 44.9%는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웨이브 조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하는 패널의 비율은 2.7%로 나타났고 3차 웨이브 조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하는 패널의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3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정규직을 유지하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로 전환된 패널은 55명으로 9.3% 비율이었고,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전환된 패널은 8.5%(50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1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정규직	16	(2.7)	1	(0.2)	2	(0.3)	1	(0.2)
	비정규직	1	(0.2)	3	(0.5)	0	(0.0)	1	(0.2)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1	(0.2)
비정규직	정규직	8	(1.4)	1	(0.2)	0	(0.0)	4	(0.7)
	비정규직	18	(3.1)	265	(44.9)	19	(3.2)	55	(9.3)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2)	6	(1.0)	0	(0.0)
	비취업자	2	(0.3)	16	(2.7)	4	(0.7)	48	(8.1)
비임금 +특수 고용	정규직	1	(0.2)	0	(0.0)	0	(0.0)	0	(0.0)
	비정규직	0	(0.0)	1	(0.2)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2)	4	(0.7)	1	(0.2)
	비취업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정규직	6	(1.0)	0	(0.0)	0	(0.0)	1	(0.2)
	비정규직	3	(0.5)	25	(4.2)	1	(0.2)	3	(0.5)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3	(0.5)	1	(0.2)
	비취업자	2	(0.3)	13	(2.2)	1	(0.2)	50	(8.5)

주: 1차 웨이브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590명)의 근로형태 변화를 추적함.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분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84.6%에서 2차 웨이브 조사 91.5%로 상승했지만 2009년 금융위기 여파 이후 3차 웨이브 조사에는 90.4%로 하락한 후 4차 웨이브 조사에는 87.7%로 그 비중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의 비중은 1차 웨이브 조사 11.7%에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2차 웨이브 조사에는 5.1%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3차 웨이브 조사에는 5.5%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4차 웨이브 조사에는 6.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증감추이는 일용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일용직의 비중은 1차 웨이브 조사 3.7%에서 2차 웨이브 조사 3.3%로 낮아졌지만,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각각 4.1%와 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8〉 일자리 구분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중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상용직	84.6	91.5	90.4	87.7
임시직	11.7	5.1	5.5	6.5
일용직	3.7	3.3	4.1	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차 웨이브 조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964명)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 걸쳐 상용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는 542명(56.2%)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지, 연속적으로 상용직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다시 상용직으로 일하는 패널의 비율이 9.3%로 나타나서 1차 웨이브 조사 상용직 근로자의 65.6%가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한편 1차 웨이브 조사 상용직 근로자 중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과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취업자로 변경된 패널이 각각 6.3%와 5.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Ⅲ-119〉 상용직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용직	상용직	542	(56.2)	19	(2.0)	22	(2.3)	86	(8.9)
	임시 +일용직	3	(0.3)	3	(0.3)	0	0.0	3	(0.3)
	비임금 +특수고용	2	(0.2)	0	(0.0)	11	(1.1)	2	(0.2)
	비취업자	17	(1.8)	5	(0.5)	7	(0.7)	61	(6.3)
임시 +일용직	상용직	8	(0.8)	3	(0.3)	0	0.0	8	(0.8)
	임시 +일용직	3	(0.3)	4	(0.4)	1	(0.1)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1	(0.1)	0	(0.0)
	비취업자	1	(0.1)	0	(0.0)	0	(0.0)	5	(0.5)
비임금 +특수 고용	상용직	3	(0.3)	1	(0.1)	0	(0.0)	0	(0.0)
	임시 +일용직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1	(0.1)	0	(0.0)	8	(0.8)	2	(0.2)
	비취업자	0	0.0	1	(0.1)	1	(0.1)	2	(0.2)
비취업자	상용직	28	(2.9)	2	(0.2)	2	(0.2)	4	(0.4)
	임시 +일용직	4	(0.4)	4	(0.4)	0	(0.0)	2	(0.2)
	비임금 +특수고용	1	(0.1)	0	(0.0)	3	(0.3)	0	(0.0)
	비취업자	19	(2.0)	1	(0.1)	1	(0.1)	57	(5.9)

주: 1차 웨이브 조사 상용직 근로자(964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반면 1차 웨이브 조사에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였던 패널이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15.6%로 높지 않았다. 1차 웨이브 조사에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일했던 패널의 경우 26.6%

는 2차 웨이브 조사에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8%는 3차 웨이브 조사부터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2차에 비취업 상태로 변경된 후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패널과 2차 웨이브 조사에 상용직으로 변경되었지만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패널이 각각 8.4%과 6.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Ⅲ-120〉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용직	상용직	63	(26.6)	10	(4.2)	3	(1.3)	10	(4.2)
	임시 +일용직	2	(0.8)	1	(0.4)	1	(0.4)	1	(0.4)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3	(1.3)	1	(0.4)
	비취업자	1	(0.4)	1	(0.4)	2	(0.8)	15	(6.3)
임시 +일용직	상용직	9	(3.8)	2	(0.8)	1	(0.4)	2	(0.8)
	임시 +일용직	5	(2.1)	37	(15.6)	1	(0.4)	6	(2.5)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4)	1	(0.4)	0	(0.0)
	비취업자	2	(0.8)	4	(1.7)	0	(0.0)	6	(2.5)
비임금 +특수 고용	상용직	0	(0.0)	0	(0.0)	0	(0.0)	0	(0.0)
	임시 +일용직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4)	1	(0.4)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0	(0.0)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취업자	상용직	10	(4.2)	<u>1</u>	(0.4)	0	(0.0)	1	(0.4)
	임시 +일용직	0	(0.0)	<u>0</u>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2	(0.8)	<u>3</u>	(1.3)	0	0.0	1	(0.4)
	비취업자	3	(1.3)	<u>2</u>	(0.8)	1	(0.4)	20	(8.4)

주: 1차 웨이브 조사 상용직 근로자(237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한편 임금근로자 중 전일제는 조사차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었다. 전일제 비중의 경우 2007년 1차 웨이브 조사만 해도 79.5%로 매우 높았으나, 2차 웨이브 조사시 60.5%로 크게 하락하였고 3차 웨이브 조사 59.8%, 4차 웨이브 조사 58.2%로 연이어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1차 웨이브 조사 20.5%에서 2차 웨이브 조사 39.5%, 3차 웨이브 조사 40.2%, 4차 웨이브 조사 41.8%로 지난 5년 사이에 21.3%p가 높아졌다.

〈표 Ⅲ-121〉 전일제/시간제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전일제	79.5	60.5	59.8	58.2
시간제	20.5	39.5	40.2	41.8

1차 웨이브 조사에 전일제로 일한 근로자가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계속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은 46.1%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1차 웨이브 조사 전일제 근로자 중 7.0%는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전일제를 유지한 후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로 전환되었고, 6.8%는 2차 웨이브 조사까지 전일제를 유지한 후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웨이브 조사 전일제(926명)에서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시간제

로 일하는 패널은 117명으로 12.6%를 차지했다. 한편 1차 웨이브 조사 전일제 근로자가 2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로 변경되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취업자로 남아 있는 경우는 전체의 4.8%로 그리 높지 않았다.

〈표 III-122〉 전일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전일제		시간제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일제	전일제	427	(46.1)	46	(5.0)	10	(1.1)	65	(7.0)
	시간제	39	(4.2)	15	(1.6)	3	(0.3)	12	(1.3)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7	(0.8)	1	(0.1)
	비취업자	5	(0.5)	16	(1.7)	7	(0.8)	63	(6.8)
시간제	전일제	50	(5.4)	8	(0.9)	6	(0.6)	7	(0.8)
	시간제	4	(0.4)	5	(0.5)	0	0.0	1	(0.1)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1	(0.1)	0	(0.0)
	비취업자	0	0.0	2	(0.2)	1	(0.1)	4	(0.4)
비임금 +특수 고용	전일제	1	(0.1)	0	(0.0)	0	(0.0)	0	(0.0)
	시간제	1	(0.1)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4	(0.4)	2	(0.2)
	비취업자	1	(0.1)	0	0.0	1	(0.1)	1	(0.1)
비취업자	전일제	1	(0.1)	3	(0.3)	0	(0.0)	1	(0.1)
	시간제	24	(2.6)	6	(0.6)	1	(0.1)	5	(0.5)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1)	0	(0.0)	1	(0.1)
	비취업자	7	(0.8)	15	(1.6)	1	(0.1)	44	(4.8)

주: 1차 웨이브 조사 전일제 근로자(926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반면, 1차 웨이브 조사에 시간제로 일했던 패널의 경우(266명), 이 중

23.3%는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시간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12.8%는 2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로 변경된 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8%는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시간제로 일하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로 변경되었고 7.5%는 2차 웨이브 조사까지 시간제로 일하다가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로 변경되었다. 전일제로 전환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즉, 1차 웨이브 조사 시간제에서 2차 웨이브 조사부터 전일제로 변경된 근로자의 비율은 3.4%로 매우 낮았고 2차 웨이브 조사까지 시간제를 유지하다가 3차 웨이브 조사에 전일제로 변경된 근로자는 5.6%, 그리고 7.1%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시간제로 일하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 이르러 전일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로 있다가 비임금 혹은 특수고용근로자로 진입한 경우는 8.3%로 높지 않다. 시간제에서 비임금 혹은 특수고용 근로자로 진입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를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지속하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 이를 전환한 경우가 3.4%이고 3차 웨이브 조사부터 전환한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표 Ⅲ-123〉 시간제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전일제		시간제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일제	전일제	9	(3.4)	1	(0.4)	1	(0.4)	0	(0.0)
	시간제	3	(1.1)	3	(1.1)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1	(0.4)	0	(0.0)	0	(0.0)
시간제	전일제	15	(5.6)	9	(3.4)	0	(0.0)	5	(1.9)
	시간제	19	(7.1)	62	(23.3)	9	(3.4)	26	(9.8)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4)	3	(1.1)	0	(0.0)
	비취업자	2	(0.8)	5	(1.9)	1	(0.4)	20	(7.5)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전일제		시간제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임금 +특수 고용	전일제	0	0.0	0	(0.0)	0	(0.0)	0	(0.0)
	시간제	2	(0.8)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4)	3	(1.1)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1	(0.4)
비취업자	전일제	0	(0.0)	5	(1.9)	0	(0.0)	1	(0.4)
	시간제	10	(3.8)	5	(1.9)	1	(0.4)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3	(1.1)	0	(0.0)
	비취업자	2	(0.8)	2	(0.8)	1	(0.4)	34	(12.8)

주: 1차 웨이브 조사 시간제 근로자(266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임금근로자 중 파견업체, 용역업체 혹은 사내하청업체 등의 간접고용은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3차 웨이브 조사까지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웨이브 조사 간접고용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1.8%이고 2차 웨이브 조사 7.4%, 3차 웨이브 조사 5.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는 간접고용이 6.4%로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0%p 상승하였다. 간접고용은 모두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의 범주와 동일한 포괄 범위를 갖는다. 여성가족패널들은 이 법의 시행 이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간접고용 비중이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가 연속해서 하락했고 4차 웨이브 조사에 소폭 상승하였지만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5.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4〉 간접고용 비중의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간접고용	11.8	7.4	5.4	6.4
직접고용	88.2	92.6	94.6	9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차 웨이브 조사 직접고용상태에 있던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도 직접고용상태에 있는 비율은 55.9%로 나타났고 직접고용상태에 있었던 근로자가 4차 웨이브 조사에 간접고용 상태로 변화된 경우는 매우 낮았다. 오히려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직접고용 상태를 유지하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가 되거나(9.2%), 2차 웨이브 조사까지 직접고용 상태에서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비취업자가 되는 경우(6.7%)와 2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가 되어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되는 경우(6.5%)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직접고용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는 그 상태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후 비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5〉 직접고용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간접고용		직접고용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간접고용	간접고용	9	(0.9)	0	(0.0)	1	(0.1)	0	(0.0)
	직접고용	2	(0.2)	25	(2.4)	1	(0.1)	4	(0.4)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0	(0.0)	3	(0.3)	0	(0.0)	1	(0.1)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간접고용		직접고용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접고용	간접고용	11	(1.1)	3	(0.3)	0	(0.0)	2	(0.2)
	직접고용	10	(1.0)	579	(55.9)	23	(2.2)	95	(9.2)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7	(0.7)	1	(0.1)
	비취업자	3	(0.3)	19	(1.8)	9	(0.9)	69	(6.7)
비임금 +특수 고용	간접고용	1	(0.1)	0	(0.0)	0	(0.0)	0	(0.0)
	직접고용	0	(0.0)	3	(0.3)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7	(0.7)	2	(0.2)
	비취업자	0	(0.0)	1	(0.1)	1	(0.1)	2	(0.2)
비취업자	간접고용	2	(0.2)	2	(0.2)	0	(0.0)	1	(0.1)
	직접고용	1	(0.1)	35	(3.4)	2	(0.2)	5	(0.5)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3	(0.3)	1	(0.1)
	비취업자	1	(0.1)	20	(1.9)	2	(0.2)	67	(6.5)

주: 1차 웨이브 조사 직접고용 근로자(1,036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반면 1차 웨이브 조사 간접고용상태에 있었던 근로자가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도 간접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8.3%로 높지 않았다. 1차 웨이브 조사 간접고용상태에 있었던 23.1%는 2차 웨이브 조사부터 직접고용상태로 변화되었고 7.7%는 2차 웨이브 조사 비취업상태로 있다가 3차 웨이브 조사에 직접고용상태로 진입하여 이를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는 2차 웨이브 조사까지 간접고용 상태를 보이지만 3차 웨이브 조사부터 직접고용상태로 전환되어 4차까지 유지함으로써, 1차 웨이브 조사 간접고용 근로자 중 45.5%는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직접고용 상태로 변화되었다. 간접고용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변화된 근로자를 보면, 2차 웨이브 조사에 비취업자로 전환한 후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유

지하고 있는 1차 웨이브 조사 패널이 7.1%를 차지했고 2차 웨이브 조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가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취업자로 상태변화를 보인 패널이 5.8%, 2차 웨이브 조사까지 간접고용을 유지하다가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비취업상태를 유지하는 패널이 5.1%를 보였다.

〈표 Ⅲ-126〉 간접고용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명, %)

구분		4차(2012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간접고용		직접고용		비임금+특수고용		비취업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간접고용	간접고용	13	(8.3)	2	(1.3)	1	(0.6)	6	(3.8)
	직접고용	5	(3.2)	9	(5.8)	0	(0.0)	3	(1.9)
	비임금 +특수고용	0	(0.0)	0	(0.0)	1	(0.6)	0	(0.0)
	비취업자	0	(0.0)	2	(1.3)	0	(0.0)	8	(5.1)
직접고용	간접고용	6	(3.8)	0	(0.0)	1	(0.6)	0	(0.0)
	직접고용	5	(3.2)	36	(23.1)	2	(1.3)	6	(3.8)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6)	3	(1.9)	0	(0.0)
	비취업자	1	(0.6)	3	(1.9)	0	(0.0)	9	(5.8)
비임금 +특수 고용	간접고용	0	(0.0)	0	(0.0)	0	(0.0)	0	(0.0)
	직접고용	0	(0.0)	0	(0.0)	0	(0.0)	0	(0.0)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6)	0	(0.0)	0	(0.0)
	비취업자	0	(0.0)	0	(0.0)	0	(0.0)	0	(0.0)
비취업자	간접고용	1	(0.6)	0	(0.0)	0	(0.0)	0	(0.0)
	직접고용	1	(0.6)	12	(7.7)	0	(0.0)	1	(0.6)
	비임금 +특수고용	0	(0.0)	1	(0.6)	0	(0.0)	0	(0.0)
	비취업자	1	(0.6)	4	(2.6)	0	(0.0)	11	(7.1)

주: 1차 웨이브 조사 간접고용 근로자(156명)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함.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패널의 임금근로자들 또한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단지,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차수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웨이브 조사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9시간이었으나 2차 웨이브 조사는 41.9시간으로 2.0시간 감소하고,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는 각각 41.7시간과 41.4시간으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여성가족패널의 근로시간은 총 2.5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7〉 주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43.9	41.9	41.7	41.4	-2.0	-0.2	-0.3	-2.5

주: 초과근로시간 포함.

이같은 추이를 반영하듯, 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은 크게 감소하였고 주 40~50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50~60시간과 6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근로자는 1차 웨이브 조사 각각 12.3%와 12.8%에서 4차 웨이브 조사에 각각 6.8%와 6.8%로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40~50시간 일하는 근로 시간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57.7%에서 4차 웨이브 조사 67.7%로 10.0%p로 상승하였다. 또한 4차 웨이브 조사 주 40시간미만 일한 여성근로자 비중은 3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8〉 주 평균근로시간 분포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40시간 미만	17.2	17.4	20.9	18.7
40~50시간 미만	57.7	61.8	61.0	67.7
50~60시간 미만	12.3	12.3	8.6	6.8
60시간 이상	12.8	8.5	9.5	6.8

주: 초과근로시간 포함.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1차 웨이브 조사 33.7%로 매우 높지만 2차 웨이브 조사 29.5%, 3차 웨이브 조사 27.1%, 4차 웨이브 조사 22.1%로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100만원~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1차 웨이브 조사 46.0%에서 4차 웨이브 조사 54.7%로 8.7%p 상승하며, 200만원~300만원 미만 소득자와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동기간 동안 각각 2.1%p와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9〉 월평균 급여액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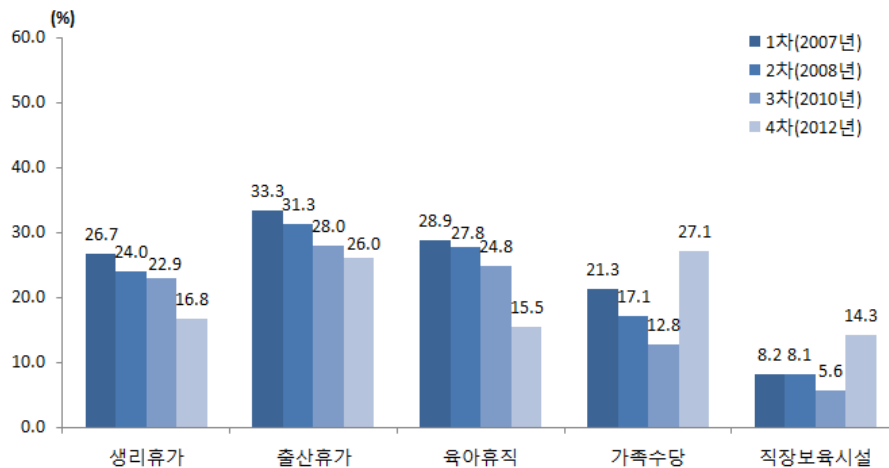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00만원 미만	33.7	29.5	27.1	22.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6.0	50.4	51.7	54.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7	13.4	14.9	15.8
300만원 이상	6.5	6.8	6.3	7.4

주: 월평균 소득은 세금 공제전 소득이며, 성과급과 보너스를 포함.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리후생 중 여성 또는 가족과 관련된 복리후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직장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먼저 생리휴가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에서 26.7%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생리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했지만, 2차 웨이브 조사는 24.0%, 3차 웨이브 조사는 22.9%, 4차 웨이브 조사는 16.8%로 이를 제공하는 직장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제도의 경우 이를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비율이 1차 웨이브 조사 33.3%에서 2차 웨이브 조사 31.3%, 3차 웨이브 조사 28.0%, 4차 웨이브 조사 26.0%로 하락했고, 육아휴직 복리후생 또한 조사 시점마다 하락하여 28.9%, 27.8%, 24.8%, 15.5%로 이를 제공하는 직장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수당의 경우 3차 웨이브 조사까지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으나, 4차 웨이브 조사에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차 웨이브 조사 21.3%, 2차 웨이브 조사 17.1%, 3차 웨이브 조사 12.8%로 지속적 하락을 보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는 27.1%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직장보육시설 제공여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의 제공여부는 1차 웨이브 조사 8.2%에서 3차 웨이브 조사에 5.6%로 하락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는 14.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주요 복리후생 제공여부 변화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본인 수혜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조사 당시 복리후생제도의 제공 여부와 더불어 수혜 비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이 위기를 극복한 시점인 3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복리후생 제도의 제공비율은 계속 낮아지지만, 제공 시의 본인 수혜비율은 대부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수혜비율을 보면 생리휴가는 1차,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 각각 88.7%, 82.4%, 84.6%, 85.2%로, 2차 웨이브 조사에는 하락했지만 3차 웨이브 조사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산휴가는 각각 83.5%, 81.1%, 81.6%, 81.1%로, 2차 웨이브 조사 경제위기 영향을 함께 받았던 다른 복리후생들에 비해 하락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복리후생 수혜 비율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산휴가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로 경제위기 때에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큰 하락은 없었지만, 이후 정체 현상은 고용보험에 포괄되는 사업체의 제한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에 비해 기업의 급여 부담이 있는 가족수당 및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서 2차 웨이브 조사에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문제를 극복하는 시점인 3차 웨이브 조사에는 이를 다시 회복하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차 웨이브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 보다 비율이 각각 9.3%p와 20.6%p가 떨어진 후에 3차 웨이브 조사 시에는 수혜비율이 다시 상승했고 4차 웨이브 조사에는 각각 91.3%와 90.0%로 본인 혜택이 가장 높은 복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본인 혜택비율은 2차 웨이브 조사는 75.9%로 대폭 하락한 후 3차 웨이브 조사에 81.4%로 회복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67.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11) 고용보험 통계(2014)에 의하면 육아휴직 사용건수는 자녀연령의 확대 활용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Ⅲ-130〉 주요 복리후생 본인 혜택 비율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생리휴가	88.7	82.4	84.6	85.2
출산휴가	83.5	81.1	81.6	81.1
육아휴직	81.5	75.9	81.4	67.7
가족수당	86.1	76.8	81.9	91.3
직장보육시설	81.3	60.7	70.1	90.0

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 임금근로자는 증가하고 이직의향은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1차 웨이브 조사 임금근로자 중에 이직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30.0%로 비교적 비율이 높았으나 2차 웨이브 조사는 13.8%로 급격히 하락했고 3차 웨이브 조사 10.1%, 4차 웨이브 조사 7.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표 Ⅲ-131〉 향후 이직의향 변화(임금근로자)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이직 의향 있다	30.0	13.8	10.1	7.5
이직 의향 없다	70.0	86.2	89.9	92.5

## 2)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는 여성가족패널 중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집단이다. 먼저 비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본인을 포함한 평균종사자 수는 1.90명으로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1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2.79명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2차 웨이브 조사는 1.99명으로 감소했고 3차 웨이브 조사는 2.15명으로 다시 증가한 듯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종사자 수가 작은 것은 여성가족패널의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임금근로자 중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의 수는 4차 웨이브 조사에 평균 0.52명에 불과하다. 유급근로자의 평균 수는 조사차수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0.24명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2〉 비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의 변화

(단위: 명)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총 종사자 수 평균	2.79	1.99	2.15	1.90	-0.80	0.16	-0.25	-0.89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 수 평균	0.76	0.64	0.69	0.52	-0.12	0.05	-0.17	-0.24

비임금근로자는 종업원이 있는 경영자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불규칙하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살펴볼 비임금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일수는 5.43일~5.89일로 나타났다. 조사차수별로 보면 2차 웨이브 조사 경제위기로 인해 평균 근무일수가 5.42일을 보이지만 이외 차수별 차이는 거의 없다. 즉, 1차 웨이브 조사 평균 근무일수는 5.87일이고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는 5.90일과 5.83일로 최대 0.07일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주 평균근로일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7일 근무가 가장 많고 6일, 5일 이하 순으로 근무일수가 많다. 반면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5일 이하 근무가 6일 근무보다 많아졌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일 근무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에는 다시 1차 웨이브 조사와 동일하게 7일 근무를 하는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때 여성가족패널의 비임금근로

자는 사업체가 어려울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일수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쉬지 않고 7일을 모두 일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3〉 주 평균근로일수 분포의 변화

(단위: %, 일)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5일 이하 근무	30.2	35.4	29.7	31.7
6일 근무	33.0	26.7	36.5	33.1
7일 근무	36.8	37.9	33.8	35.1
평균 근무일수(일)	5.87	5.42	5.90	5.83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1차 웨이브 조사 7.96시간에서 3차 웨이브 조사에 8.29시간으로 대폭 증가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 들어 다시 7.87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 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아 1차 웨이브 조사 56.4%, 2차 웨이브 조사 58.7%, 3차 웨이브 조사 55.9%, 4차 웨이브 조사 6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루 평균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는 1차 웨이브 조사 5.9%에서 점차 하락하여 4차 웨이브 조사는 2.6%로 매우 낮았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하까지 근무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차 웨이브 조사에 37.8%에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는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하여 34.6%를 보이고 있다.

〈표 Ⅲ-134〉 일 평균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8시간 이하 근무	56.4	58.7	55.9	62.8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근무	37.8	36.3	40.0	34.6
12시간 초과 근무	5.9	5.0	4.1	2.6
1일 평균근로시간(시간)	7.96	7.91	8.29	7.87

주: 평일과 주말 포함하여 하루 평균근로시간 산출.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차 웨이브 조사에서 171만원을 보였으나 이후 2차 웨이브 조사는 153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3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소득이 다시 높아져서, 3차 웨이브 조사에 157만원, 4차 웨이브 조사에 160만원을 보였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1차 웨이브 조사 49.4%, 2차 웨이브 조사 52.6%, 3차 웨이브 조사 47.6%, 4차 웨이브 조사 45.9%로,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저소득자의 분포가 하락하고 있으나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1차 웨이브 조사 7.1%에서 4차 웨이브 조사는 소폭 상승하여 7.5%를 보였다.

〈표 Ⅲ-135〉 자영업자의 월평균 본인소득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00만원 이하	49.4	52.6	47.6	45.9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33.3	30.3	33.1	32.0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6	11.0	12.0	14.5
300만원 초과	7.1	6.0	7.3	7.5
평균 소득(만원)	171	153	157	160

이처럼 월평균 소득이 점차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경영할 의향은 1차 웨이브 조사 88.6%에서 2차 웨이브 조사 93.8%, 3차 웨이브 조사 92.3%, 4차 웨이브 조사 93.3%로,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90%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월평균 소득이 적더라도 현 사업체를 계속 경영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Ⅲ-136〉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할 의향(자영업자)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88.6	93.8	92.3	93.3
없다	11.4	6.2	7.7	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무급으로 가족의 사업체를 도우며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타사업체로 이직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1차 웨이브 조사는 11.7%가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웨이브 조사는 6.6%, 3차 웨이브 조사는 7.4%가 타사업체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서 3.0%의 무급가족종사자만이 타사업체로의 이직을 고려할 뿐 대부분은 현재의 상태를 계속 이어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창업에 대한 의향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중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에 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2차 웨이브 조사는 0.4%, 3차 웨이브 조사는 1.2%, 4차 웨이브 조사는 0.3%로, 창업의사는 1.0% 이하로 높지 않았다.

〈표 Ⅲ-137〉 무급가족종사자의 이직의향과 창업의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타사업체로 이직할 의향	11.7	6.6	7.4	3.0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의향	4.6	0.4	1.2	0.3

### 3)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란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또는 업체와 도급(위탁, 위임)계약을 맺고 본인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과업을 완수해 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의 일자리를 말한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및 각종 금융상품 외판원, 방송 구성작가 및 리포터, 레미콘 트럭 기사 및 화물지입차량 기사, 가전제품 A/S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인 경우로써, 이들의 주 평균근로시간을 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2~5시간 가량 낮았으며,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던 2차 웨이브 조사에 약간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즉,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은 1차 웨이브 조사 38.8시간에서 2차 웨이브 조사 39.6시간, 3차 웨이브 조사 38.6시간, 4차 웨이브 조사 37.3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근로시간대는 임금근로자와 비슷하게 40~50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 비중이 높고 40시간 미만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 40시간 미만 분포를 보면, 1차 웨이브 조사에는 40.1%에서 2차 웨이브 조사에 34.4%로 크게 하락했고 이후 등락하면서 4차 웨이브 조사는 35.0%를 차지한다. 이는 40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21%를 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분포이다. 40~50시간 미만 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비중은 임금근로자 보다는 낮지만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1차 웨이브 조사는 41.8%이지만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는 46.6%, 48.9%, 55.6%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반면 주 50~60시간 미만과 60시간 이상 일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특별한 추이는 없지만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면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3.0~5.0%p 가량 하락한 분포를 보인다.

〈표 Ⅲ-138〉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40시간 미만	40.1	34.4	36.5	35.0
40~50시간 미만	41.8	46.6	48.9	55.6
50~60시간 미만	8.7	10.5	4.6	5.5
60시간 이상	9.3	8.4	10.0	4.0
주 평균근로시간(시간)	38.8	39.6	38.6	37.3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과 비교했을 때 낮았고 1차 웨이브 조사 이래 수입의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월평균 수입 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차 웨이브 조사 34.4%에서 점차 상승하여 4차 웨이브 조사는 38.8%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300만원 초과한다는 근로자는 1차 웨이브 조사 6.6%에서 점차 감소하여 4차 웨이브 조사에는 3.8%에 불과했다. 월평균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주는 100만원~200만원 이하로 1차 웨이브 조사 47.3%에서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약간 하락하여 46.4%를 차지했고 200만원~3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11.0%를 보이고 있다.

〈표 Ⅲ-139〉 회사에서 받은 월평균 수입 분포의 변화

(단위: %,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100만원 이하	34.4	36.2	36.6	38.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47.3	48.3	45.7	46.4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1.7	11.4	13.7	11.0
300만원 초과	6.6	4.1	4.0	3.8
월평균 수입(만원)	168.5	166.8	169.6	160.4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여부에 대해 1차 웨이브 조사는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이고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6%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때인 2차 웨이브 조사에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2%로 크게 하락했고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44.0%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전적으로 그렇다’라는 비율과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43.7%와 45.1%로 높아졌다. 4차 웨이브 조사의 조사에서는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0.0%p 낮아지고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p 높아져서, 83.3%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0〉 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의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전적으로 그렇다	55.6	32.2	43.7	33.7
그런 편이다	26.6	44.0	45.1	49.6
반반이다	6.1	4.5	7.7	11.3
그렇지 않은편 이다	7.2	10.0	2.3	3.7
전혀 그렇지 않다	4.5	4.2	0.6	0.2
잘 모른다	0.0	5.1	0.5	1.5

## 다. 일 만족도

취업자의 일 만족도를 보면, 4차 웨이브 조사는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비롯하여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발전가능성, 복리후생 등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4차 웨이브 조사 소득수준의 만족도는 20.3%로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1.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는 1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로 나타났으나, 3차 웨이브 조사부터



는 직무내용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과 복리후생은 20% 전후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2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복리후생은 1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Ⅲ-141〉 일자리 만족도 변화

(단위: %)

일자리 특성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소득수준	22.2	19.4	23.3	20.3
고용안정성	36.6	36.7	39.3	38.9
직무내용	39.5	38.6	43.6	46.4
근로환경	35.7	35.3	39.9	44.2
근로시간	35.3	35.4	40.1	42.3
개인발전가능성	28.5	29.0	30.3	30.4
직장 내 인간관계	42.3	39.5	42.1	42.3
복리후생	19.8	20.3	21.5	22.6
전반적 만족도	28.6	28.9	30.9	32.1

주: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현재 일자리와 교육수준과의 적합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하고 있는 일의 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일의 수준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71.4%, 2차 웨이브 조사 79.8%, 3차 웨이브 조사 80.5%, 4차 웨이브 조사 84.0%로 나타났으며 비율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일의 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에 비해 낮다(‘매우 낮다’와 ‘약간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추이를 보인다.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6.0%에서 4차 웨이브 조사 2.1%로 하락했고 ‘일의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에서 4차 웨이브 조사 12.7%로 하락했다.

〈표 Ⅲ-142〉 현재 일자리와 교육 수준과의 적합 정도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6.0	2.3	3.6	2.1
일의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다	20.3	15.6	14.4	12.7
일의 수준이 맞는다	71.4	79.8	80.5	84.0
일의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다	2.0	1.7	1.4	1.2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0.4	0.5	0.1	0.1

이에 현재 일자리와 업무 능력 수준과의 적합도에서도 70.0% 이상의 응답자가 현재의 일자리가 본인의 업무 능력수준에 맞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 비율은 점차 상승하여 1차 웨이브 조사 71.6%이지만, 2차 웨이브 조사 80.7%, 3차 웨이브 조사 81.6%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는 84.5%로 상승하고 있었다. 반면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혹은 ‘일의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다’, ‘일의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표 Ⅲ-143〉 현재 일자리와 업무 능력 수준과의 적합 정도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5.5	2.3	2.4	1.8
일의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다	20.2	15.1	14.4	12.4
일의 수준이 맞는다	71.6	80.7	81.6	84.5
일의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다	2.2	1.3	1.4	1.1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0.5	0.5	0.2	0.2

## 라. 구직활동 및 교육 훈련

### 1) 구직활동

일자리가 없는 패널 중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패널은 1차 웨이브 조사 2.0%, 2차 웨이브 조사 1.1%, 3차 웨이브 조사 0.7%, 4차 웨이브 조사 0.7%로 매우 낮았다. 특히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2차 웨이브 조사의 2008년 경제위기 때도 구직자 비율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층 구직자가 감소한 것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표 Ⅲ-144〉 조사 당시 최근 1개월 동안 구직활동 경험 여부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2.0	1.1	0.7	0.7
없다	98.0	98.9	99.3	99.3

구직자의 희망 근로형태는 2/3가량은 전일제를 1/3가량은 시간제를 선호하였다.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1차년도 40.5%에서 2차년도 27.5%, 3차년도 33.4%에서 점차 하락하여 4차년도에 32.6%로, 시간제를 원하는 패널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5〉 희망하는 근로 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전일제	59.5	62.4	66.6	67.4
시간제	40.5	27.5	33.4	32.6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다	0.0	10.1	0.0	0.0

시간제를 희망하는 구직자의 경우 이를 희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

녀를 돌보아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도 2차 웨이브 조사 47.9%이래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38.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가사일 때문’으로 1차 웨이브 조사 21.0%에서 3차 웨이브 조사 31.1%로 크게 상승한 후 4차 웨이브 조사는 19.8%로 다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 한편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17.6%, 2차 웨이브 조사 25.9%, 3차 웨이브 조사 24.1%,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는 18.0%를 차지하여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업을 위하여’는 4차 웨이브 조사에 크게 상승하여 17.9%를 보였고 이외 ‘여가를 즐기려고’,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등의 이유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Ⅲ-146〉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아이를 돌보기 위해	42.2	47.9	39.7	38.2
가사일 때문	21.0	15.4	31.1	19.8
학업을 위하여	6.0	6.1	0.0	17.9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3.6	0.0	1.1	0.0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2.7	0.0	0.0	0.0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17.6	25.9	24.1	18.0
여가를 즐기려고	6.9	4.6	4.0	6.1

구직자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던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구직자의 월평균 희망 수입은 1차 웨이브 조사 145만원에서 2차 웨이브 조사는 131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3차 웨이브 조사는 140만원, 4차 웨이브 조사 149만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었다.

〈표 Ⅲ-147〉 희망하는 월평균 수입

(단위: 만원)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변동			
					1차→2차	2차→3차	3차→4차	1차→4차
평균	145	131	140	149	-14	9	9	4

구직자가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차 웨이브 조사 42.2%에 불과했으나, 2차 웨이브 조사 경제위기 때는 75.3%로 급증했고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 구직자의 73.7%와 70.9%가 이로 인해 구직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직 어려움은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잘 안 맞는다’ 것으로 1차 웨이브 조사 33.3%, 2차 웨이브 조사 29.6%, 3차 웨이브 조사 30.0%, 4차 웨이브 조사 33.3%로 30.0% 전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나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구직의 어려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나이가 너무 많아 구직이 어렵다고 응답한 패널 비율은 1차년 32.8%에서 4차 웨이브 조사 22.2%로 하락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여성패널의 상당비율은 나이로 인해 구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시 겪는 어려움 중 ‘경력이 부족하다’와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라는 응답은 4차 웨이브 조사에 각각 13.2%와 19.7%로 비교적 많은 패널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는 비율은 조사 시마다 하락하여 4차 웨이브 조사 0.5%만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8〉 구직활동 시 겪은 어려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42.2	75.3	73.7	70.9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18.7	12.7	8.8	9.7
학력, 기술, 기능이 부족하다	19.0	6.3	6.9	7.2
경력이 부족하다	14.3	20.1	13.4	13.2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18.7	17.4	22.3	19.7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잘 안 맞는다	33.3	29.6	30.0	33.3
나이가 너무 많다	32.8	28.9	19.8	22.2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1.4	1.8	1.6	1.8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	7.4	3.6	0.5	0.5
기타	0.9	0.2	0.0	0.0

주: 중복응답

## 2) 교육 훈련

지난 1년간 자기개발,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1차 웨이브 조사 8.5%에서 2차 웨이브 조사 7.6%, 3차 웨이브 조사 5.3%, 4차 웨이브 조사 4.3%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9〉 조사 당시 최근 1년 동안 교육 훈련 경험 여부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8.5	7.6	5.3	4.3
없다	91.5	92.4	94.7	95.7

이처럼 여성 패널들이 교육훈련 경험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50.0% 이상의 여성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 이유에는 1차 웨이브 조사 51.5%가 응답했고 4차 웨이브 조사는 65.8%가 이와 같은 이유

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이었다. 이 이유는 1차 웨이브 조사 32.8%에서 점차 상승하여 2차 웨이브 조사 42.5%, 3차 웨이브 조사 42.6%, 그리고 4차 웨이브 조사는 44.0%로 높아졌다. 한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은 1차 웨이브 조사 10.1%에서 4차 웨이브 조사 5.8%로 약간 하락하였다.

〈표 Ⅲ-150〉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시간이 없어서	32.8	42.5	42.6	44.0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11.1	10.8	8.8	8.9
교육훈련기관 거리가 멀어서	3.2	2.4	2.4	2.4
교육훈련을 받을 비용이 없어서	3.7	4.2	2.4	2.6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15.6	13.0	13.6	13.9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몰라서	0.0	11.3	5.2	5.5
받을 필요가 없어서	51.5	64.7	67.3	65.8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10.1	9.9	5.2	5.8

주: 중복응답

## 마. 사회 보험 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 혹은 납부예외자가 된다. 여성가족패널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은 점차 증가하여,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22.3%, 2차 웨이브 조사 24.7%, 3차 웨이브 조사 26.4%, 4차 웨이브 조사 36.5%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고용보험은 1차 웨이브 조사 12.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4차 웨이브 조사에 24.3%로 상승했고, 산재보험은 1차 웨이브 조사 11.2%에서 4차 웨이브 조사 23.5%로 상승한다.

〈표 Ⅲ-151〉 사회 보험 제도 가입 현황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국민연금	22.3	24.7	26.4	36.5
고용보험	12.3	14.9	17.4	24.3
산재보험	11.2	13.9	16.4	23.5

주: 국민연금은 60세 이하로 제한하여 산출된 수치임.

## 바. 일·가정의 양립 및 직장 내 성차별

### 1) 일·가정 양립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표 Ⅲ-152>와 같다. 본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생각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에 대한 비율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92.0% 이상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응답했다. 즉, 1차 웨이브 조사는 88.5%로 90.0% 미만이지만 2차 웨이브 조사 92.2%, 3차 웨이브 조사 92.9%, 4차 웨이브 조사 93.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또한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는 질문에도 80.0% 이상이 긍정적 응답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긍정비율 또한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였다. 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같이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1/3가량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37.4%에서 3차 웨이브 조사에 39.8%로 소폭 상승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서 32.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의 경우 3차 웨이브 조사에 31.5%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 시



21.2%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Ⅲ-152〉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화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88.5	92.2	92.9	93.1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3.8	87.5	86.3	87.8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80.6	86.3	87.2	88.9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37.4	37.3	39.8	32.4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9.7	29.2	31.5	21.2

주: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임.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질문을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가정생활이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질문에 대해 2/3가량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 1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는 61.0%가 ‘매우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는 이 보다 약간 상승한 63.2%와 64.7%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상승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58.8%로 긍정적 응답이 비교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질문에는 70.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4차 웨이브 조사에 약간 하락하긴 하였지만 대체로 상승추이를 보인다. 반면 가정생활이 일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긍정적 측면보다는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 39.2%까지는 긍정적 동의를 하였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서 30.8%로 크게 낮아졌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는 질문에는 1차 웨이브 조사에서 36.0%가 동의했고 3차 웨이브 조사는 이 보다 4.2%p 높은

40.2%가 동의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는 31.1%로 크게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 즉, 이 질문에 대해 여성 패널은 1차 웨이브 조사 12.8%, 2차 웨이브 조사 12.2%, 3차 웨이브 조사 13.5%가 동의했고 4차 웨이브 조사 들어서는 8.8%로 낮아졌다.

〈표 Ⅲ-153〉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61.0	63.2	64.7	58.8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70.3	77.7	78.3	78.1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36.5	34.2	39.2	30.8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36.0	34.9	40.2	31.1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12.8	12.2	13.5	8.8

주: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임.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인식은 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찬성 혹은 반대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율 즉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매우 반대’ 혹은 ‘대체로 반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24.0%에서 2차 웨이브 조사 23.0%, 3차 웨이브 조사 21.8%로 하락했고 4차 웨이브 조사는 약간 하락한 21.6%를 보였다. 그리고 ‘매우 찬성’ 혹은 ‘대체로 찬성’ 비율은 1차,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 각각 46.4%, 45.5%, 42.9%, 44.0%로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인식 비율은 4차 웨이브 조사에 소폭 하락했을 뿐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표 Ⅲ-154〉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인식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매우 반대	5.2	5.4	3.6	5.3
대체로 반대	18.8	17.6	18.2	16.3
그저 그렇다	29.1	31.5	35.3	34.3
대체로 찬성	31.6	36.2	34.1	34.6
매우 찬성	14.8	9.3	8.8	9.4
배우자 없음	0.5	-	-	-
계	100.0	100.0	100.0	100.0

## 2) 모성보호제도

산전 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육아휴직 등은 대표적 모성보호제도이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인지 및 활용 정도를 물어보았다. 산전 후 휴가를 알고 있는 여성비율(‘잘 알고 있다’+‘아는 편이다’)은 2차 웨이브 조사 73.7%, 3차 웨이브 조사 77.1%, 4차 웨이브 조사 74.7%로 나타났다.

〈표 Ⅲ-155〉 산전 후 휴가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잘 알고 있다	25.8	18.5	17.1	18.4
아는 편이다	60.2	55.2	60.0	56.3
잘 모른다		23.6	20.3	22.0
전혀 모른다	13.9	2.7	2.6	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차 웨이브 조사는 ‘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로 구분됨.

지난 조사 이후 출산 당시 임금근로자로 일한 여성 중 산전 후 휴가를 신청한 여성비율은 3차 웨이브 조사에 77.8%로 크게 상승했지만 대체로 50.0% 전후의 여성이 산전 후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6〉 지난 조사 이후 산전 후 휴가 신청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49.9	51.9	77.8	49.5
없다	50.1	48.1	22.2	50.5

산전 후 휴가 후 고용 상 변동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여성임금근로자는 산전 후 휴가를 마친 이후 고용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2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고용상 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표 Ⅲ-157〉 지난 조사 이후 산전 후 휴가 후 고용 상 변동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1.1	0.0	2.3	0.0
없다	98.9	100.0	97.7	100.0

산전 후 휴가와 더불어 최근 정부부처에서 홍보와 지원을 늘린 부분은 육아휴직이다. 육아휴직은 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어지며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일정조건만 충족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해고 및 불이익 처분이 불가할 뿐 아니라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는 산전 후 휴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는 2차 웨이브 조사 75.4%에서 3차 웨이브 조사 80.9%로 높아졌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는 77.5%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8〉 육아휴직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잘 알고 있다	25.2	18.6	17.3	19.2
아는 편이다	61.0	56.8	63.6	58.3
잘 모른다		22.1	16.3	19.3
전혀 모른다	13.8	2.5	2.8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차 웨이브 조사는 ‘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로 구분됨.

육아휴직<sup>12)</sup>은 높은 인지도에 비해 실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여성비율<sup>13)</sup>은 1차 웨이브 조사 37.3%에서 경제위기 시기였던 2차 웨이브 조사에 33.7%로 약간 하락했지만 3차 웨이브 조사에서 4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웨이브 조사 육아휴직 비율의 큰 상승은 2010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며, 이와 같은 높은 상승은 다음조사에 영향을 주어 4차 웨이브 조사 육아휴직은 17.2%로 급감하게 되었다.

〈표 Ⅲ-159〉 지난 조사 이후 육아휴직 신청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37.3	33.7	49.0	17.2
없다	62.7	66.3	51.0	82.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2) 육아휴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 생후 3년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 2010년 법 개정을 통하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3) 4차 웨이브 조사 육아휴직 신청 경험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규정에 없어서’라는 응답은 3차 웨이브 조사까지 50.0% 전후로 나타나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85.1%로 크게 높아진다<sup>14)</sup>. ‘규정에 있지만 대체 인력을 회사가 찾지 못 해서’로 응답한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6.5%에 불과하지만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17.1%로 급증한 후 다시 4차 웨이브 조사에 크게 낮아졌고,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갖지 못한 여성 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12.8%에서 3차 웨이브 조사 7.2%, 4차 웨이브 조사 3.7%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0〉 육아휴직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규정에 없어서	51.5	49.9	49.9	85.1
규정에 있지만 대체 인력을 회사가 찾지 못해서	6.5	17.1	17.1	4.0
규정에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	12.8	7.2	7.2	3.7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서	4.6	5.1	5.1	0.5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줄기 때문에	-	3.5	3.5	1.7
원하지 않아서	-	1.9	4.6	-
기타	24.6	15.5	12.7	4.9

산전 후 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또한 휴직을 마친 후 고용상의 변동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는 고용상 변동이 전혀 없었고 1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 또한 1% 정도만이 육아휴직 후 변동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14)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이 이유가 높아진 것은 2012년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모수를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녀로 확대 조사했으나, 응답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본인이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규정이 없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61〉 지난 조사 이후 육아휴직 후 고용상 변동 유무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있다	1.1	0.0	0.0	1.1
없다	98.9	100.0	100.0	98.9

### 3) 차별 사항

본 조사는 직장 내 차별을 외모, 학벌, 출신지역, 성, 혼인상태, 연령, 고용형태로 구분하여 각종 차별 사항에 대해 경험 유무를 질문하고 있다. 직장 내 전반적인 성차별 정도를 질문한 결과 채용, 승진, 월급이나 수당지급, 업무배치나 분담, 교육 및 연구기회, 구조조정 등에서 직장 내 성차별 정도는 1차 웨이브 조사에 27.3%~35.3%로 나타났지만, 2차 웨이브 조사 시 18.4%~26.3%로, 3차 웨이브 조사 시 19.5%~28.3%로 약간 낮아졌으며, 4차 웨이브 조사에는 11.5%~20.2%로 직장내 성 차별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용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 27.3%의 여성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 시 약간 하락하여 각각 20.3%와 21.9%로 낮아졌고 4차 웨이브 조사에서 14.7%로 크게 하락하였다. 승진 또한 1차 웨이브 조사에 32.2%의 여성들이 차별 받았다고 했으나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15.5%로 크게 하락했고, 월급이나 수당지급, 업무배치나 분담, 교육 및 연구기회 제공, 구조조정 등에서도 동일하게 4차 웨이브 조사의 조사 결과는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2〉 직장 내 성차별 정도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채용	27.3	20.3	21.9	14.7
승진	32.2	22.8	25.8	15.5
월급이나 수당 지급	33.3	22.8	25.7	18.5
업무 배치나 분담	35.3	26.3	28.3	20.2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28.4	18.4	19.5	11.5
구조조정	29.4	21.0	23.1	13.4

주: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합임.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차별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는 직장 내 차별 경험 여부보다는 크게 낮았다.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할 때 차별 경험이 있는 여성비율은 1차 웨이브 조사 12.6%에서 2차 웨이브 조사 9.6%, 3차 웨이브 조사 4.2%, 4차 웨이브 조사 3.9%로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표 Ⅲ-163〉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차별을 겪고 (겪은 적이) 있다	12.6	9.6	4.2	3.9
없다	82.7	85.2	83.8	82.3
해당사항 없음	4.7	5.2	12.0	13.9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할 때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중 36.8%(4차 웨이브 조사 기준)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은 1차 웨이브 조사 32.6%로 학벌차별에 비해 낮았지만, 2차 웨이브 조사 46.8%, 3차 웨이브 조사 44.4%, 4차 웨이브 조사 36.8%로 상승했고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차별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으로 높은 차별 경험은 학벌이었다. 단, 학벌로 인한 차별은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서, 1차 웨이브 조사 35.8%에서 3차 웨이브 조사 31.7%로 낮아졌고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26.8%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은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느끼는 주요 차별 중 하나로, 1차 웨이브 조사는 30.9%의 여성이 성차별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3차 웨이브 조사에서 13.1%로 크게 낮아졌고 4차 웨이브 조사는 12.4%로 채용 시 성차별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은 다른 차별에 비해 높지 않지만, 1차 웨이브 조사에 비해 4차 웨이브 조사 차별정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웨이브 조사에 10.2%이던 외모 차별은 4차 웨이브 조사 13.2%로 높아져 3.0%p 상승했다.

〈표 Ⅲ-164〉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 시 차별 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외모 등 신체조건	10.2	3.8	15.4	13.2
학벌	35.8	36.8	31.7	26.8
출신지역	3.5	2.1	0.0	-
성	30.9	31.8	13.1	12.4
혼인 상태	11.6	16.7	2.1	2.0
연령	32.6	46.8	44.4	36.8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	4.2	9.4	8.9

주: 중복응답

지난 조사 이후 받은 차별 경험 중 임금 차별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금차별 경험을 가진 여성을 보면, 1차 웨이브 조사에는 16.2%이었으나, 2차 웨이브 조사 12.0%, 3차 웨이브 조사 7.1%, 4차 웨이브 조사 4.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5〉 임금(월급, 보수) 지급 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차별을 겪고(겪은 적이) 있다	16.2	12.0	7.1	4.4
없다	79.9	85.0	85.9	86.4
해당사항 없음	3.9	3.0	7.0	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임금차별을 경험한 여성의 50.0% 이상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했다. 성별로 인해 임금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차 웨이브 조사 53.2%에서 경제위기인 2차 웨이브 조사에서 59.8%로 더 높아졌다. 이 비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3차 웨이브 조사에 45.1%, 4차 웨이브 조사에 44.3%를 보이지만, 상당수의 여성이 임금 지급 시 성별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별은 임금차별을 느끼는 성별 다음으로 높은 이유로써, 1차 웨이브 조사는 40.2%로 매우 높았지만, 2차 웨이브 조사 30.4%, 3차 웨이브 조사 19.9%로 낮아졌고 4차 웨이브 조사는 19.5%를 보였다.

〈표 Ⅲ-166〉 임금(월급, 보수) 지급 시 차별 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외모 등 신체조건	2.7	0.6	2.0	1.9
학별	40.2	30.4	19.9	19.5
출신지역	1.1	1.0	2.5	2.4
성	53.2	59.8	45.1	44.3
혼인 상태	4.6	5.4	0.5	0.5
연령	12.9	19.7	24.8	21.6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	9.5	10.0	9.8

주: 중복응답

교육 훈련 기회에서 차별을 느낀 여성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이후 교육훈련기회에서 차별을 느낀 여성 비율을 보면, 1차 웨이

브 조사는 4.6%를 보였지만 이후 크게 하락하여 2차 웨이브 조사 1.9%, 3차 웨이브 조사 1.2%, 4차 웨이브 조사 0.6%로 나타났다.

〈표 Ⅲ-167〉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차별을 겪고 (겪은 적이) 있다	4.6	1.9	1.2	0.6
없다	89.7	94.2	89.5	87.8
해당사항 없음	5.8	3.9	9.3	1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교육훈련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의 50.0% 이상은 그것이 성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별로 인해 교육훈련을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차 웨이브 조사 60.7%로 나타났고 4차 웨이브 조사는 이 보다 많이 하락했지만 28.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벌로 인해 교육훈련 기회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차 웨이브 조사에 34.3%로 비교적 높았으나,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크게 하락하여 4차 웨이브 조사 현재 19.1%만이 학벌로 인해 차별 받았다고 생각했다.

〈표 Ⅲ-168〉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시 차별 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외모 등 신체조건	5.0	0.0	8.2	8.2
학벌	34.3	39.3	19.1	19.1
출신지역	0.6	2.9	0.0	-
성	60.7	49.9	28.4	28.4
혼인 상태	3.0	7.5	0.0	-
연령	5.2	9.3	0.0	-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	15.4	44.4	44.4

주: 중복응답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매우 낮았다. 1차 웨이브 조사 승진이나 승급에서 차별을 경험한 여성은 8.8%로 나타났다.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각각 5.4%와 3.2%로 낮아졌고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이 보다 더 낮아져 2.0%로 나타났다.

〈표 Ⅲ-169〉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차별을 겪고 (겪은 적이) 있다	8.8	5.4	3.2	2.0
없다	84.2	89.6	85.7	82.0
해당사항 없음	6.9	5.0	11.1	1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받은 경험을 가진 여성은 채용, 교육훈련 등에서와 동일하게, 이러한 차별이 성별로 인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더욱 높아져, 3차 웨이브 조사는 59.9%, 4차 웨이브 조사는 60.4%의 여성이 성별로 인해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표 Ⅲ-170〉 승진이나 승급 시 차별 형태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외모 등 신체조건	2.6	1.8	1.1	1.1
학벌	39.9	27.4	13.6	13.7
출신지역	1.0	2.2	-	-
성	62.2	58.9	59.9	60.4
혼인 상태	3.8	2.1	2.0	2.0
연령	4.5	6.8	8.2	8.3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	12.7	16.8	13.9
기타	-	-	-	0.5

주: 중복응답

지난 조사 이후 이외에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해고 시, 업무배치, 직장 내 성희롱에서 차별을 느끼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그 비율이 또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해고 시의 경우 1차 웨이브 조사에 여성은 4.7%가 차별을 경험했지만 2차, 3차,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각각 2.3%, 1.3%, 0.4%로 하락했다. 업무배치는 1차 웨이브 조사에 6.6%의 여성이 차별을 경험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1.2%로 하락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1차 웨이브 조사 4.7%에서 4차 웨이브 조사 0.8%로 차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1〉 기타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1차 (2007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해고 시	4.7	2.3	1.3	0.4
업무배치	6.6	2.4	2.0	1.2
직장 내 성희롱	4.7	3.1	1.1	0.8

#### 4.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제 장에서 나타난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학술대회의 연구결과(심층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은 고용형태, 임금, 복리후생, 장시간 노동 등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혼 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이나 미취학 자녀의 양육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기혼여성의 이직이나 노동시장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고용형태, 임금과 복리후생, 장시간의 노동 등 고용환경이 어떠하냐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

을 전후한 경력단절' 연구결과를 보면,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때 출산 시 경력단절 현상이 정규직일 때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의 1~4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통해 여성 일자리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 비율은 상승했으나(1차 58.6% 4차 65.4%), 정규직 비율(1차 57.7% 4차 54.3%)과 전일제 비율은 하락(1차 79.5% 4차 5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은 여성가족패널이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여성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고용 정책들을 보면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여성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보육과 지원, 직업훈련, 알선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고용환경의 개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은 좋은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유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1~4차 웨이브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1차(2007년)에 취업상태이었던 패널 중 77.0%는 4차(2012년)까지 계속해서 취업상태로 남아 있었고 1차에 비경제활동 상태이었던 패널 중 60.6%는 4차년도까지 계속해서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정책은 경력단절 여성 혹은 청년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의 고용률 70.0% 달성은 남녀 고용률 목표치<sup>15)</sup>를 두고 추진되고 있지만 여성의 목표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 제고는 이들 집단들의 정책만으로 한계를 가질 밖에 없다. 여성가족패널의 경제활동상태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60.0% 이상은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한 번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반면 1차 웨이브 조사에 실업

15)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 남성 고용률 78.1%, 여성 고용률 61.9%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자로 분류되어 노동시장 진출의사를 가진 패널이 계속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통계청은 실업통계를 개선하여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sup>16)</sup>’를 실업자로 간주하여 보조지표로 확대된 실업률을 발표하였다. 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많은 잠재구직자가 비경제활동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 고용률의 효과적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집단 특성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연령을 20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 분석’이란 제목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29세와 30~39세 여성이 60세 이상 집단 보다 평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질병 치료 측면보다는 예방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지고 있어 국가건강검진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 연령이 만 40세 기준으로 시작되고 있어 19~29세, 30~39세 연령 집단은 검진 대상자에 제외된다. 특히 여성 중 직업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인 경우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못 받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을 심뇌혈관과 결핵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고혈압, 비만, 결핵 등의 검사의 연령은 20세로 낮추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6)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아프거나 육아가사 가족일 등으로 취직을 했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과 지난주 일이 주어졌으면 일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잠재 구직자)이 포함된다.

# IV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심층 분석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165
2.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182
3.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199





##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 가. 서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취업의 양과 질을 가늠하는 핵심 주제이다. 특히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취업률의 저하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퇴출로 이어진다. 이에 경력단절의 예방과 재취업은 여성노동정책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력단절 예방의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물론 정규직도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모성보호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거의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출산을 앞두고 자발적인 형식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패널조사는 횡단면조사와 달리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분석하고자 한다.

### 나. 기존 연구의 검토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는 크게 경력단절의 원인을 둘러싼 연구와 현재 경력단절 상태인 여성들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경력단절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경력단절의 시점, 직접적인 원인, 노동시장적인 이유, 개인과 가족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누가, 언제, 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와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가능 직종의 개발 등에 주요 관심이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결혼, 임신, 출산 및 저연령 자녀의 육아 등 개인의 생애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진경·옥선화(2009)는 기혼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중단 발생을 연구하였다. 여성이 결혼 후 절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있으며, 첫 경력단절을 경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9.60개월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취업여성의 결혼 후 취업중단 요인으로서는 자녀 출산을 가장 유의한 변수로 보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영옥·이선행(2009)은 이와 같은 기존의 원인 이외에 기혼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노동시장 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변수의 추가를 시도하였다.

최성혁·오창섭(2010)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위험이 그들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식별전략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박선영 외(2011)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방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등을 했을 경우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수혜조건이 되는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를 고용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임금 근로자들<sup>17)</sup> 중 정규직은 81.8%가 가입되어 있으나,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53.7%밖에 되지 않아 비정규직의 절반은 수혜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고용형태별 모성보호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자신의 직장에서 출산휴가가 제공되는 비율이 정규직은 52.6%, 비정규직은 17.9%이며, 제공되는 사람에 한해 근로자 본인에게 혜택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각각 91.0%, 43.0%로 나타나 고용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선영 외, 2011: 51).

17)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원자료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자들을 제외한 257만여 명의 가입기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박선영 외, 2011: 47).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는 정규직 위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연구에서 2006년 당시 출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정규직은 68.8%임에 비해 비정규직은 47.0%에 불과하고, 신청한 사람들 중 사용한 비율은 정규직 92.2%, 비정규직 79.6%로 격차를 보여준다. 산전후휴가 급여여부를 보면 사용자의 정규직은 79.5%가 급여를 수급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54.0%만 수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출산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전체 중에 50.4%가 급여를 수급한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급여를 수급한 비율은 20.2%에 지나지 않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시 급여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출산 후 직장 복귀 여부를 보면 정규직은 40.4%가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반면 비정규직은 14.2%에 불과하고, 출산 후 계속 쉬고 있는 경우가 46.8%로 절반에 가깝다(박선영 외, 2011: 89).

같은 연구의 초점집단 면접결과에서는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에 대한 기업의 비우호적 기업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채용시 출산 가능성이 있는 기혼 가임기 여성을 제외하는 관행이 있으며, 취업 중에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분위기상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은 스스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신, 출산은 초기 양육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면 임신을 미루거나 아예 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박선영 외, 2011).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임신, 출산을 미루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는 4차에 걸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차 웨이브 조사부터 4차 웨이브 조사까지의 일자리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도록 히스토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sup>18)</sup>.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차 웨이브 조사 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유형별로 나누어 전체 추이를 파악한다. 즉 경력유지, 경력단절, 복귀가 매 조사 차수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 특히 정규·비정규의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단절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고용형태가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한 다변량변수 분석을 실시한다.

### 1) 여성취업자의 경력유지 및 단절

1차 웨이브 조사를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3,148명,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3,754명으로 본 조사대상자의 고용률은 45.6%로 나타났다<sup>19)</sup>. 1차 웨이브 조사 시 취업자였던 여성 3,148명 중의 75.5%인 2,378명은 4차 웨이브 조사 시까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770명은 경력의 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웨이브 조사 시 일하고 있었으나 2차 조사 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모두 270명으로 전체 3,148명

18) 1차 조사 :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본 조사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차 조사 이후~2차 조사 이전(2차 웨이브) :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 조사 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차 조사 이후~3차 조사 이전(3차 웨이브) :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본 조사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차 조사 이후~4차 조사 이전(4차 웨이브) :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 조사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9) GSIS 웹사이트에 나타난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3)」 의하면 2007년 여성의 고용률은 48.9%(GSIS 홈페이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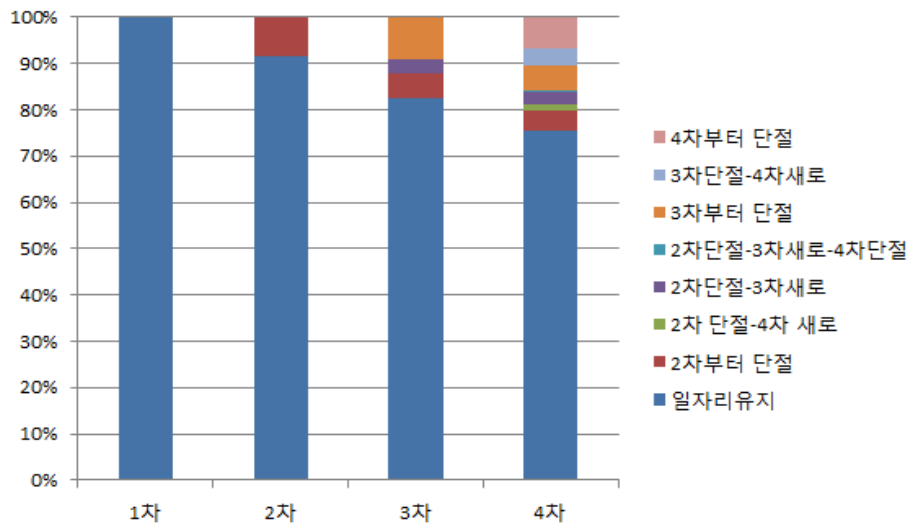
중 8.6%를 차지한다. 2차 웨이브 조사까지는 경력이 유지되었으나 3차 웨이브 조사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84명으로 나타나며, 이중 111명은 4차 웨이브 조사 시 다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웨이브 조사까지 경력이 유지되었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216명으로 전체 3,148명 중 9.0%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차 웨이브 조사 시 경력유지율은 91.4%(3,148명 중 2,878명), 3차는 90.1%(2,878명 중 2,594명), 4차는 91.7%(2,594명 중 2,378명)으로 90.0~91.0%의 높은 경력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단 단절된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경력이 단절된 후에 재진입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2차 웨이브 조사 시점에서 경력이 단절된 270명의 경우 3차 웨이브 조사에 새로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96명으로(4차 웨이브 조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한 86명과 경력단절된 10명) 재진입률이 35.6%에 불과하며, 4년이 지난 후인, 4차 웨이브 조사 시 다시 일자리를 가진 40명을 추가할 경우 모두 136명으로 50.0%(270명 중 136명)에 그친다. 역시 3차 웨이브 조사에서 경력 단절된 284명 중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재진입한 여성은 111명으로 39.1%을 보여 다소 올라갔지만 여전히 재진입 장벽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IV-1〉 조사시점별 경력유지 유형

(단위: 명, %)

1차 조사 (2007. 1~2007.12)	1차 조사 이후 ~ 2차 조사 이전 (2008. 1~2008.12)	2차 조사 이후 ~ 3차 조사 이전 (2009. 1~2010.12)	3차 조사 이후 ~ 4차 조사 이전 (2011. 1~2012.12)	분포 (n=3,148, 100%,)		
일하고 있음	경력단절	경력단절 지속	경력단절 지속	134(4.3)	270	경력단절 경험있음 (n=770, 24.5%)
	경력단절	경력단절 지속	새로운 일자리	40(1.3)		
	경력단절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유지	86(2.7)		
	경력단절	새로운 일자리	경력단절	10(0.3)		
	경력유지	경력단절	경력단절 지속	173(5.5)	284	
	경력유지	경력단절	새로운 일자리	111(3.5)		
	경력유지	경력유지	경력단절	216(6.9)		
	경력유지	경력유지	경력유지	2,378 (75.5)	경력단절 경험없음 (n=2,378,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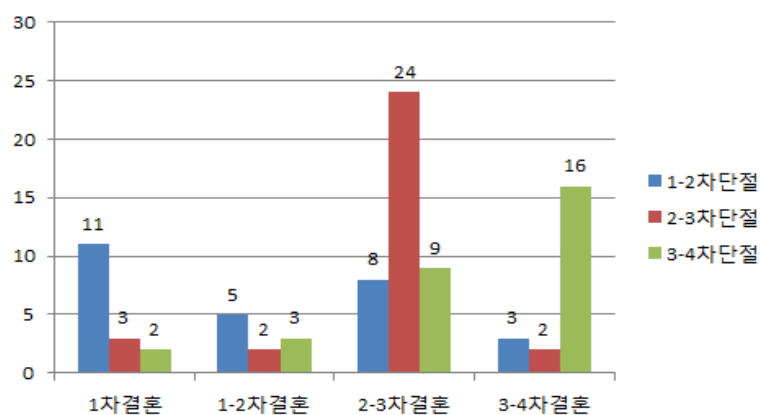
[그림 IV-1] 조사시점별 경력유지 규모

## 2)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출산이후 일을 그만두는 집단은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통하여 규모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 출산을 앞두고, 혹은 임신한 후에 일을 그만 두는 여성근로자의 규모는 파악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퇴직사유를 임신, 출산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라 고용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 조사시점마다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결혼과 출산전후에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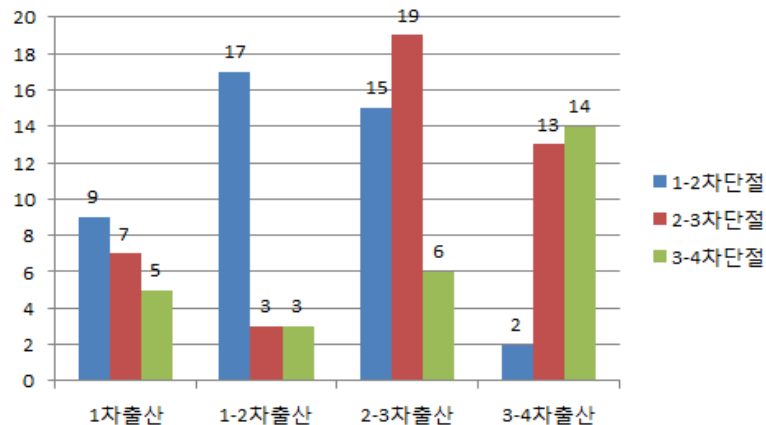
1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 사이에 결혼한 여성취업자 128명 중 경력이 단절된 88명의 단절시기와 결혼시점을 서로 교차하여 보면 결혼을 전후로 경력단절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2차 웨이브 조사 사이에 결혼한 10명 중 5명이 일을 그만 두었다. 2차 웨이브 조사에서 3차 웨이브 조사 사이에 결혼한 41명 중 동일한 기간의 경력단절자는 24명으로 역시 절반을 넘고 있으며, 3차 웨이브 조사에서 4차 웨이브 조사 사이에 결혼한 21명 중 동일한 기간의 경력단절자는 16명으로써 집중적인 발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림 Ⅳ-2] 결혼을 전후한 경력단절 발생건수



출산 역시 경력단절과 시기를 교차시켜 볼 경우 출산전후로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IV-3] 참조). 1차와 2차 사이에 출산한 23명 중 1~2차 사이에 경력단절 된 여성이 17명으로 대부분 출산을 전후해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3차 출산한 사람 40명 중 19명이 같은 시기에, 3~4차에 출산한 사람 29명 중 14명이 같은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이 분석에서 1차에서 4차 사이에 2회 출산한 사람의 경우 첫 번째 출산시기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묻혀버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되는 여성은 1~2차 경력단절 여성 44명 중 17명, 2~3차는 4명중 4명, 3~4차는 29명 중 2명이다.



[그림 IV-3]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발생건수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조사기간 중 매조사 시점 별 경력유지규모와 단절 규모를 알아보았으며, 단절된 집단 중 결혼과 출산을 한 사람에 한해 해당 시점과 경력단절 시점을 교차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시점에 경력단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고용형태별 경력단절

기존의 문헌연구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단절 현상은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경력단절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식 통계자료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기간 중 결혼과 출산경험이 있는 집단과 아닌 집단의 경력단절률을 살펴보았다.

결혼을 ‘미혼’, ‘기혼’, ‘분석기간 중 결혼’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경력단절률을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상태별로 볼 때 기혼의 경력단절률이 22.2%로 가장 낮은 반면 분석기간 중 결혼을 한 집단의 경우 6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IV-2〉 혼인상태별 경력단절률

(단위: 명, %)

	경력단절	경력유지	전체
미혼 (2007. 1~2012.12)	54 (27.7)	141 (72.3)	195 (100.0)
1차 이전에 결혼 (~2006.12)	628 (22.2)	2,197 (77.8)	2,825 (100.0)
1차와 4차 사이에 결혼 (2007. 1~2012.12)	88 (65.6)	40 (34.4)	128 (100.0)
전체	770 (24.5)	2,378 (75.5)	3,148 (100.0)

혼인상태별 경력단절률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보고자 고용형태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 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22.2%, 비임금근로자는 21.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경력단절률이 44.0%로 단절률이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1차 이전에 결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비임금근로자는 13.8%로 가장 낮고, 정규직은 28.3%임에 비해 비정규직은 44.1%이다. 가장 경력단절률

이 높은 결혼이벤트가 있는 집단은 전체적으로도 68.8%로 상당히 높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경우 80.0%로 5명 중 4명이 결혼과 더불어 일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절이 비정규직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IV-3〉 혼인상태와 고용형태에 따른 경력단절률

(단위: 명, %)

			경력단절	경력유지	전체
미혼 ( $\chi^2=8.936^{**}$ )	임금 근로자	정규직	24 (22.2)	84 (77.8)	108 (100.0)
		비정규직	22 (44.0)	28 (56.0)	50 (100.0)
	비임금근로자		8 (21.6)	29 (78.4)	37 (100.0)
	소계		54 (27.7)	141 (72.3)	195 (100.0)
1차 이전에 결혼 ( $\chi^2=242.428^{***}$ )	임금 근로자	정규직	123 (28.3)	312 (71.7)	435 (100.0)
		비정규직	254 (44.1)	322 (55.9)	576 (100.0)
	비임금근로자		251 (13.8)	1,563 (86.2)	1,814 (100.0)
	소계		628 (22.2)	2,197 (77.8)	2,825 (100.0)
1차와 4차 사이에 결혼 ( $\chi^2=1.396$ )	임금 근로자	정규직	60 (66.7)	30 (33.3)	90 (100.0)
		비정규직	16 (80.0)	4 (20.0)	20 (100.0)
	비임금근로자		12 (66.7)	6 (33.3)	18 (100.0)
	소계		88 (68.8)	40 (31.3)	128 (100.0)
전체 ( $\chi^2=274.026^{***}$ )			770 (24.5)	2,378 (75.5)	3,148 (100.0)
			(100.0)	(100.0)	(100.0)

출산<sup>20)</sup>은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분석기간 중 출산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놓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의 경력단절률은 22.2%임에 비해 출산이벤트가 있는 집단은 57.9%로 높은 단절률을 보여 이 두 변수가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 출산여부별 경력단절률

(단위: 명, %)

	경력단절	경력유지	전체
출산하지 않음 (2007. 1~2012.12)	657 (22.2)	2,296 (77.8)	2,953 (100.0)
1차와 4차 사이에 출산함 (2007. 1~2012.12)	113 (57.9)	82 (42.1)	195 (100.0)
전체	770 (24.5)	2,378 (75.5)	3,148 (100.0)

이러한 경력단절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경력단절률이 비임금근로자는 13.7%로 가장 낮고, 정규직은 26.6%, 비정규직은 43.8%로 비정규직이 가장 경력단절률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출산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경력단절률이 47.6%로 가장 낮고, 정규직은 57.1%, 비정규직은 77.8%로 비정규직의 경우 4명 중 3명이 출산을 전후해 경력이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5〉 출산이벤트 유무와 고용형태에 따른 경력유지율

(단위: 명, %)

			경력단절	경력유지	전체
출산함 (07.1~12.12) ( $\chi^2=6.229^{**}$ )	임금 근로자	정규직	72 (57.1)	54 (42.9)	126 (100.0)
		비정규직	21 (77.8)	6 (22.2)	27 (100.0)
	비임금근로자		20 (47.6)	22 (52.4)	42 (100.0)

20) 1차 이전(2006.12)에 출산을 경험한 경우는 총 2,704명이다.

			경력단절	경력유지	전체
	소계		113 (57.9)	82 (42.1)	195 (100.0)
출산하지 않음 (07.1-12.12) ( $\chi^2=248.007^{***}$ )	임금 근로자	정규직	135 (22.6.)	372 (73.4)	507 (100.0)
		비정규직	271 (43.8)	348 (56.2)	619 (100.0)
	비임금근로자		251 (13.7)	1,576 (86.3)	1,827 (100.0)
	소계		657 (22.2)	2,296 (77.8)	2,953 (100.0)
전체 ( $\chi^2=274.026^{***}$ )			770 (24.5)	2,378 (75.5)	3,148 (100.0)

#### 4) 경력단절 요인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고용형태별 경력단절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경력단절 집단과 경력유지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구분포를 보면 경력유지 집단의 56.7%가 50대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경력단절 집단은 50대 이상 다음으로 40대와 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경력단절 집단의 23.2%를 차지함에 비해 경력유지 집단은 11.6%에 불과하여 대조를 보인다.

학력수준을 비교하면 경력단절 집단은 대졸이상이 33.6%임에 비해 유지 집단은 16.8%로서 경력단절 집단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이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이 되는 현상에 대한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경력유지 집단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7.2%인 반면 경력단절 집단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37.9%로 가장 높아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경력유지 집단과 경력단절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경력단절	경력유지	전체	$\chi^2$
연령	20대		45 (5.8)	41 (1.7)	86 (2.7)	$\chi^2=111.139^{***}$
	30대		179 (23.2)	277 (11.6)	456 (14.5)	
	40대		214 (27.8)	712 (29.9)	926 (29.4)	
	50대 이상		332 (43.1)	1,348 (56.7)	1,680 (53.4)	
	소계		770 (100.0)	2,378 (100.0)	3,14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46 (31.9)	1,126 (47.4)	1,372 (43.6)	$\chi^2=64.79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5 (34.4)	723 (30.4)	988 (31.4)	
	대졸이상		259 (33.6)	529 (16.8)	788 (24.7)	
	소계		770 (100.0)	2,378 (100.0)	3,148 (1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정규직	207 (26.9)	426 (17.9)	633 (20.1)	$\chi^2=274.026^{***}$
		비정규직	292 (37.9)	354 (14.9)	646 (20.5)	
	비임금근로자		271 (35.2)	1,598 (67.2)	1,869 (59.4)	
	소계		770 (100.0)	2,378 (100.0)	3,148 (100.0)	
가구 소득 (년)	평균(만원)		3179.31	3061.53	3088.69	-
	N(명)		678	2,262	2,940	
	표준편차		2258.942	2479.038	2430.183	

주: 연령, 학력, 가구수입, 소득은 단절이 발생한 조사시점, 종사상의 지위는 단절이전의 조사시점 기준임.

다변량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력단절

경험과 학력( $r=-0.066^*$ ), 가구소득( $r=-0.129^{**}$ ), 결혼( $r=0.189^{**}$ ), 출산( $r=0.165^{**}$ ), 고용형태( $r=0.128^{**}$ )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는 집단이, 출산경험이 있는 집단이, 비정규직 집단이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 또한 학력과 연령, 학력과 가구수입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고용형태별 차이를 분명하게 보기 위해 조사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IV-7〉 변수정의와 값

변수(군)		설명	값
인구학적 특성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졸업 이상	3
	연령	20대	1
		30대	2
		40대	3
		50대이상	4
결혼/출산이벤트	결혼 (2007.1~2012.12)	결혼이벤트 없음	0
		결혼이벤트 있음	1
	출산 (2007.1~2012.12)	출산이벤트 없음	0
		출산이벤트 있음	1
고용형태		정규직	0
		비정규직	1
경력단절		경력단절 없음	0
		경력단절 있음	1

〈표 Ⅳ-8〉 경력단절 독립·종속 변수들의 상관관계

	경력단절 경험여부	학력	연령	가구소득	결혼	출산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경력단절 경험여부	1.000	-	-	-	-	-	-
학력	-0.066*	1.000	-	-	-	-	-
연령	-0.015	-0.600**	1.000	-	-	-	-
가구소득	-0.129**	0.465**	-0.164**	1.000	-	-	-
결혼	0.189**	-0.243**	-0.376**	-0.024	1.000	-	-
출산	0.165**	0.282**	-0.374**	0.154**	0.437**	1.000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0.128**	-0.400**	0.299**	-0.304**	-0.198**	-0.242**	1.000
N	1,279	1,279	1,279	1,073	1,279	1,279	1,279

주: \*\*\*p<0.00, \*\*p<0.01, \*p<0.05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기초로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집단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당시의 인구학적 특성(학력, 연령, 가구소득), 둘째 집단은 여성의 생애이벤트(결혼, 출산), 셋째 집단은 경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단절한 경험 당시의 종사상 지위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로 구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은 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경력단절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6.670, P<0.000), 본 모형의 변수 중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구소득 변수(t=-3.115, p<0.05)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서 검증한 인구학적 특성에 여성의 생애이벤트 중 결혼



과 출산에 대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것이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F=12.693$ ,  $P<0.000$ ), 특히 인구학적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1에 비해 연령( $t=2.574$ ,  $p<0.05$ ), 가구소득( $t=-3.284$ ,  $p<0.001$ ), 결혼( $t=2.178$ ,  $p<0.05$ ), 출산( $t=5.214$ ,  $p<0.001$ )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분석대상 기간에 결혼이벤트 혹은 출산이벤트가 있는 집단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형1보다 수정된 R제곱 값이 높아짐( $0.018 \rightarrow 0.056$ )에 따라 독립변수로 추가 설정한 여성의 생애이벤트인 결혼, 출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3은 모형2에서 검증한 인구학적 특성과 결혼 및 출산이벤트에 대한 변수에 고용형태 변수를 추가하였다. 즉 경력단절 시점의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3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3.452$ ,  $P<0.000$ ). 변수를 살펴보면 모형2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던 연령( $t=2.439$ ,  $p<0.01$ ), 가구소득( $t=-2.633$ ,  $p<0.01$ ), 결혼( $t=2.391$ ,  $p<0.01$ ), 출산( $t=5.661$ ,  $p<0.001$ ) 변수가 여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새롭게 추가한 고용형태별 변수( $t=4.042$ ,  $p<0.001$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일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3의 경우 모형2와 비교했을 때, 수정된 R제곱 값이 높아짐( $0.056 \rightarrow 0.070$ )에 따라 독립변수로 추가 설정한 고용형태 역시 경력단절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경력단절 요인의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		1			2			3		
변수(군)		B	$\beta$	t	B	$\beta$	t	B	$\beta$	t
인구학적 특성	학력	-0.029	-0.046	-1.105	-0.035	-0.056	-1.366	-0.014	-0.022	-0.543
	연령	0.001	0.001	0.031	0.062	0.102	2.574*	0.059	0.096	2.439**
	가구 소득	-2.166E-05	-0.108	-3.115*	-2.270E-05	-0.113	-3.284***	-1.829E-05	-0.091	-2.633**

모형		1			2			3		
변수(군)		B	$\beta$	t	B	$\beta$	t	B	$\beta$	t
이벤트	결혼	-	-	-	0.160	0.073	2.178*	0.174	0.080	2.391**
	출산	-	-	-	0.285	0.183	5.214***	0.309	0.198	5.661***
임금근로자 (정규/ 비정규)		-	-	-	-	-	-	0.130	0.133	4.042***
(상수)		0.518		4.842	0.305	-	2.776	0.182	-	1.607
F change		6.670			12.693			13.452		
F		6.670			12.693			13.452		
R제곱 Change		0.016			0.052			0.065		
R제곱		0.018			0.056			0.070		

주: \*\*\* $p < 0.001$ , \*\* $p < 0.01$ , \* $p < 0.05$

## 라. 결론

본 연구는 첫째, 1차 때 취업자였던 집단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이 얼마나 일어났으며, 결혼 및 출산과 경력단절의 시기적 일치정도를 분석하여, 결혼 및 출산이 있을 경우 경력단절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동일한 결혼과 출산의 경우에 고용형태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다. 그 결과 특히 비정규직일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퇴출이 더욱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영향력을 보면 특히 출산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출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비정

규직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보다 총량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을 하였음에 의미를 둔다.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자료의 한계 상 정확한 결혼과 출산 및 이직의 시점 선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의 위험을 예상하고,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연장함으로써, 고용형태별로 결혼율과 출산율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 가. 서론

여성들은 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나 이직을 선택하는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중심에 두고 이 요인들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해 왔다. 특히 임신과 출산, 양육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써 이른바 M자형 곡선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기술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M자형 곡선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Brinton, 2001), 동아시아 국가 중 대만에서는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0년 현재 30~34세 연령집단에 속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만의 경우 76.7%로 나타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같은 해 동일한 연령집단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보다 22.2%가 낮은 54.4%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및 출산, 양육 시기에 양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이탈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다. 특히 ‘일·가족 양립’에 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출산 및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거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왔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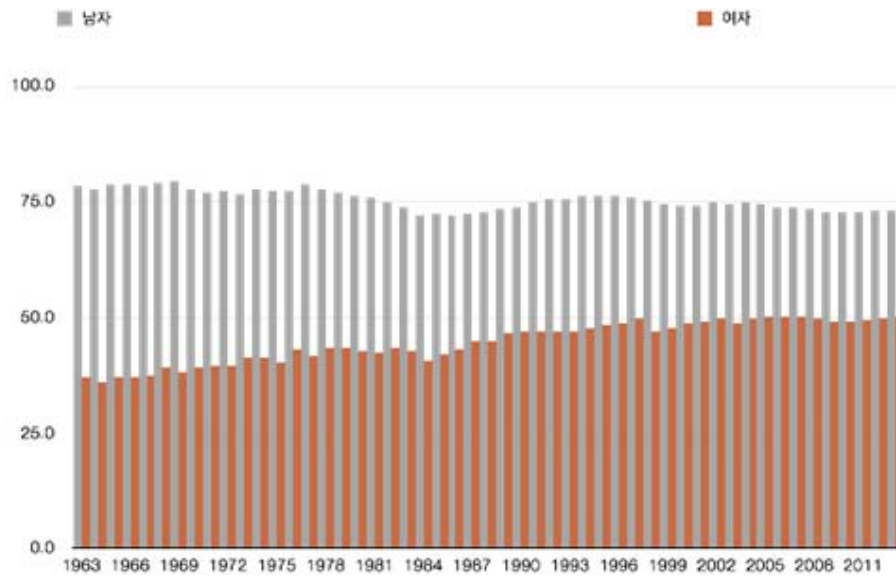
며, 여성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되어 왔다. 최근 국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의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금재호, 2014; 김복순, 2013; 배규식, 2011; 성재민, 2014; 신경아, 2013, 2014; 이옥진, 2013; 이주희, 2011; 최은영, 2012).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신과 출산, 양육 시기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여성들의 선택으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일에 대한 보상, 가족 내에서의 역할 등은 여성의 일자리 지속과 이탈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노동자 규범(ideal worker norm)(Williams, 2000)’의 남성적 모델에 대한 ‘조용한 파업(silent strike)(Stone, 2007)’이라고 보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연구는 여성들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임신·출산·양육 요인과 일자리 요인 및 배우자 요인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들이 일자리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임신·출산·양육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영역과 노동시장 영역을 접합시키는 제도적 환경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이다.

## 나.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경제활동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생산 공간의 분리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어들고 후기단계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나는 U자형 패턴은 서구나 동아시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Brinton, 2001),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Esping-Andersen, 2009).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0%, 1970년 39.3% 등 1972년까지도 40.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50.0%에 육박하는 양상을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 2005년 50.0%, 2006년 50.2%, 2013년 50.0% 등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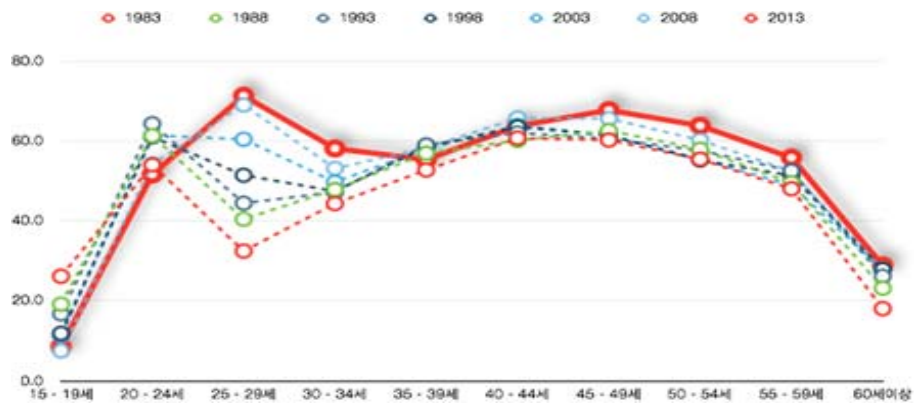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1963-2013)” 자료 및 “가구생계부양 유형의 변화와 여성 내부의 계층화: 부부의 취업지속성 배열분석을 중심으로(이순미, 2014: 2)” 재인용

[그림 IV-4]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1963~2013)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신규 진입이나 재취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김병조·김순영, 1996; 김영옥, 1999), 이른바 ‘여성 생애과정의 남성화(Esping-Andersen, 2009)’로 지칭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순미, 2014: 2). 한국의 경우 [그림 -5]에서 보듯이 이른바 M자형 패턴이 과거에 비해 완만해지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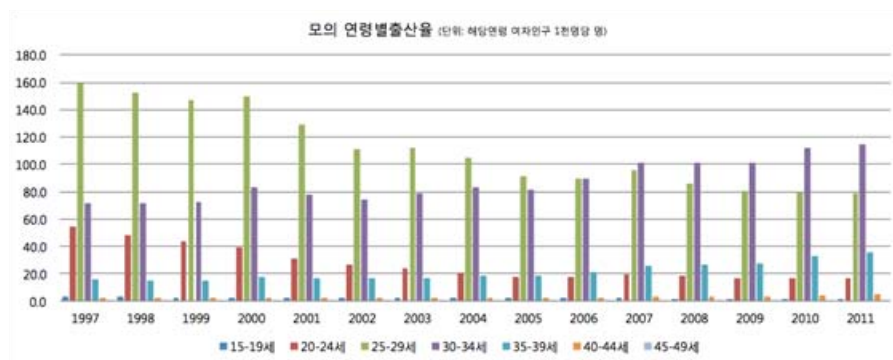
21) 여기서 중요하게 덧붙일 것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M자형 곡선이 실제 여성들의 삶과는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그림 IV-5]에서 각 연령대별 여성은 가상의 개인일 뿐 실제 여성의 삶과 다르며, 가상의 개인이 평균값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 내부의 여러 차이들이 무시된다. 둘째, M자형 곡선은 실제 개인의 연령과 직접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나 양육 행위와 관련되므로 가상의 생애과정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즉 M자형 패턴의 완화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성별화의 약화가 아니라 혼인 및 출산 연령의 분산이 커진 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이순미, 2014: 5).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 연령집단의 경우 1983년 32.5%에서 2013년 71.4%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30-34세 연령집단의 경우에도 1983년 44.4%에서 2013년 58.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개선과 같은 성별화의 약화라기보다는 [그림 - 6]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인 혼인연령의 증가 및 이와 연관된 첫 출산 연령의 증가, 또는 혼인 및 출산 연령의 분산이 커진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박경숙·김영혜, 2003: 67; 이순미, 2014: 5).



출처: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표(1983~2013)”자료 및 이순미(2014: 5) 재인용

[그림 IV-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198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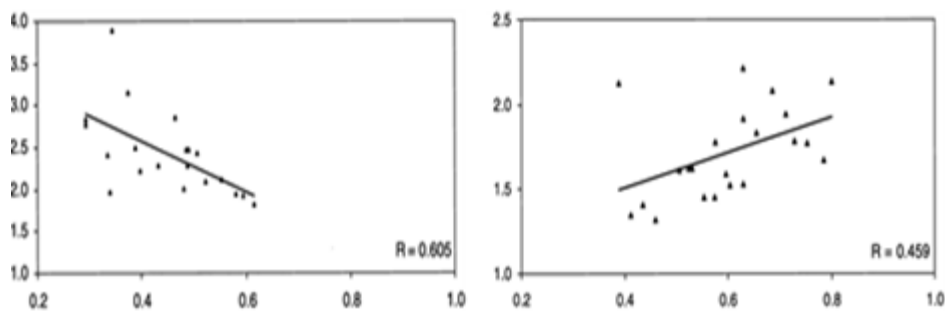
출처: 이순미(2014: 5) 재인용

[그림 IV-6] 모의 연령별 출산율(1997~2011)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관련 논의에 있어 오래도록 주요 패러다임이 되어왔다(Rindfuss et al., 2003: 424). 합계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사이의 부의 관계, 구체적으로 출산율의 하락과 동시에 나타나는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경향은 OECD 자료를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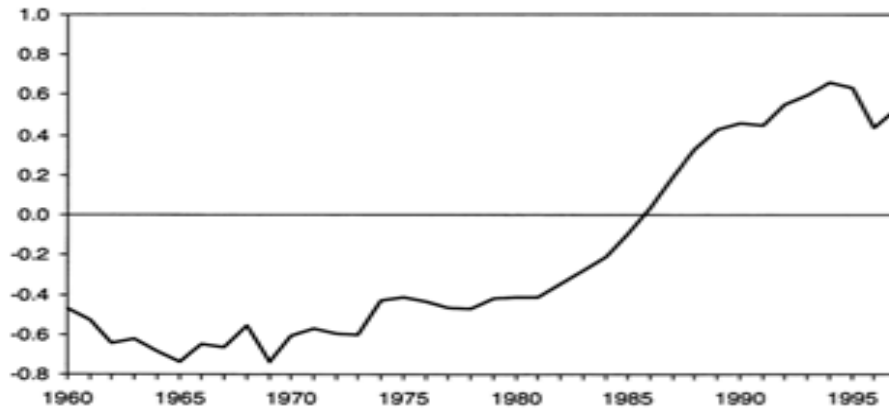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Ⅳ-7]과 [그림 Ⅳ-8]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사이의 이 같은 부(-)의 관계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를 전후하면서 양(+)의 관계로 전환되는 현상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시작했다(Ahn and Mira, 2002; Rindfuss&Brewster, 1996; Rindfuss et al., 2003).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관하여 최근의 국가별 통계에서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현상은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는 각국별로 차이를 보인다(Gornick and Meyer, 2003).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사이의 관계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Rindfuss et al., 2003).



주: 22개 저출산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한 것임; x축은 여성 노동참가율, y축은 합계출산율임.  
출처: Rindfuss et al.(200: 425)

[그림 Ⅳ-7] 합계출산율과 여성 노동참가율(1970, 1990)



주: 22개 저출산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한 것임; x축은 연도, y축은 상관계수임.  
출처: Rindfuss et al.(2003: 425)

[그림 IV-8] 합계출산율과 여성 노동참가율의 상관관계(1960-1997)

실제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는 출산 및 재생산과 관련하여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가령 저개발 국가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임신-출산과 대립되지 않으며, 아프리카에서처럼 여성들이 자녀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요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접근하는데 있어 제도적 환경과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McDaniel, 1996: 87), 유사한 맥락에서 저출산의 위기론 역시 지나치게 단순한 인식이며 특정한 제도적 환경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Morgan, 2003).

특히 개인지향적 사회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지향적 사회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 사이의 불일치(inconsistency)가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논의(McDonald, 2000)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지향적 제도들과 가족지향적 제도들 사이의 성평등의 제도화의 ‘간극’은 출산과 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사적 영역의 구성 원리와 시민권, 투표권, 정치활동, 노동, 교육, 직업, 소득 등 공적 영역의 구성 원리 사이의 균열과 간극은 여성의 임신·출산·양육과 경제활동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장시켜 보자면, 공사의 이분법과 구성 원리의 차이가 강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적 분절고용체제’를 기본 성격으로 하는 구조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기업중심성(기업내부노동시장의 고립적·분산적 성격), 협소한 1차 노동시장, 성별 분절과 남성 가계부양자 이념의 특징을 가진다고 분석되고 있다(정이환, 2013). 개인지향적 제도로써 노동시장이 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산 및 육아를 둘러싼 가족지향적 제도들에만 주목했을 경우 노동시장의 제도들과의 간극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방안들이 의도와 달리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들 사이의 제도적 불일치의 해결을 개인 수준으로 환원시킬 위험을 가진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 연구방법

### 1) 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을 활용하여 기혼여성 임금노동자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요인을 분석한다. 여성가족패널은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가 있는 전국의 가구에서 추출된 9,068가구(도서지역 제외, 제주도 포함)를 표본가구로 하여, 해당 가구 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 9,997명을 원표본으로 하여 2007년도에 시작되었다. 1차 웨이브 조사(2007년)와 2차 웨이브 조사(2008년)는 1년 주기,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2010년(3차), 2012년(4차) 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여성가족패널은 응답자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일자리 경험, 결혼과 부부생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등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설문 내용을 포함하면서 여성 및 가족 관련 연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주재선 외, 2013).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4차 웨이브 조사 자료에서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 일자리용 설문을 병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을 가임연령대의 49세 이하 여성으로 하였으며, 남편의 일자리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기혼여성 중 남편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별거, 이혼, 사별한 여성을 제외하고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9세 이하의 기혼여성은 총 3,308명이었다.

이 중 3차 웨이브 조사에 참여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조사 당시 일 자리를 살펴보았다. 3차 웨이브 조사에서 첫 번째 일자리에 응답한 여성은 총 1,501명으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9세 이하의 기혼여성 중 4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임금근로자가 925명, 자영업을 포함하여 자기 사업을 하는 여성이 309명,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주는 여성이 203명,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4명이었다. 지난 조사 당시 두 번째 일자리가 있었던 여성은 총 18명으로, 임금근로가 16명, 자기 사업이 1명, 특수고용이 1명이었으며, 세 번째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1명으로, 이 일자리는 자기 사업이었다. 이 연구는 지난 조사 당시 첫 번째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던 925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 2) 변수의 구성 및 분석방법

### 가) 종속변수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는 3차 웨이브 조사 당시 임금근로를 하고 있던 기혼여성이 해당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는지,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업했는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미취업 상태가 되었는지로 구성하였다(<표 -10> 참조).

### 나)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조사대상 여성의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과 학력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요인으로는 전체 가구원수를 통제하였다.

〈표 IV-10〉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노동시장 이탈		일자리 지속/이직/노동시장 이탈
통제변수	개인변수	연령	조사 대상자의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로 범주화)
		학력	조사 대상자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전문대포함), 대학원이상)
	가구변수	총 가구원수	전체 가구원수
설명변수	생애경험	결혼	3차 웨이브 조사 후 초혼 여부
		임신 및 출산	3차 웨이브 조사 후 임신/출산 여부
		미취학 자녀수	함께 사는 미취학 아동 중 본인의 자녀 수
	일자리요인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하루 평균 근로시간
		임금	월 평균 임금(로그)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중 가입된 갯수
		복리후생	수혜 대상이 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의 수
	배우자요인	배우자 소득	월 평균 소득(로그)
		가족과 보내는 시간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 다) 설명변수

이 연구에서 설명변수는 크게 여성의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요인, 일자리 요인, 배우자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여성의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경험의 경우 결혼, 임신 및 출산, 미취학 자녀를 살펴보았다. 결혼은 지난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혼인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로, 초혼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를 변수로 구성했다. 미취학 자녀의 수는 함께 사는 미취학 아동 중 본인의 자녀수를 변수화 하여 구성하였다.

일자리 요인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복리후생을 변수화 하여 살펴보았다.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변수로 구성하였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일수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을 변수화 하였다. 임금은 월 평균 임금(로그), 4대 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제공되는 4대 보험의 개수를 변수로 구성했다. 복리후생은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표 IV-11>의 복리후생 21개 항목 중 본인에게 제공되는 항목들의 수를 더한 값으로 변수화 하였다.

〈표 IV-11〉 복리후생 항목

(1) 법정퇴직금	(8) 병가(상병휴가)	(15) 출산 장려금
(2) 누진퇴직금	(9) 의료비 지원	(16) 보육비 지원
(3) 유급휴가	(10) 휴업보상	(17) 직장보육시설
(4) 생리휴가	(11) 상여금	(18) 주택마련 지원(융자 등)
(5) 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포함)	(12) 시간외 수당	(19) 자녀 학자금 지원
(6) 육아휴직	(13) 성과급	(20)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
(7) 배우자 육아휴직	(14) 가족수당	(2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소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소득은 월 평균 소득(로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주중에 남편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한 값을 변수로 구성했다.

## 라. 분석 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특성은 <표 IV-12>와 같다. 평균연령은 40.32세이며, 학력은 고졸(수료 및 중퇴 포함),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4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졸(수료 및 중퇴 포함)이 각각 46.5%와 44.9%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거가구원 수는 4명이 5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동거가구원 수는 3.84명이었다.

〈표 IV-12〉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연령 (평균 40.32)	20-29세	36	3.9
		30-39세	340	36.8
		40-49세	449	59.4
	학력	중졸이하	38	4.1
		고졸	430	46.5
		대졸(전문대포함)	415	44.9
		대학원이상	41	4.4
가구 특성	동거가구원 수 (평균 3.84)	1	50	5.4
		2	49	5.3
		3	130	14.1
		4	511	55.2
		5	146	15.8
		6	32	3.5
		7	5	0.5
		8	2	0.2

조사대상 중 작년에 일하고 있는 임금근로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표 -13>에서 보듯이 577명(62.4%)을 나타냈고, 해당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8명(37.6%)이었다. 이 중 이직하여 현재 취업상태인 여성은 185명(20.0%), 미취업으로 노동시장 이탈 상태인 여성은 163명(17.6%)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응답자의 일자리 지속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자리 지속	577	62.4
일자리 중단 후 이직	185	20.0
노동시장 이탈 후 미취업	163	17.6
합계	925	100.0

<표 Ⅳ-14>는 이 연구의 설명변수인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일자리, 배우자의 특성에 관한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지난 조사 이후 재혼을 제외하고 초혼으로 결혼한 여성은 52명 있었고, 임신하여 출산하거나 현재 임신상태인 여성은 총 83명이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미취학 자녀수는 1명이 181명이었고, 2명인 경우가 63명, 3명의 미취학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는 1명이었다.

〈표 Ⅳ-14〉 임신·출산·양육 경험과 일자리, 배우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생애경험	결혼	52	5.6
	임신 및 출산	83	9.0
	미취학자녀수	0명	680
		1명	181
		2명	63
		3명	1
일자리특성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487
		정규직	437
	근로일수 (평균 5.17)	1일	4
		2일	6
		3일	24
		4일	16
		5일	638
		6일	219
		7일	17

구분			빈도	비율
	하루 평균 근로시간(시간)		7.75	
	임금(만원)		153.7005	
	4대 보험 가입 수	0	335	36.2
		1	18	1.9
		2	36	3.9
		3	57	6.2
		4	479	51.8
		평균(개)	2.353	
	복리후생	평균(개)	3.32	
배우자특성	평균 연령		43.1881	
	주당 평균 근로일 수		5.35	
	하루 평균 근로시간		8.78	
	월 평균 소득(만원)		296.35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분)		163.37	

다음으로 일자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규직 여부와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복리후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정규직 여부를 살펴보면 해당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경우가 487명(52.7%), 정규직이었던 경우가 437명(47.3%)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일수가 5.17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7.7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임금은 153.7005원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가 479명으로 51.8%이었고, 1개 이상의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가 335명(36.2%)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에서 조사한 21개의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경우 혜택 제공 대상에 속하는 항목의 수는 평균 3.32개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3.2세였으며, 일자리를 가진 배우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35일, 하루 평균 약 8.78시간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있는 배우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96만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약 163분이었다.

## 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분석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기혼여성 중 30대, 그리고 중졸이하와 고졸학력의 여성들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여성의 경우 이직 가능성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I)

구분	이직				노동시장 이탈			
	B	Wald	p	Exp(B)	B	Wald	p	Exp(B)
연령(40대 기준)								
20대	0.902	2.205	0.138	2.465	0.896	3.139	0.076	2.450
30대	0.469*	4.879	0.027	1.599	0.753**	9.765	0.002	2.123
학력(대 학원 이상)								
중졸이하	2.922**	7.203	0.007	18.586	2.129*	5.811	0.016	8.409
고졸	2.703**	6.968	0.008	14.927	1.831*	5.834	0.016	6.241
대졸(전문대 포함)	2.348*	5.265	0.022	10.468	1.346	3.187	0.074	3.842
가구원수	0.112	1.196	0.274	1.118	-0.154	1.777	0.183	0.857
결혼	-0.892	1.162	0.281	0.410	0.791	3.115	0.078	2.206
임신출산	-0.244	0.231	0.631	0.784	1.183**	11.835	0.001	3.264
미취학자녀수	-0.154	0.645	0.422	0.857	-0.048	0.060	0.806	0.953
상수	-4.199	14.618	0.000		-2.844	10.496	0.001	

주: 1) -2Log Likelihood: 416.123, model chi-square(18): 136.463, p: 0.000, N: 924

2) \*p<0.05, \*\*p<0.01, \*\*\*p<0.001

결혼과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살펴보면,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임신 및 출산이 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나 미취학 자녀의 숫자는 이직이나 노동시장 이탈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여성의 일자리가 가지는 속성을 더하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일자리 속성을 포함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의 효과는 모두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복리후생이 이직과 노동시장 이탈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길수록 이직과 노동시장 이탈 모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임금이 높을수록 반대로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여부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6〉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II)

	이직				노동시장 이탈			
	B	Wald	p	Exp(B)	B	Wald	p	Exp(B)
연령 (40대 기준)								
20대	0.896	1.906	0.167	2.450	0.813	1.982	0.159	2.254
30대	0.584*	6.451	0.011	1.794	0.927***	13.116	0.000	2.528
학력 (대학원이상)								
중졸이하	1.749	2.310	0.129	5.749	0.921	0.887	0.346	2.513
고졸	1.432	1.765	0.184	4.185	0.639	0.573	0.449	1.895
대졸(전문대포함)	1.756	2.685	0.101	5.790	0.907	1.189	0.275	2.476
가구원수	0.019	0.029	0.865	1.019	-0.254	4.072	0.044	0.775
결혼	-0.818	0.904	0.342	0.441	0.809	2.413	0.120	2.245
임신출산	0.371	0.456	0.500	1.449	1.837***	20.372	0.000	6.278
미취학자녀수	-0.139	0.435	0.510	0.870	-0.030	0.020	0.888	0.970
근로시간	0.021*	6.136	0.013	1.022	0.022*	5.524	0.019	1.022
임금	-1.486***	35.532	0.000	0.226	-1.110***	17.998	0.000	0.330
4대 보험	-0.002	0.001	0.974	0.998	-0.091	2.037	0.154	0.913
복리후생	-0.167***	13.439	0.000	0.846	-0.198***	19.545	0.000	0.820
비정규직	-0.498*	4.738	0.030	0.608	-0.256	0.929	0.335	0.774
상수	3.929	6.190	0.013		3.491	5.165	0.023	

주: 1) -2Log Likelihood: 1343.842, model chi-square(28): 306.534, p: 0.000, N: 920

2) \*p<0.05, \*\*p<0.01, \*\*\*p<0.001

<표 -17>은 남편의 효과를 더한 분석 결과이다. 남편의 소득과 남편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기혼여성의 이직과 노동시장 이탈에 서로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이직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편의 효과는 여성의 근로시간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편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미치는 요소는 소득이었는데, 남편의 소득이 클수록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Ⅲ)

	이직				노동시장 이탈			
	B	Wald	p	Exp(B)	B	Wald	p	Exp(B)
연령								
20대	0.621	0.663	0.415	1.860	1.164	3.492	0.062	3.204
30대	0.598*	5.889	0.015	1.819	0.939**	11.363	0.001	2.558
학력								
중졸이하	1.484	1.571	0.210	4.412	0.900	0.739	0.390	2.459
고졸	1.274	1.362	0.243	3.577	0.665	0.603	0.437	1.944
대졸(전문대포함)	1.546	2.036	0.154	4.694	0.854	1.036	0.309	2.349
가구원수	-0.011	0.009	0.926	0.989	-0.262	3.219	0.073	0.770
결혼	-0.468	0.284	0.594	0.626	0.784	1.902	0.168	2.190
임신출산	0.199	0.110	0.740	1.220	1.862***	17.447	0.000	6.436
미취학자녀수	-0.099	0.197	0.657	0.905	-0.016	0.005	0.946	0.984
근로시간	0.025	7.509	0.006	1.025	0.030**	8.916	0.003	1.030
임금	-1.570***	35.173	0.000	0.208	-1.316***	21.932	0.000	0.268
4대보험	0.002	0.001	0.973	1.002	-0.083	1.456	0.228	0.920
복리후생	-0.151**	10.398	0.001	0.860	-0.188***	15.613	0.000	0.829
비정규직	-0.558*	5.289	0.021	0.572	-0.200	0.486	0.486	0.819

	이직				노동시장 이탈			
	B	Wald	p	Exp(B)	B	Wald	p	Exp(B)
남편 소득	-0.092	0.149	0.700	0.912	0.940**	11.151	0.001	2.559
남편 가족과 보내는 시간	-0.003*	5.429	0.020	0.997	-0.001	1.063	0.303	0.999
상수	5.441	6.648	0.010		-0.975	0.189	0.664	

주: 1) -2Log Likelihood:1207.149, model chi-square(32): 284.484, p: .000, N:815

2) \*p<0.05, \*\*p<0.01, \*\*\*p<0.001

## 마. 결론

이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4차 웨이브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이직이나 노동시장 이탈은 임신·출산·양육 경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속성이나 남편의 소득,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 남편의 효과가 결합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과 임신·출산·양육 경험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이었다. 결혼이나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기혼여성의 이직이나 노동시장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임신 및 출산은 기혼여성의 이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노동시장 이탈에만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자리의 속성과 남편의 효과는 기혼여성의 이직과 노동시장 이탈에 상이한 양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이직과 노동시장 이탈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장시간의 노동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기혼여성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성들의 이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남편의 효과가 중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 연구는 패널 데이터 중 한 웨이브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능한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 3.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 가. 서론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건형태 관련 건강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음주, 흡연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남성보다 여성의 음주 및 흡연의 심각성이 낮아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오지 못해 연구가 부재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젠더적 관점의 보건 정책이 결여되어 그러한 연구가 부족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은 성별 간 혹은 성별 내 맞춤형 보건정책으로 성별 간 혹은 성별 내 건강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환경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지원 및 관리하여 보건정책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젠더적 관점의 정책을 집행하는 외국에서는 성별 간 및 성별 내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결과에 따라 성별 간 및 성별 내 특정집단을 건강불평등 계층 혹은 건강취약 계층으로 간주하여 보건정책을 실시한다.

기존의 생애주기별 보건정책은 성별 및 생애주기별을 고려하는 보건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건강행위 측면(음주, 흡연, 운동 등)에서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생애주기별 사업은 이루어지나 성별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 간 및 성별 내 건강불평등 연구가 활성화되어 성별 간 및 성별 내 건강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은 기존 보건정책의 영향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 기존의 보건정책 중 취약계층 집단의 지원 및 관리는 주로 소득이 낮으며 고연령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성별 간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영향력 측면의 차이를 연구하거나 성별 내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입안 과정이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약계층 건강 지원의 의미는 효율적 국민 건강 지원 및 관리 차원에서 부족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내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과체중 혹은 비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나 남성에게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과체중 혹은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해 비만예방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과체중 혹은 비만율이 높은 원인 및 대책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제안되었다(Kim,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들의 공통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상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행위 측면(건강검진, 운동, 흡연, 음주, 비만)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학력수준과 건강상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은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자원 활용이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다는 것이다(Ross와 Wu, 1995). 두 번째로, 소득과 건강상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특히 빈곤집단은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의 활용측면에서 건강불평등을 가져 올 수 있다(Backlund 외, 1999). 세 번째로, 직업은 외적인 직업 환경, 직종별 사회적 명성 및 보상, 직무특성 등에 따른 상이성에 따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보다 무직자인 경우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와 Mirosky, 1995).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상관성 관련 기존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변인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성의 특이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여성의 폐경 경험은 여성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09).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ubjective health condition)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2009). 이러한 여성 특이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내 건강불평등 측면에서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행위와의 상관성 및 여성의 특이적인 환경(폐경 경험, 자살생각, 주관적 건강상태)과 건강행위와의 상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9,068가구 내 만 19~64세 여성가구원 9,997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도에 1차 웨이브 조사가 시작되었다. 2008년에 2차 웨이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격년 간으로 2010년 3차 웨이브 조사, 2012년 4차 웨이브 조사가 실시되었다(주재선 외, 2012).

여성가족패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분석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일자리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여성의 생활실태(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활동)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1차 웨이브 조사를 시작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 등으로 구성된 간략한 건강 설문문항이 존재하였으나 4차 웨이브 조사에 다양한 영역의 건강문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질환, 정신건강 영역 문항, 건강행위 영역 문항, 여성특이적인 건강 영역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 건강관련 세부 설문영역을 살펴보면,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 여성의 정신건강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스트레스, 우울감, 삶의 질 등의 문항을 추가하고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여부가 포함되었다. 또한 여성 특이적인 환경을 고려한 제왕절개, 인공임신중절, 폐경 경험 여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건강행위(건강검진 여부, 술, 담배, 운동, 비만) 관련 설문문항이 여성가족패널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국의 패널조사 문항에 건강관련 설문문항이 추가되는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주재선 외, 2012).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4차 연도의 건강행위와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건강행위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집단을 '1'로 그렇지 않은 집단을 '0'으로 간주하였다.

첫 번째로,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집단을 '1'로 건강검진 한 집단을 '0'으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로, 흡연 여부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현재 흡연 중 집단'과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하지 않은 집단을 포함해 '흡연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은 '0'으로 코딩했다.

세 번째로, 최근 일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경험 여부 문항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집단을 '1'로 하루라도 운동을 한 집단을 '0'으로 코딩하였다.

네 번째로, 체중 문제 여부인 경우 본 조사 문항에서 키와 몸무게 문항을 활용하여 BMI(Body Mass Index<sup>22)</sup>) 지수를 계산하여 ‘과체중과 비만인 집단’을 ‘1’로 ‘비만이 아닌 집단’을 ‘0’으로 코딩하였다.

다섯 번째로, 음주인 경우 본 조사 문항의 음주 문제 인식 정도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음’,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음’,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우가 있음’의 문항들에 한 개의 문항이라도 술로 인한 문제 인식 여부에 ‘예’라고 답한 경우 문제점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고, 모든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한 집단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0’으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문항 중 3개 이상의 건강행위에 문제점이 있는 집단을 건강행위의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코딩을 ‘1’로 하고 전혀 문제가 없거나 1~2개의 문제가 있는 집단을 건강행위상의 문제가 없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분포가 아래의 표에 제시되었다. 건강검진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35.2%, 흡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2.0%, 운동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77.9%, 체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16.9%, 음주 문제 인식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3.4%, 3개 이상의 건강행위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5.7%로 나타났다.

22) BMI는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로 체중(kg) ÷ 키²( m² )로 측정하였다. BMI 23이상 ~25미만 과체중, BMI 25이상을 비만으로 간주한다.



〈표 IV-18〉 건강행위별 현황 분포, 4차 웨이브 조사(2012년)

(단위: 명, %)

	문제점 없음	문제점 있음	전체
건강검진 여부	4,966(64.8)	2,692(35.2)	7,658(100.0)
흡연 여부	7,506(98.0)	152(2.0)	7,658(100.0)
운동 여부	1,694(22.1)	5,964(77.9)	7,658(100.0)
체중문제 여부	6,350(83.1)	1,291(16.9)	7,641(100.0)
음주 문제 인식 여부	7,397(96.6)	261(3.4)	7,658(100.0)
건강 행위상 문제 집단 (3개 이상)	7,208(94.3)	433(5.7)	7,641(100.0)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연령은 1) 29세 이하,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로 학력수준은 1) 중학교 졸업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가공변수인 총 가구소득 변수를 활용하여 사분위(25th percentile)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직업은 ‘일 여부’ 변수를 통하여 ‘일이 없다’라고 응답한 자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일이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 중 일 종류 집단 간의 분포와 의미를 고려하여 1)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2)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3) 농림어업 종사자 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5) 기타(전업주부, 무직, 학생 등)로 분류하였다.

여성 특이적인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좋음, 매우 좋음을 ‘ 좋음’으로 나뉘고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이분화하여 나쁨인 경우 ‘1’로 코딩하고 좋음을 ‘0’으로 코딩하였다. 자살 생각 경험 여부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우를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폐경 경험 여부가 있는 경우를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설명변수와 3개 이상의 건강행위 문제점이 있는 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패널 조사연도 2007

년 1차, 2008년 2차, 2010년 3차, 2012년 4차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살 생각과 폐경 경험 여부는 4차 웨이브 조사에만 존재하여 2012년 4차 웨이브 조사에만 종속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각 변수들 간의 기술분석에 이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방법 중 종속변수가 0과 1로 이분화 됨으로써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ln[p/(1-p)]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다. 연구 결과

1차 웨이브 조사를 제외하고 2~4차 웨이브 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여성 중 연령별 3개 이상의 건강행위에 문제가 있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2차,  $\chi^2=9.82$ ,  $p<0.05$ , 3차,  $\chi^2=18.12$ ,  $p<0.000$ , 4차,  $\chi^2=15.21$ ,  $p<0.000$ ). 2차 웨이브 조사에서 29세 이하 중 7.6%가 3개 이상의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고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집단인 30~39세 집단 중 6.6%가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 집단 중 4.8%가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 집단 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큰 차이 없이 60세 이상 집단 중 5.0%, 40~49세 집단 중 5.4%가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2차 웨이브 조사와 달리 30~39세 집단 중 7.5%가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고 다른 연령집단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4차 웨이브 조사에서도 30~39세 집단 중 7.6%가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집단인 29세 이하 집단 중 6.5%가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연령별 3개 이상의 건강행위 문제 여부

(단위: 명, %)

연령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차(2012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19-29세	676 (93.0)	51 (7.0)	727 (100.0)	526 (92.4)	43 (7.6)	569 (100.0)	318 (94.4)	19 (5.6)	337 (100.0)	215 (93.5)	15 (6.5)	230 (100.0)
30-39세	2,042 (93.5)	142 (6.5)	2,184 (100.0)	1,862 (93.4)	131 (6.6)	1,993 (100.0)	1,540 (92.5)	125 (7.5)	1,665 (100.0)	1,205 (92.4)	99 (7.6)	1,304 (100.0)
40-49세	1,734 (95.0)	92 (5.0)	1,826 (100.0)	1,698 (94.6)	97 (5.4)	1,795 (100.0)	1,764 (94.3)	106 (5.7)	1,870 (100.0)	1,918 (94.3)	117 (5.7)	2,035 (100.0)
50-59세	1,517 (95.1)	78 (4.9)	1,595 (100.0)	1,464 (95.2)	74 (4.8)	1,538 (100.0)	1,502 (95.9)	64 (4.1)	1,566 (100.0)	1,509 (95.7)	68 (4.3)	1,577 (100.0)
60세 이상	685 (94.6)	39 (5.4)	724 (100.0)	823 (95.0)	43 (5.0)	866 (100.0)	1,060 (94.7)	59 (5.3)	1,119 (100.0)	1,337 (94.8)	74 (5.2)	1,411 (100.0)
전체	6,654 (94.3)	402 (5.7)	7,056 (100.0)	6,373 (94.3)	388 (5.7)	6,761 (100.0)	6,184 (94.3)	373 (5.7)	6,557 (100.0)	6,184 (94.3)	373 (5.7)	6,557 (100.0)
$\chi^2$	8.520			9.817*			18.120***			15.207***		

주: \*p&lt;0.05, \*\*\*p&lt;0.000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여성 중 학력수준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1차,  $\chi^2=9.46$ ,  $p<0.01$ , 2차,  $\chi^2=9.39$ ,  $p<0.01$ , 3차,  $\chi^2=8.0$ ,  $p<0.05$ , 4차,  $\chi^2=8.19$ ,  $p<0.05$ ).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대학교 졸업이상 중 4.5% 수준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졸업이하 중 5.8% 수준, 고등학교 졸업자 중 6.5% 수준이 3개 이상 건강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학력수준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단위: 명, %)

학력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차(2012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중학교 졸업 이하	2,181 (94.1)	137 (5.9)	2,318 (100.0)	2,111 (94.1)	132 (5.9)	2,243 (100.0)	2,077 (94.2)	127 (5.8)	2,204 (100.0)	2,076 (94.2)	127 (5.8)	2,203 (100.0)
고등 학교 졸업	2,422 (93.5)	169 (6.5)	2,591 (100.0)	2,312 (93.4)	164 (6.6)	2,476 (100.0)	2,241 (93.5)	157 (6.5)	2,398 (100.0)	2,237 (93.4)	157 (6.6)	2,394 (100.0)
대학교 졸업 이상	2,050 (95.5)	96 (4.5)	2,146 (100.0)	1,949 (95.5)	92 (4.5)	2,041 (100.0)	1,865 (95.4)	89 (4.6)	1,954 (100.0)	1,870 (95.5)	89 (4.5)	1,959 (100.0)
전체	6,653 (94.3)	402 (5.7)	7,055 (100.0)	6,372 (94.3)	388 (5.7)	6,760 (100.0)	6,183 (94.3)	373 (5.7)	6,556 (100.0)	6,183 (94.3)	373 (5.7)	6,556 (100.0)
$\chi^2$	9.462**			9.390**			7.998*			8.187*		

주: \*p<0.05, \*\*p<0.01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여성 중 소득수준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1차,  $\chi^2=36.16$ ,  $p<0.000$ , 2차,  $\chi^2=40.96$ ,  $p<0.000$ , 3차,  $\chi^2=33.96$ ,  $p<0.000$ , 4차,  $\chi^2=23.39$ ,  $p<0.000$ ).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소득이 제일 낮을수록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제일 낮은 집단 중 7.5% 수준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이 제일 높은 집단 중 3.4% 수준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소득수준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단위: 명, %)

소득 수준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차(2012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1st 25th	1,710 (92.4)	141 (7.6)	1,851 (100.0)	1,727 (91.8)	154 (8.2)	1,881 (100.0)	1,536 (91.6)	140 (8.4)	1,676 (100.0)	1,567 (92.8)	122 (7.2)	1,689 (100.0)
2nd 25th	1,662 (93.3)	120 (6.7)	1,782 (100.0)	1,630 (93.8)	108 (6.2)	1,738 (100.0)	1,554 (94.3)	94 (5.7)	1,648 (100.0)	1,703 (93.4)	120 (6.6)	1,823 (100.0)
3rd 25th	1,837 (95.2)	93 (4.8)	1,930 (100.0)	1,444 (95.4)	70 (4.6)	1,514 (100.0)	1,632 (95.6)	76 (4.4)	1,708 (100.0)	1,330 (95.0)	70 (5.0)	1,400 (100.0)
4th 25th	1,445 (96.8)	48 (3.2)	1,493 (100.0)	1,572 (96.6)	56 (3.4)	1,628 (100.0)	1,462 (95.9)	63 (4.1)	1,525 (100.0)	1,584 (96.3)	61 (3.7)	1,645 (100.0)
전체	6,654 (94.3)	402 (5.7)	7,056 (100.0)	6,373 (94.3)	388 (5.7)	6,761 (100.0)	6,184 (94.3)	373 (5.7)	6,557 (100.0)	6,184 (94.3)	373 (5.7)	6,557 (100.0)
$\chi^2$	36.164***			40.957***			33.963***			23.392***		

주: \*\*\*p&lt;0.000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여성 중 직종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1차,  $\chi^2=25.22$ ,  $p<0.000$ , 2차,  $\chi^2=30.29$ ,  $p<0.000$ , 3차,  $\chi^2=33.73$ ,  $p<0.000$ , 4차,  $\chi^2=29.72$ ,  $p<0.000$ ).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와 ‘농임어업 종사자’ 중 3.0% 수준으로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직 및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직 및 기계 조작 종사자’ 중 7.0~8.0% 수준으로 나타나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기타(전업주부, 무직, 학생 등)’인 집단 중 5.5% 수준으로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직종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단위: 명, %)

직종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차(2012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	740 (96.2)	29 (3.8)	769 (100.0)	765 (96.9)	25 (3.1)	810 (100.0)	889 (96.5)	32 (3.5)	921 (100.0)	969 (96.1)	39 (3.9)	1,008 (100.0)
서비스직 및 판매 종사자	949 (93.4)	67 (6.6)	1,016 (100.0)	969 (92.9)	74 (7.1)	1,043 (100.0)	1,030 (92.8)	80 (7.2)	1,110 (100.0)	1,078 (92.4)	89 (7.6)	1,167 (100.0)
농림어업 종사자	752 (97.0)	23 (3.0)	775 (100.0)	742 (97.0)	23 (3.0)	765 (100.0)	726 (96.3)	28 (3.7)	754 (100.0)	738 (96.3)	28 (3.7)	766 (100.0)
단순 노무직 및 기계 조작 종사자	548 (91.8)	49 (8.2)	597 (100.0)	564 (92.3)	47 (7.7)	611 (100.0)	617 (90.9)	62 (9.1)	679 (100.0)	677 (91.7)	61 (8.3)	738 (100.0)
기타 (무직, 학생 등)	3,645 (94.0)	232 (6.0)	3,877 (100.0)	3,291 (93.8)	217 (6.2)	3,508 (100.0)	2,911 (94.5)	171 (5.5)	3,082 (100.0)	2,713 (94.6)	156 (5.4)	2,869 (100.0)
전체	6,634 (94.3)	400 (5.7)	7,034 (100.0)	6,351 (94.3)	386 (5.7)	6,737 (100.0)	6,173 (94.3)	373 (5.7)	6,546 (100.0)	6,175 (94.3)	373 (5.7)	6,548 (100.0)
$\chi^2$	25.218***			30.289***			33.727***			29.724***		

주: \*\*\*p<0.000

3차 웨이브 조사를 제외하고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여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1차,  $\chi^2=5.38$ ,  $p<0.01$ , 2차,  $\chi^2=4.87$ , 4차,  $\chi^2=9.62$ ,  $p<0.01$ ). 1~4차 웨이브 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 중 5.0% 수준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중 7.0% 수준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주관적 건강상태별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 여부

(단위: 명, %)

주관적 건강 상태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차(2012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건강 행위 문제 없음	건강 행위 문제 있음	계
좋은	5,554 (94.6)	317 (5.4)	5,871 (100.0)	5,871 (94.5)	311 (5.5)	5,688 (100.0)	5,337 (94.5)	309 (5.5)	5,646 (100.0)	5,216 (94.7)	292 (5.3)	5,508 (100.0)
나쁨	1,097 (92.9)	84 (7.1)	1,073 (100.0)	1,181 (92.8)	77 (7.2)	1,073 (100.0)	846 (93.0)	64 (7.0)	910 (100.0)	968 (92.3)	81 (7.7)	1,049 (100.0)
전체	6,651 (94.3)	401 (5.7)	7,052 (100.0)	6,373 (94.3)	388 (5.7)	6,761 (100.0)	6,183 (94.3)	373 (5.7)	6,556 (100.0)	6,184 (94.3)	373 (5.7)	6,557 (100.0)
$\chi^2$	5.381**			4.871**			3.555			9.621**		

주: \*p&lt;0.05, \*\*p&lt;0.01

2014년도에만 존재하는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 변수인 자살 생각 경험 여부와 폐경 경험 여부에 따른 3개 이상 건강행위와 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과 자살생각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12.8% Vs. 5.2%,  $\chi^2=51.18$ , p<0.000).

〈표 IV-24〉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와 자살생각경험 여부, 4차(2012년)

(단위: 명, %)

구분	자살 생각 경험 있음	자살 생각 경험 없음	전체	$\chi^2$
없음	435 (87.2)	6,773 (94.8)	7,208 (94.3)	51.182***
있음	64 (12.8)	369 (5.2)	433 (5.7)	
계	499 (100.0)	7,142 (100.0)	7,641 (100.0)	

주: \*p&lt;0.05, \*\*\*p&lt;0.000

폐경 경험 여부와 보건형태별 연관성을 살펴보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과 폐경 경험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 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4.7% Vs. 6.3%,  $\chi^2=8.09$ ,  $p<0.01$ ).

〈표 Ⅳ-25〉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와 폐경 경험 여부, 4차(2012년)

(단위: 명, %)

구분	폐경 경험 있음	폐경 경험 없음	전체	$\chi^2$
보건형태 문제 2개 이하	2,756 (95.3)	4,452 (93.7)	7,208 (94.3)	8.092**
보건형태 문제 3개 이상	136 (4.7)	297 (6.3)	433 (5.7)	
계	2,892 (100.0)	4,749 (100.0)	7,641 (100.0)	

주: \*\* $p<0.01$ , \*\*\* $p<0.000$

지금까지 여성 내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및 여성의 특이적 건강상태 변수들과 3개 이상 건강행위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연도 회귀분석 결과 중복을 피하고 최근 여성가족패널 4차(2012)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특이적 건강상태가 성인 여성 전반적 보건형태측면(보건형태 문제 3개 이상)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경제적 지위 중 첫 번째로, 연령인 경우 다른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준거집단에 비하여 29세 이하 집단( $\text{Exp( )}=2.719$ ,  $p<0.01$ ), 30~39세 집단( $\text{Exp( )}=2.527$ ,  $p<0.000$ )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력수준인 경우 다른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대학교 졸업이상자인 준거집단에 비해 중학교 졸업이하( $\text{Exp( )}=1.857$ ,  $p<0.01$ ), 고등학교 졸업자( $\text{Exp( )}=1.419$ ,  $p<0.05$ ) 집단들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소득수준인 경우 다른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집단(4th)인 준거집단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집단인 1st( $\text{Exp}(\beta)=2.013$ ,  $p<0.000$ ), 2nd( $\text{Exp}(\beta)=1.571$ ,  $p<0.01$ ) 집단들이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직종인 경우 다른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인 준거집단에 비하여 서비스직 및 판매종사자( $\text{Exp}(\beta)=1.961$ ,  $p<0.01$ ), 단순노무직 및 기계 조작 종사자( $\text{Exp}(\beta)=1.967$ ,  $p<0.01$ )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 중 첫 번째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에 비하여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eta)=1.473$ ,  $p<0.01$ ). 두 번째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살을 생각한 집단이 자살생각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eta)=2.279$ ,  $p<0.000$ ). 세 번째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폐경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 보다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가 되는 확률비(odds-ratio)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eta)=0.661$ ,  $p<0.05$ ).

〈표 IV-26〉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특이적 건강상태가 성인 여성 3개 이상 건강행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4차(2012년)

구분		모형(건강행위 3개 이상 문제)		
		$\text{Exp}(\beta)$		$\beta(\text{SD})$
연령	19-29세	0.976	0.386	2.719**
	30-39세	0.927	0.287	2.527***
	40-49세	0.429	0.266	1.536
	50-59세	0.002	0.188	1.002
	60세 이상(준거집단)	-	-	-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0.619	0.225	1.857**
	고등학교 졸업	0.350	0.155	1.419*
	대학교 졸업이상(준거집단)	-	-	-

구분		모형(건강행위 3개 이상 문제)		
		Exp( $\beta$ )		$\beta$ (SD)
소득수준	1st 25th	0.700	0.185	2.013***
	2nd 25th	0.451	0.168	1.571**
	3rd 25th	0.183	0.182	1.201
	4th 25th(준거집단)	-	-	-
직종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준거집단)	-	-	-
	서비스직 및 판매종사자	0.673	0.217	1.961**
	농림어업 종사자	-0.139	0.287	0.87
	단순노무직 및 기계 조작 종사자	0.677	0.238	1.967**
	기타(무직, 학생 등)	0.232	0.198	1.26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0.388	0.153	1.473**
자살 생각 함		0.824	0.164	2.279***
폐경 경험 함		-0.413	0.206	0.661*
$\chi^2$		132.324		
-2LL		2729.436		

주: \*p<0.05, \*\*p<0.01, \*\*\*p<0.000

## 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 내 건강행위인 건강검진, 음주, 흡연, 비만, 운동은 현재 및 향후 여성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성인 여성 중 건강행위 문제가 있는 집단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이적 건강상태와의 상관성 분석은 국민건강증진 방안에 중요한 시사성을 암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성인 여성 중 19~29세와 30~39세가 60세 이상 집단 보다 평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질병 치료 측면보다는 예방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지고 있어 국가건강검진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 연령이 만 40세 기준으로 시작되고 있어 19~29세, 30~39세 연령 집단은 검진 대상자에 제외된다. 특히 여성 중 직업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인 경우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못 받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을 심뇌혈관과 결핵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고혈압, 비만, 결핵 등의 검사의 연령은 20세로 낮추어져야 한다(이원철, 2006).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의 전업주부들, 특히 저소득층의 전업주부들은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sup>23)</sup>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인 직장피부양자’로 규정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와 세대주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피부양자와 세대원들인 경우 나이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에서 더 적게 일하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세대주의 지위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다. 이로 인해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세와 39세 사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만 35세와 만 39세 사이의 남성은 155,869명, 여성은 783,8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만 35세와 만 39세사이의 남성은 215,078명, 여성은 593,789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김영택, 2009). 이에 30대 여성의 건강검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성인 여성 중 자살 생각을 경험한 집단이 건강행위 문제 집단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존 연구에서도 음주와 자살 생각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 시도 경험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2011). 또한 흡연경험 집단이 비흡연집단 보다 자살 생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 흡

23)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연자의 집단이 남학생 흡연자 보다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12).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제일 높으며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의 여성 특이적인 자살예방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이상영·김영택 외, 2013). 기존의 자살예방 정책 입안과정에 젠더적 관점과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흡연 및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서 성별 자살 특이성을 고려하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연계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성인 여성 중 서비스직 및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직 및 기계조작 종사자는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 보다 건강행위 문제집단과 상관성이 높았다. 서비스직(83.8%)과 판매직(89.3%), 단순노무직(86.3%)은 10명 중 8~9명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노동시간과 각종 복지 혜택은 열악하다(김유선, 2005). 서비스직의 여성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여성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타 직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 2006).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지역 보건소에서 서비스직 및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직 및 기계조작 종사자들의 근무지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 특히 여성이 근무지에서 운동을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 감소 및 근로자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성인 여성 중 연령, 학력,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행위 문제가 더 많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특이적인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문제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성인 여성인 경우 건강행위 문제가 더 많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내 건강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보다 더 효과적인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의 정책이 시급하다. 남성에게도 건강불평등이 존재하고 건강불평등 원인은 여성과 유사할 수 있으나 여성 특이적인 건강행위 문제 원인 분석 강화 및 분석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 내용의 성별 맞춤형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V

##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 품질분석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분석	219
2. 여성가족패널의 4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조정	249



## 1.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분석

### 가. 서론

패널조사가 활성화되면서 패널 이탈요인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Beckett 외(1988), Fitzgerald 외(1998), Lillard와 Panis(1998) 등은 미국의 Personal Survey of Income Dynamics (PSID)를 이용하여 성별, 혼인상태, 학력 등과 같이 응답자 특성으로 분석<sup>24)</sup>하였고 Zabel(1998)과 Hill과 Willis(2001)는 면접원의 영향을 분석하여 조사기간이 짧고 동일한 면접원이 계속 진행할 경우 표본이탈이 감소된다고 주장했다<sup>25)</sup>. 국내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손창균(2011)은 패널 응답자의 결측 유형에 대해 웨이브별 결측이 설명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했고, 그 결과 소득, 가구원수, 교육 등의 변수는 무관했으나, 경제활동상태는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상호(2005)는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고소득층과 실업자에서 이탈률이 높았으며, 표본이탈이 가구소득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신선옥(2008)은 패널의 이탈을 면접원의 특성을 통해 분석했는데, 면접원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조사의 협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숙련도가 높으면 조사 성공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13년 4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한 조사로 2차 웨이브 조사부터 나타나는 패널이탈에 대한 원인을 가구특성변수와 응답자특성변수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논문은 1~4차 웨이브 조사까지의 원표본 패널을 이용하여 이들 패널의 이탈경험과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1~4차까지의 패널이탈 특성을 분석하고 패널이탈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웨이브를 고려하여 이탈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재진입패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4) 이상협 등 (2010), 한국노동패널 탈락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1, 22(1),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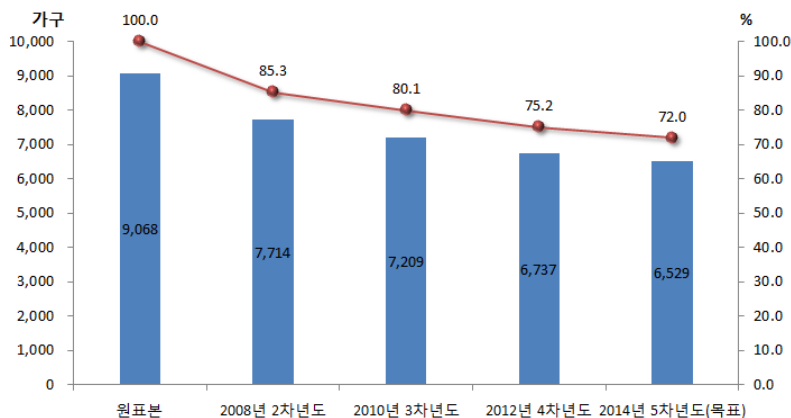
25) 이상협 등 (2010), 한국노동패널 탈락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1, 22(1), p.1~8.



## 나.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이탈 특성<sup>26)</sup>

### 1) 패널 유형별 이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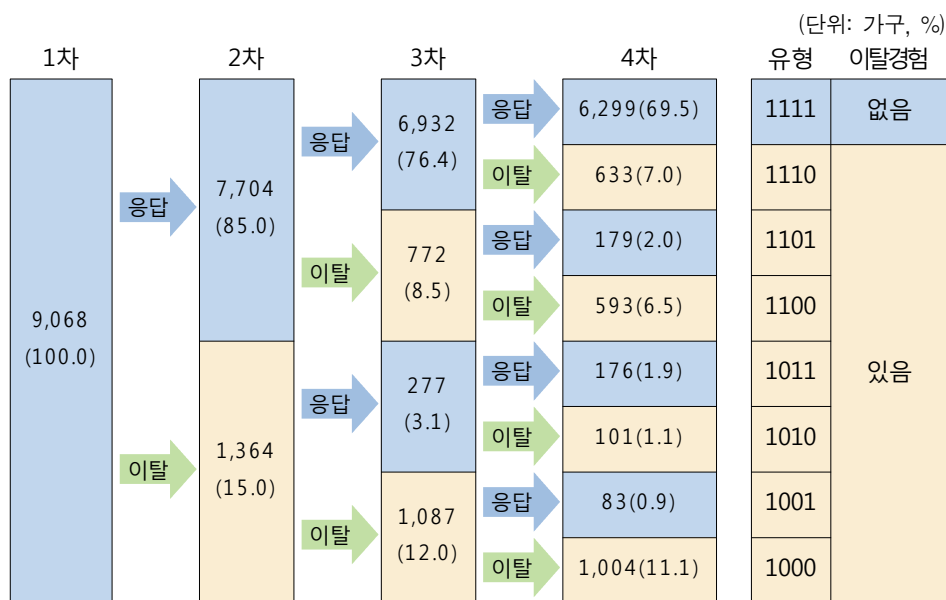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현재 4차 웨이브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로써, 원표본 유지율<sup>27)</sup>은 75.2%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유지율 산정은 1차 웨이브 조사 원표본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조사불가 가구를 제외한 유효가구를 통해 산정한다. 표본유지율은 2007년 원표본가구를 기준으로 2008년 2차 웨이브 조사에서 85.3%, 2010년 3차 웨이브 조사에서 80.1%, 2012년 4차 웨이브 조사에서 75.2%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가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노동패널과 여타 패널조사의 수준<sup>28)</sup>으로 나타났다. 5차 웨이브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72.0% 유지율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V-1] 본 조사 표본 유지율

- 26) 주재선·김영택·송치선·손창균·임찬수(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71.
- 27) 표본유지율은 1차 웨이브 조사 원표본가구에서 조사불가(사망, 이민, 패널탈퇴 등) 가구를 제외한 조사성공가구를 통해 산정한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이탈과 진입분석의 수치는 표본유지율과 약간 차이가 있다.
- 28) 한국노동패널의 경우(주기 1년) 유효표본유지율은 2차 웨이브 조사(1999년), 87.6%, 4차 웨이브 조사(2001년) 77.3%, 6차 웨이브 조사(2003년) 77.3%, 8차 웨이브 조사(2005년) 77.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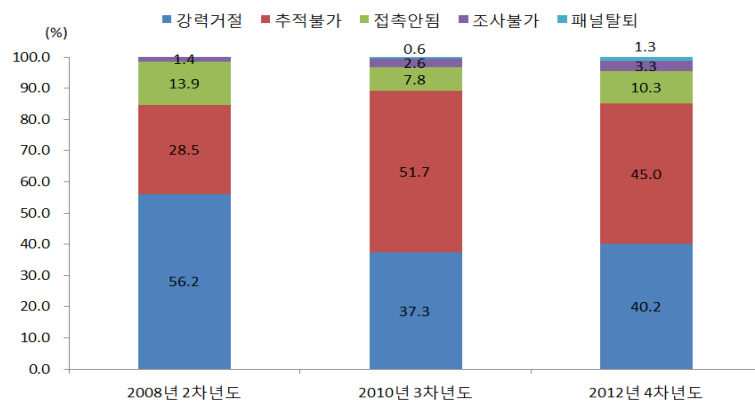
1차 웨이브 조사와 비교했을 때, 2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15%p 감소하여 85.0%가 응답을 하였고, 3차 웨이브 조사에는 2차 웨이브 조사에서 계속 응답한 패널이 76.4%, 2차 웨이브 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3차 웨이브 조사에는 응답한 패널이 3.1%로 총 79.5%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이탈비율은 총 20.5%로, 2차 웨이브 조사에서 계속 이탈한 패널이 12.0%, 2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응답하였으나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패널이 8.5%로 구성되어 있었다.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3, 4차에서 응답한 패널이 71.4% (1111유형 69.5%+1011유형 1.9%)이며, 3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4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패널(1101유형+1001유형)이 2.9%로 총 응답률은 74.3%로 나타났다. 한편 2차 웨이브 조사에 모두 응답한 비율은 69.5%였고 2, 3, 4차 모두 무응답한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이외 패널은 재진입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차 웨이브 조사 이탈자 중 3차 웨이브 조사의 재진입 비중은 20.3%(1,364명 중 277명)에서 3차 웨이브 조사 이탈자 중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비중은 14.1%((179+83)/(772+1,087))로 낮아진 반면, 동 기간 내 응답자 중 이탈 비중은 10.0%(772/7,704)에서 10.2%((633+101)/(6,932+277))로 약간 상승하였다.



[그림 V-2] 패널이탈 및 재진입 경로 및 분포

패널은 조사차수가 증가하면서 전차수대비 이탈자는 감소하지만 차수별 누적 표본이탈자는 증가한다. 이탈 현상은 패널의 특성 상 불가피하므로 패널은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널이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이탈자의 이탈 사유를 분석해 봤다. 최초로 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한 2차 웨이브 조사에는 ‘강력거절’이 5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3차와 4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추적불가’ 패널이 각각 51.7%와 45.0%로 가장 높은 사유로 나타났다. 통상 패널의 특성 상 조사차수가 증가할수록 ‘추적불가’ 패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3차 웨이브 조사에서 ‘추적불가’ 패널의 큰 상승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기 변경과 관련이 높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기는 2차 웨이브 조사까지는 1년 주기를 가졌지만 3차 웨이브 조사 이후 2년 주기로 변경하였는데, 패널관리 정책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패널의 추적불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패널관리 방안의 하나로 조사가 없는 해에 중간필드워크(Interim fieldwork)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이탈자 중 추적불가 비중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sup>29)</sup>. 하지만 강력거절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 시 크게 감소했다가 4차 웨이브 조사에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V-3] 차수별 이탈자의 이탈 사유

29) 중간필드워크(interim fieldwork)는 재진입패널특성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수별로 응답을 ‘1’, 무응답을 ‘0’으로 정의한 후 4차까지 조사된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패널을 이탈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V-1〉 패널이탈 분석을 위한 유형구분

유형	1차 웨이브 조사	2차 웨이브 조사	3차 웨이브 조사	4차 웨이브 조사
1000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1001	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1010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1011	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1100	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1101	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1110	응답	응답	응답	무응답
1111	응답	응답	응답	응답

먼저 8가지 유형 중 이탈이 없었던 1111유형을 제외하고 이탈경험이 있는 유형에 대해 이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이탈된 패널인 1000유형은 패널이탈 유형 중 가장 많은 1,004가구가 이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의 이탈 사유를 보면 2차 웨이브 조사에는 강력거절 비중(52.2%)이 가장 높았고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에는 추적불가가 각각 54.2%와 50.8%로 가장 높았다. 즉,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이탈된 패널은 2차 웨이브 조사 강력거절을 한 후 조사주기가 2년으로 변경된 3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추적불가로 이탈된 패널이 많았다.

둘째, 1001유형 패널로 이 패널은 2차 웨이브 조사에 강력거절이 57.8%로 가장 높았고, 3차 웨이브 조사 또한 강력거절이 43.4%로 가장 높으나 추적불가가 42.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유형은 4차 웨이브 조사에 재진입한 유형으로 이탈 경험에 있는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83가구)이다.

셋째, 1010유형 패널은 1001유형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지만, 이탈 사유는

강력거절이 2차(67.3%)와 4차 웨이브 조사(54.5%) 모두에서 매우 높다. 물론 추적불가는 2차 웨이브 조사(18.8%)에 비해 4차 웨이브 조사(28.7%)에서 크게 증가한다.

넷째, 1011유형 패널은 2차 때 한번만의 이탈경험이 있는 패널이다. 이 패널은 다른 유형과 비슷하게 강력거절(71.6%)로 이탈한 후 3차부터 면접원의 설득으로 다시 응답하게 된 가구이다. 1011유형 패널은 176가구로 많지는 않으나, 강력거부할 경우 면접원의 능숙도가 패널유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 준다.

〈표 V-2〉 패널응답 유형 및 사유별 이탈여부

(단위: 가구, %)

유형	이탈차수	강력거절	추적불가	접촉안됨	조사불가	패널이탈	전체
1000	2차 웨이브 조사	524(52.2)	332(33.1)	132(13.1)	16(1.6)	0(0.0)	1004(100.0)
	3차 웨이브 조사	371(37.0)	544(54.2)	63(6.3)	17(1.7)	9(0.9)	1004(100.0)
	4차 웨이브 조사	399(39.7)	510(50.8)	59(5.9)	18(1.8)	18(1.8)	1004(100.0)
1001	2차 웨이브 조사	48(57.8)	16(19.3)	18(21.7)	1(1.2)	0(0.0)	83(100.0)
	3차 웨이브 조사	36(43.4)	35(42.2)	12(14.5)	0(0.0)	0(0.0)	83(100.0)
	4차 웨이브 조사	-	-	-	-	-	-
1010	2차 웨이브 조사	68(67.3)	19(18.8)	13(12.9)	1(1.0)	0(0.0)	101(100.0)
	3차 웨이브 조사	-	-	-	-	-	-
	4차 웨이브 조사	55(54.5)	29(28.7)	13(12.9)	4(4.0)	0(0.0)	101(100.0)
1011	2차 웨이브 조사	126(71.6)	22(12.5)	27(15.3)	1(0.6)	0(0.0)	176(100.0)
	3차 웨이브 조사	-	-	-	-	-	-
	4차 웨이브 조사	-	-	-	-	-	-
1100	2차 웨이브 조사	-	-	-	-	-	-
	3차 웨이브 조사	195(32.9)	315(53.1)	53(8.9)	27(4.6)	2(0.3)	592(100.0)
	4차 웨이브 조사	200(33.7)	303(51.1)	49(8.3)	32(5.4)	9(1.5)	593(100.0)
1101	2차 웨이브 조사	-	-	-	-	-	-
	3차 웨이브 조사	91(51.4)	66(37.3)	16(9.0)	4(2.3)	0(0.0)	177(100.0)
	4차 웨이브 조사	-	-	-	-	-	-

유형	이탈차수	강력거절	추적불가	접촉안됨	조사불가	패널이탈	전체
1110	2차 웨이브 조사	-	-	-	-	-	-
	3차 웨이브 조사	-	-	-	-	-	-
	4차 웨이브 조사	282(44.5)	207(32.7)	118(18.6)	22(3.5)	4(0.6)	633(100.0)
전체	2차 웨이브 조사	766(56.2)	389(28.5)	190(13.9)	19(1.4)	0(0.0)	1364(100.0)
	3차 웨이브 조사	694(37.4)	960(51.7)	144(7.8)	48(2.6)	11(0.6)	1857(100.0)
	4차 웨이브 조사	936(40.2)	1049(45.0)	239(10.3)	76(3.3)	31(1.3)	2331(100.0)

다섯째, 1100유형 패널은 593가구로 비교적 큰 규모를 보인다. 이 유형은 3차와 4차 웨이브 조사 모두 추적불가로 인해 이탈되는 비율이 각각 53.1%, 51.1%로 가장 높았다. 추적불가는 패널이탈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는 사유로 중간필드워크에서 일부 추적불가 가구를 추적하였으나, 4차 웨이브 조사 추적불가 가구는 303가구로 3차 웨이브 조사(315가구)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1101유형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에서 이탈했다가 4차 웨이브 조사 다시 진입하는 패널로서, 177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3차 웨이브 조사에 패널이탈 사유를 보면, 강력거절이 51.4%이었고 추적불가가 37.3%이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인 1110 패널은 1000유형 패널 다음으로 많은 633가구가 이 유형을 보이고 있다. 3차 웨이브 조사까지 응답했던 패널이 이탈한 것으로 5차 웨이브 조사에서 매우 주의를 가지고 접근해야하는 집단이다. 이 유형의 이탈 사유를 보면, 강력거절이 44.5%, 추적불가가 32.7%로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났지만, 외출로 인한 부재 등 응답자가 접촉되지 않아 이탈된 가구가 18.6%로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 2) 이탈경험 패널의 특성 분석

패널의 이탈(Attrition)은 면접원 요인, 이벤트 발생(이사, 질병 등), 일반적 가구특성, 응답자 특성 등으로 발생한다. 이탈은 이탈 전후의 패널변화가 크게 영향을 받지만 무응답할 경우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와 응답자 특성을 중심으로 이탈한 직전 정보를 활용하여 이탈경험<sup>30)</sup>을 분석하고 있다.

이탈경험이 있는 패널의 특성 파악을 위해 활용한 가구변수는 거주지, 주택유형, 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수 등이다. 이들 변수를 통해 이탈경험에 대한 패널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거주지별로, 서울특별시가 이탈경험이 46.9%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6.8%로 가장 낮은 이탈경험을 보인다.

〈표 V-3〉 시도별 이탈여부

(단위: 가구, %)

시도구분	유지		이탈		전체	
서울특별시	591	(53.1)	522	(46.9)	1,113	(100.0)
부산광역시	488	(71.9)	191	(28.1)	679	(100.0)
대구광역시	335	(70.8)	138	(29.2)	473	(100.0)
인천광역시	316	(60.5)	206	(39.5)	522	(100.0)
광주광역시	299	(69.2)	133	(30.8)	432	(100.0)
대전광역시	302	(72.2)	116	(27.8)	418	(100.0)
울산광역시	287	(78.8)	77	(21.2)	364	(100.0)
경기도	618	(58.0)	448	(42.0)	1,066	(100.0)
강원도	311	(70.7)	129	(29.3)	440	(100.0)
충청북도	327	(73.5)	118	(26.5)	445	(100.0)
충청남도	419	(82.8)	87	(17.2)	506	(100.0)
전라북도	391	(79.1)	103	(20.9)	494	(100.0)
전라남도	471	(83.2)	95	(16.8)	566	(100.0)
경상북도	457	(74.1)	160	(25.9)	617	(100.0)
경상남도	491	(73.3)	179	(26.7)	670	(100.0)
제주도	196	(75.1)	65	(24.9)	261	(100.0)
전체	6,299	(69.5)	2,767	(30.5)	9,066	(100.0)

30) 본 연구에서 이탈경험이란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한번이라도 이탈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이탈경험 유무를 통해 집단을 분리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 직전 차수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의 이탈경험이 가장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오피스텔 등 기타 주택의 경우 이탈률이 매우 높았지만 이들의 경우는 낮은 빈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다세대주택(46.0%), 연립주택(37.8%), 아파트(34.4%)는 단독주택(19.9%)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이탈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이사 등 이동이 적은 자가인 경우가 많지만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sup>31)</sup>의 경우 전세 혹은 월세 비율이 높아 추적불가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sup>32)</sup>.

〈표 V-4〉 주택유형별 이탈여부

(단위: 가구, %)

주택유형	유지	이탈	전체
단독주택	2,366(80.1)	587(19.9)	2,953(100.0)
아파트	2,856(65.6)	1,500(34.4)	4,356(100.0)
연립주택(빌라 포함)	605(62.2)	367(37.8)	972(100.0)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	250(54.0)	213(46.0)	463(100.0)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206(72.8)	77(27.2)	283(100.0)
오피스텔 등 기타	16(40.0)	24(60.0)	40(100.0)
전체	6,299(69.5)	2,768(30.5)	9,067(100.0)

점유형태로는 자가 소유인 경우가 가장 낮은 이탈경험을 보이고, 월세와 전세에서 높은 이탈경험을 보인다. 이는 자가의 경우 이동률이 낮아 추적불가 가구가 적은 반면, 월세, 전세 등은 높은 이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패널이 자가에 비해 월세와 전세 등에서 월등히 이탈경험 가구가 높은 이유는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2년으로 조사주기가 늘어난 것이 상대적으로 추적불가 가구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sup>33)</sup>.

31) 아파트는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 이외 면접원의 접근성 문제(경비의 제지, 보안카드장치 등 아파트 출입의 어려움)가 패널이탈의 원인이 된다(면접원 상담 내용).

32) 주택유형과 점유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74.6%가 자가로 나타나며, 연립+다세대주택은 50.9%만이 자가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69.7%가 자가였고 전세 비율이 19.4%로 나타났다.



〈표 V-5〉 점유형태별 이탈여부

(단위: 가구, %)

점유형태	유지	이탈	전체
자가	4,565(74.7)	1,546(25.3)	6,111(100.0)
전세	928(56.2)	723(43.8)	1,651(100.0)
보증부 월세	452(60.6)	294(39.4)	746(100.0)
월세(사글세포함)	103(55.7)	82(44.3)	185(100.0)
무상 및 기타	250(67.0)	123(33.0)	373(100.0)
전체	6,298(69.5)	2,768(30.5)	9,066(100.0)

소득과 이탈의 관계는 대체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오는 이탈경험의 차이는 미미하다. 200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가구에 비해 그 이상 소득수준을 보인 가구에서 약간 낮은 이탈경험을 보이지만 눈에 띄는 만큼의 차이는 아니다.

〈표 V-6〉 월평균 가구소득별 이탈여부

(단위: 가구, %)

가구소득	유지	이탈	전체
200만원 미만	2,063(68.5)	947(31.5)	3,010(100.0)
~300만원 미만	1,522(69.3)	675(30.7)	2,197(100.0)
~400만원 미만	1,121(68.7)	511(31.3)	1,632(100.0)
400만원 이상	1,593(71.5)	636(28.5)	2,229(100.0)
전체	6,299(69.5)	2,769(30.5)	9,068(100.0)

동거가구원수는 미혼이고 단독가구인 1명일 때 가장 이탈률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3인 가구일 때였으며, 가장 낮은 이탈률을 보인 가구는 가구원수가 7~8명인 가구였다.

- 33) 여성가족패널조사 2년 주기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조사가 없는 연도에서는 패널관리를 위해 중간필드워크(전화조사+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탈 패널자가 자가인 경우 추적불가는 26.5%를 차지하나, 전세는 45.7%, 월세는 50.5%가 추적불가로 이탈했다.

〈표 V-7〉 동거가구원수별 이탈여부

(단위: 가구, %)

동거가구원수	유지	이탈	전체
1명	315(61.2)	200(38.8)	515(100.0)
2명	1,256(74.7)	425(25.3)	1,681(100.0)
3명	1,273(66.1)	654(33.9)	1,927(100.0)
4명	2,506(68.5)	1,151(31.5)	3,657(100.0)
5명	724(72.9)	269(27.1)	993(100.0)
6명	173(74.2)	60(25.8)	233(100.0)
7명	39(84.8)	7(15.2)	46(100.0)
8명	11(84.6)	2(15.4)	13(100.0)
9명	2(66.7)	1(33.3)	3(100.0)
전체	6,299(69.5)	2,769(30.5)	9,068(100.0)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특징 중 하나는 응답자가 모두 여성이란 점이다. 따라서 가구 응답자는 여성 중 한명으로 선정<sup>34)</sup>된다. 응답자 개인의 요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탈과 관계가 높다고 논의되는 응답자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건강상태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구 응답자의 연령대는 다양한 연구에서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이탈경험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10대인 경우, 전원이 이탈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대의 경우에는 68.1%가 이탈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15.4%의 이탈경험을 보였으며, 50대가 22.8%의 이탈경험을 보였다.

34) 가구 응답자의 선정은 우선 가구주이거나 가구주 배우자 중에서 선택되며, 다음 순으로 연장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표 V-8〉 응답자 연령대별 이탈여부

(단위: 명, %)

응답자 연령대	유지		이탈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대	0	(0.0)	12	(100.0)	12	(100.0)
20대	159	(31.9)	339	(68.1)	498	(100.0)
30대	1,612	(62.8)	956	(37.2)	2,568	(100.0)
40대	1,873	(70.0)	802	(30.0)	2,675	(100.0)
50대	1,558	(77.2)	460	(22.8)	2,018	(100.0)
60대 이상	1,097	(84.6)	199	(15.4)	1,296	(100.0)
전체	6,299	(69.5)	2,768	(30.5)	9,067	(100.0)

가구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응답자가 미혼인 경우에 58.4%로 가장 높은 이탈경험을 보였다. 이는 가구 응답자가 미혼의 경우 저연령대이거나 1인 가구로 추적불가 가구 비중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별거와 이혼이 40.0%대 초반의 이탈경험을 나타냈으며, 사별의 경우 18.8%로 가장 낮은 이탈경험을 보였다.

〈표 V-9〉 응답자 혼인상태별 이탈여부

(단위: 명, %)

혼인상태	유지		이탈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혼	177	(41.6)	248	(58.4)	425	(100.0)
기혼유배우	5,445	(70.7)	2,255	(29.3)	7,700	(100.0)
별거	42	(59.2)	29	(40.8)	71	(100.0)
이혼	191	(59.1)	132	(40.9)	323	(100.0)
사별	444	(81.2)	103	(18.8)	547	(100.0)
전체	6,299	(69.5)	2,767	(30.5)	9,066	(100.0)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이탈률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보이는데, 초졸 이하

는 16.7%의 가장 낮은 이탈경험이 나타나며,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36.1%로 가장 높은 이탈경험을 기록했다.

〈표 V-10〉 응답자 교육정도별 이탈여부

(단위: 명, %)

교육정도	유지		이탈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응답	1	(20.0)	4	(80.0)	5	(100.0)
초졸 이하	1,397	(83.3)	280	(16.7)	1,677	(100.0)
중졸	815	(75.2)	269	(24.8)	1,084	(100.0)
고졸	2,421	(65.5)	1,276	(34.5)	3,697	(100.0)
대졸 이상	1,665	(63.9)	940	(36.1)	2,605	(100.0)
전체	6,299	(69.5)	2,769	(30.5)	9,068	(100.0)

응답자의 취업은 이탈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응답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이탈경험 결과 또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종사상지위상태와 관계없이 낮은 이탈경험을 보여준다. 취업 응답자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이탈경험이 12.6%로 가장 낮았으며, 자영업자가 21.3%로 다음으로 낮은 이탈경험을 보였다. 하지만 취업자일지라도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와 특수직근로자일 경우는 비취업자보다 이탈경험이 낮았지만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V-11〉 응답자 취업상태(종사상지위)별 이탈여부

(단위: 명, %)

취직상태	유지		이탈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1,497	(70.7)	621	(29.3)	2,118	(100.0)
자영업자	863	(78.7)	233	(21.3)	1,096	(100.0)
무급가족종사자	864	(87.4)	125	(12.6)	989	(100.0)
특수직고용자	97	(70.3)	41	(29.7)	138	(100.0)
비취업	2,978	(63.0)	1,749	(37.0)	4,727	(100.0)
전체	6,299	(69.5)	2,769	(30.5)	9,068	(100.0)

마지막으로 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를 통해 이탈현상을 파악해 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낮은 이탈경험을 보였고, ‘아주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이탈률을 나타냈다. 이는 건강의 경우 연령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표 V-12〉 응답자 건강상태별 이탈여부

(단위: 명, %)

건강상태	유지		이탈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주 건강하다	489	(52.8)	437	(47.2)	926	(100.0)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3,293	(69.7)	1,434	(30.3)	4,727	(100.0)
보통이다	1,619	(75.4)	527	(24.6)	2,146	(100.0)
별로 건강하지 않다	781	(72.4)	297	(27.6)	1,078	(100.0)
건강이 아주 나쁜 편이다	117	(62.2)	71	(37.8)	188	(100.0)
전체	6,299	(69.5)	2,766	(30.5)	9,065	(100.0)

## 다. 이탈경험모형의 분석 결과

### 1) 의사결정 나무모형을 이용한 이탈패널 요인분석

의사결정 나무모형 분할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Exhaustive CHAID이다. 이 방법은 종속변수와 교호작용 효과가 큰 순서대로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의 CHAID의 수정된 방법이다<sup>35)</sup>. 나무모형은 독립변수의 범주와 종속변수의 변수간 유의미한 차이가 큰 순으로 노드가 분할되는 방법으로 패널 이탈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추적해 보기 위해 실시했다.

분석 결과<sup>36)</sup>, 패널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응답자의 연령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범주에 따라 달랐다. 32세 미만 응답자는 이탈경험이 56.6%로 매우 높았고 동거가구원수가 2명 이하일 경우 74.9%가 이탈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 연령에서 동거가구원수는 많을수록 탈락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8세, 52~61세, 61세 이상 응답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응답률의 차이가 컸다. 세 연령층 응답자는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각각 48.1%, 40.7%, 25.5%의 이탈경험이 있다. 특히 52~61세와 61세 이상 응답자는 이탈비율이 비교적 낮은 집단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수도권일 경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훨씬 높은 이탈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연령층 응답자가 비취업자일 경우 이탈정도는 더욱 높았다.

38~52세 응답자의 경우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갖는 요인은 일자리 유무였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 점유형태가 이탈에 영향을 주었고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가구소득이 이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유무는 앞의 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일자리가 있는 경우 낮은 이탈을 보이며, 자가 혹은 무상 거주일 경우 이탈 경험에 낮았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경제적 요인이 이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 그 이상의 소득 가구에 비해 이탈경험

35) 박성현 외(2011), 「고급SPSS 이해와 활용」, '6장 나무모형' 참조.

36) [그림 V-4] 참조.

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모형으로 볼 때 이탈 성향이 높은 집단을 요약해 보면, 32세 이하의 경우 이탈 성향이 매우 높은 집단이며 동거가구원 수가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준다. 특히 동거가구원수가 2명 이하인 월세 가구의 이탈은 88.0%로 매우 높다. 반면 32세 이상 연령층 응답자의 경우 거주지역이 이탈에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번째로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약간씩 달라서, 32~38세의 경우 평균이탈성향이 37.0%로 나타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이탈경험은 6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은 38~52세 응답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52세 이상 응답자는 거주지역 다음으로 높은 영향이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52~61세 응답자는 21.7%가 이탈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취업자의 이탈경험은 47.8%이다. 61세 이상의 경우 세 번째 이탈영향 요인으로 취업여부가 선택되었지만, 거주지역의 효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인다.

## 2) 로짓모형을 이용한 패널이탈 경험 분석

본 연구는 패널이탈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이탈(종속변수)을 “패널이탈은 2차 웨이브 조사부터 시작되며, 한번 이탈한 패널은 다시 복귀할 수 없다<sup>37)</sup>”로 정의하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패널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즉 1차부터 4차까지 꾸준히 응답한 패널, 2차에서 최초 이탈한 패널, 3차에서 최초 이탈한 패널, 4차에서 최초 이탈한 패널로 나누었고, 패널이탈은 최초이탈 직전에 성공한 차수의 자료(t-1 웨이브 차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7) 이와 같은 전제조건은 이상호(2005)의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 분석 -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도 활용했다.

〈표 V-13〉 패널이탈 유형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활용 차수

패널이탈 유형	독립변수 차수	종속변수 차수	종속변수 내용
1차부터 4차까지 응답한 패널	3차	4차	응답
2차에서 최초 이탈한 패널	1차	2차	이탈
3차에서 최초 이탈한 패널	2차	3차	이탈
4차에서 최초 이탈한 패널	3차	4차	이탈

일반적으로 패널이탈모형의 설명변수는 면접원 및 면접과정 요인, 이사, 질병과 같은 이탈직전의 쇼크, 조사가구의 특성, 응답자 특성 등을 활용한다. 면접원 혹은 면접과정 요인과 이탈직전의 쇼크는 매우 중요 설명변수임에도 대개 조사에서 충분히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또한 1차 웨이브 조사이후 면접관련 변수와 이탈직전의 쇼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설명변수 중 이들 변수를 제외하고 가구 특성과 가구 응답자 개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특성 변수로는 거주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소득, 동거가구원수 등이 사용되었다. 동거가구원수를 제외하면 이들 변수는 대부분 패널이탈과 관련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응답자 개인변수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직상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패널들의 이탈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응답년도를 더미로 포함하여 통제변수<sup>38)</sup>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정도와 혼인상태<sup>39)</sup>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time-constant variables)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패널이탈모형은 상기 변수들을 토대로 각 범주별로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설명변수에서 거주지역은 도지역, 주택유형은 단

38) Beckett et al.(1988)에서 언급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y)을 측정하기 위한 연도더미이다.

39) 여성가족패널조사는 1차 조사 기준 19세부터 64세 가구원을 조사했기 때문에 혼인상태와 교육정도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변화지 않는 변수(time-constant variables)로만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변수의 변화는 작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시간불변의 변수로 가정한다.



독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월평균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취업상태는 미취업자, 응답연도는 2007년을 기준 집단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탈 유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지에서 도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그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수도권의 경우, 이탈경험이 높은 서울(46.9%)이 전체에서 큰 비중(41.2%<sup>40</sup>)을 차지한 반면, 광역시별 이탈경험은 광주 30.8%에서 울산 21.2%까지 비교적 큰 편차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전체에서 대등한 비중으로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표 3> 참조).

또한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등 기타 주택 모두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도시에 분포하며, 가구형태가 핵가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채 등의 이유로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점유형태와 연결지어보면 다른 주택의 형태보다 전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사로 인한 추적불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점유형태로 본다면 자가에 비해 전세, 무상 및 기타, 월세(사글세 포함)순으로 이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전세는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만, 무상 및 기타, 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만원 저소득 가구에 비해 이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인 가구의 이탈현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400만원 미만의 이탈경험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기준집단에 비해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모든 연령층의 이탈과의 연관보다 38~52세 수도권 응답자 가구의 이탈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응답자와 관련된 변수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40) 수도권 전체 2,701가구에서 서울 1,113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령은 이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이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낮지만, 연령대별 이탈확률이 높은 10대와 20대가 전체 패널의 5.6%를 차지하고, 비교적 이탈확률이 낮은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 패널의 36.6%를 차지하므로, 각 연령대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이러한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표 V-8> 참조).

일반적으로 비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이탈확률이 높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특성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비취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에 이탈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이탈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특수직고용자와 임금근로자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관련변수를 통제했을 때 비취업자보다 이탈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1부터 5까지의 척도로 1이 ‘아주 건강함’이고, 5는 ‘건강이 아주 나쁜편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지니므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이탈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상태가 연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도 더미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시점 간의 차이를 통제해줌으로써 다른 설명변수들의 유의확률 수준을 낮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표 V-14〉 패널이탈 성향 분석 결과

설명변수		변수명	B	S.E.	유의확률	Exp(B)
지역 (기준: 도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City_d1=1	0.368	0.107	0.001	1.444
	광역시(서울,인천제외)	City_d2=1	0.048	0.109	0.663	1.049
주택유형 (기준: 단독주택)	아파트	Htype_d1=1	0.110	0.117	0.346	1.116
	연립및다세대주택	Htype_d2=1	0.183	0.141	0.195	1.201
	비주거용등기타주택	Htype_d3=1	0.429	0.239	0.073	1.536

설명변수		변수명	B	S.E.	유의확률	Exp(B)
점유형태 (기준: 자가)	전세	Hocu_d1=1	0.301	0.109	0.006	1.352
	월세(사글세포함)	Hocu_d2=1	0.147	0.149	0.323	1.159
	무상및기타	Hocu_d3=1	0.204	0.203	0.316	1.226
월평균가계소득 (기준: 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Income_d1=1	-0.072	0.126	0.566	0.931
	300~400만원미만	Income_d2=1	-0.238	0.143	0.097	0.788
	400만원이상	Income_d3=1	-0.036	0.132	0.788	0.965
동거가구원	동거가구원수	H_member	-0.053	0.043	0.214	0.948
연령	연령	Age	-0.025	0.005	0.000	0.975
종사상지위 (기준: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status_d1=1	-0.004	0.098	0.966	0.996
	자영업자	status_d2=1	-0.453	0.154	0.003	0.636
	무급가족종사자	status_d3=1	-1.165	0.234	0.000	0.312
	특수직고용자	status_d4=1	0.062	0.314	0.844	1.064
건강상태	본인의 건강상태	Health	-0.010	0.056	0.861	0.990
조사연도 (기준: 1차 웨이브 조사)	연도더미 (2차 웨이브 조사)	Year_d1=1	0.089	1777.098	1.000	1.094
	연도더미 (3차 웨이브 조사)	Year_d2=1	-23.334	1068.884	0.983	0.000
상수항		constant=1	22.273	1068.884	0.983	4.71E+09
-2 Log 우도			4060.739			
Cox와 Snell의 R-제곱			0.542			
Nagelkerke R-제곱			0.766			

## 라. 재진입 패널의 특성 분석

### 1) 재진입 패널의 특성

이탈 경험이 있는 패널 중 다시 재진입을 한 패널의 특징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의 논의에서 제시했던 패널유형 중 재진입과 관련된 유형은 <표 1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재진입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재진입 유형은 1101형태로,

전체 재진입 패널 539가구에서 33.2%를 차지했고 1001의 형태가 15.4%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즉, 이탈 횟수가 낮은 패널의 재진입이 비율이 높았으며, 이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진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재진입 유형 분류

(단위: 가구, %)

재진입 유형	설명	빈도	퍼센트
1001	2차 이탈 후 4차 재진입	83	15.4
1010	2차 이탈 후 3차 재진입	101	18.7
1011	2차 이탈 후 3차 재진입	176	32.7
1101	3차 이탈 후 4차 재진입	179	33.2
합계		539	100.0

먼저 재진입 패널의 진입 전 이탈 사유를 살펴보았다. 재진입 전 사유는 ‘강력거절’이 59.8%로 가장 높았고 ‘추적불가(26.4%)’, ‘접촉안됨(12.7%)’ 순으로 높았다.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패널과 3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패널은 진입 전 이탈 사유를 비교해 보면,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패널에 비해 ‘추적불가’이었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우가 높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차 재진입패널의 경우, 70.0% 패널은 2차 웨이브 조사에서 강력거절한 후 3차 웨이브 조사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한 사유 중 4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1011유형 패널은 1010유형 패널에 비해 강력 거절했거나 ‘접촉불가’였던 비율이 높았던 반면, 4차 웨이브 조사에 무응답한 1010유형 패널은 1011유형 패널에 비해 ‘추적불가’ 비율이 높았다(<표 -2> 참조). 3차 웨이브 조사에 이탈 후 4차 웨이브 조사에 재진입한 유형은 강력거절(48.8%)이 가장 많았지만 추적불가가 38.8%로 높았다. 2, 3차 웨이브 조사에 이탈하고 4차 웨이브 조사에 재진입한 1001유형 패널은 3차 웨이브 조사에만 이탈경험이 있었던 1101유형 패널에 비해 ‘추적불가’ 혹은 ‘접촉안됨’의 사유가 높았고 1101유형 패널은 1001유형 패널에 비해 강력거절 후 재진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V-16〉 재진입 패널의 진입 전 이탈사유

(단위: 가구, %)

구분	강력거절	추적불가	접촉안됨	조사불가	계
3차 재진입 (1010+1011)	194(70.0)	41(14.8)	40(14.4)	2(0.7)	277(100.0)
4차 재진입 (1001+1101)	127(48.8)	101(38.8)	28(10.8)	4(1.5)	260(100.0)
재진입 유형 전체	321(59.8)	142(26.4)	68(12.7)	6(1.1)	537(100.0)

주: 1101유형의 2개 패널은 결측치 제외

재진입 전 이탈사유별로 재진입 비율을 보면, 2차 웨이브 조사 이탈 후 재진입할 경우 강력거절이 25.3%로 가장 높고 접촉이 안 되어 비성공한 가구가 21.1%로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추적불가와 유학, 장기출장 혹은 질병과 사고 등으로 당시 조사불가의 가구의 경우 재진입한 비율은 10.5%로 낮았다. 이는 3차 웨이브 조사에 이탈 후 4차 웨이브 조사에 재진입한 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나, 재진입비율이 가장 높은 사유는 접촉안됨으로 19.4%로 강력거절 후 재진입한 패널에 비해 약간 높았다. 하지만 상당수를 차지하는 추적불가의 경우 재진입하는 비율이 10.5%로 10가구의 9가구는 추적불가로 이탈하면 다시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재진입 직전 이탈사유별 재진입 비율

(단위: %)

구분	강력거절	추적불가	접촉안됨	조사불가
3차 재진입 비율	25.3	10.5	21.1	10.5
4차 재진입 비율	18.3	10.5	19.4	8.3
재진입 유형 전체(3, 4차)	22.0	10.5	20.4	9.0

주: 1101유형의 2개 패널은 결측

## 2) 중간필드워크(Interim Fieldwork)가 패널 재진입에 미치는 효과

패널의 재진입은 패널관리와 면접원의 숙련도, 패널 응답자의 특성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강력거절 가구는 특히 면접원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추적불가 가구는 패널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패널의 조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패널관리를 위해 2011년 처음 중간필드워크를 시작하였다. 중간필드워크는 조사가 없는 연도에 실시되며, 전화조사와 방문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조사 방식은 패널에게 전화하여 통화된 패널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이사계획 등 간략한 질문을 한 후 선물을 보내며, 통화가 되지 않은 패널에게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간필드워크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실시되었다. 2011년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 사이에 진행되었고 2013년 조사는 4차 웨이브 조사를 마친 후 실시했다. 2014년 현재 5차 웨이브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2013년 중간필드워크 효과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중간필드워크 효과는 2011년 실시된 조사를 기준으로 3차 웨이브 조사와 4차 웨이브 조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패널 재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3차 웨이브 조사, 중간필드워크, 4차 웨이브 조사 성공여부를 통해 8개의 그룹을 만들어 비교함으로써 실시하였다. 위 응답여부로 상기 그룹들 총 8개 그룹을 만들었다.

<표 18>을 보면 3차 웨이브 조사에서 비성공했던 패널 중 중간필드워크가 성공할 시 4차 웨이브 조사에서도 성공할 비율(유형 011)은 38.2%로 중간필드워크에 비성공했지만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한 비율(유형 001) 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중간필드워크는 3차 웨이브 조사에 이탈되었던 패널을 재진입 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 3차 웨이브 조사 응답패널은 중간필드워크에서 비성공할지라도 4차 웨이브 조사 응답에 성공할 비율이 45.1%로 나타나서 3차 웨이브 조사에서 성공한 패널이 중간필드워크에 응답한 패널에 비해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패널이 중간필드워크에서 응답할 경우 4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비율이 94.1%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은 3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하고 중간필드워크에 비성공한 패널이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하는 패널 비율(45.1%)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성공비율이다.

〈표 V-18〉 중간필드워크효과 분석

(단위: 가구, %)

3차 웨이브 조사 성공 여부	중간필드워크 성공 여부	4차 웨이브 조사 성공 여부	그룹 유형	빈도	비율
성공	성공	성공	111	6,190	94.1
		비성공	110	387	5.9
		소계	11*	6,577	100.0
	비성공	성공	101	285	45.1
		비성공	100	347	54.9
		소계	10*	632	100.0
비성공	성공	성공	011	226	38.2
		비성공	010	366	61.8
		소계	01*	592	100.0
	비성공	성공	001	36	2.8
		비성공	000	1,231	97.2
		소계	00*	1,267	100.0

주: 중간필드워크에서 무응답 사유가 추적불가인 경우 제외

<표 -19>는 중간필드워크 성공여부와 3차 웨이브 조사 이탈사유별로 4차 웨이브 조사의 진입여부를 점검한 표이다. 이 통계표는 중간필드워크가 표본관리 차원으로 볼 때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필드워크의 성공할 시 패널 재진입에 높은 효과를 보인 이탈 사유는 ‘추적불가’이다. 3차 웨이브 조사에서 추적불가로 이탈되었던 패널 중 중간필드워크에 응답할 경우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할 비율은 51.8%로 나타났다. 3차 웨이브 조사에 ‘강력거절’했던 패널이 중간필드워크에 성공할 경우 4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패널비율은 32.7%로 나타났고, 3차 웨이브 조사에 접촉을 할 수 없어 이탈되었던 패널은 중간필드워크에서 응답시 28.2%가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에 비해 중간필드워크가 비성공할 경우 3차 웨이브 조사에 강력거절했던 패널은 4차 웨이브 조사에 4.5%만이 재진입했고, 추적불가는 1.8%, 접촉

안됨은 9.1%만이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재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차 웨이브 조사 이탈 사유별 중간필드워크의 성공비율은 접촉이 되지 않았던 가구가 54.2%, 강력거부가 48.7%로 나타났지만, 추적불가와 조사 불가 등의 가구는 각각 17.5%와 10.4%로 매우 낮은 성공비율을 보였다.

〈표 V-19〉 3차 웨이브 조사 패널의 이탈사유별 중간필드워크 성공여부에 따른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3차 웨이브 조사 이탈 사유				
		강력거절	추적불가	접촉안됨	조사불가	패널탈퇴
중간필드워크 성공패널	011	111(49.6)	87(38.8)	22(9.8)	4(1.8)	0(0.0)
	010	228(62.3)	81(22.1)	56(15.3)	1(0.3)	0(0.0)
	소계	339(57.5)	168(28.5)	78(13.2)	5(0.8)	0(0.0)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비율	32.7	51.8	28.2	80.0	-
중간필드워크 비성공패널	001	16(44.4)	14(38.9)	6(16.7)	0(0.0)	0(0.0)
	000	338(27.5)	778(63.3)	60(4.9)	43(3.5)	11(0.9)
	소계	354(28.0)	792(62.6)	66(5.2)	43(3.4)	11(0.9)
	4차 웨이브 조사 재진입비율	4.5	1.8	9.1	0.0	0.0
계		693(37.3)	960(51.7)	144(7.8)	48(2.6)	11(0.6)
중간필드워크 성공 비율		48.7	17.5	54.2	10.4	0.0

주: 결측치 제외

## 마. 결론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1~4차 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응답자의 이탈분석을 하였다.

패널이탈경험을 의사결정 나무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패널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영향은 연령대



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동거가구원수와 거주지역과 소득정도로 나타났다. 동거가구원수는 32세 이상 연령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32세 이하 연령에서 2명 이하일 경우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다. 월소득의 경우 패널이탈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지 못했지만, 32~38세 여성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200만원 미만 인 경우 높은 이탈경향을 보였다.

t-1년도 설명변수를 이용한 패널이탈경험에 대한 로짓모형도 의사결정나무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이탈경험이 도 지역에 비해 1.4배 높았고 이사 등 이동 이벤트 확률이 높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과 전세,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가구의 탈락경험이 단독주택과 자가인 경우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소득이 높을수록 이탈확률이 낮았지만 유의미하진 않았다.

응답자 요인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탈확률이 높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낮은 이탈확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취업자에 비해 낮은 이탈확률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진 않았다. 응답자의 건강상태와 연도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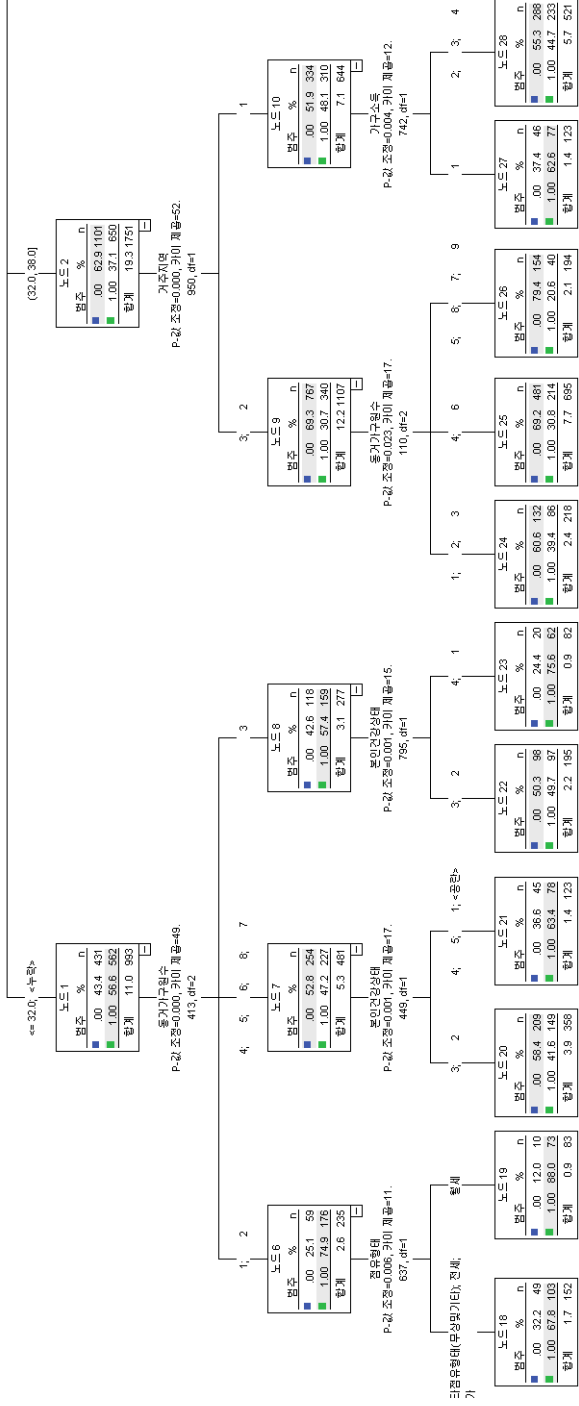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재진입 패널은 1101유형 즉, 1, 2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하고 3차 웨이브 조사에 무응답으로 이탈한 후 4차 웨이브 조사에 재진입하는 패널이 재진입패널(539가구)의 33.2%로 가장 많았다. 재진입 전 이탈사유를 보면 강력거절이 59.8%로 나타났고 추적불가가 26.4%를 보였다. 재진입 직전 이탈사유별로 재진입 비율을 보면, ‘강력거절’과 ‘접촉안됨’으로 이탈되었던 패널의 재진입비율이 20.0%이상인 반면 ‘추적불가’와 ‘조사불가’ 등의 사유로 이탈했던 패널은 10.0%가량의 낮은 재진입 비율을 보였다. 한편 중간필드워크가 패널 재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차 웨이브 조사 비성공했던 패널이라도 중간필드워크가 성공할 시 4차 웨이브 조사에서도 성공할 비율은 38.2%로 중간필드워크에 비성공하고 4차 웨이브 조사에 성공한 비율(2.8%)보다 훨씬 높았다. 이탈사유별로는 중간필드워크가 성공시 추적불가로 이탈했던 패널은 51.8%가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필드워크가 추적불가와 강력거절로 이탈하는 가구를 예방하고 재진입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패널의 성공과 비성공을 기준으로 패널관리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다. 패널관리프로토콜은 면접원의 패널접촉에 활용할 뿐 아니라, 표본유지와 관련하여 자원의 투입을 결정하는 모든 일에 활용된다. 하지만 이 관리프로그램의 단점은 성공과 비성공으로 나누어 관리할 뿐, 이탈자의 특성과 재진입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가 향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패널관리프로토콜을 가구특성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분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의 문제로 패널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면접원과 면접과정의 요인을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향후 웨이브조사는 패널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가 함께 수집 되도록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표 V-20〉 이탈성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구분		가구요인				응답자 요인				가구+응답자 요인			
설명변수	변수명	B	S.E.	유의 확률	Exp(B)	B	S.E.	유의 확률	Exp(B)	B	S.E.	유의 확률	Exp(B)
지역 (기준: 도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0.450	0.107	0.000	1.568					0.368	0.107	0.001	1.444
	광역시 (서울, 인천 제외)	0.119	0.109	0.276	1.126					0.048	0.109	0.663	1.049
주택 유형 (기준: 단독주택)	아파트	0.485	0.110	0.000	1.625					0.110	0.117	0.346	1.116
	연립·다가세대 주택	0.489	0.138	0.000	1.631					0.183	0.141	0.195	1.201
	비주거용 등기타주택	0.385	0.235	0.101	1.470					0.429	0.239	0.073	1.536
	전세	0.488	0.106	0.000	1.628					0.301	0.109	0.006	1.352
점유 형태 (기준: 자가)	월세(사글세 포함)	0.335	0.145	0.020	1.399					0.147	0.149	0.323	1.159
	무상 및 기타	0.497	0.198	0.012	1.644					0.204	0.203	0.316	1.226
	200~300만원 미만	0.045	0.122	0.715	1.046					-0.072	0.126	0.566	0.931
	300~400만원 미만	-0.108	0.140	0.441	0.898					-0.238	0.143	0.097	0.788
월평균 가계 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0.027	0.129	0.833	1.028					-0.036	0.132	0.788	0.965
	동거가구원 수	0.016	0.041	0.696	1.016					-0.053	0.043	0.214	0.948
연령	연령					-0.027	0.005	0.000	0.974	-0.025	0.005	0.000	0.975
	임금근로자					0.001	0.096	0.990	1.001	-0.004	0.098	0.966	0.996
	자영업자					-0.473	0.150	0.002	0.623	-0.453	0.154	0.003	0.636
	무급가족종사자					-1.319	0.226	0.000	0.268	-1.165	0.234	0.000	0.312
건강상태	특수직고용자					0.010	0.312	0.974	1.010	0.062	0.314	0.844	1.064
	본인의 건강상태					-0.004	0.055	0.940	0.996	-0.010	0.056	0.861	0.990
조사연도 (기준: 1차 웨이브 조사)	연도더미												
	(2차 웨이브 조사)	0.082	1794.774	1.000	1.086	0.022	1783.132	1.000	1.022	0.089	1777.098	1.000	1.094
	연도더미	-23.375	1078.642	0.983	0.000	-23.417	1073.800	0.983	0.000	-23.334	1068.884	0.983	0.000
상수항	(3차 웨이브 조사)	20.370	1078.642	0.985	7.02E+08	22.489	1073.800	0.983	5.85E+09	22.273	1068.884	0.983	4.71E+09
	-2 Log 우도		4131.193				4102.594				4060.739		
Cox와 Snell의 R-제곱			0.539				0.541				0.542		
Nagelkerke R-제곱			0.762				0.764				0.766		



주: 본인의 건강상태 : 1(매우 건강함)~5(건강이 아주 나쁜 편), 거주지역 : 1(수도권), 2(광역시-인천제외), 3(도지역-경기제외)  
가구소득 : 1(200만원 미만), 2(200~300만원 미만), 3(300~400만원 미만), 4(400만원 이상)  
종사상지위 : 1(임금근로자), 2(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18시간미만), 4(무급가족종사자-18시간미만), 5(비취업자)

[그림 V-4] Decision-Tree의 EXHAUSTIVE CHAID를 이용한 설명변수의 설명력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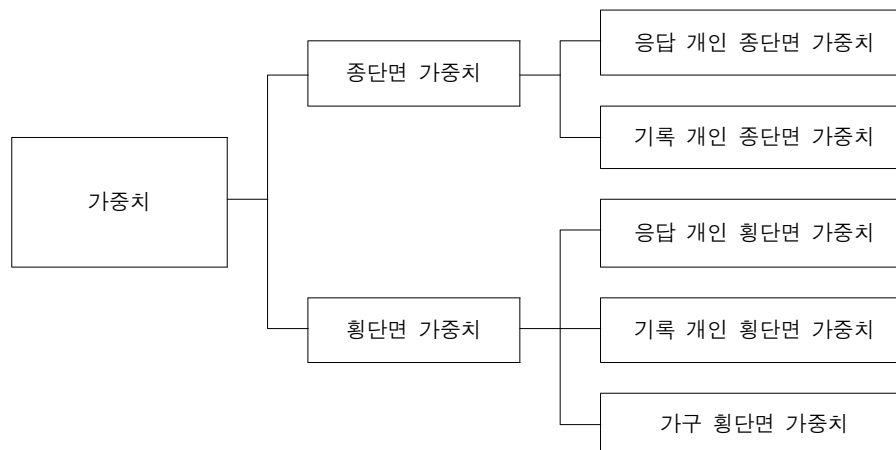


## 2. 여성가족패널의 4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조정

### 가. 4차 웨이브 가중치 작성과정

#### 1) 가중치의 종류

여성가족패널(KLoWF)의 4차 웨이브 가중치는 1차 웨이브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종단면 가중치(longitudinal weight)와 4차 웨이브의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횡단면 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를 동시에 고려한다. 또한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응답자와 패널가구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가중치를 종단과 횡단면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



(출처: 여성가족패널 3차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림 V-5] 가중치 종류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최종 분석단위(analysis unit)는 가구단위와 개인단위 모두이며, 다시 개인단위는 기록 개인(enumerated individual)과 응답 개인(responding individual)으로 구분한다. 이때, 기록 개인이란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은 아니지만 가구원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4차 웨이브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그림 V-5]와 같이 기록 개인과 응답 개인 모두에 대해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

서 신규 가구원에 대해서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고, 패널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구원의 전입과 전출에 따라 가구의 개념이 약화됨으로 인해 종단면 가중치보다는 횡단면 가중치만으로 고려한다.

## 2) 종단면가중치 산정방안

일반적으로 종단면가중치는 응답 개인 종단면가중치(responding individual longitudinal weight)와 기록 개인 종단면가중치(enumerated individual longitudinal weight)로 구분된다. 이때 패널가구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 개인이든, 기록 개인이든 간에 종단면가중치는 응답 개인의 경우에는 응답확률, 기록 개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동일 가구에 남아 있을 확률에 의존하므로, 가중치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한다.

종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는 분석단위로 쓰이기 보다는 가구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이용되며,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기록 개인은 종단면 분석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 개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응답확률은 응답그룹에 속한 개인에 대해 동일한 응답확률을 적용하는 가중셀방식(weighting classes)을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별로 응답확률을 추정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확률 추정을 위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였다<sup>41)</sup>. 응답확률을 결정하는 단위도 개인과 가구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영국의 BHPS나 미국의 PSID와 같이 기록 개인단위의 응답확률을 추정하여 종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를 구하고, 이 값들의 역수를 이용하여 종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가능하다. 또한 독일의 GSEP, 호주의 HILDA와 같이 기록 개인의 경우에는 가구단위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응답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단위의 응답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주요 분석단위가 개인이므로, 2차 웨이브 이후 분석

41) 응답확률 추정모형에 대해 학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국내 패널 연구(예를 들어 한국복지패널, 노동패널, 고령화 패널 등)에서 보편적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상의 일관성을 확보 하기위해 개인단위의 응답확률 로짓모형으로부터 추정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3) 비표본가구원과 가구 횡단면 가중치 산정방안

비표본가구원의 횡단면 개인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GSEP, HILDA에서와 같이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PSID, BHPS와 같이 동등배분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표본가구원의 초기 단계 추출확률을 사용하는 방안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가구에서 대표가구원(reference person)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하는 방법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유사추출확률을 추정하는 회귀식이 모형설정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가족패널의 경우에는 동등배분방식을 사용하여 비표본가구원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주재선 외, 2013).

## 나. 4차 웨이브 가중치 조정과정

### 1) 가중치 조정 개요

여성가족패널 4차 웨이브 조사의 가중치 조정은 3차 웨이브의 응답 개인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여 4차 웨이브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를 산정하게 된다. 가중치 조정 대상 중에서 4차 신규 응답 개인 가중치는 4차 웨이브에 새롭게 패널에 진입한 개인들로 종단면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4차 웨이브 응답 개인들에 대해 조정된 가중값을 기반으로 횡단면 가중값만을 고려하였다. 4차 웨이브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무응답 패턴은 전체 차수에 대해 무응답인(MMMM)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총 15가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표 V-21〉 4차 웨이브 패널의 웨이브 무응답 패턴

구분	무응답 패턴	내용
1	MMMM	1차 웨이브부터 4차 웨이브까지 무응답
2	MOOO	1차 웨이브 무응답 개인이 2차 웨이브 이후 응답
3	MMOO	1, 2차 웨이브 무응답 개인이 3차 웨이브 이후 응답
4	MMMO	1, 2, 3차 웨이브 무응답 개인이 4차 웨이브에서 응답
5	OMOO	2차 웨이브에서 무응답
6	OOMO	3차 웨이브에서 무응답
7	OOOM	4차 웨이브 무응답
8	OMOM	2, 4차 웨이브 무응답/ 1, 3차 웨이브 응답
9	MOMM	1, 3, 4차 웨이브 무응답/ 2차 웨이브만 응답
10	MOOM	1차 및 4차 웨이브 무응답
11	OOMM	3, 4차 웨이브 무응답
12	OMMO	2, 3차 웨이브 무응답
13	MMOM	3차 웨이브만 응답
14	OMMM	1차 웨이브만 응답
15	MOMO	1, 3차 웨이브 무응답/ 2, 4차 웨이브 응답
16	Oooo	1~4차 웨이브 응답

주: M: 무응답, O: 응답

여성가족패널의 웨이브 별 무응답 패턴은 다양한 패턴을 고려할 수 있으나, 4차 웨이브의 경우 3차 웨이브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차 웨이브에서 응답한 개인에 대해 4차 웨이브 무응답 개인에 대한 중단면 가중치를 조정하게 된다.

3차 웨이브의 가중치 조정되는 달리 4차 웨이브의 가중치 조정은 응답 개인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가구 내 응답가중치를 동등 배분 방식으로 기록 가구원과 응답가구원에 배분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구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가중치 작업을 단순화한 이유는 여성가족패널의 공개용 데이터 파일의 형식이 응답 개인과 가구 및 신규 가구원에 대

해 제공되며, 분석단위가 응답 개인이기 때문이며, 기록 개인의 경우 분석 단위라기 보다는 가구가중치 산정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4차 웨이브 가구 가중치는 응답 개인 종단면 가중값을 기본 가중값으로 산정하여, 이를 가구내 가구원에 동등하게 배분하고 가구내 가중값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눈 값)을 가구 횡단면 가중값으로 조정하였다.

## 2) 4차 웨이브 조사 종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

3차 웨이브 응답 개인 중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응답확률 추정하여 4차 웨이브 종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에서 응답한 id만을 선정하여 3차 웨이브 가구원 파일의 long form과 병합하여 이를 통해 응답률을 계산하였다. 이들을 이용하여 추정된 응답확률모형 추정치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또한 가중치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개인 응답 가중치에 극단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 3) 4차 웨이브 조사 종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

4차 종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3차 웨이브 조사 가중치 조정과는 달리 4차 웨이브 조사 종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를 기반으로 이를 가구내 가구원에 동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기록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단순히 가구가중치 산정을 위한 과정이며, 이는 응답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각 가구에 배분하여, 기록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산정하고, 사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4) 4차 웨이브 조사 횡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

4차 웨이브 조사 횡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는 가구 내 종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의 합을 4차 웨이브 조사에 존재하는 가구원수로 나누는 공정배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신규진입가구원은 종단면 개인가중치가 없으며, 다만 이들의 수는 4차 웨이브 조사 가구원수에 포함되

어 공정배분방식에 사용되었다. 4차 웨이브 조사에서 처음 기록된 원가구 원도 신규진입가구원과 동일하게 0의 중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사후층화하여 최종 횡단면 기록 개인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표 V-22〉 3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 중 4차 웨이브 조사 응답자 응답확률 추정결과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	1.1475	0.652	3.0978	0.0784
sage	1	0.000027	0.000316	0.0073	0.9321
P399AG	1	0.0137	0.0285	0.2319	0.6302
edu1	1	0.4397	0.1792	6.0186	0.0142
edu2	1	0.011	0.1519	0.0053	0.9422
edu3	1	0.0247	0.0997	0.0616	0.8039
edu4	1	0.036	0.1182	0.093	0.7604
edu5	0	0	-	-	-
rel1	1	0.2229	0.1783	1.5621	0.2114
rel2	1	0.4366	0.186	5.5115	0.0189
wed1	1	-0.5056	0.1957	6.672	0.0098
job1	1	0.2351	0.0749	9.8639	0.0017
dreg1	1	-0.9041	0.2379	14.438	0.0001
dreg2	1	-0.043	0.2588	0.0275	0.8682
dreg3	1	-0.1801	0.2677	0.4523	0.5012
dreg4	1	-0.1398	0.2688	0.2705	0.603
dreg5	1	-0.438	0.2691	2.6486	0.1036
dreg6	1	0.0914	0.2812	0.1056	0.7452
dreg7	1	-0.089	0.2829	0.0989	0.7531
dreg8	1	-0.4232	0.243	3.0333	0.0816
dreg9	1	-0.2807	0.2781	1.0185	0.3129
dreg10	1	-0.2275	0.2764	0.6776	0.4104
dreg11	1	0.1971	0.2873	0.4705	0.4927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dreg12	1	0.4843	0.3057	2.5102	0.1131
dreg13	1	0.0238	0.2846	0.007	0.9333
dreg14	1	-0.4276	0.2621	2.6601	0.1029
dreg15	1	0.1761	0.2704	0.4245	0.5147

### 5) 4차 웨이브 조사 횡단면 가구 가중치

이 가중치는 4차 웨이브 조사 사후층화전 횡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를 각 가구의 기본가중치로 설정한 다음 가구 내 가구원수로 기록 개인 가중치를 평균하여 횡단면 가구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또한 2011년 추계 가구수(가구원수별)값을 기준으로 최종 가중값을 사후 조정하여 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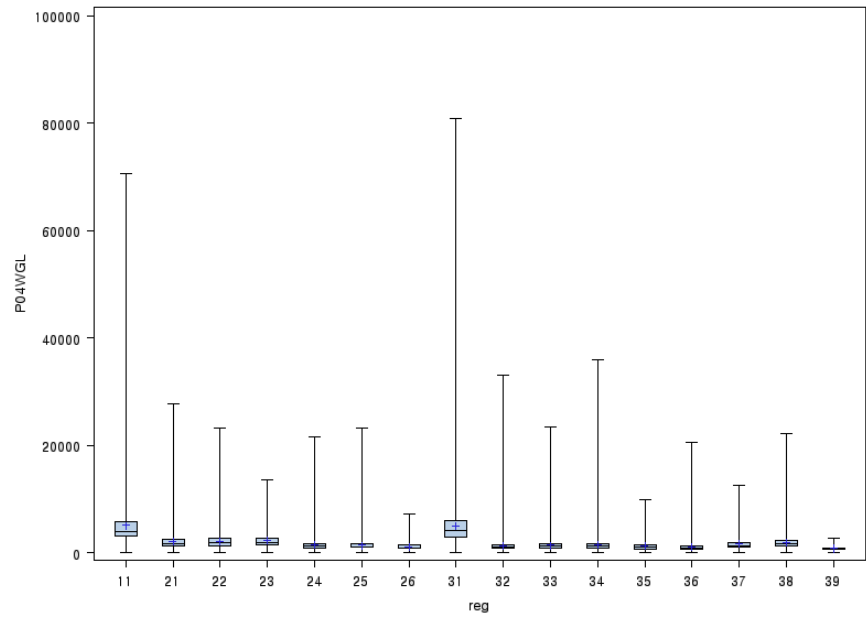
### 6) 가중값의 기초 통계값

먼저 응답 개인의 종단 및 횡단면 가중값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 종단면 가중값의 경우 3차 웨이브 조사 신규 개인의 종단면 가중값은 0으로써 이들은 패널 진입단계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종단면 가중값이 없다.

〈표 Ⅴ-23〉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P04WGL) 분포

시도	응답 개인 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IQR
서울	754	3,820,042.0	3,025.6	3,877.9	5,785.2	2,759.6
부산	614	1,280,193.1	1,343.9	1,752.8	2,429.4	1,085.5
대구	412	889,236.0	1,239.1	1,814.2	2,757.7	1,518.6
인천	435	991,536.7	1,372.0	1,937.4	2,767.7	1,395.8
광주	354	527,778.8	898.3	1,186.9	1,564.8	666.5
대전	391	542,716.9	956.8	1,121.0	1,574.8	618.0

시도	응답 개인 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IQR
울산	332	379,020.1	787.7	922.8	1,361.7	574.1
경기	837	4,187,454.5	2,822.7	4,044.4	5,883.2	3,060.5
강원	381	503,923.0	815.2	1,112.7	1,489.2	674.0
충북	385	521,423.9	832.7	1,199.7	1,585.3	752.6
충남	467	693,958.9	916.9	1,192.9	1,669.7	752.7
전북	468	597,862.8	678.0	1,053.6	1,489.0	811.0
전남	504	560,102.1	578.8	879.7	1,227.5	648.8
경북	512	826,947.1	980.6	1,346.5	1,901.3	920.7
경남	581	1,085,260.2	1,209.3	1,746.8	2,237.6	1,028.3
제주	231	181,905.0	624.2	741.9	904.0	279.8



[그림 V-6]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 지역별 분포

다음으로 응답 개인의 횡단면 가중값은 2011년 19세 이상의 여성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개인 종단면 가중값을 기저로 하여 사후 조정 한

가중값이다. 종단면 가중값이 없는 신규 개인에 대한 횡단면 가중값은 4차 웨이브 가구 횡단면 가중값을 기저로 사용하여 사후 조정된 가중값을 적용하였다. 가구 파일의 분가 가구의 경우 3차 웨이브에 부여 받은 종단면 가중값을 기저로 4차 웨이브 횡단면 가중값으로 하여 신규 개인들의 가중값을 부여한 후 가구원 평균 가중값을 가구 횡단면 가중값으로 활용하였다.

〈표 V-24〉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종단, 횡단면 가중치

가중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P04WGL	17,589,360.98	962.10	1,495.74	2,637.05
P04WGC	17,593,165.29	991.28	1,521.20	2,657.89

4차 웨이브 응답 개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분포와 달리 가중치의 산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IQR(interquarile range)의 값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경기지역의 산포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울, 인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대비 표본의 규모가 작아 가중치가 크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V-25〉 4차 웨이브 응답 개인의 횡단면 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 개인 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IQR
서울	754	3,820,040.52	3,056.33	3,896.31	5,733.70	2,677.37
부산	614	1,280,192.73	1,343.35	1,754.33	2,429.39	1,086.04
대구	412	889,235.62	1,239.12	1,814.21	2,711.03	1,471.91
인천	435	991,536.42	1,374.62	1,947.65	2,767.74	1,393.12
광주	354	527,778.92	930.99	1,202.62	1,587.20	656.21
대전	391	542,716.79	951.56	1,113.60	1,574.84	623.28
울산	332	379,019.98	790.58	923.30	1,376.20	585.62
경기	837	4,187,453.43	2,900.98	4,059.91	5,925.22	3,024.24
강원	381	503,923.02	811.59	1,099.48	1,482.05	670.46

시도	응답 개인 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IQR
충북	385	521,423.92	844.19	1,199.67	1,585.27	741.08
충남	467	693,959.11	924.81	1,192.85	1,665.90	741.09
전북	468	597,863.03	700.31	1,052.78	1,486.93	786.62
전남	504	560,101.95	590.94	879.68	1,220.13	629.19
경북	512	830,754.29	978.66	1,341.00	1,881.41	902.75
경남	581	1,085,260.77	1,235.42	1,743.41	2,239.91	1,004.49
제주	231	181,904.78	625.96	742.52	910.57	284.61

한편 4차 웨이브의 가구 횡단면 가중값의 지역별 분포는, 4차 웨이브에서 응답한 총 가구수는 6,928가구이며, 3차 웨이브의 9,329가구와 비교할 때 약 74.0%가 조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단, 신규가구는 제외).

지역별 가중치의 산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IQR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울, 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횡단면 가중치와 같이 상대적으로 해당지역의 가구들이 큰 가중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지역의 가구수에 비해 4차 웨이브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표 V-26〉 4차 웨이브 횡단면 가구 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가구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IQR
전국	6,928	18,206,327.66	1,266.32	1,884.07	3,142.96	1,876.64
서울	668	3,567,726.94	3,428.16	4,309.61	6,302.59	2,874.43
부산	536	1,283,001.63	1,621.83	2,096.48	2,884.62	1,262.79
대구	369	898,848.02	1,460.31	2,012.60	3,141.70	1,681.39
인천	379	982,810.96	1,641.82	2,256.48	3,167.37	1,525.55
광주	329	545,109.96	1,084.50	1,386.67	1,808.69	724.19
대전	333	567,655.99	1,225.20	1,425.08	1,973.24	748.04
울산	304	393,917.98	926.32	1,067.51	1,529.40	603.08

시도	응답가구수	합계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IQR
경기	748	4,123,072.15	3,440.80	4,740.18	6,751.07	3,310.27
강원	346	589,571.02	1,125.24	1,479.34	1,912.51	787.27
충북	348	594,291.01	1,118.35	1,559.05	2,024.87	906.52
충남	439	814,210.02	1,213.25	1,562.07	2,128.47	915.22
전북	414	686,108.06	982.52	1,395.22	1,955.00	972.48
전남	486	703,008.97	804.42	1,173.27	1,603.59	799.17
경북	494	1,051,309.03	1,299.25	1,779.90	2,509.35	1,210.10
경남	526	1,208,871.97	1,588.11	2,183.42	2,816.01	1,227.90
제주	209	196,813.95	767.45	901.82	1,059.01	291.56

## 다. 5차 웨이브 가중치 조정과정의 고려사항

### 1) 종단면 가중치

전술한 바와 같이 종단면 가중값은 응답 개인과 기록 개인에 대해 모두 산출되어야 하나 4차 웨이브에서는 기록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종단면 응답 개인 가중치로부터 공정 배분 방식에 의해 부여 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기록 개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가중치를 산출하지 않았다. 응답 개인의 종단적 의미는 가구를 대표한다는 가정 하에서 가구내 대표 가구원으로 고려하면, 이들로부터 기록 개인들의 종단면 가중값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차 웨이브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중치의 변동요인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횡단면 가중치

응답 개인 가중치로부터 조정된 기록 개인 및 응답 개인의 횡단면 가중치는 패널조사 연도의 인구 및 가구 추계수에 따라 조정된다. 종단면 가중치 조정과정에서 신규 가구원의 가중값이 0인 가구원에 대해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조사연도의 인구 및 가구 추계수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5차 웨이브에서는 이러한 과정으로 횡단면 가중치를 고려



하도록 한다.

### 3) 신규 가구 및 가구원 가중치

패널가구에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은 1차 웨이브에서 파악된 가구원은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되지만, 4차 웨이브에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은 0의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5차 웨이브에서도 4차 웨이브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가중치를 조정하게 된다.

### 4) 이상 가중치 조정

1차 웨이브 이후 응답확률을 추정하여 가중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패널의 탈락에 따른 응답확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가중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대되는 가중치 중 일부 층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여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상 가중치는 분산추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5차 웨이브 가중치 조정과정에서는 지난 차수의 종단면 가중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부여된 가중치는 적절히 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만 35세-39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인원』.
- 금재호(2014). “시간제근로자의 중요성과 노동시장 현황” 노동리뷰 109: 29-49.
- 김난주·이택면·강민정·박미연·안주희(201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김복순(2013). “여성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노동리뷰 103: 61-74.
- 김병조·김순영(1996). “한국의 여성 시간제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경제와사회 31: 159-178.
- 김세원·정익중(2012).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항목무응답과 단위무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3(3): 27-50.
- 김영옥(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이선행(2009).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여성가족패널 학술 심포지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2009).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예산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2009).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김양희·선보영·고상백(2006).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현황 및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유선(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분석 결과”. 통계청.
- 김지연(2012). “청소년 흡연 여부와 흡연량에 따른 자살관련 행동의 상관성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06). “성별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영향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유경·동제연·손현민(2014).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특성”.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14-1.
-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 박선영·김영옥·문유경·이택면·송치선(20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성현 외(2011).『고급SPSS 이해와 활용』. 한나래출판사.
- 박수미·김중숙·이택면·김승연·정세진·강석훈·김미령·Randall Jay Olsen(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미·이택면·김승연·정세진·강석훈(2007).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 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미·이택면·김승연·우원규·강석훈(2008).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규식(2011).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자!”. 노동리뷰 72: 7-14.
- 법제처.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_\_\_\_\_.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성재민(2014).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의”. 노동리뷰 111: 20-33.
- 손창균(2011). “패널자료의 종단적 결측패턴에 관한 실증분석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2011년도 추계대회 발표 논문집.
- 신경아(2013).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여성주의적 소고(小考)”. 페미니즘 연구 13(2): 121-141.
- \_\_\_\_\_(2014).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30(1): 81-112.
- 신선옥(2008).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태도에 면접원이 미치는 효과”. 노동리뷰 37: 74-82.
- 심영상·허명희(2002).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표본이탈에 대한 통계적 모형화 및 활용”. 응용통계 17: 31-46.
- 윤명숙(2011).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음주의 조절효과”. Mental Health & Social Work 38: 113-140.
- 이상영·김영택·김동식·김인순·배호중·차지영(2013).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원인과 원인분석 연구: 여성자살 특이성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상호(2005).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이탈 분석: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11: 74-82.
- 이상협·박찬용·정성석·최혜미(2011). “한국노동패널 탈락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1): 1-8.

- 이순미(2014). “가구생계부양 유형의 변화와 여성 내부의 계층화: 부부의 취업 지속성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0(2): 1-52.
- 이옥진(2013). “시간제 근로(Part-Time Jobs)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 적용 가능성과 결정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29(2): 135-53.
- 이원철(2006).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Ⅱ)』.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단.
- 이주희(2011).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72: 21-26.
- 이진경·옥선화(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 이택면·김승연·우원규·이주영·강석훈(2009). 『200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 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택면·주재선·김승연·강석훈·민현주(2010). 『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 보고서 및 심층 분석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택면·주재선·송치선·강석훈(2011). 『2011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3차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이환(2013).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 정이환·김영미·권현지(2012).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여성학 28(1): 147-81.
- 주재선·김영택·송치선·손창균·임찬수(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문유경·김영택·송치선·박건표·손창균·이건정(2013). 『2013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성혁·오창섭(2010).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공공·민간부문 기혼여성의 자녀수 비교”. 복지행정 논총 20(2): 119-142.
- 최은영(2012). “미국 시간제 근로의 특성과 여성고용에의 함의”. 한국여성학 28(2): 145-84.
- 한국감정원(201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한국고용정보원(2014). “2014년 6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브리프(2007~2014)”. 제1~15호.

- Ahn, Namkee, and Pedro Mira(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667-682.
- Beckett, S., William, G., Lee, L. and Finis, W(1988).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fter fourteen years : An evalu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472-492.
- Backlund, E. Solie, and Johnson. A(1999).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s of education and income with morta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9: 1373-1384.
- Blossfeld, Hans-Peter, and Sonja Drobnic(2001). *Careers of couples in contemporary societies: from male breadwinner to dual-earner famil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 Brinton, Mary C(2001). "Married Women's Labor in East Asian Economies." In Mary C. Brinton, ed.,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2009). *Incomplete Revolution*. Polity Press.
- Gornick, Janet C. and Marcia K. Meyers(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Fitzgerald, J., Gottschalk, P. and Moffit, R(1998). An analysis of sample attrition in panel data.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 251-299.
- Hill, D. H. and R. J. Willis(2001). Reducing Panel Attrition: A Search for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36(3): 416-438.
- Lillard, L. A. and Panis, C. W. A(1998). Panel attrition from the PSID.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 437-457.
- McDonald, Peter(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 427-440.
- McDaniel, Susan A(1996). "Toward a Synthesis of Feminist and Demographic Perspectives on Ferti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37(10): 83-104.
- Mead, H., Witkowski, K., & Gault, B(2001). "The Influence of Income, Education, and Work Status on Women's Well Being. *Women's Health Issues*." 11(3): 160-172.

- Morgan, S. Philip(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 589-604.
- Rindfuss, Ronald R., and Karin L. Brewster(1996). "Childb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258-289.
- Rindfuss, Ronald R., Karen Benjamin Guzzo and S. Philip Morgan(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5-6): 411-438.
- Ross C. E., Mirosky J(1995). "Does unemployment affect health?."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Ross, C. E, Wu C(1995). The links between education and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719-745.
- Williams, J(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Taek Kim(2004).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verweight and obesity of young cohorts: NLSY data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Zabel, J. E(1998). "An analysis of attrition in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d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with and application to a model of lab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 479-506.





## 부 록

〈부록 1〉 직업력 데이터 구축 과정	269
〈부록 2〉 출산력 데이터 구축 과정	283
〈부록 3〉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학술연구(2013~2014년 현황)	290





## <부록 1> 직업력 데이터 구축 과정

### 가. 직업력 데이터 소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직업력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력 데이터는 1차 웨이브 조사 시점에서 가졌던 직업에 대한 정보와 그 이후로 조사된 여성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4차 웨이브 조사의 직업력은 1차 웨이브 조사 시점에 여성 개인 응답자가 가졌던 직업 정보에서부터 4차 웨이브 조사 시점에 여성 개인 응답자(신규여성개인은 제외)가 가졌던 모든 직업 정보를 토대로 구축한다<sup>42)</sup>.

### 나. 직업력 데이터 파일 생성

#### 1) 직업력 데이터 구조

직업력 데이터는 개인의 직업력 자료를 기본단위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패널의 직업력은 시간에 따라 변경된 개인의 모든 직업을 포함하며, 포함된 누적정보와 더불어 관련된 모든 일자리 설문 관련 정보들이 직업력 데이터에 포함된다.

직업력은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 관련 정보변수로 구성된다. Key변수는 구성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로, 기존 데이터에서 각 차수에 공통으로 적용된 가구아이디(H01HHID~H04HHID)와 개인아이디(P100ID01~P400ID04)이다. 또한 결혼이나 독립 등의 분가로 인하여 가구아이디가 달라지는 경우 개인아이디도 달라지므로 변하지 않는 개인아이디(PID)를 생성하였다. 구성변수는 직업력 데이터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로써, 여성가족패널의 직업력 데이터는 jobwave, jobseq, jobnum, jo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 정보변수는 Key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의미한다. 이 중 직업력 데이터에서 구축하는 구성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본 패널은 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의 주요구조를 참고하여 구축하였다.

〈부표 1-1〉 직업력 데이터의 구성변수

구성변수	설명
jobwave	일자리 발견 차수이자,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를 의미함. 1차 웨이브 조사 일자리 : 1 2차 웨이브 조사 일자리 : 2 3차 웨이브 조사 일자리 : 3 n차 웨이브 조사 일자리 : n
jobseq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를 의미하며, 동일한 일자리가 지속된다면 동일한 값을 가짐. 즉, 개인이 가진 첫 번째 일자리는 '1'의 값부터 시작하고,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계속 '1'의 값을 유지하지만, 중간에 일자리가 변할 때마다 그 값이 늘어남. 따라서, jobseq를 통해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와 변화 횟수를 알 수 있음.
jobnum	일자리 번호를 의미함. 백단위는 조사차수, 십단위는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발견된 일련번호임. 예를 들면, 1차 웨이브 조사에 첫 번째로 발견된 일자리 : 101 2차 웨이브 조사에 첫 번째로 발견된 일자리 : 201 - 이 경우 1차 웨이브 조사에서 발견된 직업과 동일한 직업일 수도 있고, 1차 웨이브 조사에 직업을 그만두고 2차 웨이브 조사시 새로 얻은 직업일 수도 있으며, 2차에 진입한 신규패널원의 첫 번째 일자리일 수도 있음. 이 사항의 구분은 jobcens와 개인아이디를 통하여 알 수 있음.
jobnumc	jobnum로부터 생성되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번호를 의미함.
jobcens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 여부를 의미함. 이전 조사 시 보유, 현재 보유 일자리 : 1 이전 조사 시 보유, 현재 미보유 일자리 : 2 이전 조사 시 미보유, 현재 보유 일자리 : 3 이전 조사 시 미보유, 현재 미보유 일자리 : 4
jobtype	일자리 구분을 의미함. 임금근로자 : 1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2 비임금근로자(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3 비임금근로자(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5
jobclass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 여부 및 일자리 구분을 의미함.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1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2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3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4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5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6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7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8

구성변수	설명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9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10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 11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 12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조사 시 일자리용 설문 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시계열은 총 16개로 나누어지며 1차 웨이브 조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만 활용한다. 1차 웨이브 조사에서는 이전일자리와 주된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를 물어 보고 있지만, 이 질문은 신규응답자에게만 묻고 있고 직업력 구성에 필요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직업력 데이터 구축에는 제외되었다. 2차 웨이브 조사는 4개의 일자리 시계열 구조로 구성된다. 2차 웨이브 조사의 일자리 설문은 크게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와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로 구분되며,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는 최고 3개의 정보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차 웨이브 조사는 2차 웨이브 조사에 세 개의 직업을 동시에 유지한 패널원이 없었으므로,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2개만 응답하고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는 최고 3개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4차 웨이브 조사는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일자리’와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를 각각 최대 3개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부표 1-2〉 일자리 설문 구조 설명

조사 차수	설명	시계열
1차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 조사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1
2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일자리	2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첫 번째 일자리	3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두 번째 일자리	4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세 번째 일자리	5

조사 차수	설명	시계열
3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일자리	6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일자리	7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첫 번째 일자리	8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두 번째 일자리	9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세 번째 일자리	10
4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일자리	11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일자리	12
	지난 조사 시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일자리	13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첫 번째 일자리	14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두 번째 일자리	15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세 번째 일자리	16

## 2) 구성변수 생성

직업력 데이터의 구성변수인 jobclass, jobnum, jobnumc, jobseq, jobcen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일자리용 설문지에 나와 있는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확인 및 유지여부, 새로 생긴 일자리 수 및 유지여부, 각 일자리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조사에서 조사된 일자리와 이전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관련 문항에서 해당 일자의 유지여부 및 일자리 유형을 묻고 각 jobclass에 적합한 설문지에 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설문지 유형이 jobclass가 되며, 앞선 질문들과 이를 토대로 jobcens와 jobtype을 생성하였다. 한편 jobnum은 기존에는 조사순서로 순번이 매겨졌으나, 이번 차부터는 직업의 시작년월 순으로 순번을 매겼다.

〈부표 1-3〉 jobcens(일자리 지속여부)와 jobtype(일자리 구분) 생성

JOBCLASS	변수 내용	JOBCENS	JOBTYPE
1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1	1
2	이전 조사 당시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2	1
3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1	2 / 3 / 4
4	이전 조사 당시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2	2 / 3 / 4
5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1	5
6	이전 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2	5
7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3	1
8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4	1
9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3	2 / 3 / 4
10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비임금직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4	2 / 3 / 4
11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유지	3	5
12	이전 조사 이후 새로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일자리를 현재 그만둠	4	5

〈부표 1-4〉 jobnum(일자리 번호) 생성

변수 설명	값	비고
1차 조사 첫 번째 일자리	101	해당 직업이 기존 직업인지 신규 직업인지의 구분은 jobcens와 개인아이디를 통하여 알 수 있음.
2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201	
2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202	
2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203	
2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204	
3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301	
3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302	
3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303	
3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304	
4차 조사 시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401	
4차 조사 시 발견된 두 번째 일자리	402	

변수 설명	값	비고
4차 조사 시 발견된 세 번째 일자리	403	
4차 조사 시 발견된 네 번째 일자리	404	
1~4차 조사 시 일자리 변화 형태	000	

### 3) 정보변수 생성

정보변수란, Key변수(가구아이디, 개인아이디)에 대한 일자리 설문 응답 정보가 모두 포함된 변수를 말한다. 따라서, 직업력의 구성변수들을 구축한 후, 주제별로 공통변수 생성을 통해 정보변수를 생성한다. 이 정보변수를 통해 Key변수의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통변수명은 JOB으로 시작하며, 임금근로자는 W, 비임금근로자는 N,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S로 시작한다.

〈부표 1-5〉 정보 변수 생성

변수명	변수명 설명
jobstarty	[공통]일자리시작_연도
jobstartm	[공통]일자리시작_월
jobendy	[공통]일자리종료_연도
jobendm	[공통]일자리종료_월
job_ind	[공통]산업코드 대분류
job_occ	[공통]직업코드 대분류
jobsearch	[공통]구직활동유무
jobsearchm	[공통]구직활동기간_개월
jobroute_1	[공통]구직활동경로_1
jobroute_2	[공통]구직활동경로_2
jobget_1	[공통]구직방법_1
jobget_2	[공통]구직방법_2
jobinform_A	[공통]일자리정보경로

변수명	변수명 설명
WCSEL01	[임금]일자리구분(정규/비정규)
WCSEL03	[임금]정규직일자리전환희망여부
WCSEL06	[임금]일자리구분(전일제/시간제)
WCSEL08	[임금]전일제전환희망여부
WCSEL10	[임금]전일제전환비희망이유
WCSEL13	[임금]일자리구분(상용/임시/일용)(1차는 1, 2 구분 없이 1임)
WCKP	[임금]고용주요구에따라그만두어야하는지여부
WCTY	[임금]고용기간_년
WCTM	[임금]고용기간_개월
WCTR	[임금]고용계약갱신가능여부
WCSEL11	[임금]간접고용형태일자리여부
WCSEL12	[임금]실질적감독지시자
WCWD	[임금]주당평균근로일수(3,4차)
WCWH	[임금]주당평균근로시간(2차)
WCDH	[임금]하루평균근로시간
WCSAL01	[임금]급여지급기준
WCSAL04	[임금]한달평균급여
WCBE011	[임금]복리후생항목1 : 법정퇴직금_제공여부
WCBE012	[임금]복리후생항목1 : 법정퇴직금_본인혜택여부
WCBE021	[임금]복리후생항목2 : 누진퇴직금_제공여부
WCBE022	[임금]복리후생항목2 : 누진퇴직금_본인혜택여부
WCBE031	[임금]복리후생항목3 : 유급휴가_제공여부
WCBE032	[임금]복리후생항목3 : 유급휴가_본인혜택여부
WCBE041	[임금]복리후생항목4 : 생리휴가_제공여부
WCBE042	[임금]복리후생항목4 : 생리휴가_본인혜택여부
WCBE051	[임금]복리후생항목5 : 출산휴가_제공여부
WCBE052	[임금]복리후생항목5 : 출산휴가_본인혜택여부
WCBE061	[임금]복리후생항목6 : 병가(상병휴가)_제공여부
WCBE062	[임금]복리후생항목6 : 병가(상병휴가)_본인혜택여부



변수명	변수명 설명
WCBE071	[임금]복리후생항목7 : 육아휴직_제공여부
WCBE072	[임금]복리후생항목7 : 육아휴직_본인혜택여부
WCBE081	[임금]복리후생항목8 : 휴업보상_제공여부
WCBE082	[임금]복리후생항목8 : 휴업보상_본인혜택여부
WCBE091	[임금]복리후생항목9 : 상여금_제공여부
WCBE092	[임금]복리후생항목9 : 상여금_본인혜택여부
WCBE101	[임금]복리후생항목10 : 시간외 수당_제공여부
WCBE102	[임금]복리후생항목10 : 시간외 수당_본인혜택여부
WCBE111	[임금]복리후생항목11 : 성과급_제공여부
WCBE112	[임금]복리후생항목11 : 성과급_본인혜택여부
WCBE121	[임금]복리후생항목12 : 가족수당_제공여부
WCBE122	[임금]복리후생항목12 : 가족수당_본인혜택여부
WCBE131	[임금]복리후생항목13 : 직장보육시설_제공여부
WCBE132	[임금]복리후생항목13 : 직장보육시설_본인혜택여부
WCBE141	[임금]복리후생항목14 : 주택마련지원(융자등)_제공여부
WCBE142	[임금]복리후생항목14 : 주택마련지원(융자등)_본인혜택여부
WCBE151	[임금]복리후생항목15 : 자녀학자금지원_제공여부
WCBE152	[임금]복리후생항목15 : 자녀학자금지원_본인혜택여부
WCBE161	[임금]복리후생항목16 : 출산장려금_제공여부
WCBE162	[임금]복리후생항목16 : 출산장려금_본인혜택여부
WCBE171	[임금]복리후생항목17 : 보육비지원_제공여부
WCBE172	[임금]복리후생항목17 : 보육비지원_본인혜택여부
WCBE181	[임금]복리후생항목18 :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_제공여부
WCBE182	[임금]복리후생항목18 :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_본인혜택여부
WCBE191	[임금]복리후생항목19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_제공여부
WCBE192	[임금]복리후생항목19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_본인혜택여부
WCBE201	[임금]복리후생항목20 : 아버지육아휴직_제공여부
WCBE202	[임금]복리후생항목20 : 아버지육아휴직_본인혜택여부
WCBE211	[임금]복리후생항목21 : 의료비지원_제공여부

변수명	변수명 설명
WCBE212	[임금]복리후생항목21 : 의료비지원_본인혜택여부
WCIS11	[임금]4대보험1 : 고용보험_제공여부
WCIS12	[임금]4대보험1 : 고용보험_본인혜택여부
WCIS21	[임금]4대보험2 : 건강보험_제공여부
WCIS22	[임금]4대보험2 : 건강보험_본인혜택여부
WCIS31	[임금]4대보험3 : 국민연금_제공여부
WCIS32	[임금]4대보험3 : 국민연금_본인혜택여부
WCIS41	[임금]4대보험4 : 산업재해보험_제공여부
WCIS42	[임금]4대보험4 : 산업재해보험_본인혜택여부
WCLO	[임금]직장의위치
WCKD	[임금]직장의종류
WCEMP	[임금]사업체직원수
WCUNI01	[임금]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조직결성여부
WCUNI02	[임금]노조및대표조직가입여부
WCUNI03	[임금]일반노조가입여부
WCST	[임금]왕복출퇴근시간(단위 : 분)
WMCHA	[임금]향후이직의향
WMCAJ01	[임금]이직희망일자리_1순위
WMCAJ02	[임금]이직희망일자리_2순위
WMSTAB	[임금]창업의향
WMHI	[임금]희망하는월평균수입
WRED01	[임금]그만둔이유
WRED02	[임금]그만둔구체적이유
WROUT01	[임금]퇴직금수령여부
WROUT02	[임금]실업급여신청여부
WROUT03	[임금]실업급여수급여부
WROUT04	[임금]실업급여미신청이유
NCEMP01	[비임금]본인을포함한종사자수
NCEMP02	[비임금]보수를받고일하는사람수

변수명	변수명 설명
NCREG01	[비임금]사업체명일자_1
NCREG02	[비임금]사업체명일자_2
NCOWN01	[비임금]사업체경영자_1
NCOWN02	[비임금]사업체경영자_2
NCWD	[비임금]주당평균근로일수
NCDH	[비임금]하루평균근로시간
NCINC	[비임금]월평균수입
NCCRIS01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1
NCCRIS02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2
NCCRIS03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3
NCCRIS04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4
NCCRIS05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5
NCCRIS06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6
NCCRIS07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7
NCCRIS08	[비임금]사업체에서겪은어려움_8
NMOWNER01	[비임금]사업체지속경영의향
NMOWNER02	[비임금]다른사업이나취업을할의향이있는지여부
NMOWNER03	[비임금]다른사업을한다면희망하는사업
NRED01	[비임금]그만둔주된이유
NFwker01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1
NFwker02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2
NFwker03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3
NFwker04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4
NFwker05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5
NFwker06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6
NFwker07	[비임금]일자리에서겪은어려움_7
NMCHA	[비임금]타사업체에서일할의향
NMCAJ	[비임금]희망하는일자리
NMHW	[비임금]희망하는월평균임금

변수명	변수명 설명
NMSTAB01	[비임금]이사업체대신창업의향
NMSTAB02	[비임금]창업하고자하는일
NMSTAB03	[비임금]희망하는월평균수입
NRED02	[비임금]그만둔주된이유
SCWD	[특수]주당평균근로일수(3,4차)
SCWH	[특수]주당평균근로시간(1,2차)
SCDH	[특수]하루평균근로시간
SCINC	[특수]월평균소득
SCIS11	[특수]4대보험1 : 고용보험_제공여부
SCIS12	[특수]4대보험1 : 고용보험_본인혜택여부
SCIS21	[특수]4대보험2 : 건강보험_제공여부
SCIS22	[특수]4대보험2 : 건강보험_본인혜택여부
SCIS31	[특수]4대보험3 : 국민연금_제공여부
SCIS32	[특수]4대보험3 : 국민연금_본인혜택여부
SCIS41	[특수]4대보험4 : 산업재해보험_제공여부
SCIS42	[특수]4대보험4 : 산업재해보험_본인혜택여부
SCCHAR01	[특수]일자리 특성_1
SCCHAR02	[특수]일자리 특성_2
SCCHAR03	[특수]일자리 특성_3
SCCHAR04	[특수]일자리 특성_4
SCCHAR05	[특수]일자리 특성_5
SCEMP	[특수]사업체내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SCUNI01	[특수]사업체내노동조합결성여부
SCUNI02	[특수]노동조합가입자격여부
SCUNI03	[특수]노동조합가입여부
SCUNI04	[특수]노동조합가입희망여부
SCUNI05	[특수]노동조합결성시가입의사
SCUNI06	[특수]일반노조가입여부
SMSPE01	[특수]향후일자리지속여부

변수명	변수명 설명
SMSPE02	[특수]일자리지속의향
SMSPE03	[특수]창업이나이직의향
SRED01	[특수]그만둔이유
SRED02	[특수]그만둔주된이유

#### 4) 데이터 변환 및 통합

본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일자리용 데이터 1차, 2차(기준), 2차(신규), 3차(기준), 3차(신규), 4차(기준), 4차(신규)이다. 변수 선정과 각 차수 간 변수명을 통일시킨 후, SPSS trans 명령어를 이용하여 횡단면 형식의 데이터를 종단면 형식으로 변환하면, 개인응답자가 전체 조사기간 동안 어떠한 일자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된다.

#### 다. 직업력 데이터 예시

예시를 통해 직업력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표 1-6〉 직업력 데이터 예시

pid	jobwave	jobclass	jobtype	jobcens	jobnum	jobnumc	jobseq
580003	1	11	5	3	101		1
580003	2	5	5	1	201	101	1
580003	3	6	5	2	301	201	1
580003	3	7	1	3	302		2
580003	4	1	1	1	401	302	2

- PID : 동일 PID를 보이므로 응답자는 PID 580003인 동일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jobwave : PID 580003인 응답자는 1~4차까지 조사에 응답해준 것을 알 수 있고, 해당 조사 차수에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인 것을 알 수 있다.
- jobnum : jobnum를 보면, 101, 201, 301, 302, 401의 값을 가지므로, 이 응답자는 3차에는 두 개의 일자리가 조사되었고, 나머지 차에서는 하나의 일자리가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jobseq : jobseq를 보면, 1, 2의 값을 가지므로, 이 응답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번의 일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jobcens : jobcens를 보면, 1차에 조사된 일자리를 2차까지 유지 했으나, 3차에 그만둔 것을 알 수 있고, 3차 조사 이전에 그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여 4차까지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 jobtype : 이 응답자는 1차부터 3차 조사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로 일했다가 3차에서 조사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4차 조사시점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jobclass : jobclass를 통해 jobcens와 jobtype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1차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고 1차 조사 시점까지 유지하였다. 2차에는 1차 때 조사된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3차에는 2차에 조사된 직업을 그만두었다. 또한 임금직종에 새로 취업하여 3차 조사 시점까지 유지하였으며, 4차에는 3차 때 조사된 직업을 그대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 라. 직업력 데이터 파일합치기 예시

직업력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업력 변수 이외의 다른 정보변수들을 사용해야할 때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 파일과 직업력 파일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파일끼리 연결해주는 역할인 기준변수가 필요하다. 기준변수는 주로 개인아이디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직업력의 4차의 직업과 관련된 변수와 4차의 개인설문지의 변수를 합치기 위해서는 4차에 사용된 개인아이디인 P400ID04를 기준변수로 쓰는 것이다.

해당하는 두 파일을 기준변수를 오름차순하여 정렬을 한 후, 직업력파일에 붙을 정보가 있는 파일에 기준변수들 값 중 중복되는 값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작성하여 시행하면 된다.

명령문	설명
***인적사항 붙이기***  sort cases by (기준변수). match files /file=* /table='D:\(경로)\(붙일정보가있는파일).sav' /by (기준변수).	: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 직업력파일이 명령문의 대상이 된다. : 변수를 가져올 파일을 지정한다. : 기준변수를 기준으로 붙임을 설정한다.

## <부록 2> 출산력 데이터 구축 과정

### 가. 출산력 데이터 소개

2012년도에 조사된 여성가족패널 4차 웨이브 조사의 출산력 데이터는 1차 웨이브 조사부터 4차 웨이브 조사까지의 여성개인응답자의 출산(임신결과) 경험을 추적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여성가족패널의 출산력 데이터의 경우 3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임신 중’인 상태를 임신횟수에 포함하고 있으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는 2회 임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산력 데이터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출산력 데이터에는 총 3건의 쌍둥이 출산이 있으며, 이들은 출산년월이 동일한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1차 웨이브 조사부터 4차 웨이브 조사까지의 임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2차 웨이브 조사 전까지 첫 번째 자녀를 임신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는 모두 267명이며,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5명으로 나타났다.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3차 웨이브 조사 전까지 첫 번째 자녀 임신 경험에 응답한 자는 모두 273명이며, 두 번째 자녀 임신경험에 응답한 자는 모두 8명이다.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첫 번째 자녀를 임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162명이며,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5명으로 나타났다.

매 임신마다 임신결과 변수를 제시하였으며, 임신결과 변수에 ‘임신 중’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응답을 한 경우 응답자의 응답이 있는 연월, 성별 그리고 모유수유여부 변수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응답자연령과 남편의 연령은 임신결과가 나타난 시점의 연령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확인되지 않는 연령은 조사 응답 시 연령으로 작성되어 있다.

### 나. 출산력 데이터 생성 과정

출산력 변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표 2-1〉 출산력 변수 설명

변수명	설 명	비 고
H01HHID	[1차 웨이브 조사] 가구패널ID	
P01PPID	[1차 웨이브 조사] 개인패널ID	
H02HHID	[2차 웨이브 조사] 가구패널ID	
P02PPID	[2차 웨이브 조사] 개인패널ID	
H300HHID	[3차 웨이브 조사] 가구패널ID	
P300ID03	[3차 웨이브 조사] 개인패널ID	
H400HHID	[4차 웨이브 조사] 가구패널ID	
P400ID03	[4차 웨이브 조사] 개인패널ID	
wave	조사차수	1 : 1차 웨이브 2 : 2차 웨이브 3 : 3차 웨이브 4 : 4차 웨이브
index	조사차수 별 자녀 출생 순서	1 : 2차 웨이브 조사 첫 번째 자녀 임신 2 : 2차 웨이브 조사 두 번째 자녀 임신 3 : 3차 웨이브 조사 첫 번째 자녀 임신 4 : 3차 웨이브 조사 두 번째 자녀 임신 5 : 4차 웨이브 조사 첫 번째 자녀 임신 6 : 4차 웨이브 조사 두 번째 자녀 임신
fe_age	응답자 현재 연령	
momedu	응답자 최종학력 (이수결과반영)	1 : 중학교 졸업 이하 2 : 고등학교 졸업 3 : 2/3년제 대학 졸업 4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momedu_1	응답자 학력	1 : 무학 2 : 초등학교(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실업계) 5 : 고등학교(인문계) 6 : 2/3년제 대학 7 : 4년제 대학 8 : 대학원 석사과정 9 : 대학원 박사과정
momedu_2	응답자 학교이수여부	1 : 졸업 2 : 수료 3 : 중퇴

변수명	설 명	비 고
		4 : 재학 중 5 : 휴학 중
momjob	응답자 일자리 유무	
momjobclass	응답자 직업분류	1 : 관리자 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 사무 종사자 4 : 서비스 종사자 5 : 판매 종사자 6 : 농업어업 축련 종사자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 단순노무 종사자 10 : 군인
jobstatus	응답자 종사상 지위	1 : 임금근로자 2 : 비임금근로자_고용주 3 : 비임금근로자_자영자 4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5 :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6 : 특수고용직
merry	응답자 혼인상태	
eduyear	응답자 교육년수	
preg_seq	임신헌수	(1) 2차 웨이브 조사결과 중 '임신 중' 응답결과 순서에 미포함. 3차 웨이브 조사결과부터는 '임신 중'을 순서에 포함. (2) 쌍둥이는 2회 임신으로 처리 따라서 출산년도와 월이 1회와 2회가 동일함.
outpreg	임신결과	1 : 출생 2 : 사산 3 : 자연유산 4 : 인공유산 5 : 임신 중 (4차 웨이브만 해당)
cbyear	출산(임신결과)_년도	
cbmonth	출산(임신결과)_월	
momage	출산(임신결과) 당시 응답자 연령	(1) 응답자연령 = 임신결과년도 - 면접응시 년도 + 면접 시 응시자연령 (2) 출산년도, 면접응시년도를 고려하여 출산 당시 응답자 연령을 산정함.
husage	출산(임신결과) 당시 남편 연령	(1) 남편연령 = 임신결과년도 - 면접응시년도 + 면접시 남편연령

변수명	설 명	비 고
		(2) 출산년도, 면접응시년도를 고려하여 출산 당시 응답자 연령을 산정함.
pregyear	임신시점_년	
pregmonth	임신시점_월	
babysex	출산아 성별	1 : 남자 2 : 여자
lacta	모유수유 여부	1 : 예 2 : 아니오
childnum	총 자녀수	
childnum_1	같이 살고 있는 미취학자녀수	1 : 1명 2 : 2명 3 : 3명 4 : 4명 5 : 5명 6 : 6명 이상
childnum_2	같이 살고 있는 초·중·고자녀수	1 : 1명 2 : 2명 3 : 3명 4 : 4명 5 : 5명 6 : 6명 이상
childnum_3	미혼 성인자녀수	1 : 1명 2 : 2명 3 : 3명 4 : 4명 5 : 5명 6 : 6명 이상
childnum_4	기혼 성인자녀수	1 : 1명 2 : 2명 3 : 3명 4 : 4명 5 : 5명 6 : 6명 이상
planbaby	자녀 출산계획 유무	1 : 있다 2 : 없다 3 : 모르겠다
whenbaby	자녀 출산계획 시기	1 : 1년 이내 2 : 1-2년 사이에 3 : 2년 이후
nbabyplan	향후 고려하는 자녀 수	1 : 1명 2 : 2명

변수명	설 명	비 고
		3 : 3명 4 : 4명 5 : 5명 6 : 6명 이상
hu_age	남편 연령	
hu_edu	남편 학력	1 : 무학 2 : 초등학교(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실업계) 5 : 고등학교(인문계) 6 : 2/3년제 대학 7 : 4년제 대학 8 : 대학원 석사과정 9 : 대학원 박사과정
hu_eduyear	남편 교육년수	
hu_job	남편 일자리 유무	1 : 있다 2 : 없다
hu_ind	남편 일자리 업종	산업분류
hu_occ	남편 일자리 직종	1 : 관리자 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 사무 종사자 4 : 서비스 종사자 5 : 판매 종사자 6 : 농업어업 축련 종사자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 단순노무 종사자 10 : 군인
hu_jobstatus	남편 일자리 구분	1 : 임금근로자 2 : 비임금근로자 3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4 :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5 : 특수고용직근로자
hu_worktime	남편 일자리 하루 평균 근로시간	하루평균 근로시간
hu_wage	남편 월평균 소득	
parents	본인부모님 동거여부	1 :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2 :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 3 : 둘 다 아니다

변수명	설 명	비 고
lawparents	남편부모님 동거여부	1 :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2 :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 3 : 둘 다 아니다
housetype	주택유형	1 : 단독주택 2 : 아파트 3 : 연립주택(빌라 포함) 4 :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 5 :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6 : 오피스텔 7 :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8 : 기타
occu	점유형태	1 : 자가 2 : 전세 3 : 보증금 있는 월세 4 : 보증금 없는 월세 5 : 사글세 6 : 무상 및 기타
hincome	가구소득	
houtcome	가구소비	

## 다. 데이터 구조 이해를 위한 예시

〈부표 2-2〉 출산력 데이터 예시

P03PPID	Index	mom age	preq _seq	cb year	cb month	out preg	baby sex	lacta
2602	1	25	1	2008	1	1	1	1
2602	3	27	2	0		5		
115845	2	38	1	2009	5	1	2	1
222222	3	30	1	2010	2	1	1	1
222222	4	30	2	2010	2	1	2	1

응답자 2602의 경우, 2차 웨이브 조사 첫 번째 자녀(Index)와 3차 웨이브 조사 첫 번째 자녀(Index)를 출산한 응답자로서 1차 웨이브 조사와 2차 웨이브 조사 사이의 기간 동안 1회 출산 및 2차 웨이브 조사와 3차 웨이브 조

사 사이의 기간 동안 자녀 1명을 임신 중이며 총 횟수(Pre\_seq)가 2가 된다. 3차 웨이브 조사는 아직 출산이 완료되지 않아 출산 연(cbyear) 월(cbmonth)은 표시되지 않는다.

응답자 115845의 경우, 2차 웨이브 조사에서 첫 번째 자녀(Index)를 낳을 당시의 나이(result\_momage)는 38세이며 2009년(cbyear) 5월(cbmonth)에 여아(babysex)를 출산하였으며, 모유수유를 했음(lacta)을 보여준다.

응답자 222222의 경우, 임신횟수(preg\_seq)변수 값 1과 2는 2차 웨이브 조사 이후 3차 웨이브 조사 사이의 기간 동안 2회의 임신을 했음을 알려주며, 임신결과(outpreg) 변수 값 1은 두 번의 임신 결과 모두 출산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임신결과 연도(cbyear)와 임신결과 월(cbmonth) 변수값이 두 번의 출산 모두 동일하므로 쌍둥이 출산임을 알 수 있다. 자녀 성별(babysex)을 확인한 결과 각각 1과 2로 이란성 쌍둥이임을 알 수 있다.

### <부록 3>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학술연구 (2013~2014년 현황)

1	제목	기혼여성의 직업 이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rried Women's Job Mobility	저자	오은진, 이한나
	학술지	아시아여성연구 제52권 1호 (2013년 5월) p.133~161 1225-9241 KCI		
	발행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	제목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저자	정은희, 최유석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1호 (2013년 3월) p.5~34 1226-072X KCI		
	발행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제목	제3절 지역사회건강조사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수 및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Birth Rate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저자	김수정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제37집 2호 (2013년 8월) p.103~134 1225-9993		
	발행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제목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이지선, 최영훈
	학술지	한국사회복지교육 제 23집 p.121~147 1738-706X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5	제목	직장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with Job: Verification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ehold Labor Division Satisfaction.	저자	송진영, 황치정
	학술지	상황과복지 제40호 p.118~148 1229-280X KCI후보		
	발행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6	제목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 on Married Women's Fertility Intention	저자	송현재, 김지영
	학술지	재정정책논집 15권 1호 시작쪽수 p.3 전체쪽수 p.25 1738-2831 KCI		
	발행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7	제목	영유아기 손자녀를 둔 조모의 양육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Grandmothers' Care Support	저자	박효진, 박소영
	학술지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7집 (2013년 4월) p.227~246 1226-6795 KCI		
	발행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	제목	일반논문 : 2013 봄 ; “일과 삶 균형” 정책과 정책 부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mpacts of WLB Policies and Policy Congru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Comparing Public-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저자	김선아, 김민영, 김민정, 박성민
	학술지	한국행정학보 47권 1호 시작쪽수 p.201, 전체쪽수 p.37 1226-2536 KCI		
	발행정보	한국행정학회		
9	제목	한국사회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결정요인 : 배우자간 소득자원분포의 영향을 중심으로 (The)determinant of work-family conflict in women worker in Korea : focused on income resource distribution	저자	조막래
	학술지	학위논문(박사)		
	발행정보	전북대학교, 2013년, 사회복지학과		
10	제목	미혼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연구 : 결혼의향을 중심으로	저자	이연정
	학술지	학위논문(석사)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2013년, 응용경제학과		
11	제목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개인-조직-정책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저자	정미연
	학술지	학위논문(석사)		
	발행정보	이화여자대학교, 2013년, 행정학과		
12	제목	출산간격 결정요인	저자	김현경
	학술지	학위논문(석사)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2013년, 경제학과		
13	제목	한국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관한 연구	저자	Kobayashi Mari
	학술지	학위논문(석사)		
	발행정보	서울대학교, 2013년		



14	제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 여성가족패널을 중심으로	저자	강민지
	학술지	학위논문(석사)		
	발행정보	서울대학교, 2014년		
15	제목	시부모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패널을 중심으로 Factors Contributing to Conflicts between Daughters-in-Law and Parents-in-Law	저자	박소영, 조성희
	학술지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3호 (2010. 9) p.5~26 1229-4713 KCI		
	발행정보	한국가족복지학회, 2010년		
16	제목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or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	저자	최원석, 이진숙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1호 p.299~327 1226-072X KC		
	발행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7	제목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Female Workers' Stress from Nurturing with Preschool Children	저자	임종호
	학술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132~143 1598-4877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4		
18	제목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정규직 이행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Shifting Contingent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to Permanent Employment Position	저자	김승완, 정상희
	학술지	국가정책연구 28권 2호 시작쪽수 p.27, 전체쪽수 p.23 1229-1862 KCI후보		
	발행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 **Abstract**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2014 Annual Report**

Jae -seon Joo  
You -kyung Moon  
Young -taek Kim  
Yeon -gyu Lim  
Chang -kyoon Son  
Eun -joo Cho  
Eun -sue Ka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KWDI) has been conduct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KLoWF), which is a nationwide panel research in order to figure out women's lives and family structures and changes since 2006. The survey is to trace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 and value, changes in family typ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and changes in ev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including changes in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and job experience in women's life cycle.

The subjects of KLoWF are original sample households from the first wave survey and qualified members of households of 19 to 64 years old,

and also split-off households formed after the first wave survey and qualified members of split-off households. The qualified member of split-off household is included as a subject of the survey only when he or she is living with the qualified member of the original household according to the tracing principle of split-off household.

The subjects of fifth wave survey are 11,234 female qualified members from 9,483 households of fourth wave survey and split-off households and qualified members of split-off households of fifth wave survey. On a close view, the number of subject households are the sum of the original 9,068 households from the first wave survey, 100 split-off households from the second wave survey, 161 split-off households from the third wave survey, 154 split-off households from the fourth wave survey. The trace research is followed with split-off households from the fifth wave survey as the subjects. The individual subjects are 10,442 female members between 19 to 64 years old who are in the original eligible households from the first wave survey and the new qualified members after the second wave survey who live with the qualified members from the first wave survey.

The subject households for panel management of the fifth wave survey are the sum of 9,477 households and split-off households from the fifth wave survey. And the subject households for panel management in 2014 are the total of 11,791 persons.

The subjects of the fourth wave survey are 11,234 female qualified members of households between 19 to 64 years old from 9,483 households, and 6,737 households are the final respondents which shows 75.2% of persistency rate compare to the original eligible households(9,068). The fifth wave survey is now in progress aiming 72.0%.

The major research results of this year are as following.

First, longitudinal data cleaning was done for the fourth wave survey of KLoWF and the additional data was opened to public. At the same time, machining variable(job sequence, fertility) was produced additionally for researchers who use the panel data, and code book of data changed by unification of variables was written and questionnaire was examined. Also, Data merged file with high degree of usage is provided and code from the first to fourth survey was tagged in the fourth survey questionnaire. The result went public for presenter of the fourth KLoWF academic conference(26th September), and other researchers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who use the KLoWF data to make good use of it.

Second, the fifth wave's main survey was conducted.

The CAPI program "Blaise" license was renewed to implement the main survey, and also 5th wave questionnaires content was rechecked by conducting advisory council. And training for interviewer was held in order to guarantee the quality of KLoWF. The subject households for panel management of the fifth wave survey are the sum of 9,477 households and split-off households from the fifth wave survey and 11,791 qualified members of households and the new qualified members of households.

Third, the fourth KLoWF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KWDI has been held the event to be of help to share record of researches and seek for policy plan as well as broad use of KLoWF since 2008, and the fourth was KLoWF academic conference held in 2014. The conference was composed of 9 parts which cover broad topics related to women's general lives including women's job, marriage, childbirth, nurture, mental health, health, and etc. There was also presentation of 28

articles including articles from graduate school student thesis competition.

Fourth, analysis report on longitudinal and in-depth analysis of KLoWF was published.

The feature and economic condition of KLoWF household was analysed reflected by longitudinal weighted value of the first to fourth wave survey in this report. Demographical feature and domestic life, family relationship, health condition, job condition and etc of individual female respondent were analysed as well. Also, non-regular female worker's career discontinuity before and after marriage and childbirth, married women's changing job and leaving the labour market, women's social economic status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women's special health condition and health care, panel's leaving the KLoWF. and how to give weighted value to the fourth wave survey were profoundly analysed.

KLoWF is a long-term and regular longitudinal survey on women as a group by the distinction between sexes and has its significance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past and present about family and social background of an individual woman. Moreover, it makes it possible to practically analyse the main issues raised by women's entry in work society such as work-family compatibility,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childcare problems, family friendly policies and etc. It is expected that it will mak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 women's lives and gender equality possible. Researches using this data will function as observation of women's life and an essential data to work out women and family policy.

2014 연구보고서-15

---

## 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

2014년 12월 29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인쇄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669-2 93330

<정가 14,000 원>